베델교회
45년사
1976~2021
BETHEL CHURCH
베델교회

사명은 여전히 남는 교회

김한요 목사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구속사 redemptive histor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중동의 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반세기를 지나는 베델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 작업 역시 단순히 한 지교회(a local church)의 과거의 일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이민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움직임을, 작게는 남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는 그 처음 초석을 놓는 순간부터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으며,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베델교회 45주년 역사 편찬]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조명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세월이었음을 온 성도들이 같이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책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45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서 오늘의 사명과 내일의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45주년을 준비하는 1년여 전부터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부흥하던 교회가 뒤로 후진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문을 1년 넘게 닫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 내일에 대한 좌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45년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45년을 돌아볼 수 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살피며, 우리 베델은 오늘의 사명을 일깨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를 45년, 그러나 사명은 여전히 남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베델 역사 편찬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 이하 모든 소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팬데믹 끄트머리에서 **김 한 요** 목사

100주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한성 목사

베델교회 창립 45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사무엘상 7:12)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돌아보고, 오늘날의 베델교회로 성장하기까지를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곧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 28:19-20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겠지요.

1976년 9월 5일, 이후 베델교회의 첫 모임 장소가 되었던 Laguna Hills 소재 Geneva Presbyterian Church에서 한국 선명회 선교 합창단을 초청하여 음악예배를 열었던 당시 직장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했던 윤용오 목사님이 예배 참석 중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에 순종함으로써 베델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6년 9월 12일 1대 윤용오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정기예배가 시작되었고, 1977

년 9월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교단에 가입, 조직교회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윤용오 목사님의 임기 중 예배 처소를 6회 이전하면서 오순절적 체험이 있었고, 현재 교회 장소 확보의 근간이 되었던 IWC(Irvine Worship Center) 가입과 교회 대지 확보, 17명의 신학생 배출, 은혜교회의 시작, 교단을 통한 일본 선교사 파송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2대 백태현 담임목사님의 임기 동안, 성령강림으로 어수선했던 교회 분위기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구입한 대지 위에 교회당을 건축하였으나 급성장하는 교인 수에 비해 예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3대 손인식 담임목사님의 임기 중 베델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당시 4개 교회가 공동소유했던 IWC의 2개 교회 소유 분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지분을 분리 소유함으로, 건물 증축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말씀과 더욱 다양화된 양육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한 건물들이 속속 증축됨으로써 베델교회는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손인식 목사님은 정년 은퇴로 임기를 마치고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4대 김한요 목사님이 취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행 1:8 말씀 위에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를 외치시며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베델교회의 창립 45주년 축하의 글을 쓰면서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에는 저의 육신의 때는 끝나고 저의 영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날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문안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른 후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베델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역동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인간은 죽고 사라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좋은 날, 주님의 이름으로 45주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눈물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도들께 베델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섬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보내심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자 이 교회를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전 인류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삽시간에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포에 눌려 있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30) 하신 베델로부터 흘러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음파를 통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거침 없이 전달되며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베델에 내리신 큰 축복이라 믿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복음 증거의 일들과 새로운 사역들을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김한요 목사님과 목회진, 제직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목회가 더욱 개발되고 발전되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힘차게 전파되는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쓰

여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델교회의 영광스러운 45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 드립니다!

베델교회여!

당신의 45주년 생일을 축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세우신 당신은
황무지와도 같았던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San Diego Creek 갯벌에 자리를 잡더니
45년이 지난 오늘 아름답게 변모된 어바인 땅에서 어머니의 품 속 같은 포근한 모습으로 오고 가는 방문자와 유학생들과 외로운 나그네들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계 도처로 파송 하였으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귀한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워 양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때에 맞추어 아름다운 주의 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니
당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델교회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더 큰 열정과 사명감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유 한 성 목사

Contents

머리말 2

축하의 글 4

Chapter 1 _ 베델의 역사

1. 베델교회 45년 성장의 역사 12
2. 설립, 이전, 건축의 역사 24
3. 연도별 담임목사 권두언으로 본 교회 역사 33

Chapter 2 _ 베델의 사역들

1. 예배와 말씀 사역 42
2. 양육 사역 58
3. 영성 사역 65
4. 교육 사역 72
5. 선교 사역 89
6. 봉사 사역 98
7. 미디어 사역 111

Chapter 3 _ 베델에 바라는 교회의 미래

1. 미래를 준비하는 베델교회 124
2. 2세 교역자 128
3. 평신도들 142
4. 편집부 종합 158

Chapter 4 _ 회고 및 간증

1. 교회성장과 신앙생활 간증 164
2. 교회 건축역사 간증(성전 및 교육관 건축 관련 간증 및 설명) 181
3. 예배와 경배 사역 간증 189
4. 양육 사역 간증 211
5. 교회학교 사역 간증 231
6. 특별 교육 프로그램 사역 간증 260
7. 선교 사역 간증 278
8. 봉사 사역 간증 321
9. 미디어 사역 간증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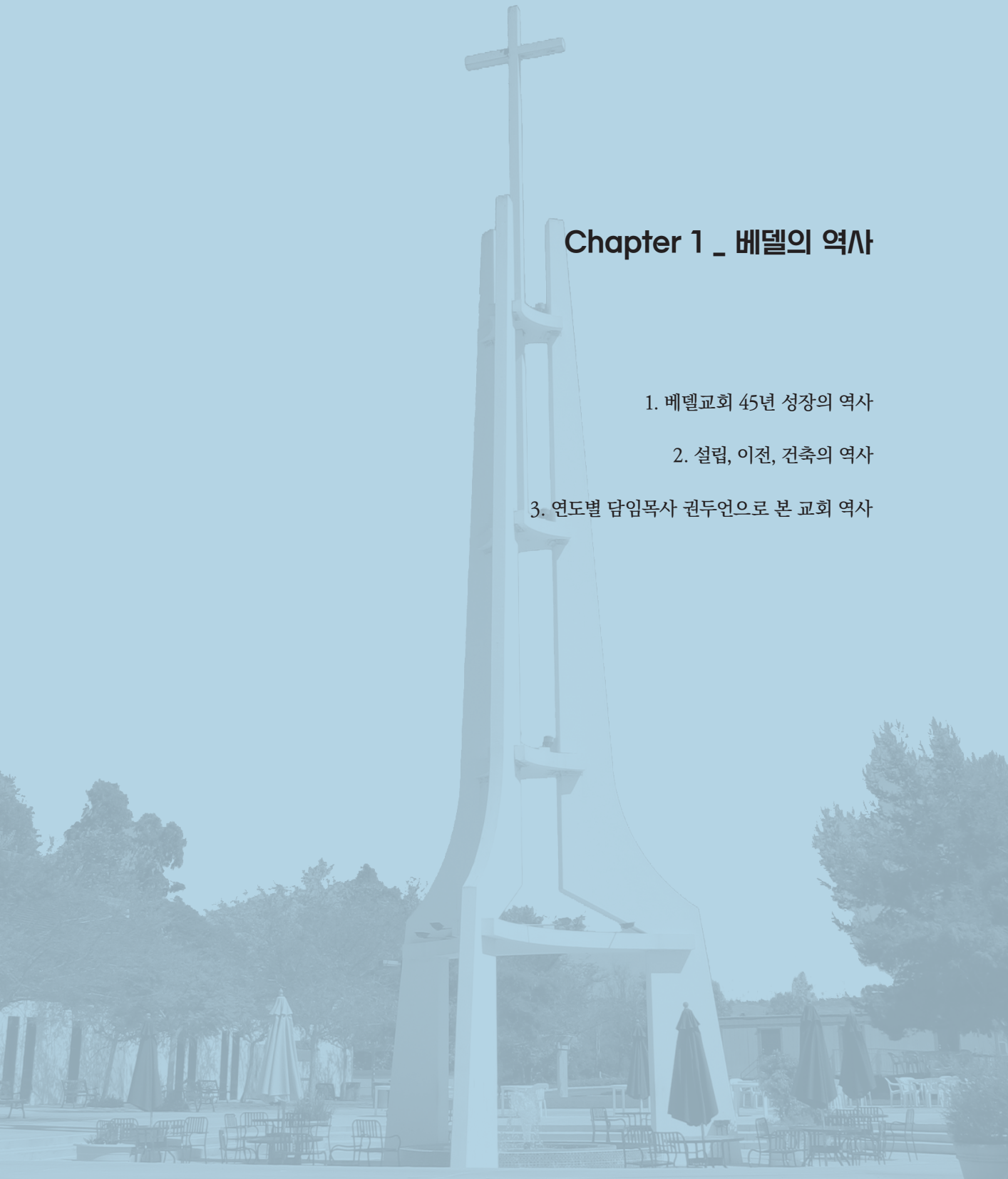
Chapter 5 _ 화보 351

Chapter 6 _ 교회 연혁 및 통계

1. 교회 연혁 416
2. 평신도 모임의 역사(구역 및 셀 모임) 462
3. 교회 설립, 이전 및 성전의 변천사 484
4. 교회 성장의 통계 495

Chapter 7 _ 기타 관련 자료 및 참고문헌

1. 베델교회 연도별 교회 요람표지(연중 목회 구호) 500
2. 베델교회 역대 주제곡 504



Chapter 1 _ 베델의 역사

1. 베델교회 45년 성장의 역사

2. 설립, 이전, 건축의 역사

3. 연도별 담임목사 권두언으로 본 교회 역사

1. 베델교회 45년 성장의 역사

베델, 하나님의 집

1970년대 초, 고국을 떠나 미국, 특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지역으로 이민 온 신앙인들은 모국어인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한국인교회를 찾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미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했다.

제1기 준비기 _ 초대 베델교회 목회

1976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윤용오 목사는 선명회 합창단의 순회공연을 보기 위해 꽤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며 '아! 여기에 교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용기를 내어 오렌지 카운티 남쪽에 흩어져있는 한국인들을 모아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중 마침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유한성, 김광신, 김충모, 김동백 등 여러 장로들이 담임목사를 찾고 있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1976년 9월 12일 Laguna Hills의 Geneva Presbyterian Church에서 3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린 것이 베델교회의 탄생이 되었다. '벧엘(Beth El)'이 아닌 '베델(Bethel)'로 이름을 붙인 것은 언어학자인 김광신 장로(당시)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겨울을 견딘 씨앗이/한 줌 햇볕을 빌려서 눈을 떴다/아주 작고 시시한 시작/
병아리가 밟고 지나도 뭉개질 것 같은/입김에도 화상을 입을 것 같은/
도대체 훗날을 기다려/꽃이나 열매를 볼 것 같지 않은/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어떤 꽃이 필지 짐작도 가지 않는.."
(공광규 '새싹' 중)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된 베델교회, 과연 새싹처럼 자라 꽃이 필까? 열매를 맺을까? 1, 2년 지나 사라질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릴 교회당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기 6번 만에 마침내 어바인, 현재 교회당 자리의 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남가주의 부자인 Irvine

Company가 어바인 시에 Worship Center의 목적으로 부지를 기부하였고, 윤용오 목사와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모에 응한 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선택되어 미국인 교회, 중국인 교회 등 다른 4개의 교회와 힘을 합하여 IWC(Irvine Worship Center)를 구성, 17에이커의 대지를 각각 분할, 분배 받았기 때문이다.

초대 윤용오 목사는 1982년 5월 건강상 사유로 사임하고, 11월 2대 백태현 목사가 부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1985년 교회 헌당을 하게 되어 '베델 한인교회(Bethel Korean Church)'로 자리 잡았다. 더는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교회 내부 사정이 은혜롭지 못하였고, 성장도 더디었다. 1989년 8월, 백태현 2대 목사가 사임한 후 교회는 좋은 목사를 찾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1976~1989년은 이민 초기의 모든 교회가 그러했듯이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의 힘든 과정이었다. 교회당을 마련하기에 급급했으며, 고질적인 교회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광신, 김동백, 김충모 등 몇몇 장로들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었다.(편집자 주: 김광신 목사는 '은혜교회'를 설립)

초기 베델한인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였으나 인간적인 잡음도 있었기에 작고 평범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오늘날 은혜가 넘치고 역동적인 선교를 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을까? 어떻게 교회 건물만 큰 대형교회가 아닌 성령의 은총이 넘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베델이 되었을까? 병아리가 밟아도 뭉개질 새싹 같았던 베델한인교회가 어떻게 우람한 무화과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은총!"

제2기 도약기 _ 돌탕교회

대답은 '의외'였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1990년 12월, 42세의 손인식 목사가 3대 목사로 부임하면서 베델교회는 어바인 지역의 한인교회를 넘어 남가주, 한국 그리고 세계 속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요 계획이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는 구호로 '베델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한 손인식 목사는 이른바 '돌탕목회'를 통해 말씀 전파, 활발한 사역을 펼친 장본인이었다. 강력하고 은혜로운 설교는 삽시간에 온 남가주에 알려지면서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구름처럼 교회를 찾아왔다. 등록 교인이 500명도 안 되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찾아왔으니, 기존 교회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갑작스런 성장으로 오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난 후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다. 세계를 향한 선교, 청년을 위한 교회, 영어권 사역, 찬양목회, 일본어 교회, 북한 동포를 위한 통곡기도, KCC 그리고 많은 선교대회를 통해 수많은 '돌탕(돌아온 탕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 헌신자가 되었다.

당연히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이 짓게 되었다. 4개의 교회로 이루어졌던 Worship Center의 미국교회는 베델교회의 발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교육관(Vision Center)과 아울러 성도 수에 비해 턱없이 비좁아진 옛 성전을 헐고 아름

답고 실용적인 현재의 본당을 지어 2011년 헌당하였다. 명실공히 베델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발전한 교회의 표상이 되었다.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베델은 당신 손에 맡기셨다.
오직 아버지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몸과 마음을 바친 목회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오늘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성극으로 섬기는 변용득 집사는 위의 시로 손인식 목사와 교회를 표현하였다)

손인식 제3대 목사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뜻하신 바 비전을 받고 온 교인과 더불어 그것을 실행하였다. 베델동산, 부부동산, 민들레동산, 어머니동산, 아버지동산과 같은 영성 사역으로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였다. 셀교회 사역을 시작으로 제자반, 각종 사역반, 전도폭발 등 복음 전파 훈련을 하였고, 임마누엘 성경대학, 경로잔치, 한국학교, 아기학교, 홈리스 사역을 통해 커뮤니티 교회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 손인식 목사의 비전을 통해 베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세계 25개국에 있는 31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매년 20여 개국 이상에 단기선교 팀을 파송하였다. 또한 중국, 터키, 일본, 과테말라, 캄보디아, 몽골에는 장기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과테말라에 의료선교 병원을 세웠고, 중국, 탄자니아, 몽골, 도미니카에는 교회를, 페루에 선교센터 지원, 그리고 메콩강에 의료복음선을 띄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의료선교 팀을 보내고, 안경사역을 개발하고, 의료선교대회, 에베소 중보기도회를 통해 이슬

람지역 선교를, 인도차이나 선교대회로 베트남, 캄보디아를 섬겼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교회성장실험교실을 열었고, 미래목회세미나를 통해 이민 목회자들에게, 크라운재정교실을 통해 성도들에게 청지기의 본을 보여 주었다.

손인식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동족 구원, 즉 북한선교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였다. 재임 중 약 9년에 걸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 미국 정치가들을 감동시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으며, '3,000인 해외 및 국내 목사단'이 조직되어 북한선교를 시작하였고, 손인식 목사는 은퇴 후 북한 선교에 전념하다 202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손인식 목사가 부임하던 1990년에는 작은 성전(제1성전) 하나였다. 교인이 몰려오자 제2, 제3 성전을 구입하였으나, 밀려드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의 본당을 건축하였다.

교육관(비전센터)은 물론 제1(베델), 제2(갈릴리) 수양관을 구입하였는데, 이 모든 자산을 환산해 보면 3200만 불이나 된다. 이 모든 기금은 현재 거의 다 갚았으며, 손인식 목사가 부임하던 해 일 년 예산이 50만 불이었는데 어느새 1000만 불이 넘는 예

산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23년 재임 중에 베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껴진다.

손인식 목사는 베델교회의 발전을 위해 70세 정년을 65세로 바꾸고, 65세에 은퇴 후 한국과 미국에서 'KCC-그날까지 북한선교'에 전념하였다. 은퇴 후에는 본 교회와 후임 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3년 간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다. "1세대는 짓고, 2세대는 즐기고 이용하라!"라는 그의 말에는 1세들의 희생과 2세를 위한 헌신이 담겨 있으며, "베델교회를 마음껏 이용하라!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라는 말 속에는 그의 자기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들어있다. 그는 자기가 한 업적에 연연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베델의 복이요, 한국교계의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복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손목사님 퇴임 후에도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박상곤 장로의, 손인식 목사 회고록 편집후기 중에서)

2020년 4월, 손인식 목사는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 님은 가셨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나와 같이 계십니다. 베델과 같이.."

온 베델은 손인식 목사를 울음으로 보내야 했다.

제3기 성숙기 - 말씀 목회

"청출어람(靑出於藍)-
The students surpass the teacher
청색은 남색으로부터 나왔으되 더 푸르고.."

2013년, 베델교회는 더 이상의 국지적인 한국인 교회가 아닌 세계를 향한 모든 인종을 포용하는 지도적인 교회로 성장했다. 제3대 손인식 목사를 이어, 동부에서 젊은 층을 상대로 역동적인 목회를 하다 '세리토스 장로교회'를 섬기던 김한요 목사가, 6개월간 동사목회를 한 후 2014년 정식으로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베델교회는 '말씀목회', '훈련목회'를 하는 성숙기로 들어섰다.

1.5세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잘 구사하는 김한요 목사는, 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을,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마친 후 IVY 리그의 대학들에 재학하는 한국인 1.5세, 2세 학생들을 위해 매사추세스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김한요'란 이름은, "한국의 요셉이 돼라"고 부친께서 지어주셨다고 한다. 제3대 손인식 목사가 이룬 탄탄한 베델 위에 김한요 목사는 복음의 말씀으로 접목하였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 바로 이 베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0년 간 해 온 목회

를 골프에 비교하자면, 지금은 마지막 18홀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는 뒤 돌아보면서 지난 목회를 곱씹어 볼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유학생과 2세 사역을 시작으로 목회에 뛰어들어, 나름 젊은 세대를 위한 목회 감각과 이민 교회에 필수 패키지인 2세 사역에 대한 절박성을 배우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처녀 목회의 피드백을 묻는 분들에게 저는 교인들이 의외로 질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설교 후 친교 시간에 왜 그리도 많은 질문들을 하는지..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의 목회에 나름의 제자훈련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목회가 '훈련목회'라는 특징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계기 같습니다.

제가 베델에 온 시기는 직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손인식 목사님을 통해 베델은 이미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50을 넘어선 나이에 받은 청빙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정을 향한 부르심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을 총동원해서 부흥기를 지나는 베델을 더욱 탄탄하게 세워 흔들림 없이 안정기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으로 믿고 베델에서의 지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튼실히 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있던 꿈이 교회였고, 그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셨으니, 가장 소중한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책무를 맡은 목사로서 다른 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뛰어들면서 저의 각오는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복음의 칼과 연단된 목회 근육으로 마지막까지 내 삶을 불사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녹슬어 사라지기 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멋져 보이는 남의 칼 보다는 내 손에 익은 잘 드는 칼로 목회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성숙한 45년의 베델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은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은 모든 훈련 사역을 커리큘럼화 한 것입니다. 80차를 넘기고 있던 베델동산도 훈련 사역으로 커리큘럼화 하면서 훈련을 통해 배출되는 목표

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지자적인 선포를 넘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까지 흘러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소그룹 사역으로 연결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베델제자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사역(셀사역)의 리더들이 양성되고, 셀 모임을 통해서 주일 메시지의 생활화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베델은 부흥기를 넘어 영적 내실을 다지며 안정기를 맞이했고, 이제는 "더 깊이, 더 높이"를 외치며 또 다른 비전을 외치며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은 위기 속에 축적된 베델의 내실이 자연스럽게 검증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부흥기를 넘어 안정된 말씀의 지반과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는 셀 사역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위기를 영적 발돋움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다시 현장 예배의 뚜껑을 열면서 훈련 목회의 열매로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베델의 비전을 '더 깊이 더 높이' 나아가도록 도전하시는 비전임을 믿습니다. 지난 45년의 발판을 밟고 힘있게 도약할 또 다른 45년이 기대됩니다. 한 세대는 가도 다시 일어날 베델의 차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세기를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18홀에서 내다보이는 가슴 벅찬 비전의 깃발을 향해 힘있게 클럽을 스윙해 봅니다."(김한요 목사 인터뷰)

생각지도 못했던 팬데믹 중에도 베델은 온라인 등 다양화 된 방법으로 더욱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헌신된 교역자들과 더불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베델의 성숙기는 계속되고 있다.

2. 설립, 이전, 건축 역사

초창기 설립과 이전 역사

1976년, 한인 이민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로 뜻을 모은 Laguna, Irvine 지역의 30명의 성도들이 Laguna Hills에 있는 미국 교회인 'Geneva Presbyterian Church의 채플'을 빌려 한국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다 이민 온 초대 윤용오 담임목사와 함께 9월 12일 첫 예배를 드렸다.

베델한인교회의 근간이 된 성령강림사건 직후 (1977년 12월 4일 오후 7시)

이후 한 달여 만인 10월 17일, 사정으로 인하여 당시 미국 교회를 섬기던 김동백 장로의 도움으로 두 번째 예배 장소인 'El Toro High School에 딸린 자그마한 Charger Hall'을 빌려 예배 모임을 이어갔다. 이 기간 교회 이름을 '베델한인교회'로 정하여 등록하였고, 이후 5개월째 되던 1977년 3월 20일, 세 번째 장소인 'Lake Hills Community Church'에 새 예배 장소를 찾아 약 2년 간 예배를 이어갔다. 1979년 1월 3일 네 번째 장소인 Lake Forest의 'Abiding Savior Church'로 장소를 이전하였으나, 2주일만인 1월 17일 다시 다섯 번째 장소인 'Mission Hills Christian Center'로 옮겨 예배를 드려야 했다.

교회를 창립한지 2년 동안 다섯 번이나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된 사연도 다양했다. 창립 초기, 너무나 뜨겁게 소리 내어 기도하는 바람에 시끄럽다고 한 번 쫓겨나고, 아이들

이 뛰어다녀 교회를 망가뜨린다고 쫓겨나고, 김치 냄새가 난다고 쫓겨나는 웃지 못할 사연들로 인해 짧게는 일주일 만에 예배 장소를 옮겨야 하는 일도 있었다.

예배당 헌당 및 증축, 부속 건물

자체 소유의 예배 장소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고, 교회 건물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뜻이 있는 인근 교회 몇이 모여 IWC(Irvine Worship Center) 법인체를 구성하고 1979년 10월 25일 주정부에 등록하였다. 이듬해인 1980년 2월 또 다시 여섯 번째로 장소를 옮겨 Sand Canyon에 있는 'Irvine Community Church' 건물로 이주하였고, 1981년 5월 8일 IWC가 현 베델교회 위치의 17에이커 건축 대지를 Irvine Company로부터 기부 받았다.

1982년 9월 1일 윤영오 목사가 사임하고 그 해 11월 28일 백태현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이듬해인 1983년 3월 4일 IWC로부터 대지 4.5 에이커를 분배 받았고, 1984년 1월 22일 IWC의 4개 교회가 연합으로 기공 예배를 드렸다. 1985년 8월 트레일러로 만들어진 임시 교육관을 설치하고 건물이 완공되어 11월 16일 '베델한인교회'는 감격의 헌당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89년 8월 13일 백태현 목사가 사임하고, 이듬해인 1990년 12월 16일 손인식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성도가 약 200명 이었는데, 손인식 목사 취임 이후 교회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으며 성도가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한 주에도 수십 가정씩 새가족이 오면서, 본당은 물론 2세들의 예배를 위한 부속 건

물들이 턱없이 부족하던 때에 B건물과 C건물을 사용하던 교회들이 차례로 나가게 됨에 따라1991년 6월 'Assembly of God'에서 사용하던 B 건물을 IWC로부터 구입하고, 7월 14일 제 2성전 입당 예배를 올렸다. 제 1차 베델 선교대회가 역사적으로 열린 해이기도 하다. 1992년 5월 4일 'Irvine Community Church'에서 사용하던 C 건물을 추가로 구입하였고 7월 26일에 제 3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으며, 부속 건물의 스크린을 통한 본 예배와 2세들의 예배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성도의 부흥이 엄청난 속도로 지속됨에 따라 예배 공간 부족으로 인해 성도들이 예배당 밖에까지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 지속되었다. 이에 1996년 본당 증축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분수대가 있던(지금의 Courtyard) 쪽으로 Wing을 만들어 옆 공간을 확장하였다.

1997년 본당 증축이 완공되어 1월 8일~30일까지 3주간 '대각성 부흥 성회'를 갖고 영적 부흥 또한 공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그 해 4월 6일 교회 헌법을 개정하여 실행위원회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7월 13일부터 '열린 예배'를, 그리고 7월 28일부터 Cell Church 사역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1991년~1997년까지의 6년을 돌아보면, 2개의 성전 구입 헌당과 본당 증축, 아울러 부흥 대각성 성회, 셀교회 등의 다양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건물 구입과 증축 등은 늘어나는 성도들의 예배 공간 확보와 2세들의 교육, 예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모든 초점은 성도들의 영적 부흥과 신앙 훈련에 있었다. 영적 대각성의 성령의

바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돌탕(돌아온 탕자)의 행진이 계속되었다. 1998년 3월 17일~22일 사이에는 제 1차 교회 성장 실험교실을 열고 미 전역과 세계로부터 100여 목회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베델의 성장 과정에서 도입했던 여러 사역들을 소개하고 나누며 실행 과정에서 있었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이민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 외에 수 많은 사역들이 손인식 목사 은퇴 시까지 약 15년 간 매년 지속되었다.

비전채플

점점 증가하는 성도들로 인해 아이들 숫자도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에 2세 교육 공간이 없어 교회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교회 인근 건물들의 소 공간들을 빌리며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이어가던 중, 교회 차원에서 2세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건축을 결단하게 되었다. 1세가 지어주고 2세, 3세가 사용하며 예수의 신앙을 이어나가자는 결단에서였다.

드디어 1998년 12월 6일 주일, "1세는 지어주고 2세는 사용한다"는 표어를 내 걸고 전 성도가 참여하여 '다목적 교육센터 건축'을 위한 작정헌금을 시작하였다. 당시 건축 예상 비용이 850만 불이었는데, 작정헌금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 누구의 이

름도 드러내지 않는 무기명으로 작정하여 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지만 난관도 있었다. 건축을 위해선 어바인 시의 건축 허가가 필요했는데 온 성도가 기도하며 간구하였고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돌듯 전 성도가 새로이 세워질 터를 7바퀴 반을 돌며 기도하며 행진하였다. 이렇게 1999년 8월 8일 마침내 '비전센터' 기공 예배를 올릴 수 있었다.

1999년 8월 1일에는, 성도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동산 사역들을 위해 수양관을 필요로 하던 중 Lake Elsinore에 있는 수양관을 구입하게 되어 '베델수양관'으로 명명하고 입주 예배를 드렸다. 그로서 1990년에 시작하여 다른 교회나 교단 소속의 수양관을 전전하면서도 엄청난 은혜가 넘치고 많은 결신자를 배출하였던 베델동산을 그 해 10월 1일~2일에 걸쳐 감격적으로 개최하였고 10월 8일~10일에는 '제 3차 싱글동산'을, 10월 10일부터는 10주간에 걸친 '제 1차 베델 결혼교실'과 같은 영성사역을 마음 놓고 개최하는 등 베델교회 영성사역의 전성기를 열게 되었다.

약 2년에 걸친 '비전센터'가 완공되어, 드디어 2001년 9월 9일 역사적인 헌당 예배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다. 이 때로부터 아이들이 지난 수 년 간의 광야와 같던 간이 텐트 생활을 마치고 새 건물로 입주하여, 유아부로부터 유치, 유년, 중등, 고등부 및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새 교실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소그룹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나눔과 일대일 제자 양육 등도 활발히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좋은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이 외부로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 성도 수와 아이들 수는 더욱 급증하였다.

2001년, 그 동안 찬양 사역자로 섬기던 손경일 전도사가 목사 안수 후에 청년 목회를 담당하며 청년 목회가 급격히 부흥하자 교회에서는 청년 공동체를 '예삶(예수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로 따로 분리하여 4부 예배로 진행하였고, 이 예배 또

한 크게 부흥하여 500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예수의 본을 받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2002년에는 유한성 목사가 은퇴와 함께 과테말라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2004년에는 '제 1차 전국 크라운 재정교실 클리닉'을 개최하였다. 2005년에는 '제 1차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수 많은 베델의 사역들이 이 시기에 생겨나고 부흥의 꽃을 피웠다.

베델 새 성전

비전센터 이후에도 부흥은 계속 이어져 늘어나는 성도들의 예배를 감당하기 위해 4부 예배까지 이어졌으며, 이미 제2, 제3 성전, 본당 증축, 수양관 구입, 비전센터 건축 등의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음에도 늘 선교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 지출을 해오면서 새 성전 신축은 최후로 미뤄왔던 베델교회였지만, 계속 늘어 이미 3천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감당하기에는 공간이 역부족이었다. 이에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한 끝에 2007년, 드디어 새 성전 건축에 뜻이 모아지고, 교회 예산과 건축 헌금으로 1400만 불의 새 성전 건축 재정을 마련하였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재정뿐 아니라 2000석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어바인 시로부터 CUP(Conditional Use Permit)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Michelson에 있는 현 주차장 위치에 해당 회사로부터 20년 간 주차장 lease를 계약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가운데 주차장도 확보되고 퍼밋도 나와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1월 12일, '엘리야 새벽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토요일, 드디어 새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로부터 1년 여에 걸쳐 지어진 새 성전은, 3만 6천 스퀘어 피트 부지에 1700석 규모의 1층 예배실과 300석 규모의 발코니로 예배 채플을 갖추어 성도들을 맞이하였다. 2009년 6월 5일~7일까지 3일 동안 '헌당 감사 큰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이어 6월 23일부터 40일 간 '전 교인 신앙 통독 새벽기도회'를 열면서, 큰 성전을 가진 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아닌

단지 성도들을 수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적합한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갔다.

본당 신축과정은 다음의 video에 요약 수록 되어있다.
(QR code를 열어 주세요)

https://bit.ly/3sl01NM

새 큰 성전을 갖추게 된 베델교회는 온 성도가 참여하여 더욱 예배와 말씀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특히 2011년 8월 11일부터 시작된 '40일 대각성 경건운동'에는 온 성도가 40일 내내 매일 새 성전 1, 2층을 가득 메우며 대각성과 은혜의 시간을 누렸다. 매일 새롭게 받는 감동 가운데 온 성도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으며, 생애에 한 번 받을 만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수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교회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는 부록 A-5에 정리 되어 있다.

지난 45년 동안 매 순간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현재도, 지금도 베델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3. 연도별 담임목사 권두언으로 본 교회 역사

베델교회는 설립부터 45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중단 없이 달려왔다. 1988년부터 매년 연초에 발행되어 온(2015년부터는 격년으로 발행) "베델교회 요람", 그 중에서도 '담임목사 권두언'은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서 일 년 동안의 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지면이었다. 연도별 권두언을 통해 교회가 어떤 비전들을 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알고 현재의 베델교회와 나아가 미래 베델교회의 비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일이다.(아래에 일부 권두언의 주요 내용을 발췌 수록하였고, 연도별 권두언 전문은 Chapter 7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1년을 지내면서 지난 한 해 동 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온 교우 여러분께서 기도하며 노력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1988년에는 좀 더 알찬 교회로 발전하면서 세계를 향해 선교하며 내실을 기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충만의 열매, 둘째 말씀충만의 열매, 셋째 선교 및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여 총 진군하십시다!"(1987년 12월 13일 당회장 백태현 목사)

"…89년도를 회고하여 볼진대 따가운 채찍 뒤에는 어루만짐이 있었고, 넘어져 다친 무릎의 상처 위에는 지체 없는 사랑의 붕대가 매어졌었으니 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랜 동면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인내로 실천하면서 무슨 일에나 현실에 자족하는 생활을 통하여 얻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내면적 생활을 향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성령으로 뜨겁게 새해에 새로운 빛을 발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 주의 형상을 닮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

인의 삶을 통하여 그에 의하여 쓰여지는 도구로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1990년 2월 4일 사무장 유한성 장로)

"1990년을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변화의 1년이었습니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동의 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공석중인 한 해를 당회원들, 목회요원들, 제직과 평신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볼 때, 저는 이 기간이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교우들이 한덩어리로 뭉쳤습니다. 낙심의 시간이 닥쳐와도 서로 원망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베델한인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 입니다. 지난 1년간 오히려 교회는 더욱 부흥되어 왔고,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의 재확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구원, 복음의 전파, 진실된 삶의 변화, 아가페 사랑 공동체... 이와 같은 교회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이 1991년이 소중한 밑거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1991년 1월 27일 담임목사 손인식)

"〈베델 예수의 공동체 생활 수칙〉 1. 집회는 열심히, 노는 일은 천천히 2. 성경은 가까이, 쾌락은 멀리 3. 헌금은 기쁘게, 음식은 간소하게 4. 축복은 많이 주고, 비난은 적게 주고 5. 사랑할 사람은 늘리고, 미워할 사람은 줄이고 6. 개인기도는 길게, 대표기도는 짧게 7. 나는 책망하고, 남은 칭찬하고 8. 믿음의 형제는 자주 보고, 세상 친구는 가끔 보고 9. 찬송은 늘리고, 불평은 줄이고 10. 예수 이름은 흥하여 지고, 나의 이름은 쇠하여 지고 〈시작된 목회 비전〉 베델동산, 부부동산, 셀교회, 2세 육성 장학기금, 가정치유사역, 단기선교훈련 Center, 20/20세계선교 전략사역, 성지순례 훈련 Ministry, 베델서점, 병원선교, 교도소선교, 문서선교, 입양아선교, 홈리스선교사역,

성인 영어 예배, 다목적교육관 건립, 소수민족교회 설립, 전도폭발, 베델 의료선교, 베델 빌리지 〈앞으로 보는 목회 비전〉 베델 아카데미, 베델 방송국, 베델 Youth Shelter, Christian Family Center, Day Care Center, Mission Chorale, Bethel Press, Sunday School Teacher Training Center(1998년 2월 담임목사 손인식)

"… 지금 베델교회는 30명의 실행위원들이 강력한 팀웍 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10명의 셀 목자부부들이 교회속의 작은 교회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21명의 목회진, 120명에 이르는 주일학교 교사진, 4개의 성가대 및 찬양팀, 24개의 사역팀, 90개의 사역부서장들이 다양한 복음사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평방 피트의 다목적 교육센터가 다음달이 지나면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주일마다 밀려드는 교인들로 파킹랏은 전쟁터처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어린이들의 어와나 프로그램, 청소년특별순서, 대학생들의 제자훈련, 성가대 연습 등으로 단 한 개의 방도 여유가 없으며 일주일 내내 전도폭발훈련, 선교훈련, 4종 성경공부반 등으로 성전과 교실들의 불이 꺼질 날이 없습니다. 올해 99년에도 전세계 11개 국가 선교현장들을 향해 1세, 2세의 단기선교팀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며 돌탕들이 생산되고 있는 우리들의 베델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1999년 2월 담임목사 손인식)

"…이 땅에 베델한인교회가 세워진지 30년이 지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이 교회는 "꿈꾸는 교회, 도약하는 새해"를 또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올해 첫 두 주간의 엘새가 바로 그 중의 한 현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어바인 새벽을 뒤덮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취한 사람들이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울라면 울고 외치자면 외치고 안수기도 받으라면 앞으로 몰려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산 모습과 같았다고 믿어집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

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손가락질하지 않고 박수 쳐주는 교회입니다. 말이 많아지지 않고 기도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노인이나 청년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골고루 모든 연배가 함께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라스베가스로 놀러 다니는 행사들은 없어지고 말씀의 시냇가를 향하는 무리들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음악회처럼 되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찬양하다가 울어버리는 성가대원들 때문에 손수건을 꺼내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살아났음을 감격하는 기록과 통계와 사역들과 이름들이 바로 이 교회요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베델 가족들이 집집마다 이 요람을 잘 보관하여 사용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베델행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2007년 담임목사 손인식)

"… 베델교회의 새 성전은 신령한 건축, 기적의 건축, 기도의 건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헌금으로, 건축위원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지혜로,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공사기간을 참고 인내하는 연단으로 정말 잡음 하나 없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건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신 공사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셨으며, 이 확신으로 인해 건축현장에서 애쓰신 건축위원들이나 뒤에서 기도하는 모든 베델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신묘막측" 할 뿐입니다. 2009년! 새해를 시작하고 새 성전의 문을 열고 새 시대의 미래 목회를 열면서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져 교만해지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베델 성도들은 새 성전 시대에 더욱 불기둥,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따라가며 만나를 먼저 먹고 그리스도 반석의 생수를 먼저 마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2009년 담임목사 손인식)

"여호수아의 계승을 꿈꾸는 교회 GOD'S KOREA, NEW KOREA를 꿈꾸는 교회!... 지나간 23년을 뒤돌아보며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시 116:12) (2013년 담임목사 손인식)

"할렐루야! "미션 1.8"이라는 슬로건으로 2015년을 시작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권능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교회(예루살렘) 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 (유대, 사마리아) 를 거쳐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는 일부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실행에 옮겨야 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2년에 한 번 발행하게 되는 이 요람은 그 모든 사역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며,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요람에는 교회 내의 사역과 사역 관련자들의 정보가 올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그들과 연결해 협력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연락처가 있고, 실행위원과 프로젝트 팀장의 연락처, 셀 목자 연락처, 교역자 연락처, 그리고 각 사역팀의 부서장 명단도 요람에 있습니다. 요람에는 또한 교회 연혁, 교회 헌법, 목회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예루살렘'에서 질서 있게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성도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커뮤니티 사역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의 정보가 요람에 들어있으므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서로 연결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람이 단순히 조직표와 연락처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과 접촉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람에는 땅 끝으로 가는 선교사들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와 선교단체, 선교지 정

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소개되어 있어, 우리 교회가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땅 끝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요람이 "미션 1.8"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하고 값진 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2015년 담임목사 김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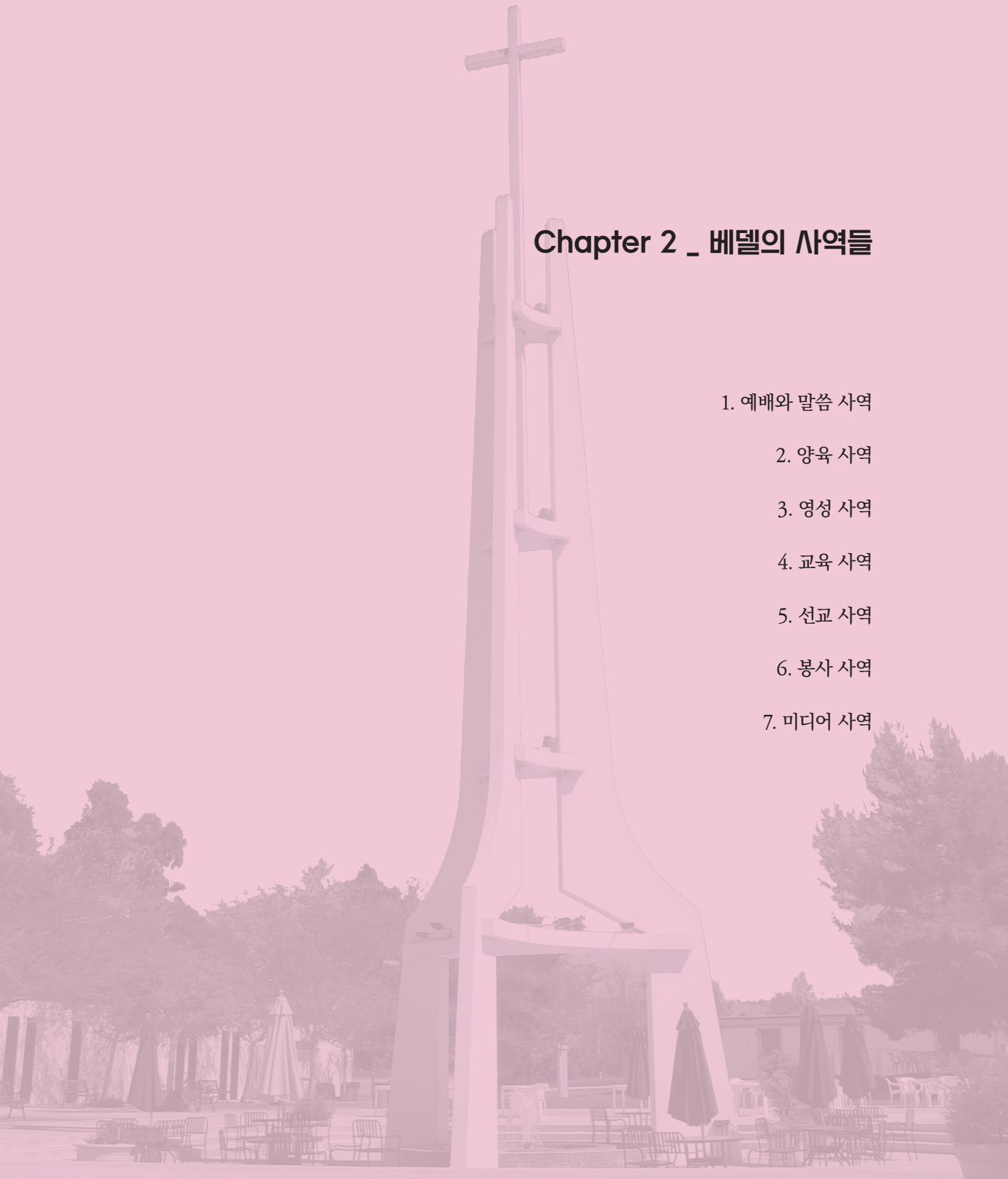
"MISSION 1.8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복음의 항해가 하나님의 순풍과 베델 성도들의 협력으로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를 거쳐 땅 끝에 이르기까지 순항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40년의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또 다른 40년의 발걸음을 내 딛는 첫 해인 2017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현장입니다. 커다란 파도 물결을 보고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십시오. 더 이상 구경꾼으로 뒤에 있지 말고 모두 다이빙 보드에 서서 뛰어내려야 할 때입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멋진 다이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다이빙을 위해서 첫 번째 D는 "Delightful Worship of the Holy God"입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고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I는 "Intelligible Training of God's Word"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베델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셋째 V는 "Vital Service of the Holy Spirit" 입니다. 활력 있는 섬김과 봉사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E는 "Evangelical Zeal of the World Missions" 입니다.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야 할 것입니다.(2017년 담임목사 김한요)

"미션 1.8을 외치며 복음의 상륙작전(landing operation)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땅끝을 향해 가는 즈음에 저희 베델교회의 선교적 지향이 더욱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풍성해졌다고 봅니다. 전형적 목회자의 선교사 파송이 아닌, 창의적 접근 지역을 향한 일반 성도들의 선교 동원이 시급한 이때, 우리 베델교회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선교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Bethel Business As Mission(BBAM)사역을 미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

면서 새로운 선교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역동성은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개척자의 정신으로 더욱 연구하며 임할 것이며,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의 플랫폼이 되어 새롭게 일어나는 일반 성도들의 선교 동원에 일익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물 붓듯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요람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가 더욱 단합된 모습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베델이 더욱 든든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2019년 담임목사 김한요)

교회홍보 영상
https://bit.ly/376DS3i



Chapter 2 _ 베델의 사역들

1. 예배와 말씀 사역
2. 양육 사역
3. 영성 사역
4. 교육 사역
5. 선교 사역
6. 봉사 사역
7. 미디어 사역

1. 예배와 말씀 사역

주일 예배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 가운데서도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무엇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 매주 같은 시간에 주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 기도,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초신자도 예배 중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과 성가대의 찬양, 대표기도, 평신도의 간증 등 다양한 예배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베델교회는 창립 때부터 은혜로운 예배, 성령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초기에는 성도 수가 많지 않아 주일 예배도 한 번만 드려졌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 분위기였다. 그 후 주일학교의 확장과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식사 등 여러 사역들이 생겨나면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배려하여 1부, 2부 두 번의 예배로 늘리게 되었다. 1990년 이후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총 세 번의 예배로 바뀌었고, 각 예배마다 자체의 성가대와 봉사 위원들을 정하여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예배의 순서와 어떤 찬양 곡을 정할 것인지 등 주일 예배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미리 준비된 계획에 의하여 짜이고, 실제 예배시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특히 예배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음향, 조명 등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며 최선의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다.

수요, 토요 예배 및 특별 예배

교회가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러했듯이 주중에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3일 예배로 알려진 수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되었고, 토요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그 또한 정기적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금요 저녁 예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 금요일에도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자랑거리로 알려진, 매일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새벽기도회도 베델교회의 창립 초기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를 맞아 절기 예배들이 드려지며, 국가의 비상시국이나 사회적 변혁을 맞아 드리는 특별 기도회, 상황과 기회에 따라 드려지는 초청강사 성회, 부흥 성회 등 여러 형태들의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교회 예삶채플 예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청년들도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당시 정유성 목사의 인도 하에 '여호수아 공동체'로 모임을 갖던 청년들이 일본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손경일 목사의 리더십 아래 2001년 5월 4일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베델교회의 청년교회인 '예삶채플'이 탄생하게 되었다.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민교회의 청년 사역을 향한 새로운 비전으로 시작된 예삶채플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를 꿈꾸며 본 교회와의 분리와 독립이 아닌 화합과 연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예배, 선교, 훈련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베델의 초창기부터 1999년까지는 '두란노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여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역했지만 일반적인 청년 사역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었고, 청년들 스스로도 교육부서의 가장 맏형이면서 또한 성인 사역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막내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여호수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며 베델교회 안의 교육부서의 연장선에서 벗어나 어엿한 성인 공동체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고, 조직과 사역 전반에 걸쳐 1세 성인 공동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청년 세대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로써 1세 교회와 연합을 이루며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조직은 대학생들 중심의 청1 공동체, 청년들과 대학원생 중심의 청2 공동체, 청년을

벗어난 미혼으로 구성된 청3 공동체,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집회로는 주일 예배 외에 매주 목요일에 갖는 각 공동체별 모임, 한 달에 한 번 갖는 연합 예배가 있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매 주일 셀모임을 갖고, 새가족 클래스, 새가족 환영회를 개최하며, 베델동산 참여, 비전 훈련, 리더십 훈련 등 여러 형태의 훈련코스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5월 8일 손경일 목사가 다른 부임지로 떠나며 오중석 목사가 뒤이어 담임을 맡게 되었고, 2015년 8월 오중석 목사 사임 뒤 2016년 1월 김형균 목사가 담임하였다. 2020년 9월부터는 강문구 목사가 목회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담임을 맡고 있고, 주일 오후 2시에 4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던 중 팬데믹을 맞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청년들의 영성 회복과 만남, 꿈과 삶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착실히 성장하며 현재 650명이 넘는 많은 청년들이 예배와 나눔, 훈련과 성장에 힘쓰고 있다.

영어 예배(English Ministry)

베델교회가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2세 성인들의 증가로 영어 예배가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영어 예배가 따로 발족되었다.

1997년 11월 16일 영어 예배를 위해 조중석 전도사가 부임하였고, 그 후 2000년 5월 1일에 조진환 전도사가 새로이 부임하였다. 2003년 9월 14일에는 오래 지속되어

왔던 영어 대학부 BCC(Bethel College Church)와 합하여 EM(English Ministry)이 탄생하였고, 2005년 2월 27일 Samuel Bang 목사가 부임하였다. 이후 당시 BYM(Bethel Youth Ministry)을 섬기던 Sam Shin 목사가 맡게 되면서 특별히 제자훈련에 힘썼고, 2008년 12월 21일 김진우 전도사가 부임하여 함께 사역했으며, 2012년 7월 22일 Sam Shin 목사가 사임하고 같은 해 10월 17일에 김진우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아 섬겼다. 2013년 2월 24일 조철희 목사가 부임하였고, 2014년 7월 27일 김진우 목사는 사임하였다. 그 후 Justin Kim 목사가 2015년 8월 9일 부임하였고, 조철희 목사는 9월 6일에 사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베델의 English Ministry는 잦은 목회자의 이동으로 그 동안 성장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정식 교인 등록 체계를 확립하였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자체 내에서 집사도 세우며 정식 명칭을 BGC(Bethel Grace Church)로 바꾸고 교회로서의 골격을 갖추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부름 받은 공동체, 복음에 의해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변화된 공동체로서 “Reaching Up, Reaching In, Reaching Out!”이 단순한 선언문이 아닌 베델 English Ministry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철학이 되어 모두가 합력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어 및 기타 언어 예배

베델의 일본어 예배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지체들(일본인, 재일동포, 국제결혼 등)이 이해하기 쉬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이다. 일본어 예배 사역 부서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은 모인 이들과 함께 일본어로 소통하는 가운데 특별히 단기나 장기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갈급한 일본땅을 향해 전도자가 되어 섬길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선교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손경일 목사가 일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소수의 일본인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이 현재 일본어 예배의 태동이 되었고, 이후 일본에서 선교했던 박은성 목사가 2011년 '예삶채플' 인턴으로 부임하며 성경공부를 이어갔다. 2013년 4월 7일 '일본어 예배'가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2018년 2월부터는 손용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예배는 매 주일 오후 1:30에 임마누엘 채플에서 드리며, 베델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 선교 팀이나 각종 사역,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고, 세례식 때마다 여러 일본인들이 세례를 받고 셀 모임도 활발히 갖고 있다.

일본어 예배 외에도 베델교회 내에 Spanish 언어로 드리는 예배와 몽골 형제 자매들의 예배 모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되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언어권의 이민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다국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세례 및 성례

베델교회의 세례는 침수식 세례를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약식 세례로도 대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속된 확신을 가진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세례 문답 후 세례를 받게 된다. 또한 세례 교인을 부모로 한 2세 미만의 유아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식은 담임목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집행되며, 1978~현재까지 2,610명이 세례를 받았고, 1996~현재까지 62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입교식(유아세례를 받은 후 성인이 되어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엔 현재까지 194명이 참여하였다.

성찬 예식은 담임목사가 부목사 및 사역 장로와 협동장로의 협조로 진행하며, 연 2회 이상 성찬식을 집행하고 있다.

새생명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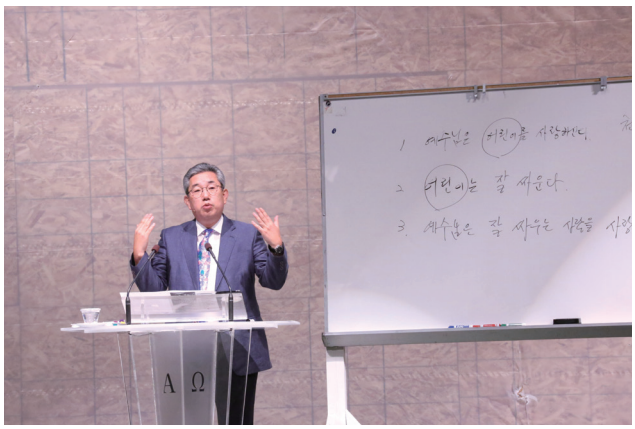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즐거운 경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일 것이다. 베델교회는 2014년부터 매해 부활절을 '새생명 축제'의 날로 정하고, 성도들이 그 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하던 소중한 분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행사를 지속해 왔다.

연초에 대상자들을 VIP 카드에 적어 교회에 제출하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며 많은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신학 강좌

2016년, 베델교회는 설립 40주년을 맞아 신학 강좌 사역을 시작하였다. 성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신학을 다루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획된 사역이다. 신학강좌는 탁월한 신학 교수들의 다양한 주제 강의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학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Q&A 형식의 질의 응답을 통해 교수들과 함께하는 패널 토의는 답답하고 막연했던 성경과 신학의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신학강좌는 2016년 7월 3일간 열렸으며, 이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제2회 신학강좌가 열렸고, 2018년 열린 제3회는 C.S. 루이스를 주제로 C. S. 루이스의 생애와 주요 작품들을 통해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4회는 2019년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정의를 갈망하는 이 시대에 시원한 물줄기 같은 시간이 되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강사들과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세상에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신앙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100% 온라인으로 강사들의 사전 녹화와 YouTube 송출을 통해 강좌를 진행하였다.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

일명 '엘새'라고도 불리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는 2005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처럼, 베델교회가 기도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시작된 사역이다.

이후 베델교회는 매년 빠짐없이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한 해를 시작해 왔다. 엘리야 때의 "불을 부어 주소서!", 엘리야 때처럼 "우로가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엘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베델 성도들의 간절함을 드러내 보여준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며 곧 해법이기 때문이다.

KM(Korean Ministry), EM(English Ministry), 일본어 예배, 예삶, BYM(Bethel Youth Ministry), CIM(Christ In Me), 교회학교 등 엘새 기간에는 온 교회가 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나아가며, 각각의 요일마다 강단에 다른 그룹들을 초청하여 그 그룹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회 뒤에는 모든 신임 임직자들과 공동체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엘새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제공한다.

엘리야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 엘리야 때의 "불을 부어 주소서", 엘리야 때처럼 "우로가 열리게 하소서"(2005, 2006년), 꿈꾸는 한 해, 도약하는 새해(2007년), 기도하는 무릎! 세워지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2008년), 모이자! 기도하자! 체험하자!(2009년), 말씀의 칼을 들어라!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승리의 아멘을 외쳐라!(2010년),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의 날을 준비하라!(2011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2012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2013년), 어제의 축복이 내일의 사명입니다! Celebrating the past! Visioning the future!(2014년), 1.8 상륙 작전 Landing Operation 1.8, 지역사회를 향한 역동적 복음 증거! 열방을 향한 능동적 선교! Gospel Driven, Mission Initiative(2015년), 오직 예수께만 시선 집중! Fixing our eyes on Jesus!(2016년), 하나님께 뛰어들어라 Dive Into God(2017년), 불을 지피소서 Reignite(2018년), 영광의 비상 Bound For Glory(2019년), Vision 2020 Here I AM(2020년), 믿음의 태도가 신앙

의 고도를 결정한다 IMPACT(2021년).

베델교회는 위와 같이 매년 새해마다 한 해를 이끌어 갈 전 교회적 비전을 품은 표어를 선포하며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한 해를 이끌어 갈 동력으로 삼고 있다.

통역

고국인 한국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서 이민자들이 세운 이민 1세 교회로 시작된 베델교회는 자연히 많은 전환기를 지나게 된다. 동서양의 차이와 급변하는 20세기 말~21세기의 길목에서 이민 1세와 2세간의 간극은 언어의 장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세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신앙이 2세에 잘 접목되기 위하여는, 2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그리고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하고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알아가야 한다. 교회에서 2세들을 위해 영어권 목회자와 전도사를 세워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부모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신앙의 공동 생활을 위하여 성인 예배의 분위기와 말씀 또한 익힐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온 소위 1.5세대는 언어 외에도 양쪽의 문화와 사고방식, 그리고 신앙의 접근 방법까지 이해가 가능한 세대이기에, 두 세대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며 이민사회도 점차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면서 비 한국인 배우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 또한 베델의 가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예배에서도 이중언어에 능통한 통역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주일 학교 유년부를 맡고 있던 이은희 전도사를 주축으로 영어권 신도들이 참석하는 2부와 3부 예배의 모든 과정을 동시 통역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영어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의 모든 진행 상황들을 이해하며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특별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 행사 때도 사용함으로써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후 영어 통역 사역은 계속 발전하여 현재는 Andrew Lee전도사의 책임하에 10명 정도의 능력 있는 통역사들이 예배의 통역을 맡고 있다. 또한 새 성전에는 통역실이 따로 마련되어 예전에 비해 동시 통역의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2013년부터는 일본어 예배가 발족됨에 따라 본 예배를 일본어로도 동시 통역하고 있어, 보다 다양해진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베델 통역 사역의 미래의 청사진으로, 교회가 더욱 다양한 인종과 언어로 cosmopolitan의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예배 때 마다 여러 언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되어 각기 다른 channel로 방송되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찬양과 경배

1997년 7월 손인식 목사는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에서는 최초로 주일 오후 예배를 찬양과 경배 중심의 열린 예배로 전환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손경일 목사가 찬양과 경배 사역의 전담 사역자로 부임하였다. 그와 동시에 열린 예배를 인도하는 '카이로스 경배팀'이 사역을 시작하였다.

2004년 9월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탈북자와 북한 동족을 위한 통곡기도회"의 찬양을 인도한 '남가주 연합 찬양팀'의 인도자 정유성 목사가 그 해 11월 베델교회의 제2대 전임 찬양 사역자로 부임하여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베델교회의 찬양과

경배 사역의 분기점이 되었다. 해마다 전 교인으로 구성 된 찬양팀 100~120명이 매일 새벽마다 연합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찬양 사역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극대화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8년 '카이로스 경배팀'을 'Alive Worship(얼라이브 워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며 베델교회의 찬양과 경배 사역의 제2기가 시작되었다. 주일2, 3부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와 화요여성축제, 그리고 Body Worship팀과 음향&미디어 팀까지 총 50명으로 구성된 '얼라이브 워십팀'을 통해서 베델교회의 모든 찬양과 경배 사역이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베델교회의 찬양 사역은 교회라는 틀을 넘어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이에 2009년 7월 '얼라이브 워십팀'과 지역교회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남가주와 열방을 향한 "Pneuma Worship(프뉴마 워십)"을 시작하였다.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청년층까지 함께 품을 수 있는 집회로 기획이 되었고, 새로이 신축된 성전이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용하는 은혜의 공유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연합 집회이다.

2009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6번의 집회를 통해서 현장 예배에는 연인원 5,000명이 넘게 참석을 하였고, 유튜브(YouTube)에 있는 '프뉴마 워십' 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자 1만 5천 명과 누적 조회수 1천만 회가 넘게 되면서 북미주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이민교회 주관 찬양 사역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아울러 모든 집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통해 집회 실황 전체를 담은 CD와 DVD를 제작, 요청하는 모든 지역 모든 국가의 성도들에게 무료로 1천 세트가 넘게 발송 하였다. 현재 프뉴마 워십은 2016년 이후 제2기 사역이 시작되었고, 콜로라도, 텍사스, 뉴욕 등지에서 제22회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월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한요 목사와 함께 베델교회의 찬양사역은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지역교회에서 매년 담임목회자의 비전과 메시

지를 담은 주제 찬양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김한요 작사/정유성 작곡)”이라는 찬양을 시작으로 2015년 “미션의 언덕(김한요 작사/정유성 작곡)”, 2016년 “눈을 들어 빛을 보라(김한요 작사/박정영 작곡)”, 2017년 “하나님께 뛰어들어라(김한요 작사/김섭리 작곡)”, 2018년 “불을 지피소서(김한요 작사/김섭리 작곡)”, 2019년 “Bound for Glory(김한요 작사/김섭리 작곡)”, 2020년 “Here I Am 나는 그리스도인(김한요 작사/김섭리 작곡)”, 2021년 “믿음 in 21(김한요 작사/최철기 작곡)” 등 해마다 그 해의 주제 찬양(Theme Song)을 만들어서 온 교회가 함께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성가 사역

베델교회 성가대는 교회 창립 2년째 되던1978년, 김광신 집사(후에 은혜한인교회 설립 목사)를 초대 지휘자로 조직되어 교회와 함께 부흥 발전되어 왔다. 1988년 2부 예배 편성과 함께 1부 ‘시온성가대’에 이어 2부 ‘베델성가대’가 추가되고, 1992년에는 3부 예배가 생기며 3부 ‘브니엘성가대’가 조직되어 3개의 성가대가 성가 사역을 담당하였다. 여기에 2003년부터 토요 새벽예배에 ‘헵시바성가대’가 더해지면서 총 4개의 성가대가 오늘날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성가대는 옛 레위 지파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 공교하게 다듬어진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을 한다. 성가대원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찬양을 드린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여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모든 예배에서 공교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조화롭게 빚어낸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예배 중 성가대의 찬양 순서가 말씀 선포 이전에 배치되는 이유이다.

성가 사역에는 성가대를 비롯 독창자와 중창을 통한 봉헌, 오케스트라와 악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상의 음악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역은, 엘리야 새벽기도회 및 부흥회, 임직식 등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에 따라 예배들에 참여하여 예배를 인도한다. 베델교회 성가 사역에는 4개의 성가대와 2개의 오케스트라, 어린이 오케스트라, 여성 중창단 쌍투스, 남성 중창단 칸투스, 독창자들이 참여하며, 모두가 합력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미국교회들과 2세 교회들에서 Traditional Choir가 사라지고 찬양팀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에도 베델교회는 전통 성가대를 통한 전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도들에게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 건강하게 싹틀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시작된 COVID-19 pandemic으로 베델교회는 큰 변혁을 갖게 되고 2022년부터는 새 세대에 적응하는 예배형식을 위하여 3개 성가대가 통합되어 1부 에서 전통적 양식의 예배를 섬기게 되고 2, 3부는 찬양팀 위주의 예배로 전환 되었다.

2. 양육 사역

구역예배/셀교회

1976년 이민 1세 30명이 윤용오 목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가진 후 1977년 등록 교인의 수가 140명에 이르면서 그 해 '베델한인교회'로 정식 이름을 등록하였고 교회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 해에 여전도회가 만들어졌고, 구역 집회에 25명이 모였으며, 이것이 베델교회 구역예배의 시작이었다.

1978년 후반에는 등록 교인이 180명으로 늘면서 구역집회 인원 수가 32명으로 늘었다. 이 즈음에 학생회가 창립되었고, 이어 1979년에는 장년회, 노인회, 청년회, 베다니 형제회가 생겨났으며, 12월에는 남전도회가 창립되었다.

1980년에 등록 교인이 230명이 되면서, 5개 지역(Mission Viejo, Laguna Hills, El Toro, Irvine, Tustin)에 14개 구역을 편성하여 지역장 및 구역장을 임명하고 구역예배를 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 접어들어 등록 교인이 283명으로 늘면서 구역예배 참석 인원도 87명으로 늘고 성인성경반도 아울러 활성화 되었다.

1981년 5월에는 현 베델교회 위치인 건축대지를 Irvine Company로부터 구입하였고, 1982년 11월 백태현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85년 8월 임시 교육관을 설치하고, 1984년 기공을 시작한 본당이 22개월 만에 준공되어 11월 6일 헌당예배를 드렸다.

1990년 12월 16일 손인식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고, 시무 첫해 구역예배는 Laguna, Saddleback, Northwood, Deerfield, Woodbridge, Turtle Rock, Tustin, Garden Grove, Beach 총 9개 교구로 편성되었다. 이후 1995년에는 등록 교인 수가 2,000명이 넘으면서, 3개의 대교구와 42개의 교구에 140개의 구역으로 구역예배 조직이 재편되었다.

손인식 목사가 부임한지 7년이 되던 해인 1997년 8월, '구역예배'로부터 '셀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Cell Church 목자 모임을 가진 뒤 셀목자들을 세웠고, 9월에는 Cell

Church Seminar를 열어 셀목자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9월 28일, 첫 번째 Cell Church를 시작하였다. 손인식 목사의 베델교회 목회 마지막 해인 2013년 당시 교인 수는 1990년 부임 당시 200명 성도에서 크게 성장하여 5천 명 등록 교인에까지 성장하였고, 아울러 셀교회도 더불어 함께 성장하였다.

2014년 김한요 목사가 베델교회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베델교회는 또 한 번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다. 강해 말씀 중심의 목회로 교인들의 영적, 지적 충만을 채워주면서 출석 성도가 점점 증가하였고. 제자훈련을 중심으로한 말씀 공부와 더불어 교재 중심의 셀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셀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베델의 셀교회는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델교회에 잘 정착되어 교회 조직을 공고히 하고 많은 사역들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며 현재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 변천사의 상세한 내용은 제 6장 b편(구역 및 셀교회역사)에서 볼 수 있다.

제자훈련

베델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이다.

3대 손인식 목사가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4대 김한요 목사를 청빙했을 당시 손 목사는 “제자훈련을 잘하는 목사님이시라 기대가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국 교회에 제자훈련을 정착시킨 옥한흠 목사(사랑의 교회 설립 목회자)와의 2009년 인터

뷰에서 김한요 목사는 “진짜 목회는 바로 제자훈련인데, 다른 데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중략) 목회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단에서 던진 메시지가 교인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키워야 했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은 예배의 연장”이라는 뜻이었다. 그만큼 이 사역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베델교회의 제자훈련은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다. 바로 김한요 담임 목사가 직접 만든 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김한요 목사는 1992년 당시 만 30세로 매사추세츠 주의 유학생들과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던 중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배 이후 학생들의 수많은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또한 그 중에는 초신자들도 많아 기도와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밖에 없었기에, 목회 현장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 제자훈련을 접하게 되었고 교재를 수집해 제자훈련을 시작하였다.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엔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유학생용과 한인 2세 용으로 나눠 진행하였는데, 현재 베델의 성도들이 공부하는 제자훈련 교재는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이 말씀은 제자훈련의 근간이 되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제자 삼는 일이며,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김한요 목사는 제자훈련의 성경적 근거를 설명한다.

또한 베델의 제자훈련은 다음과 같은 김한요 목사의 목회철학 아래 구체화 되었다. 1)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2) 교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3)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로 이뤄진 교회 4) 선한 영향력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교회. 이 비전

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루어 가기 위해 제자훈련은 교회에 필수적인 사역이다.

"제자훈련은 자기생활의 범주를 벗어나는 첫걸음, 남을 향한 겸손한 내디딤, 안으로 걸어 잠근 나의 문을 세상을 향해 여는 용기 있는 출발.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김한요 목사)

베델교회의 제자훈련은 1단계 새가족반(4주), 2단계 양육반(16주)/청지기 아카데미(10주), 3단계 베델제자반(30주)/English Discipleship Training(30weeks)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훈련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2단계를 거쳐 베델제자반에 들어가면, 김한요 담임목사를 비롯 1세 모든 전임교역자가 각 반의 리더가 되어 클래스들을 이끈다. 7~1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한 클래스에 배정되어 약 3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베델교회에서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개발한 제자훈련 교재로 지난 2006년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이수자 387명을 탄생시켰고, Andrew Lee 전도사의 인도로 교회 내 영어권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베델제자훈련이 더 큰 영어권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전도폭발

전도폭발은 교회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할 가장 필수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훈련받지 않은 자가 제대로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델교회는 일찍이 전도 훈련의 중요성을 인지, 전도폭발을 시작하였고, 매년 2회씩 진행하여 어느덧 2021년 현재 54차를 맞이하는 동안 많은 훈련자(전도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주최하여 국제전도폭발 미주본부의 지도자들을 강사로, 지도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훈련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목사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참가하여 훈련을 받고 각 교회로 돌아가 전도폭발 사역을 더욱 견고히 하거나 새로 출범하는 계기로 삼았다.

베델 전도폭발 팀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담당 목회자의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이어 1단계~5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집중 교육을 받은 뒤 훈련자, 준 훈련자, 훈련생 3인으로 구성된 조들이 현장실습을 위해 예비된 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중 현장실습은 전도폭발의 핵심으로, 잘 준비된 훈련자의 인도로 3인이 복음을 나누어 전한다. 이 실습의 두 가지 유익은, 우선 훈련생이 현장전도를 통해 훈련된 전도자로 성장하게 되고, 전도 대상자는 영생의 복음을 들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장복음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각 조들은 공개보고 시간을 통해 현장 방문의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듣고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믿음이 연약했던 훈련생은 정리된 복음제시를 암기하면서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 평생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팀원들은 준비된 복음으로 가족을 전도하여 결신하는 기쁨을 누린다. 처음엔 실습 팀의 방문을 불편해 했던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몰랐던 대상자들은 복음을 듣고 다음 번 훈련생으로 헌신하게 된다. 3인이 한 조가 되어 현장에 나가지만,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

고, 그것이 전도폭발을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다.

53차는 특별한 전도폭발 훈련이었다. 전세계가 Covid19으로 서로의 만남이 차단되어 현장전도는 불가능했지만,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기도모임을 갖고 훈련을 받고 Virtual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어바인과 오렌지 카운티에 국한되었던 실습이 이 방식을 통해 샌디에이고, 한국, 독일에 있는 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며,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베델교회에서 전도폭발 사역이 이렇게 성장하며 지속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 복음전도와 선교를 중요시했던 손인식 목사의 후원, 김한요 목사의 선교열정과 아울러 담당 목회자들, 팀장들, 평신도 교사들, 평신도 훈련자들의 충성된 수고가 모두 합쳐져 오늘날 풍성한 열매를 가능하게 하였다.

루디아/화요여성축제/Women Alive

베델의 화요여성모임은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한 크리스천 여성의 정체성 회복, 건강한 여성으로서의 역할 습득 및 행복한 가정을 위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는 소그룹 나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감 실천"을 목적으로 찬양과 말씀, 다양한 성경공부 클래스를 통해 여성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가꿔가도록 돕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90년대 후반 베델교회의 부흥과 함께 태동되었다. 당시 손인식 목사가 진행하는 셀 리더 훈련 및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성도간의 교제

를 나누고 더 훈련 받기 원하는 많은 여성 성도들의 갈증이 있었다. 이에 그 당시 여성 사역의 중심이었던 '루디아' 사역 인도자들의 제안으로 2000년 9월 14일 '화요여성축제'가 태동되었고, 약 250명의 여성 성도들이 모이며 본격화 되었다. 신앙 안에서 여 성도들의 다양한 갈급함에 맞추어 '성경일독학교(어! 성경이 읽어지네)', '커피 브레이크', 'QT 모임', '자녀양육', '책 별 성경 강해' 등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었고 이후 확대, 발전하였다.

베델의 여성 모임은 2016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여성"을 의미하는 'Women Alive'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에 따라 2017~2018년 사이 다양한 강의들이 재정비 되어 여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2019~2021년 현재까지는 '성경통독(어! 성경이 읽어지네)'과 '신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통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매년 봄, 가을 두 학기로 진행되며, 개강 종강 banquet 및 바자회, 야유회 등 학기 중 특별 활동도 기획되고 초신자나 비신자, 타 교회 성도, 지역사회 이웃 등 제한 없이 여성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전도의 장으로도 훌륭히 쓰임 받고 있다.

엄마의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미취학 자녀들은 유아실에 따로 모여 성경적인 커리큘럼에 맞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키즈 얼라이브(Kids Alive)'에 참여한다. 사역 초창기엔 단순한 baby sitting에서 시작되었던 돌봄 서비스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적으로 체계화 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3. 영성 사역

베델동산, 해외동산

베델교회의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단연 '돌탕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했던 곳이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하는 베델교회이며, 그 중심에 영성사역으로서의 '베델동산'이 자리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베델동산은, 당시 담임목사이던 손인식 목사가 여러 교회에서 진행 중이던 'Tres Dias(3일이라는 뜻)'라는 사역을 거울삼아 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준비한, 목회자가 이끌어 가는 치유와 섬김의 영성 사역이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금요일에 시작하여 주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앞만 보고 바쁘게 달리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잠깐이나마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매 회 40~50명의 신청자로 제한되어 몰려드는 성도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사역 첫 해에는 1년에 6회를 진행해야 할 만큼 그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사역인 만큼 두 번째 해부터는 1년에 4회 개최로 정착시켰고, 현재는 연 2회로 실시하고 있다.

베델동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근 지역으로, 타주로, 나아가 해외로까지 사역이 뻗어 나갔다. 2000년~2002년까지 3년간 몽골에서 한인 선교사들과 합력하여 현지인 대상 베델동산을 열었는데, 당시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 선교사들, 베델동산 팀이 함께 감격의 간증들을 나누었고, 2002년 몽골 사역 직후엔 중국 교회들의 요청으로 조선족 대상 베델동산을 개최함으로써 실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남미에서는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 칠레의 한인교회와 연합하여 사역을 진행하였고, 당시 그곳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로 현지 한인교회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수많은 돌탕들의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본 교회 파송 선교사로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던 유한성, 유영옥 선교사의 요청으로 과

테말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베델동산이 열렸고, 이 역시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2013년 다시 몽골에 베델동산이 접목 되었는데, 당시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있던 이청, 이인자 선교사와 현지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빚어낸 동산이었다. 인원을 제한할 정도의 참가 열기에 더하여 동산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였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됨은 물론 기절하는 사람까지 나올 만큼 그곳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고 계획하셨음을 봉사자 모두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 계속하여 본 교회 단기선교 팀과 베델동산 팀이 이 사역을 이어가며 현지 베델동산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부터는 현지 목사가 현재까지 베델동산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 미국 내에서도 나성 영락교회, 웨스트 힐 장로교회,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Fellowship 장로교회 등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베델동산 참석 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동산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모든 자료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

베델동산을 통해 삶이 변화된 간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마약중독, 도박 등에 빠져 재산과 가정이 파산 직전에 있던 참가자는 베델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고,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동산에 올라 다시 생명을 보전했던 간증 등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들이 매회 일어나며 베델동산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델의 돌탕행전은 계속될 것이다.

교회 홍보영상
https://bit.ly/376DS3i

부부동산

부부동산 사역은 손인식 목사의 크리스천 부부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되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상담할 사람도, 도움 받을 곳도 마땅치 않은 이민 교회 부부들의 현실 가운데, 부부동산은 부부간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부가 함께 나누고 상담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생활이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더 깊은 축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사역이다.

매년 1회 개최하다 현재는 2년에 1번 2박 3일간 열리며, 개최 장소로 초기에는 구수정교회 수양관에서, 이후 수 년간은 베델교회 갈릴리 수양관에서, 그리고 본 교회에서 행사를 갖는 과도기를 거쳐 이제는 어바인, 샌디에이고, 라스베가스 등 외부 리조트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진솔한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과 감사를 발견하는 가운데 많은 부부들이 은혜를 받으며,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서

부터 80대 황혼의 부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부부동산이 끝난 후에 남기는 참가자들의 피드백은 이 사역의 귀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베델 부부동산은 이제 베델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아가 파리, 캐나다, 브라질 등 해외에서 열린 부부동산을 통해 해외 교인들과 한인교회들을 돕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해외로 나가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던 남편이 구원 받는 믿음의 열매, 가정 폭력과 이혼의 위기에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싱글동산/민들레동산/Beyond the Blue

손인식 목사 부임 이후 1992년부터 사별과 이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을 대상으로 '싱글동산'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후 '민들레동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싱글동산은 혼자라는 외로움에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상처 받은 영과 육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 싱글맘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정립하여 남은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사역이다.

손인식 목사 은퇴 후 김한요 목사가 부임하며 2016년부터는 'Beyond the Blue'로 사역 명칭을 바꾸었고, "Grief Share and Divorce Care" 사역으로 범위를 넓혀 "가정회복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1년에 봄, 가을 학기로 나누어 1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2시간 동안 영상을 보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학기가 끝날 때 종강 파티를 개최한다.

'Beyond the Blue'는 베델교회 성도뿐 아니라 지역 교회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는 outreach 사역으로, 봉사자는 사별, 이혼 모임을 통하여 은혜 받은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역 시작 3~4주 전에 미리 모여 참가자들 외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로 준비한다. 매년 1~2회 베델교회 갈릴리 수양관에서 2박 3일간 진행되었으나, 2021년에는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여 화상을 통해 매주 금요일 저녁 7:00시에 모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산행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다.

아버지동산(학교), 어머니동산(학교)

베델의 아버지동산 사역은 2001년에 있었던 '아버지교실'을 원조로 하며, 아버지들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2006년 10월 '아버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산다!"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매년 1~2회 개최되고 있으며, 아버지동산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의 아버지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로서의 영향력과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영성을 일깨워 왔다. 또한 아버지동산을 통해 거듭난 많은 아버지들이 다음 참가자들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에는 제1차 어머니동산(두란노 어머니학교)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동산은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정을 바로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미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역이다. 어머니동산을 통하여 베델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있다.

중보기도

베델의 중보기도 사역은 "믿는 자의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취지 하에 2010년 '사메아 기도팀'으로 시작되었다.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로써 중보 하기 위함이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9-20) 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2014년 5월에 조직적으로 팀 구성을 활성화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주일 레위기도', '주중 골방기도', '목요일 중보기도, '치유기도' 4개의 기도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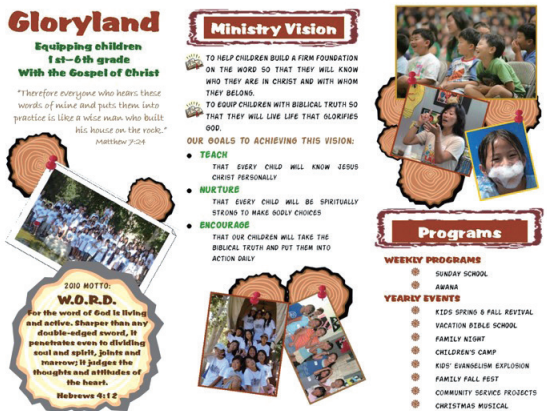
'주일 레위기도모임'은 1, 2,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 선포와 강단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주중 골방기도모임'은 일주일에 한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헌신해서 본 교회와 성도와 환우들과 선교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본당 골방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모임이다. '목요일 중보기도모임'은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카타콤 기도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 중이며,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며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 끝으로 '치유기도모임'은 매주 주일1, 2, 3부 예배 후 장로들과 권사들이 모여서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다.

주행

'주행'은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란 의미로, 베델 동산에 이은 제2의 베델 교회 주요 영성 사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15년 10월 1일 제1차 주행을 처음 시작하여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제한을 딛고 2021년 3월 18일에 제27차 주행을 가진 바 있다. 베델 수양관에 그룹별로 함께 올라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며 단절되었거나 식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길을 재정비하면서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기에는 사역팀장 등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주행을 시작하였고, 점점 각 사역팀, 공동체, 제자반 등 여러 그룹들을 대상으로 그 형태를 넓혀가고 있다. 주행을 통해 많은 베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기도, 찬양,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무장하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

4. 교육 사역

1) 교회학교(주일학교)



베델 교회학교의 세 가지 중심 사역은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훈련이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도록 매주 목회진과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다. 베델 교회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보다 헌신도가 높은 교사들과 팀장들이다.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교사들의 헌신으로 베델교회 교회학교의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다.

각 부서마다 말씀 읽기, Bible Memory Contest(말씀 외우기), 1년 성경 통독, 말씀 공부, 말씀 묵상, 제자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학교 자녀들은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가고 있다.

베델 교회학교의 부서들은 연령대 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믿음이 자라요!	Children's Ministry	Children's Program	Youth Ministry	Special Program
	유아부	AWANA	BYM 중등부	아기학교
	K-1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	BYM 고등부	베델한국학교
	유년부	어린이 5주 성교육	CIM 한어 중고등부	Youth Orchestra
	초등부	어린이 제자훈련		
	소망부	어린이 전도폭발		
		크리스마스 뮤지컬		

영아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를 주제 성구로, 0세에서 2세 사이의 어린 아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영아부 예배를 통해 예배의 첫 발걸음을 떼는 아이들이 신나는 찬양, 말씀과 축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된 교사들이 세심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울러 아이들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돌봄을 통해 부모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아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여, 2세부터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의 빛이 되도록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매주 교회에서의 예배와 놀이 활동,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유치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를 주제 성구로, 4세부터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믿음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유치부의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PowerPoint, skit(짧은 연극), 인형극 등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유치부의 광고와 사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원하

는 언어를 사용하는 클래스 선택이 가능하다.

유년부

초등학교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경공부와 액티비티를 또한 병행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3~5)" 하신 말씀을 주제로 하며, 특히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더욱 친밀하게 접하여 찬양의 목적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래 아이들로 구성된 Praise team이 담당 교사와 함께 찬양을 인도한다.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탄탄한 기초를 쌓도록 지도하며, 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비추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에 힘쓰고 있다.

초등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는 말씀을 주제로 예배와 성경공부, 그 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 깨닫도록 가르치고 훈련한다. 모든 역사와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복음의 진리로 훈련되어짐을 목표로 한다. 예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확신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도록 훈

련하여, 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키워내는 것이 초등부의 비전이다.

영어중고등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신 6:7).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델교회 영어 중고등부 BYM(Bethel Youth Ministry)은 학생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변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YM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엡 3:19),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며(엡 3:17),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엡 3:16), 말씀 안에서(엡 3:18) 모든 학생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BYM의 미래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청소년 공동체가 BYM이다.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어중고등부

한어중고등부는 다른 이름으로 CIM(Christ In Me)라고도 불린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어중고등부의 가치와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이름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가 하나되고 위로하며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공동체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를 주제 말씀으로 하여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2)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비성경적인 가치가 다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베델 교회는 학교와 교회, 가정이 하나가 되어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를 둔 교육을 제공, 올바른 지혜와 인성을 갖춘 다음 세

대의 당당한 크리스챤 리더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이 시대 남가주 대형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2021년 기독 사립학교인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my)의 개교를 주도하였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독교 고전 교육을 제공하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는 6명의 정식 교사와 2명의 행정 스탭, 그리고 다수의 애프터 스쿨 보조 교사 등을 영입하고, 2021년 8월 23일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약 30여명의 첫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교하였으며, 추후 12학년까지 그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사립학교인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이 학교의 사명과 비젼을 그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사명;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인성을 키우는 예수님 중심의 교육을 통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서로 사랑하고 힘써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학생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비젼;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는 고전 교육에 기반한 학문적 탁월함과 더불어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나타내며, 교회와 학교, 가정을 하나되게 통합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육해 가는 비젼을 가지고 있다.)

교회 법인과는 별도로 독립 학교 법인으로 시작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는, 개교와 함께 이사회 의장으로 김한요 목사 외 6인의 초대 이사를 추대하였으며, 베델 교회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개교로부터 첫 3년 동안의 시설 지원과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3) 교회학교 사역들

한국학교

베델한국학교는 “예수사랑, 나라사랑, 한글사랑, 이웃사랑”을 교훈으로, 미국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역이다. 1981년 9월에 시작된 이 사역을 통하여 미국에서 자라는 많은 한국인 2세 아이

들이 한국의 언어와 민족 문화를 습득하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들로 자라가고 있다.

아기학교

베델교회에서는 2011년 미주 최초로 아기학교를 개최하였다.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참여하는 영, 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라는 말씀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연 1~2회 개최된 아기학교를 통해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뛰놀고 예배하며 신앙과 인격을 고루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로 커가고 있다. 평일 낮 시간에 열리는 아기학교는 현재 아장이반, 깡총이반, 똘똘이반으로 운영 중이다.

VBS

교회학교 1년 행사 중 가장 큰 부흥회인 여름 성경 학교(Vacation Bible School)는, 여름방학 초반에 보통 4일에 걸쳐 열리며 베델교회 자녀들뿐 아니라 타교회, 믿지 않는 이웃의 자녀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

지난 기간 동안 매년 평균 400~500명이 베델교회 현장 프로그램에 참석해 왔고, 최근 시작된 온라인 VBS는 조회수가 약 1,600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위해 Teachers, Teacher's assistant, 진행 staff 등 대략적인 봉사 인원만도 200~300명에 달하며, Worship, Craft, Science, Food Craft, Game, Bible Study, Carnival, Field Trip 등 풍성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매년 VBS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한 믿지 않던 아이들이 이 즐거운 경험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전도의 장으로도 귀하게 쓰이고 있다.

AWANA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영어 성경(KJ Version)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유아부~초등부 6학년까지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훈련시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찬양과 말씀, 예배, 스포츠 형식의 게임을 통해 협동심과 질서의식을 배우며 성경공부와 성경구절 암송을 집중적으로 훈련 받는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베델교회 주일학교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말씀 훈련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지역 교회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역으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어와나 올림픽'에서 베델교회 자녀들은 늘 좋은 성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곤 했다.

Family Fall Festival

초기에는 '할렐루야 Night'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할로윈이라는 세상적인 문화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성경적이며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의 영혼이 자라가며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매년 할로윈 데이인 10월 31일 저녁 개최된다.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임들을 함께 즐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천국잔치로, Trick or Treat 대신에 "God bless you!"를 외치며 이후 Family night, Fall fest, Family fall fest라는 이름으로 점점 발전되었다.

Promise of Purity(순결서약식)

세상을 이기는 힘은 순수함과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모와 교회 앞에서 스스로 성결한 삶을 다짐하고 서약하는 '순결서약식'은, 1997년 9~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이후 격년으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대상을 넓혀 진행하고 있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결의 의미를 깨닫고 서약하며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아름다운 순간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눔으로 아울러 부모와 자녀간의 결속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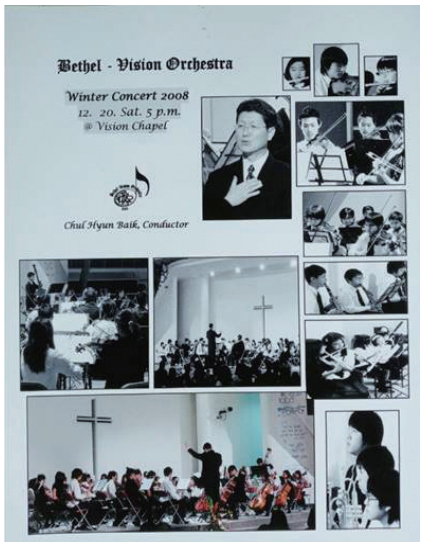
어린이 제자훈련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8주간의 강 훈련 과정이다. 제자훈련을 마친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의 구원까지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전도의 마음까지 품게 해 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제자훈련 2단계에서는 김한요 담임목사의 제자훈련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며 훈련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Korean Ministry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배우고 자녀들은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을 배우다 보니,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진지하게 토론하며 대화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어린이 제자훈련 1단계와 2단계 후 '어린이 전도폭발 훈련'을 하며, 일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기회를 통해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같은 눈높이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어린이 오케스트라



'Bethel Youth Orchestra'는 악기와 음악적 재능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세 자녀들이 음악을 통해 참된 크리스천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음악으로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약 80~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연중 3월, 6월, 11월에 3번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예배 중 특별찬양 연주,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홈리스를 위한 거리 공연 등을 열고 있다.

어린이 크리스마스 뮤지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는 상관없는 화려한 장식과 산타 클로스 선물 등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뮤지컬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베델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성탄 감사 가족 예배로 베델의 첫 어린이 뮤지컬인 “Angel Alert”를 정성껏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공연하였으며, 이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뮤지컬을 예수님과 온 교회에 선물하고 있다.

4) 특수교육

소망부

베델교회의 소망부 사역은 발달 장애 아동(뇌성마비, 자폐성 장애, 다운증후군, 학습장애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라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예배와 기도, 말씀 교육과 신앙 훈련, 소통과 교제, 그리고 전도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표어와 같이 이 사역은 소망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인식 목사의 2세 사역 비전 가운데 하나로 소망부/장애우 사역을 담당할 지영봉 전도사가 2004년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하게 되었고,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류하며 예배와 찬양, 기도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사랑의 공동체 사역으로 성장하였다.

예배는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되며 말씀과 기도, 헌금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craft시간으로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예배 후에는 식사와 다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일예배 사역 외에 장애우 가정들로 구성된 cell 사역, 전도사와 함께하는 Bible 통독, 수화 찬양, 한 달에 한 번 양로원 방문, 소망부 VBS 및 야외 picnic, 부모와 함께하는 멕시코 일일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임마누엘 성경대학

베델의 경로사역은 단순한 경로우대 차원이 아니라 본 교회 신앙의 대선배들을 독려하여 교회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며, 또 한편으로는 비

신자인 시니어들이 경로사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 사역이다.

2016년까지는 '임마누엘 성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4째 주 토요일에 약 200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각종 건강세미나와 식사를 통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나, 시니어 사역이 '베델 MIT 대학'과 통합되면서 매년 설날 떡국 잔치, 효도관광, BBQ파티, 경로잔치 등의 경로행사로 성격을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

베델 MIT 대학

베델 MIT 대학은 시니어 대학의 필요성에 의해 2014년 설립되었다. 총장인 김한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이름을 '베델 MIT(Master's Institute of Teachable Disciples) 대학'으로 정했으며, 젊은 학생들의 로망인 동부의 명문 MIT 대학에 비견될 만한, 시니어를 위한 서부의 베델MIT대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꿈을 가지고 이민 와 나라와 민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한 훌륭한 1세 부모들, 시니어들을 영적 재무장을 통해 주님의 겸손한 제자로 양성하며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MIT 학생들은 은퇴 후에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비 신자들 역시 베델 MIT에 입학하여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대학은 주님의 대학"이라 자부하고 있다.

베델 MIT대학은 1부 예배(찬양과 기도로 마음 문을 열고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생활에 유익한 특강이나 참가자들의 간증 등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시간), 2부 단체활동(전 학생이 체육관에서 갖는 라인댄스, 점심식사 등 친교의 시간), 3부 선택 과목 수업(컴퓨터, 악기 연주, 미술, 서예, 외국어 회화, 사진, 종이접기, 찬양고전무용 등 다양한 강좌 개설)의 순서로 진행된다.

새가족 사역

손인식 목사 부임 이후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이어졌을 때, 베델의 영적 부흥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준비되었던 유한성 목사(당시 사무장으로 섬김), 유영옥 사모는 새가족 영접부터 심방까지 두루 담당하며 새가족을 영접하여 공동체로 연결하는 총체적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후 2000년 은퇴를 준비하던 때에 베델의 성도는 이미 3천 명 이상을 넘어섰고, 새로이 사역을 감당할 적임자를 고민하던 끝에, 교회 공동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청년공동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5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 각 공동체 담당 부목사들과 동역하는 유급 평신도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몇 년 뒤 도우미 제도가 폐지되고 새가족 전임 사역자와 공동체 사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들을 임명하여, 자원하는 평신도 도우미들과 함께 사역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2008년 최미정 전도사가 1세 새가족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2017년까지 사역을 전담하였고, 이후 한순고 전도사가 현재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새가족 사역은 주일 영접, 주중 케어를 담당하는 바나바 사역, 새가족 클래스, 새가족 만찬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일 영접 사역'은 주차 안내, 본당 입구까지 인도, 등록, 예배 섬김, 새가족 환영실 안내, 자녀

를 위한 교육부 안내와 픽업, 점심 섬김, 교회 안내, 새가족 클래스 운영 등이 주된 섬김이고, 매 주일 20~30명의 봉사자들이 봉사하였다.

'주중 바나바 사역'은 새가족이 주일에 교회에서 식사하는 동안 함께하며 교회 안내와 카운슬러 역할을 하고 새가족의 필요에 따라 주중에도 연락하며 교회에 정착될 때까지 밀착하여 섬기는 사역으로, 봉사자들의 사랑 담긴 섬김으로 그저 지나다 들렀던 새가족들도 이 과정을 통해 등록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0~20명 정도의 섬김이들이 헌신하였다.

'새가족 클래스'는 교회에 등록을 결정한 새가족들에게 담임목사가 제작한 영상으로 4주간 복음에 대해 교육하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셀교회에 연결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클래스를 수료한 성도들에게 양육반과 제자반 등의 교육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가족 만찬'은 년간 4~5회 진행되며, 매회 2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식사 준비, 데코레이션, 주차안내, 좌석안내, 사진촬영, 뒷정리 등 각종 섬김을 담당하는 봉사자만도 50명이 넘는 큰 행사이다. 새가족 초대과 행사 기획은 목회자가 주도하고, 베델의 장로, 권사, 셀목자들이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함께 자리해 식탁 교제를 나누며, 교회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든 목회진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일 예배시간을 앞두고 어색한 모습으로 멀리서 부터 걸어 들어오는 새가족들을 바로 알아봐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은 새가족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이 교회로 전입하거나 교회가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낯선 초신자들에게 반가움 가득한 눈빛과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환영은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큰 용기를 준다. 새가족 사역은 잘 짜인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한 영혼을 예수의 사랑으로 영접하여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은 기본이며 극도의 영적 민감성과 영적 센스가 필수적인 사역이다.

크라운 재정교실/청지기 아카데미 재정교실

'크라운 성경적 재정교실(Crown Biblical Financial Ministries)'이 베델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성경 말씀을 통해 돈과 재산 관리를 올바르게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오랜 관심을 두고 있었던 베델교회의 박종식 장로가 같은 목적의 소그룹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2인이 창설한 이 사역을 베델교회에서도 시작하게 되었고, 2004년에는 손인식 당시 담임목사가 프로그램 교재를 셀교회 성경공부 교재로 결정하면서 1년에 1,2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매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담임목사인 김한요 목사는 이 사역을 제자반 필수 과목인 '청지기 재정교육'으로 지정하여 성도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베델교회에서 2004년~2011년까지 9번의 전국 초대 Annual Seminar를 개최하였고,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평신도와 목회자 7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04년에는 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 크라운 성경적 재정교육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명칭을 '청지기 아카데미 재정교실(Stewardship Academy)'로 바꾸어 사역하고 있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배워 삶에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역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 성경 전체 구절의 7.5%를 차지하는 2,350절의 구절이 돈과 물질 그리고 재산에 관한 것일 만큼 돈의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참가자들의 간증을 통해 이 사역은 물질적인 면 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기도생활, 성경공부, 봉사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회성장실험교실/미래목회세미나

이민교회의 공통적인 고민은 아마도 어떻게 교회를 영적으로 또한 건전하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베델교회는 이민 사회에서 단기간에 성장하고 안정화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기에, 그 비결을 알고자 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미국 전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일주일의 일정으로 '실험교실'을 개최하게 되었다. 넉넉한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목회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며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충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교육 과정 중에는 베델교회가 겪은 성공의 기록뿐 아니라 이민 교회 목회 중 겪었던 어려움들을 부끄러움 없이 낱낱이 밝히며 많은 교회가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분열의 아픈 기억과 고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다.

목회자들이 머무는 동안 베델 성도들은 민박과 교통편으로 봉사하여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풍부하고 실질적인 강의와 workshop으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사모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부부들을 위한 건강검진까지 이루어져 목회를 내조하느라 심적, 육신적으로 지친 사모들에게 큰 위로와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1999년 열린 제1회 실험교실에는 118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다음 해인 2000년에는 137명이 모이는 성황을 이루었다. 2008년, 2009년도에는 내용을 달리하여 '미래목회세미나'의 이름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러한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 베델교회는 다른 이민교회와 함께 그 동안의 경험과 vision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5. 선교 사역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일 것이다. 베델교회는 소속 교단이 C&MA 즉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로서 선교에 그 존재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초창기부터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었으며, 현재도 많은 선교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다.

1) 베델의 선교 사역 역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 발전, 진행 중이다.

초기 선교(1976~1993)

베델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설립 2년 후인 1978년 말 모국의 선교를 위하여 10개의 미 자립 교회들을 돕기로 한 일이다. 비록 미미하지만 본 교회도 자립하지 못한 형편에서 더 어려운 모국의 교회를 위한 복음전파의 노력이었고, 이 후원을 통한 교류와 교인들의 헌신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또한 결속을 다지며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깨우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베델교회에서 제1차 선교대회를 열었고, 1992년에는 김진영 목사를 칼믹키야의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어 1993년에 송창홍/송하나 집사 내외를 평신도 선

교사로 구 소련, 타쉬켄트에 파송했으며, 이종환/이중녀 선교사를 중국에, 김진영/김은경 선교사를 킬리키아에 파송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베델교회는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 태동기에 성령의 감화를 받은 수많은 일꾼들 중에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된 것이다. 이 중 김광신, 송민영, 김충모, 유한성 선교사는 선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베델이 양성한 인재들이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선교 부흥기(1993~)

베델의 단기선교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20개가 넘는 선교 팀이 1일 멕시코 선교를 필두로 중국, 일본, 몽골, 캄보디아, 페루, 과테말라 등의 지역에서 1주~10일의 기간 동안 현지선교사들과 연합하여 사역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목회자로 이주형, 박대균, 이종환 목사 등이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였다.

평신도 선교사 파송기(2010~현재)

그 동안의 많은 선교 활동이 1~2주의 단기였던 것에 비해 2010년부터는 중장기 선교가 펼쳐졌다. 유한성 목사가 은퇴 후 “마지막 토막을 선교를 위하여 바치겠노라”라

는 서약과 함께 유영옥 사모와 함께 과테말라로 이주하여 안경사역을 비롯한 의료, 치과, 교육사역에 몰두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평신도로서 중기/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몽골, 남아공, 키르키즈스탄,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사역하였다.

BAM(Business As Mission)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의 선교 방식도 변화를 맞기 시작하였다. 목회자의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학적으로 잘 무장된 장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평신도로서 생활 전체를 통하여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가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많은 선교지의 정부가 목회자 선교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늘어나며 선교사들의 현지 거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전문인 또는 기업인으로 현지에서 선교 대상자, 특히 젊은 세대와 공감하며 삶을 통하여 선교사역을 하는 효율적인 방식이 매우 적합하게 되었다.

베델교회가 BAM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4년 다른 몇 개의 선교단체와 함께 본 교회에서 BAM Forum을 열게 되면서부터이다. 여러 초청강사와 현지 BAM사역자들이 참가하였고, 본 교회 성도들도 다수 참석하여 BAM이라는 선교의 새로운 개념과 실행 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19년 김현수/김봉주, 서형렬/서정희 두 부부를 Romania와 Georgia의 BAM선교사로 파송하였고, 오늘에 이르렀다. 2014년에 터키로 파송된 장과장/주열매 선교사는, 젊은 세대로서 coffee shop, Internet cafe등의 BAM 사역으로 현지의 젊은이들과 교감하며 훌륭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2) 특화된 선교 사역들은 아래와 같다.

협력선교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는 없으나, 현지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단기선교 팀을 보내어 서로 밀접한 사역과 기도의 협력을 하는 협력 선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베델교회는 23개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료선교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손길은 의학의 혜택일 것이다. 열악한 기후조건, 정수되지 않은 식수, 충분치 않은 영양상태 등으로 인해 많은 현지 주민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료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평생 한 번도 의료진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에 베델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 전문인들이 개인 혹은 소규모의 그룹으로 선교지에 가서 하루 종일 끝도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약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봉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베풀었다. 초기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등 중남미에 치중되었으나, 점차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지역을 넓혀 의술과 인술을 베풀고 있다.

의료선교대회

교회 내의 선교에 헌신된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남가주와 타지의 의료인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conference를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당시 미주 기독의료선교회 협의회 회장인 이건오 박사와 의료 선교계에 잘 알려진 전희근 장로를 비롯한 여러 의료선교사가 적극 참여하여 의료선교대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교회에서는 항상 선교에 앞장서 왔던 한일 장로가 총 책임을 맡고, 역시 선교에 열정을 가진 서동민, 탁정호, 윤여도, 김명수 장로등과 교회내의 여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이 힘을 합쳐 새로 부임한 조철희 목사의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대회를 준비하였다. 미주각지의 다른 교회의 의료인들도 적극 참여하여 첫 번째 한인의료 선교대회(Korean American Medical Health Conference-KAMHC)가 2006년 11월 3-4일 베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선교대회의 목적은 1. 의료선교개념 확립, 2. 선교현장정보 공유, 3.선교전략 공동수립, 4.의료선교 헌신자 모집, 5.미주지역 의료선교 네트웍 구축, 6. 1,2세 장벽 헐기 등 6가지였다. 1,2,3회 선교대회를 베델교회에서 개최한 후 제 4회는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후 1-2년마다 대회를 열다가, 창립 10년 후, 젊은 세대와 타 community를 더 어우르기 위해 GMMA(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로 명칭을 바꾸고 2019년 제 16차 모임까지 하였다.

계속되는 모임을 통하여 유명한 의료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분과를 통하여 세계에 흩어져 의료 선교를 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한데 모여 각자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대회를 통하여 많은 헌신자들이 선교 활동에 서원하였다.COVID가 지난후 다시 대회는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안경사역

안경사역은 베델 의료선교에서 시작된 사역이다. 1998년 유한성 목사는 비 의료인으로서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안경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후 2년간 준비 끝에 “Gift of Vision”이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구성하고, 이대은 장로의 도움을 받아 2000년부터 안경사역을 시작하였다.

많은 안경을 도네이션 받았으며, 안경 검안 기계도 준비하여 선교 현장에서 검안과 안경을 제공하다가 이후 안경 깎는 기계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안경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많은 교회의 선교팀이 본 교회를 찾아와 강습을 받고 현지에서 안경사역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안경사역은 의료선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북한 동족들의 참담한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통곡기도운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KCC(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n Freedom)’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KCC는 손인식 목사의 주도로 2004년 9월 Los Angeles에서 시작

되었다.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북한 동족을 향한 통곡기도운동의 불길이 북한과 평양이 열리는 그날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의지와 목적의 상징으로 'UTD(Until The Day)'라는 선교 연합 조직이 만들어졌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UTD-KCC의 종합된 선교 연합 단체로 발전되어 미 정부에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선교 연합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의 순수한 기도운동으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자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동포를 향한 외침이다. 기도와 함께 전 세계 각 나라와 시민들에게 북한 동족의 처참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려 그 참상을 깨닫게 하고 북한을 향한 양심선언과 인권회복을 선포하게 하는 것 또한 이 선교 사역의 핵심 중 하나이다.

해외문화선교

해외문화선교는 1998년 김진영 선교사(현 Silk Wave Mission 대표)의 첫 선교지인 러시아 칼믹키야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선교팀은 본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었고, 해당 선교지의 문화에 맞게 수 개월간 준비한 찬양과 가곡, 한국무용, 솔리스트의 독창, 판토마임 등의 문화공연을 펼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 공연을 통해 마음 문을 열었고, 손인식 당시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 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신의 역사가 있었다.

문화선교와 함께 의료사역, 아동사역을 병행하면서, 낮에는 사역지에서 의료(치과, 소아과, 내과)사역과 아동사역을 펼쳤고, 저녁에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문화를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포되는 가운데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위대하심,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미약한 헌신이 쓰임 받는 깊은 감동이 선교지에서 마다 팀원들을 압도하였고,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팀원들로 성숙해 가는 축복 또한 누릴 수 있었다.

문화선교는 문화를 간판(?) 걸고 하는 말씀 선포 사역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주의 손에 기꺼이 붙들려 쓰임 받는 도구가 될 뿐이다.

토요 선교 예배/헵시바 기도회

베델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에 선교를 위한 예배를 드려왔다. 손인식 목사 때에는 '히스기야 기도회'라 명명했다가, 김한요 목사 부임 후 '헵시바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평소의 새벽예배와 흡사하지만, 찬양과 말씀이 끝난 후 특정 선교지를 선정하여 미리 받은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해당 선교자의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교사들이 방문하는 기회에 선교 간증을 통하여 현지의 생생한 영적 싸움의 상황을 전해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한다.

2002년~2013사이에는 성도들이 조를 이루어 특정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책임자가 현지선교사와 연락하고 근황을 묻고 기도제목을 받아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이 시간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하는 현지 선교사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

베델 선교관 사역

2017년, 베델교회는 국내, 외의 선교사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임시 체류 및 안식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베델 선교관'을 구입하였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Lake Forest에 위치한 이 곳은, 찾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주택으로 구입하여 가구 및 집기는 물론 운동기구, 인터넷 등을 갖추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베델교회 파송 및 협력 선교사는 최대 2주일, 교단 및 타 선교 단체 선교사는 최대 1주일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선교관 이용료는 하루 $10.00로 계산하여, 모인 헌금은 베델교회 선교비로 사용된다.

2016년 오픈 이후 계속적인 사용자로 선교관이 빈 날이 거의 없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편안한 안식과 휴식처가 될 것이다.

6. 봉사 사역

Homeless 사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여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머리를 가려줄 지붕이 없이 노숙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국에서도 평균 소득 상위권의 Orange County에서조차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 생의 음지를 이루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베델교회는 일찍부터 이들에 대한 봉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본 사역의 시기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 1기(1994년 말~2015년 중반) Santa Ana 시청 주차장

홈리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994년 말에 태동한 노숙자를 위한 봉사 사역은, 20년 간 수많은 봉사자들과 교회의 노력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매주 주일 아침 7시에 기도로 시작하여 따뜻한 커피, 차, 수프와 아침식사를 제공하였다. 노숙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시작 시간 전부터 200~300명의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날씨에 상관없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 배식으로 한데서 밤을 지낸 노숙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미소진 얼굴로 감사를 연발하였다.

그들에게 음식뿐 아니라 좀더 예수님을 전하고자 식사 후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진행되었고, 단순히 음식만 배급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들으며 반응하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에 봉사자들은 큰 감사와 보람을 느꼈다. 그 중 은혜 받은 한 청년은 본 교회 저녁예배 때 간증을 통하여 홈리스 사역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간증하기도 하였다.

사역이 본 궤도에 들어서면서 여러 성도와 타교회 지인들의 봉사로 홈리스 어린이를 위한 아동사역, 연극공연, Youth Orchestra 연주, 한방 진료, 이발 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기적은 아니나 Hispanic교회, 타 미국교회들에서 말씀, 찬양, 음악연주, 봉사참여 등으로 돕기도 하였다.

제 2기(2015년 중반~2017년 중반) Santa Ana 시청 입구, Salvation Army

시청 주차장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시청 청사 입구에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 전과 같이 봉사가 이루어졌으나, 주말에도 출근하는 시청 관계자들의 불편과 여러 제약들로 인해 몇 곳을 옮겨 다니다 Santa Ana 시의 Garfield Street에 있는 Salvation Army 건물로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잦은 봉사 장소 이동과 찬양, 말씀의 제약으로 이 시기에는 homeless 사역이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제 3기(2017년 중반~2020년 초) Santa Ana Salvation Army, Sant Ana Mercy Home

2019년 초까지 사용하던 구세군 건물에서는 아침 6시부터 사역을 시작하였고 말씀과 찬양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어 영혼 수확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없었고 음식 제공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 매우 불편하였다. 이때 점차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문제되어 공청회까지 열려 더 강한 규제로 사역의 규모가 위축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Mercy House라는 봉사기관으로 이사한 뒤 장소가 넓어져 음식 제공 후에 이발, 한방 등으로 홈리스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며 복음 전도도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 초 전세계를 휘몰아친 팬데믹의 폭풍으로 모든 것이 정지 되었지만, 돌이켜 볼 때 지난 25년의 홈리스 사역은 힘들면서도 은혜롭고 보람찬 나날이었다. 수많은 베델교회와 타 교회의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즐겁고 보람 있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땀 흘리며 섬기는 일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연령과 배경, 인종의 벽을 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베델의 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이 봉사에 참여하여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와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 결과 최근 2명의 젊은이들이 The President's Lifetime Achievement Award를 받게 되기도 하였다.

이 사역을 위하여 토요일 하루 종일 많은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음식준비를 하고 주일 새벽 5시에 모여 준비를 마친 뒤 7시까지 현장에 도착, 모든 봉사가 끝나면 모두 깨

끗하게 주변을 청소한 후 돌아와 남은 정리를 하게 됨으로, 매우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사역이다. 베델교회는 이 사역의 책임자를 그 해에 선출된 사역장로에게 맡겨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있다. 점점 각박해지고 인종간의 갈등이 심해가는 이 때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퍼뜨려 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일 것이다.

식당 사역

초창기 식당 사역은 구역 활동과 행사 때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정도였고, 본격적인 사역은 손인식 목사가 부임하면서부터였다. 성도 수가 늘어감에 따라 예배의 횟수가 증가하였고 사역들도 다양화 되면서, 성도들과 각종 사역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 제공이 필요하였다. 처음엔 지금의 비전센터 자리에서 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식사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잔디밭에서 식사하였다.

초창기 식당 사역을 맡았던 박영해 권사에 의하면, 1992년에만 해도 본당과 제2성전이 있었으나 주방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임시 창고 건물을 주방으로 사용하였다. 싱크는 일반 가정집 사이즈보다도 작았고, 냉장고도 작고 낡은 것이었다. 초라하다고 느껴졌던 임시 주방이었지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낌없이 헌신하던 봉사자들의 수고로 늘어나는 성도들과 사역들의 식사를 잘 감당하였고, 교회 마당엔 항상 웃음꽃이 피었다.

1999~2001년에 기존의 간이 식당과 주방 자리에 '비전센터'가 세워지면서, 건물 내부에 잘 만들어진 주방과 3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홀이 만들어졌다. 그 즈음 이미 식당 사역은 성도들, 봉사자들의 주일 점심 식사와 교회 대내외 수많은 사역들을 서포트 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점점 커지는 사역 규모로 필요에 따라 주방에서 일하는 몇 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연영숙 권사가 팀장을 맡아 식당 사역 방식을 180도 전환하였다. 봉사자는 자원봉사제로 바꿨으며, 음식 재료 공급도 대형 마켓에서 경쟁을 통해 공급받아 불필요한 보험이나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새로운 식당에, 음식의 양도 질도 급격하게 개선되며 1불을 식사 비용으로 받게 되었고, 1불짜리 훌륭한 점심식사 소문을 듣고 인근의 가난한 대학생들도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푸짐하게 식사를 하였다. 교회 식당 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베델의 식당 사역은 이제 교회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역들과 부흥회,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2001년 이후부터는 매년 초 사역권사를 중심으로 식당 사역 팀장을 교회에서 임명하여 자원봉사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식당 장비들도 upgrade 되었으며, 메뉴도 더욱 다양해졌다. 베델 식당은 모든 사역 팀들에 오픈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Homeless 사역, 어와나, VBS, 성가대, 교회학교, 경로사역 등 어느 부서나 필요에 따라 식당과 주방을 사용하며 사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운영하고 있다.

병원 사역

2007년, 손인식 목사가 임상병리 전문 의사로 은퇴한 이강민 장로를 병원 사역 전도사로 임명하며 베델의 병원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한순고 전도사가 부임하며 사역이 더욱 활발해졌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병원심방팀'에서는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에 참석한 뒤 예배가 끝나면 별도로 모여 찬송과 말씀으로 시작해서 교회에서 작성한 환우 명단을 보며 환우를 위해 기도한 후 구역 담당 목회자와 함께 방문 계획을 세우고 환자들을 방문한다.

'의료 상담'도 중요한 병원 사역 가운데 하나다. 진단과 치료의 방향은 전적으로 담당의사와 환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병원 방문과 환우와의 상담에 제한이 많고, 특히 "생명연장 포기"를 미리 작성하지 않아 환우와 가족이 갑자기 결정해야 할 경우가 상담 사역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다. 상담을 위해 환우들을 방문하면서, 신앙의 유무와 척도에 따라 병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름을 항상 접한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할 때 그 병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음을 수많은 환우들을 통해 목도하고 있다.

양로원 사역

양로원 사역(2019년부터 '병원심방팀'과 '양로원 사역'이 '양로 병원 봉사팀'으로 통합됨)은, 1999년 1월 이형희/이영자 장로 부부, 이혁재 장로 가정의 자발적인 양로원 방문과 봉사로 시작되었다. 2000년에 이르러 이형희 장로가 이끄는

한마음셀의 셀원들이 조인하면서 봉사 인원이 늘고 매주 정기적인 봉사가 이루어지자, 2001년 교회에서는 '사회봉사팀'을 창설하여 교회 차원의 사역으로 발전하였다.

사역 초창기에는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입주하여 있는 Santa Ana French Park 양로원을 찾아갔으며, 매 주일 아침 봉사자들이 양로원에 모여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각 방의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생들이 사역에 많이 조인하여 각자의 탤런트 대로 악기 연주, 찬양, 율동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봉사활동을 하며 바른 어른들로 자라나는 모습들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 하나이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교인이 이 사역에 참여하여 선물을 모으고 그룹별로 6개 양로원으로 나뉘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매년 5월이면 교회에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가서 양로도우미 및 스텝들까지 함께 나누며 어린이 오케스트라, 주일학교 어린이 합창단 등의 공연을 펼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Westminster에 소재한 Welcome Christian Home의 요청에 의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느 누군가의 작은 마음의 불꽃이 떨어져 큰 불을 이루듯이, 1999년 한두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실행으로 옮겨져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중단 없이 더 많은 여럿이 동참하여 교회 차원의 사역으로 커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심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팀원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고 있다.

예향 사역

'병원심방팀'에서 환우들 심방이 이어지던 중, 암 환우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가운데 특히 여성 암 환우들은 수술, 키모 테라피, 검사 등으로 힘든 치료 과정 중 본인의 식

사는 물론 가족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충이 있음을 알게 되어, 환우들을 음식으로 섬기는 전문 사역인 예향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랑과 기도로 만든 영양과 청결을 모두 갖춘 보약 같은 음식을 환우들에게 전해 드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사역에 김한요 담임목사가 '예향(예수님의 향기)'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 사역을 통해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비신자가 교회에 첫 걸음을 하게 되기도 했고, 암 투병 중에 예향 음식을 받고 이후 완치되어 현재는 같이 동참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수혜자도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환우들이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예향 음식을 통해 감동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12월이 되면 과일 바구니와 함께 남자 환우분들에게도 배달이 이어지며,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매주 하던 예향 사역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목회진이 직접 배달을 하면서 기도로써 또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 사역엔 환우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역 광고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사들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였고,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씻고 다듬고 썰고 만들고 포장하고 설거지하고 집으로 배달하는 일까지 수많은 과정들에 너나없이 조용히 동참하여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음식에 담아 전하고 있다.

입양아 사역

한국은 해외 입양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미국에도 한국으로부터 입양되어 온 많은 입양아들이 살고 있다. 미국에는 매년 약 15만 명이 입양되는데, 그 중 한국 아이들이 매년 평균 1600명 정도 입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입양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1995년 12월 9일 베델교회 입양아 사역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역을 통해 한인 사회에 좀 더 개방적인 입양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입양 가정도 보다 화목하도록 등대 역할을 하며, 한국 문화 체험 기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아들이 한국을 접하게 함으로써 입양 부모들에게는 아이의 정체성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베델교회는 매년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하여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미국인 부모들과 입양 아동들을 초청하여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홀트 패밀리 피크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교회 인근 Mason Regional Park에서 열리며, 매년 200여 명의 부모와 입양아들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어보고, 민속게임을 즐기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경조 사역

경조 사역은 결혼과 장례 등 성도들의 각종 경조사에 대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준비 및 도움을 주는 사역으로, 2014년에 구체적인 절차를 매뉴얼화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큰 경사 중 하나인 '결혼'은 사전 상담과 예약을 통해 거행할 수 있으며,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회자를 주례로 세울 수 있다. 신랑이나 신부 혹은 부모가 본 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일과 고난주간에는 진행할 수 없다.

'개업예배'도 경조 사역 중 하나이다. 성도들이 새로운 사업체나 사업체 이전 등으로 개업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해당 목장의 담당 목사를 통하여 진행되며, 담임 목사의 예배 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목장 담당 목사가 진행할 수도 있다. 사업체 개업 예배 시에는 교회 이름으로 선물을 준비하여 성도의 사업체 발전을 기원한다.

'장례'가 발생하면, 사역 팀에서 장례의 전반적인 모든 절차를 도우며, 교회를 열어

장소를 제공하여 천국환송예배를 드릴 수 있게 협조하고 있으며, 경조 담당 교역자와 경조팀장, 팀원이 구성되어 유가족을 위한 상담과 아울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임종을 기다리는 경우 별세에 앞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임종예배를 목장 담당 목사와 함께 드리며, 장례예배 집례는 본 교회 시무 목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종예배, 천국환송예배 및 부활대망 예배는 매뉴얼 대로 집행된다.

이렇게 치러지는 베델의 장례가 단순한 예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죽음을 통하여 겸손히 주를 생각하며, 돌아갈 본향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고인을 위해 함께 천국을 예비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카페 사역

2001년, 비전채플이 완공되고 건물 1층 한쪽에 작은 사랑방처럼 베델 카페가 처음 문을 열였다. 초창기엔 테이블 몇 개의 작은 규모였지만, 2016년부터는 카페 팀장이 카페 운영을 맡아 운영하면서 매년 Upgrade를 거듭하였고, 현재는 성도들의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 목회자들과 평소 나누지 못한 신앙의 어려움이나 믿음생활에 대해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성도 수가 점점 늘면서 카페의 수익금을 뜻 깊은 곳에 쓰자는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카페 수익금으로 세계 각국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정책이 세워졌다. 이제 카페 사역은 처음의 오붓한 휴식처에서 베델 선교 후원의 큰 샘터로 발돋움하며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보낸다는 베델 선교 운동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에는 예기치 못했던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베델 카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고달픈 이민생활에 지친 성도들에게 아늑하고 정서적인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자는 교회의 오랜 숙원과 팬데믹 상황이 합하여져 야외 카페를 별도로 조성하게 된 것이다. 소박했던 실내 카페는 더욱 안락한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되었고, 메뉴들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야외 카페는 김한요 담임목사가 CAFE “J BENE”라는

이름을 지어 예수님의 Benediction(영어로 Blessing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라는 의미를 담아 코로나의 숲을 뚫고 팬데믹의 고난 속에도 교회를 찾아야만 했던 베델의 수많은 성도들을 따뜻한 차와 커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다.

주차 사역

1976년 베델교회 창립 이래 1985년 현 위치에 교회를 건축하고 1989년에 이르기까지, 베델 성도의 수는 약 200여 명으로 자체 주차장만으로 공간이 충분하였고 주차 사역이랄 것도 없이 성도들이 운전해 와 그냥 주차하면 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1989년 손인식 목사가 3대 목사로 취임한 이후 급격히 부흥을 맞은 교회는 한 주에도 50가정 이상씩 새가족들이 밀려들어 성도 수가 단숨에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주차 공간 확보와 새가족들을 위한 주차 안내 및 체계적인 주차 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주차 공간을 추가 대여하고 셔틀버스와 밴을 구입하였다.

교회에서는 신임 임직 사역장로에게 주차팀장을 맡기고 그 해의 모든 신임 안수집사들이 다른 사역 팀의 팀장을 맡는 동시에 주차요원으로 봉사하도록 하여 교회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 발로 뛰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베델의 직분자들은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는 리더 로서의 자질을 실천 가운데 훈련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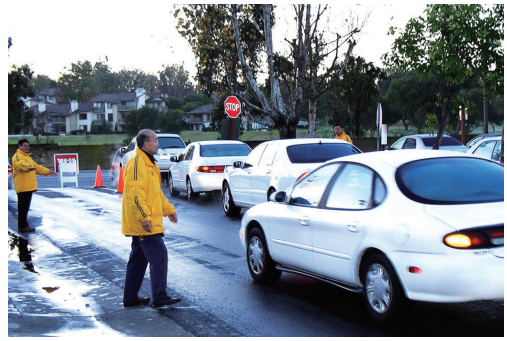
1999년 2세들을 위한 8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다목적 교육관인 '비전센터'를 짓게 되면서 어바인 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주차 공간의 확보가 더욱 절실 해졌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주셔서 2001년 다목적 비전센터를 헌당하게 되었고, 엄청난 규모의 교육관 확보와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말미암아 성도 수는 3천 명을 넘어서게 되고, 그만큼 주차 사역과 셔틀버스 운영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신년 '엘리야 새벽예배'가 열리는 첫 두 주 동안, 새벽 5시부터 천여대의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본당으로 몰려드는 그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천여대의 차들을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게 하고 또 예배 후에 직장과 집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치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고 숙련된 주차 팀원들의 헌신이 필요하였다. 새벽 5시에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 신임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주차팀은 새벽 4시부터 미리 나와 기도로 준비하며 성도들을 맞았다.

2008년, 몰려드는 성도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새 성전 건축을 계획하였다. 당시 본당을 새로 짓게 될 경우 5천 명 이상의 성도를 예상했기에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어바인시의 모든 건축 관련자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였지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도 같이 2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2009년 새 성전 입당 후에도 성도 수는 계속 늘어 5천 명을 넘어섰고, 주차 사역의 규모도 아울러 커지며 성도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 중이다.

주차 사역, 셔틀버스 운영, 그리고 각종 행사에 필요한 차량 운행 등을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빗속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바란다.



베델서점

베델서점은 소규모로 제3성전의 한곳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2001년 가을 비전센터의 완공과 헌당을 기해 손인식 목사의 제안으로 과거 한국에서 종로서적을 운영했던 장덕명 집사에 의해 지금의 카페와 새신자반 교실에 개설되었다. 전통적인 기독서적, 종교서적, 성경책, 간증집 등 10000여 권의 서적을 교회 내 서점에 비치하였고, 다양한 버전의 성경책은 물론 제자반 필독도서들과 각종 소그룹에서 사용하는 교재들, 생명의 삶 등 꼭 필요한 책자들을 교회 내 서점에 구비하여 성도들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교회 사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적들은 대량 공급하였기에, 가격의 혜택 또한 더불어 주어졌다.

2015년엔 비전센터 내에 카페 및 새신자들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서점 위치를 제 3성전으로 이전하였다. 2021년 베델 제 3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4월 말을 기해 베델 서점을 폐쇄하게 되었지만, 운영자인 장덕명 집사는 베델 서점을 통해 교인들의 많은 사랑과 추억을 갖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학 사역

베델 장학 사역은 2014년부터 베델교회 특별헌금으로 드려지던 '딸기헌금'을 기반

으로 베델 성도들의 자녀와 목회자 자녀,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사역으로, 크리스천의 비전과 열정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을 다해 실천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도전해 온 우리의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앞날을 격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장학생 선발은 교회 내 사역장로와 안수집사로 구성된 5명의 장학위원회에서 신청자들의 신청서, 학교 성적, 에세이, 추천서 등을 기초로 모든 첨부서류를 장학기금 수혜 범위와 더불어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섬김의 자세를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된 장학생 선발은 2021년 8회째를 맞이하며, 매년 평균 베델 성도 자녀 15명과 선교사, 목회자 자녀 15명 등 총 30명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팬데믹의 영향으로 부모 세대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청년들에게도 수혜대상을 확대, 베델 성도 자녀 22명을 비롯한 선교사 자녀와 지역사회 자녀 등 총 54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20년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수상자들이 감사 편지와 영상을 보내오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7. 미디어 사역

말씀제작 사역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 제자들에게 남기신 초대교회의 지상과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시작부터 큰 걸림돌이었던 공간적, 물리적,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복음은 지금도 땅끝을 향하여 계속 퍼져 나가고 있다.

전도자가 직접 다니며 대면하여 구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근대까지의 복음 전달 방법이었다면, 현대의 복음 증거와 전도는 문명과 운송수단 발달, 획기적인 디지털 매체(tape, CD, memory chip등)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2020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이제는 온라인 시대의 복음 증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처하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말씀설교제작 사역을 본 교회에서 처음 시도하며, 몇몇 반대 의견들도 있었지만, 손인식 목사 부임 이후 교회가 양적 부흥의 급 물살을 타면서, 원거리에서도 말씀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요청에 부응하여 비전채플의 작은 룸에서 Tape형태의 제작을 시작하였다.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폭발적인 반응들이 일어났고, 매주 수백 개 이상의 말씀 Tape을 제작하여 LA, Orange 등 인근 카운티는 물론 미국 전역으로 보급하게 되었다. 얼마 후 한국에서도 보급 요청이 있자 한국 내 제작 배송 센터를 두고 원

본을 보내어 복사 제작 보급하며 판매 수익금을 모 교회로 헌금하는 방식으로 지경을 넓히며 복음증거의 첨병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후 획기적 디지털 매체인 CD로의 제작 보급을 통해 사역의 절정을 이루며 매주 2,000매 이상의 CD를 제작 보급하게 되었다. 처음엔 '미디어 사역팀'의 일부로 출발했던 이 사역은 이후 'CD 사역팀'으로 독립하여 유상보급과 무상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CD 보급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 유상보급은 교회 헌금 수익원으로 교회 예산이 되었고, 무상보급은 주로 전도 사역과 선교사 지원이 사역의 핵심을 이루었다.

아울러 확충된 제작 설비를 활용하여 교내 각종 행사와 새가족, 선교, VBS 등 CD 혹은 DVD형태의 말씀 설교를 필요로 하는 사역팀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영역을 다양화하게 되었다.

눈부신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말씀을 찾는 시대가 되어 CD를 통한 보급은 점차 멀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CD 말씀을 찾는 이들을 위해 매주 말씀 설교CD와 강해설교 시리즈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사역팀의 이름을 '말씀제작사역팀'으로 명명하면서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한 말씀설교제작 사역의 방향 전환과 보급,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이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의 들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써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방송 사역

2009년 우상문 전도사가 베델교회 방송실 담당 목회자이자 방송실장으로 부임하며 음향과 영상 미디어를 섬겼다.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새 성전 헌당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었다. 베델교회는 당시 약 2,000석 규모 본당을 갖추고, 예배를 위하여 HD 영상 시스템으로 250인치 스크린을 중앙과 좌, 우 세 군데에 설치하였고, 3대의 방송용 카메라와 4대의 robotic 카메라의 설치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예배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72개의 stage 조명이 본당 천정에 설치되었고,

8,000lumens의 HD DLP 프로젝터 3대와 1개의 8,000watt amp(4X2,000), 5개의 4,000watt amp(4X1,000), 26개의 line array 스피커, 64채널 digital mixer와 wireless 시스템, 모니터 시스템 등이 전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모든 상황의 모니터와 조작을 외부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

성전 건축 484일 만인 2009년 5월 31일 주일 감격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린 후 건축 489일인 2009년 6월 5일 금요일 'KCC 통곡기도대회-민족과 함께', 6일 '토요일 찬양예배-홈리스, 이웃과 함께', 7일 주일 '헌당 예배-미래와 함께'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드려짐을 공표하고 축하하였다.

새로운 시설에 맞게 HD 영상을 각각의 예배와 주제에 따라 제작하여 예배 중간중간 상영하였다. 이를 위해 매주 많은 양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예배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본당의 디지털 음향 콘솔과 시스템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업데이트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

당시의 방송실은 총 7명의 담당 직원과 30명의 자원봉사자의 헌신으로 운영되었고, 초창기 예배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토요일마다 방송학교와 교육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미디어 사역이 이루어졌다. 워낙 복잡한 시스템인 관계로 간혹 기기들이 불안정한 상태가 될 때도 있었지만, 안정화가 될 때까지 밤샘 복구와 새벽 2, 3시 출근도 마다치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해결하며 사역에 임하였다.

그 때는 손인식 담임목사 이하 모든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여서 그런 노력이 전혀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은 당연한 때였다. 그런 만큼 하루에도 수많은 회의와 기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헌당 이후 많은 예배와 행사가 본당에서 드려졌으며, 방송실은 그에 부응하는 영상 광고와 예배 현장 방송 운영,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오디오, 비디오, 조명 등의 지원을 현재까지 감당하고 있다.

규모가 큰 미디어 시설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카메라, 음향 등의 운영에 또한

많은 손길이 필요했는데, 이에도 역시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전문직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아서 베델의 방송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베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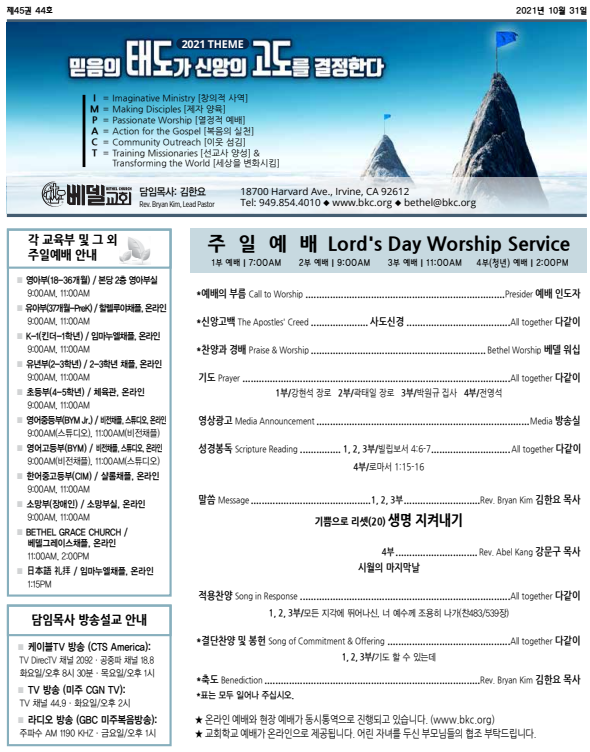
어바인으로 옮겨진 후 부흥을 계속하던 베델교회는, 3대 손인식 담임목사 부임 후 더욱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매일 넘쳐나는 간증과 사역의 열매들을 성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1995년 3월을 시작으로 교회 소식과 선교지 소식을 담은 '베델뉴스'라는 월간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내용에 따라 16페이지와 28페이지까지 사역 소개와 간증, 사진들을 실어 게재된 내용을 통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소식지가 되었다.

그 후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예배 순서 안내와 교회 전반에 걸친 사역 소개, 간증과 사진들이 함께하면서 매주 8면에 걸쳐 발행되고 있다. 베델교회는 이 사역을 전문 편집인이나 다른 인력이 아닌 평신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목회자와 팀장 아래 여러 기자들이 각 사역 부서들을 나누어 전담하며 소식을 모아 오고 간

증문을 받고 편집과 교정을 맡는 등 멋진 팀웍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40일 대각성 특별 기도회' 때에는 40일 동안 매일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온 성도가 기도 응답을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었으며, 긴급한 기도제목도 함께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2009년 새 성전 헌당식 때에는 '특별 호외'를 발행하여 새 성전 헌당의 감사와 기쁨을 널리 알리고 건축의 과정을 나누기도 하였고, '그날까지 북한 선교 사역'에도 문서 선교의 일환으로 함께 협력하였다.

베델뉴스 팀은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교회 행사 중심으로 기획안을 만들어 매주 마감 시간을 지켜 성도들에게 교회 소식을 알리고 있다. 베델뉴스를 통해 성도들이 교회 사역 전반을 이해하며, 사역들에 적극 참여하고, 담임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도우며, 은혜로운 간증들을 통해 믿음생활에 많은 도움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



제45권 44호 2021년 10월 31일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27개월~PreK) / 컬벌루아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2~3학년 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실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기도 Prayer ..... All together 다같이
1부/강현석 장로 2부/곽태일 장로 3부/박원규 집사 4부/전영석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빌립보서 4:6-7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로마서 1:15-16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20) 생명 지켜내기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시험의 마지막날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찬483/539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기도 할 수 있는데
*축도 Benediction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극 사역

성극 사역은, 성극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 순교자들, 믿는 자들의 갈등 등을 재조명하여 성도들과 깊은 신앙적 교감과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신앙적 문제, 고민, 어려움 등을 성극 무대에 세워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경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접촉점을 찾게 해주는 선교의 기능도 갖고 있다.

다음은 1999~2019 상연된 성극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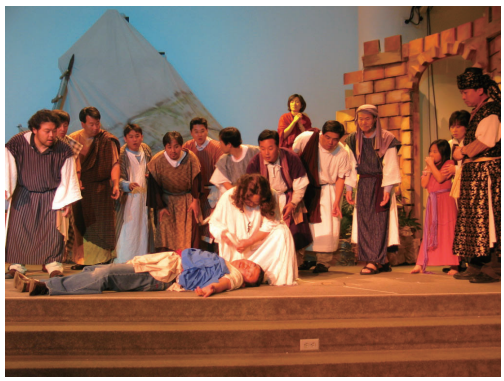
- 1999년: 돌아오라 내게로
- 2002년: 위대한 죽음 그리고 부활
- 2003년: 캘리포니아 욥기
- 2004년: 하늘 가는 밝은 길이(주기철 목사 일대기)
- 2005년: 부활(뮤지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11월 27일 KCC LA 통곡기도회 중)
- 2007년: 부활(뮤지컬)
- 2008년: 손양원 목사 일대기
- 2011년: Let my people go(8.15 공연), 임마누엘(뮤지컬)
- 2014년: 뮤지컬 손양원
- 2016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 2017년: Five Solas(다섯 가지 오직)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 2018년: 부활절 칸타타 협연
- 2019년: 부활절 칸타타 협연

한 편의 성극을 무대에 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성극을 준비하면서 많은 참석 인원에 연습 시간 부족과 모임 장소 확보 등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공연이 무대에 무사히 오를 수 있을지 매 시간 고민하며 갈등의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스탭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된 마음들이 무대에 온전히 표현될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공연들 가운데 'KCC LA 통곡기도회' 때 올려졌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공연 실황은 CD로도 제작 되었으며, 한국, 중국에서 이 공연 CD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한다. 이러한 간증들은 성극 팀원들에게 감동과 함께 사명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성극이라는 문화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거부감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한다. 성극을 통해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며 도전 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성극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자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다.



IT및 Media 사역

베델교회는 초창기부터 사무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혁명과 급속도로 발전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교회 내의 인적 자원과 시설,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여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다.

1. 전산화와 Wi-Fi 환경 구축- 20세기의 총아로 알려진 IT(Information Technology)와 CT(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은 교회의 여러 사역과 특히 행정, 예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95년도에는 교회의 많은 분야가 전산화 됨으로 재정, 교인 명부, 새신자 관리, 목회자의 실시간 교인 정보 접근 등의 개발과 보급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즉시 알고 심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회 내에 무선 통신망을 골고루 배치하여 internet을 통해 통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이 전산화는 교육부에도 보급되어 교사들이 학생들과 교류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2. Website- 초기에는 빈약하였으나, 박선경 간사가 web master로 2001년 전임으로 사역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하였고, 2016년 김정아 간사가 새로이 web master 책임을 맡게 되었다. 날로 발전하는 web programming의 software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고, 제 3세대로 알려진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하여 누구나 보기 쉽고 친근감이 가는 www.bkc.org의 web page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런한 update로 많은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예배와 사역의 video와 설교 audio를 직접 연결하여 one-point access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3. 각종 design- 박선경 간사가 web master와 design을 겸하고 있던 2003년, 교회는 대형 poster와 banner를 인쇄할 수 있는 전문 printer를 구입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겼던 인쇄를 직접 함으로써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문적인 디자인으로 교회 행사,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자료들을 직접 제작,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목회자의 저서, 교육, 선교, 예배 과정에 필요한 책자 표지 등의 design도 자체 내에서 소화하고 있다.

4. 예배 internet 생중계- social network 이 아직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기 전 이미 베델교회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주요 행사를 internet으로

생중계 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미 전 세계에서 베델교회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행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왔기에, 장비와 internet 속도의 제한을 무릅쓰고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며 모든 면에서 software, hardware, networking등의 발전으로 현재는 매우 왕성한 생방송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은 YouTube와 Vimeo를 통하여 올려지고 있으며, 수 년 전의 방송 내용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회 홈 페이지를 통하여 link를 안내하고 있다.

5. 재정의 전산화- 교회 살림이 커지면서 전산화의 필요는 너무 절박했기에, personal computer가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재정의 전산화는 1990년대에는 정기 궤도에 올라 모든 재정업무를 완전 전산화 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부터는 전문적인 재정 software를 구입하여 수입, 지출뿐 아니라 모든 세금 관련 업무도 자동화 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교회의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마다 자체 내의 재정 감사를 통하여 완벽한 재정 system을 갖추고 있다.

6. 보안의 문제- 현대의 전산 업무상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보안일 것이다. 성도들의 사적 정보와 관련 정보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지식임으로, 베델교회는 각종 데이터의 보안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전문 software와 최신의 지식을 이용한 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7. 교회의 자산 관리- 베델교회는 살림 규모가 커지고 많은 고가의 장비와 다수의 기구, 수많은 소모품 등을 관리하고 있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곳에 옮기고 저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 물품, 가구, 전자기기, 소모품 등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현재는 최첨단의 IoT(사물 인터넷)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8. 영상 제작- 현대의 목회는 각종 영상과 음향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세이다. 특히나 집중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전도의 방식에는 이런 영상과 미디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베델교회는 영상 제작에 많은 인적 자원과 장비를 투자하여 생산하고 있다. 주일예배, 특별행사, 홍보물 등에도 많은 영상광고와 설교 보조물로서의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 수준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방송 및 TV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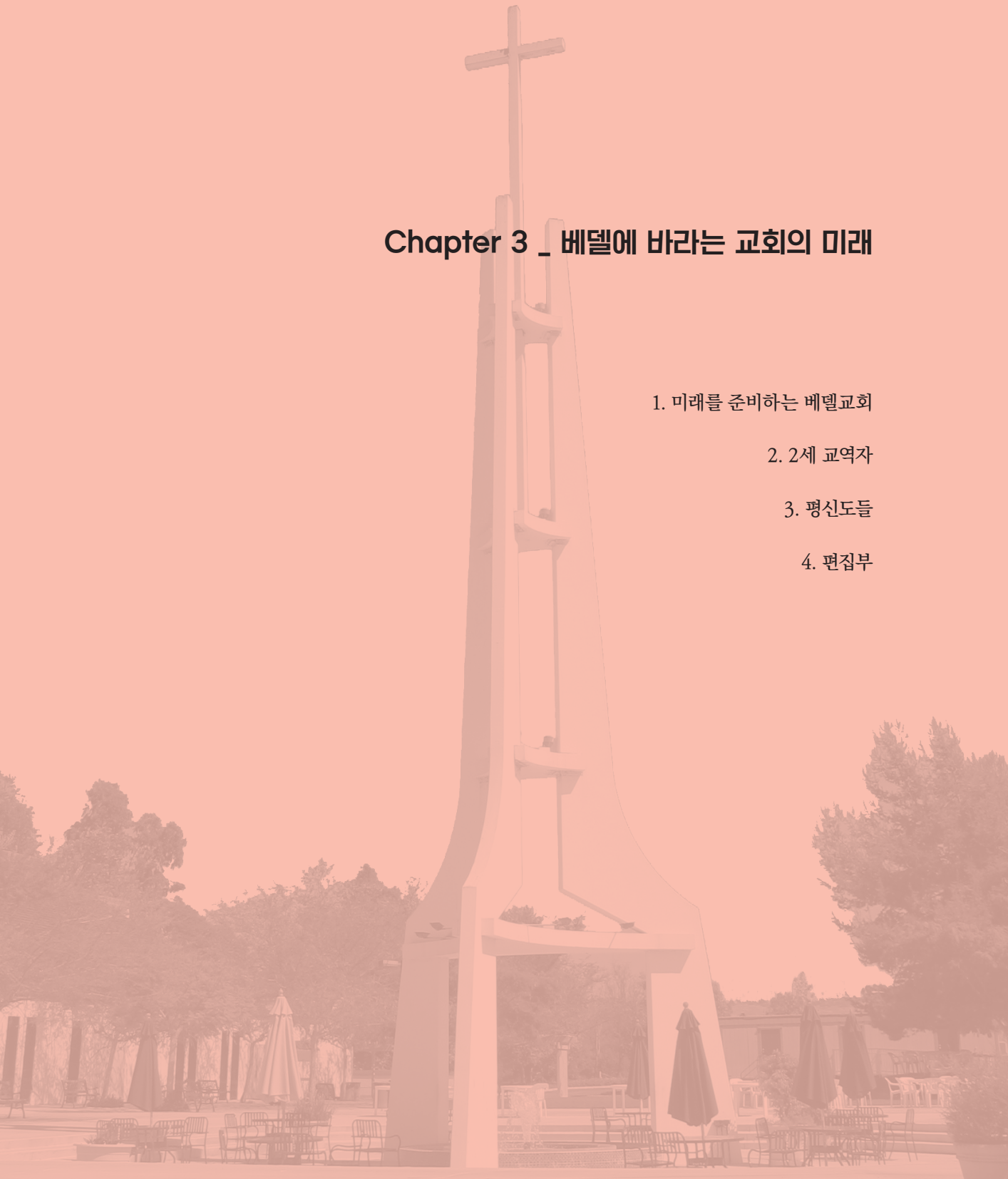
현대는 미디어의 시대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가 이러한 technology 혁명을 맞아 이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복음 전파와 성도간의 연결을 위해 개인적, 단체별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통해 전도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영혼 구제의 노력을 하게 되었다.

손인식, 김한요 담임목사로 이어지는 베델교회의 명 설교는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와 교회가 없거나 모임이 빈약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어 일 년 내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반복해서 듣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복음방송이 수 없이 생겼고, 원래 베델교회의 장기 계획에는 라디오, TV방송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독립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꿈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은 이미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방송국들, 즉 미주 복음방송(GBC)과 복음 TV 방송인 CTS 및 CGN TV방송국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주일 설교와 중요 행사 때의 상황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송에 교회의 관계자들과 성도들이 자주 출연하여 간증, 찬양, 행사 소개 등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심령을 깨우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교회의 거의 모든 예배와 행사가 YouTube와 Vimeo를 통하여

internet에 올려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교회의 영적 사역을 전 세계에서 듣고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자체 내 방송국을 통하여 은혜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전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마음껏 선포될 날을 기대해 본다.



Chapter 3 _ 베델에 바라는 교회의 미래

1. 미래를 준비하는 베델교회

2. 2세 교역자

3. 평신도들

4. 편집부

모든 역사의 기록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작업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베델의 지나간 45년을 정리하며 편집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1. 현 담임목사님, 2. 2세 목회 지도자들, 3. 일반 성도들과 4. 기타 의견을 종합한 편집부 등, 교회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리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베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베델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해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음과 동시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봉착했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염려

는 실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뿐 아니라 더욱 불투명해진 이민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적 도전도 만만치 않지만, 이민교회 상황에서 2중 언어와 문화를 극복하면서,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이민교회의 미래는 더욱 어둡습니다. 교회학교의 학생 수가 어른 수에 못 미친지 이미 오래이며, 이미 70%의 이민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앞으로 20년을 계속 간다면 교회의 사이즈가 축소되고, 특별히 선교사 후원이 급감하면서, 선교사 지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교회는 미국의 메인 라인 교회에 자동 흡수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거시적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이민교회가 메인 라인 교회에 흡수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130여년 전 미국교회의 복음의 빚을 진 한국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로 미국 땅에 복음적, 선교적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교회의 존폐를 논하는 작금의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델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모델을 제시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않는 한, 디아스포라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선적인 투자와 비전이 절실한 때임을 인식하고 교회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장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도를 우선시 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민 1세대의 영적 필요로 세워진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대를 넘어 세계 교회를 향한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공고히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 사역자 발굴을 위한 장학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의 차세대 사명자를 키워내는 건강하고 영성 있는 신학교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인교회는 더이상 주위의 다른 한인교회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미주에만 약 3,50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경쟁하듯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지만, 이제는 주변의 건강한 미국교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말을 한다는 것 하나로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교회들이 한인을 타겟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교인으로 유입하려고 한인 목회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민교회에 실망한 한인들이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한인교회가 아닌 미국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상당수가 이미 한인교회가 아닌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2중 언어에 능한 소위 1.5세들도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은 미국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델교회는 선두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이끌던 디아스포라 교회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시설적인 투자와 사명자를 키워내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교회적으로 어떤 뉴노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코로나를 통해 배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전에 단순히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적 교회가 아니라, 서로 영적인 유기체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되면서 장소적인 제한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국 문화와 이민1세 울타리에 갇혀 있던 교회를 보게 했습니다. 베델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민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증거의 사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장소적 한계를 초월하여, 온 세계를 교구로 하는 하이브리드 선교적인 사명을 뉴노멀 시대에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적인 열심과 헌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세계 교회를 향한 리더십이 절실한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통해 장소적 교회의 리더(a local church leader)를 키워내는데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리더를 키워내는

교회(a world Christian leader)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팬데믹이라는 한계를 넘어 격리되어 있던 성도들을 연결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뉴노멀 시대에는 더욱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총력을 다하여 이민사회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계 속의 선교 공동체에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것입니다.

베델교회의 비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면, ○1시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교회, ○2세계적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끌어 가는 교회, ○3이민교회의 사명과 복음적 열심을 계승하며, 교회의 본질이 퇴색하지 않고, 제자훈련과 사랑의 공동체(소그룹 사역)를 통해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2. 2세 교역자

다음은 현재 2세를 섬기고 있는 여러 교역자들의 사역정리를 겸한
미래에 대한 의견입니다.

Bethel Grace - Vision & Future

Pastor Justin Kim

Bethel Korean Church has been around for a very long time and has a very distinguished reputation amongst the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as one of the largest churches in the area. But while the Korean congregation has steadily grown and matured over the years, it has been the opposite for the English Ministry. Bethel EM has an infamous past where pastors have come and gone which in turn have stunted the maturation process of the congregation. The pulpit search committee in 2015 called me from the Seattle area to revitalize and then to plant the English Ministry as an independent church out of BKC.

This vision to plant the English Ministry and establish a healthy gospel-centered independent church came with the blessing and support of the newly appointed senior pastor of BKC, Pastor Bryan H. Kim.

This vision to establish the second-generation English Ministry into an independent church plant developed into a motto statement: 1-2-1. “One Campus, Two Churches, One Family.”

Upon my arrival to Bethel EM in July 2015, I sought to “reboot” the ministry by seeing the congregation as a church plant from scratch.

I renamed Bethel EM to Bethel English Church because I wanted the congregation to start thinking like an independent church. It's important to stop thinking like a child if you want to eventually grow up to be an adult. From the beginning with the blessing of Pastor Bryan and the KM Steering committee, I felt empowered to cultivate a new culture and atmosphere by changing the dress code of the staff and introducing a new rhythm and pace for the ministry as a whole. After much prayer, I casted a new vision for BEC to be "a Christ-centered community that expands the Kingdom of God". I also felt the need discontinue the pre-existing EM Steering committee to re-train and to re-appoint a structure that's governed by the laity. A new covenant class was formalized and initiated with everyone having to take or retake the membership classes. The old Bible Studies were replaced by a House Church ministry that focused on building friendship and community, evangelism and missions. Our House Churches are not called "Grace Groups." A powerful sign of moving from total dependency to interdependency to independency came in the form of money management. That is, for the first time ever, our English Congregation had our own bank account and the freedom to structure our own budget led by our own finance committee.

Over the past few years, the staff has grown with Pastor Dan Nam coming on board first as an associate pastor and then finally as the executive pastor in 2016. We have a great staff that currently includes Pastor Peter Lee(worship & college), Woojung We(nursery), Sally Kim(creative arts) and Gina Kim(video/tech). We appointed and commissioned our first group of deacons and deaconess on December 16,

2018. This first diaconal group included Cara Kim, Charles Baik, Harold Lee, Hong Yang, Mitch We, and Tim Sohn. Andrew Peak was installed as a deacon in 2019 and Laura Chae came on board in 2020. These were historic moments for our congregation because the English Ministry never had ordained deacons before. This year in 2021, we have nine new deacons and deaconesses in training as well as our first elder candidate, Charles Baik. We are hoping to have our first session in January of 2021. In 2020, despite a global pandemic, our congregation continued to move forward. Our covenant members with a support of more than 90% voted in favor to officially rename our congregation to Bethel Grace Church.

We took several months to rebrand, and we relaunched our new name, logo, website in August 2020. Lord willing, we hope to be planted as an independent church in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n 2022.

This year, we had the opportunity to do a full building renovation for our C-Sanctuary. Phase 1 is interior and phase 2 is exterior. This renovation project came at an estimated cost of $800,000-850,000, fully funded by the Bethel Grace congregation.

For the future, we hope to continually grow and mature as a congregation committed to the Gospel and to missional discipleship. It's our goal to reach people here in Orange Country, Southern California and the world. Wherever the Lord opens the door, we hope to walk through and shine His light. One way to do that is keep preaching and teaching God's Word, to make disciples, and to intentionally reach out to unbelievers with the compassion and care. Lord willing, we hope that we can also plant

churches out of Bethel Grace. My vision is to establish this first church on the campus and then possibly, plant more English-speaking churches south of Irvine in hopes of reaching more and more people with the Gospel.

Finally, our vision as Bethel Grace is to continue our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church, Bethel Church.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our congregation can learn from the Korean Church. We want to learn how to sacrifice, how to pray, and how to passionately do missions. We want to maintain a familial relationship even while becoming an independent church. The motto of 1-2-1 is very important. One campus, two churches, one family. As two distinct churches who share the same campus and home, we can be different and yet still be family. We can have the same overall vision and goal, but still have different philosophies and methodologies. We can have the same purpose of reaching people with the Gospel, but reach different people. The Korean Church can reach immigrants and others who are more linguistically comfortable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le Bethel Grace Church can reach anyone and everyone who speaks English in Southern California. This healthy model and vision for the future can be realized when the two churches on campus work together in humility and remember that we are family in the end. We are bonded by the blood of Christ and also, we are all part of the Bethel family. I am excited for the future and for our vision to impact the world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Vision statement for Bethel Grace Church

There can be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define a healthy church but I do believe in and fully support Bethel Grace's current vision statement, A Christ Centered Community that Expands the Kingdom of God, as it aligns with what God's vision is for the church.

Christ Centered

It starts with Christ who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John 14:6). Jesus is the head and we are the body of the church. The gospel message that God sent Jesus to live the perfect sinless life and to die on our behalf to fulfill the penalty of our sins so that we may receive salvation, is the central element of our Christian life. Therefore, the gospel message would continue to be preached at the Bethel Grace pulpit and the lives of our congregation would be radically transformed by this truth, especially as our secular culture seems to continue to shift to a more liberal worldview.

Community

God created community to buil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Our main outlet for building the community within the church would be through our small group ministry, Grace Groups(formerly House Church) that models the early church gatherings in homes where the sharing of life and the invitations to non-believers would take place. It is in this safe place that we would fulfill God's call for us to have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to Him.

Expands the Kingdom of God

If we are to be a church that models the early church, our congregation needs to look like our community despite our race or our socioeconomic status. Jesus loved everyone and even went out of his way to love the weak, the crippled, the poor, the orphans, and widows. If we are to love like Jesus, we would be a church that is welcoming and inviting to all especially those who are weary, lost and in need of God.

We would be a church that understands our brokenness and are in desperate need on a daily basis for God. The mindset that we are in need of anything, especially a savior, may even be a bigger challenge in Irvine, a culture that seems to love comfort and family, which of themselves can be good things but when prioritized over God can be an ultimate thing, an idol.

In Acts 1:8, we are also called to not just be witnesses to Jerusalem but to Judea,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world. Another benefit of our Grace Groups is that each group is connected with missionar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rough this connection, we are able to pray and support these missionaries as well as to send our own missionary team to visit them in person. If our Grace Groups multiply, we would then have more resources to connect with other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to strive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It is my hope and dream that Bethel Grace is a community that seeks to glorify our God's vision for our church through these means, be continuously sensitized to God's calling for us as He wills, and to be overall a church that is made more and more beautiful for our future bridegroom to come, Jesus Christ.

훈련과 양육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학교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 전도사

베델 교회학교 비전 Statement는 “Building a Gospel Centered education ministry that expands the Kingdom of God -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교회학교” 이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주제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희 베델 교회학교의 세 가지 중심 사역은,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훈련입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도록 매주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예배와 성경공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훈련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델의 자랑은 무엇보다 헌신도가 높으신 선생님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공부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신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교회학교의 아이들의 마음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각 부서마다 말씀읽기, Bible Memory Contest(말씀 외우기), 1년 성경통독, 말씀공부, 말씀묵상, 제자훈련으로 매일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믿음이 더 강하여 졌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훈련 사역 중 하나로, 2016년부터 ‘Promise of Purity’라는 성경적 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교육 시작에 앞서 아이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가정관과 생명관에 대해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생각과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Disgusting- 더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며 미디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가정관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주간의 Promise of Purity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목적을 뚜렷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이 명령이며 축복임을 배우는 시간은 부모와 자녀에게 참으로 축복 된 시간입니다. Promise of Purity훈련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순결한 여인과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순결 서약식을 통해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은 부모님도 아이들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의 시간들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제자훈련’은, 먼저 어린이 제자훈련 1단계와 2단계를 시작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8주간의 강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많은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 학교 친구들의 구원까지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전도의 마음까지 품게 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제자훈련 2단계는 담임목사님이신 김한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들은 KM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배우고 자녀들은 영어로 같은 내용을 제자훈련 2단계 프로그램으로 배우다 보니,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진지하게 토론하며 대화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제자훈련 1단계와 2단계 후에는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고 여름에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5년 후 10년 후의 베델 교회학교는 지금과 같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며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들로 훈련되도록,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흔드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최전선에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승부하는 교회

유아부 장지은 전도사

처음 베델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배 가운데 다시금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승부하는 교회, 그것이 베델교회 예배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교회에 발맞추어 유아부 또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마음속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이 신체, 지성, 감성, 영성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활발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나고, 특히 기독교적 정체성, 세계관, 가치관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 각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나아가 작은 천국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심어질 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로

K-1 정가영 전도사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변화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힘들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베델교회가 있어 저희 모두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변화를 감지하되 제한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 사역자들은 매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계속해서 변했고, 그에 따라 저희의 시스템도 계속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힘들었던 역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현장예배에서 온라인예배로 그리고 현재는 둘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을 운영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포스트 팬데믹의 시대는 이전보다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예배하는 교회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K-1부서는 이번 팬데믹 이후 부서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 Pre-k에서 Kindergarten과 1학년 학생들로 부서 연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유년부 1학년이었던 선생님들과 Kindergarten 선생님들이 만나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팬데믹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교사 봉사를 하시겠다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팬데믹 중에도 한 번도 사역을 쉬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생님들은 카톡으로

반을 운영하며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지만, 베델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베델 교회학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통해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Key입니다. 여러분이 Key입니다!

유년부 이승진 전도사

베델교회 4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45년을 돌아보게 하는 교회 연혁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첫 문구는 베델교회가 탄생한 1976년 "첫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소명을 받아 베델 한인 교회를 설립하다" 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베델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교사로 섬기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베델교회의 품과 깊이를 짐작해 볼 수 있었고, 순종과 훈련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탄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이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일 뿐 아니라 사역자를 품어내는 성도님들의 넓은 사랑에 더욱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베델의 힘은 팬데믹이라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의 시간에도 여지없이 발휘되어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어린 양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씀의 꼴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팬데믹 가운데 부흥을 맛보고 새신자들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을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으고 흩으시며 흩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베델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베델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되는 소망부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소망부의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부는 부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신체장애와 지적장애 발달장애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외롭고 소외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예배 드리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망부의 나아갈 방향은 더 많은 장애우들을 찾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고, 복음 전도, 천국 확신, 즐거운 교회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성경공부를 통한 다양한 지능 활동 프로그램, 소근육 운동, 대근육 신체활동, 언어 발달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위로와 쉼이 있는 학부모님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망부 모든 가족이 하나될 수 있는 다양한 야외활동, 체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양로병원 방문 사역, 멕시코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 베델 소망부는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며 서로 하나되는 소망부가 되겠습니다 !

3. 평신도들

다음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 교우들의 장래 비전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치유가 있는 교회, 삶이 변화되는 교회

백영만 장로

오래전 이민 초기의 상황이 문득 떠오릅니다. 꿈과 야망을 품고 시작했던 미국에서의 이민의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회와 좌절이 범벅이 된 삶으로 변해 있었고, 꿈도 희망도 깨져버린 채 그저 고된 시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베델교회와의 만남은 저에겐 마치 사막 한복판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덜너덜해진 자존감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예배때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저의 삶을 치유하시고 쓰러진 저를 점차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비단 저뿐만이 아닌 당시 함께하셨던 베델의 성도님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됐던 간증이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베델이 있게 했고 지난 베델을 그리움으로 추억할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는 과거에 기반하여 세워짐을 알진대, 교회는 구원사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의 아픔을 같이하고 상처를 감싸주며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베델의 지난 45년이 그랬듯이 앞으로의 또다른 45년이 그렇게 위로받고 치유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곳에만 오면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적 영적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성경공부도 잘하는 교회이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도 먼저 이곳에만 오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탕자들, 돌탕들이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국과 북한을 향한 기도와 사역이 계속되기를

우성무 집사

저희 부부는 30여년 간 베델교회에 몸담아 지내오는 동안 선교, 구제, 주차 등의 분야에서 섬겨왔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베델교회가 이민교회의 운명이자 사명인 두고 온 조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와 사역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손인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북한 선교, 탈북자 돕기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탈북민들이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굳게 신앙으로 무장하여 북한이 열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

이국선 장로

지난 반백 년, 베델의 발자취는 한마디로 놀라운 부흥, 많은 영혼 구원과 전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세월이었다 생각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손인식 목사님을 베델에 보내주셔서 귀히 쓰심으로 선교, 청년사역, 영성사역, 양육 등 수많은 비전들을 실현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KCC와 UTD, 통곡기도회 등을 통해 북한 동포들을 위한 사역을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셨고, 영적 성장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축복해 주셔서 2세를 위한 Vision Center와 새성전 건축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손목사님은 지난 시간 쉼 없이 경주하며 지난 45년 한 큰 획을 남기시고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과 베델의 역사에 길이 새겨질 것입니다.

손목사님 은퇴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베델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김한요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제2의 도약의 꿈을 실천, 제2의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지난 8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지난 성장을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MIT 공동체의 활성화를 실현하였고, 특히 근래에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차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Bethel Classical Academy(BCA)”를 설립, 명실공히 쇠퇴해가는 신앙 회복의 근원지로서 앞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미래의 많은 성도님들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역사회 리더들을 배출할 정통 기독교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하며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30년간 단기선교, 성가사역, 실행위원, 특히 5년간의 건축사역을 섬기며 저 자신부터가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온성도님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세운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릴때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은혜를 절감합니다. 45년의 역사 속에 베델 성도님들과 목회진들이 이 교회에 심어 놓은 전통은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순종함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지속되고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베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래의 베델교회를 바라보며 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교회 중심적인 부흥에 만족치 않고 "BCA"를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교육과 아울러 Community에 상호간의 협력자로서 바른 신앙을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편리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행동 위주의 신앙으로 주위 교회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대형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 권위 양적부흥을 중요시하는 부조리를 퇴치하며, 예수그리스도 중심적인 본질적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에 노력하는 교회로 쓰임 받는 베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베델교회가 사람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아주 멋진 교회로서 길이길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

이강민 전도사

베델교회의 4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이 허락하신 좋으신 두 담임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합한 성도들의 열심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루어 왔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김한요 목사님이 젊은 청년부와 갓 결혼한 젊은이들 가정에 크게 관심을 갖고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더욱 젊어지고 활발한 에너지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더욱이 지난 8월 22일에 개강한 "Bethel Classical Academy"는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육하기에 더없이 훌륭하게 준비되었고, Christian & Mission Alliance에 속한 교회로서의 비전에 맞추어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선교 사역이 1년 내내 활발히 이루어짐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많은 한국의 대형교회가 급격한 팽창을 통해 맞았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위기를 교훈 삼아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그러했듯 몸체가 커짐에 따라 교회의 성격이 변질되고 program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는 소위 작은 가정교회가 더 뜨겁고 친교와 사랑이 깊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대형교회에서 소외감을 갖게 되고 주일만 지키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기도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셀모임 참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큰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큰 교회가 하늘로 솟으려면 주님의 몸 된 본 교회와 가지가 되는 셀교회가 함께 움직여야만

합니다. 한쪽 날개가 너무 강하거나 약하면 비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자훈련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도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안으로 파고드는 교회

심 경 집사

저희 부부는 교회 초창기부터 베델교회에 출석하였고, 특히 저의 아내인 심철경 집사는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사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였습니다. 미래의 베델교회를 상상해 보며,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선 베델교회가 이민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나아가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델교회는 지난 45년 간 지역사회에서 이민자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육 분야에서 섬겨온 저희들은 특히 이번에 창립한 "Bethel Classical Academy"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베델의 교회학교와 한국학교는 한인들을 위한 교육이었으나 이 아카데미는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안으로 파고드는 교육이므로, 지역사회 섬김과 인재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역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뜨거운 간증이 넘치는 교회

박민경 권사

저는 30년 이상 베델교회에 출석하며 교회의 성장과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베델교회는 외적, 내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며 미국뿐만 아니라 조국인 한국에서까지 모범 교회, 선도하는 교회로 점점 명성이 커져감을 느낍니다.

그런 성장의 와중에 좋은 면이 많지만, 아쉬운 점도 또한 있음을 절감합니다. 커지는 덩치에 반하여 많은 교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교하는 내적 코이노니아는 결핍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교회와 리더들 또한 잘 알고 있으며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함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으며, 한어권과 영어권이 소통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전교인들이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며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간증이 넘쳐나는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손예숙 권사

저는 5년 전 시카고에서 은퇴하고 어바인으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베델교회는 모든 사역들에 워낙 열심히 잘 하고 있어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지만, 셀모임을 더욱 강화하여 셀과 셀사이에서도 서로 교류하며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셀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더 열심을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은혜스럽고 영적 성장과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모임들도 많아 좋습니다. 베델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

안상선 집사

저는 라스베가스 의과대학에서 신생아를 담당하다 은퇴하여 7년 전부터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의료선교, 셀목자 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교회에 와서 많은 사역들에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오랫동안 교직에서 학생을 가르쳤기에 이번에 시작하는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팬데믹 중에서도 학교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시작하는 추진력에도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 역시 미력하나마 이 사역에 적극 돕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박영해 권사

베델교회의 역사는 저희 부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남편인 박종식 장로와 더불어 선교, 재정, 교육 등 베델의 수많은 분야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해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교회의 친구들, 교역자들께서 수시로 방문하여 주시고 안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위로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이 들어 홀로 계시는 많은 연장자들에게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를 통해 안부라도 전한다면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 더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베델교회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 손잡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곳

이승안 형제(CIM)

45주년을 맞이한 베델교회를 생각해 보니 놀랍다 생각과 감사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모태신앙으로 매 주일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간 저에게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주일에만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었고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지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낯선 학교, 낯선 미국 생활에 부딪히며 주변에 친구도 없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쯤 가족이 함께 출석하게 된 베델교회가, 또 제가 출석하는 CIM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알려준 교회가 베델교회이고, 출석하며 주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준 곳이 바로 베델교회입니다.

CIM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학교생활도 교회생활도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주일에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기대함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 CIM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과의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과 베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멋진 교회 되기를

박하은 자매(CIM)

제일 먼저 베델교회의 4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45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한 학생이지만, 4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행복한 일도, 어려웠던 일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베델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회자들과, 멋진 교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곳이 우리 베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베델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르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선교하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베델교회의 일원으로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베델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길에서 기쁜 순간엔 기뻐하며, 힘든 순간엔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되어 나아갈 여전히 멋진 베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양준서 형제(CIM)

'1976년: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소명을 받아 베델한인교회를 설립하다,' 베델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은 글입니다. 기나긴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델교회가 전파시킨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믿는 기쁨과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수많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신실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지금의 베델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교제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시켜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제가 속한 CIM 공동체를 비롯 BYM, EM, JM, 예삶,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망부, 그리고 성인예배까지,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들과 노력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CIM의 뜻인 Christ In Me처럼,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See? I am Christian'이라며 당당하게 베델 교인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주년이라는 정거장을 지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2세대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베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Looking forward…

Elder Philip Song

"Like living stones, let yourselves be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to offer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 1 Peter 2:5

It is really amazing what God has done with and through Bethel Church since its inception 45 years ago. The more I think about it, the more I realize how God uses his people to do wonderful and amazing things, changing countless number of lives for the better, and in so many ways. And because we are all broken people living in a broken world, the more wisdom we receive, the more we realize that we need God; and furthermore, we need to remain close to God.

As I look forward, envisioning what Bethel Church may be like in the future, I recall a visit to a particular body of Christ that I had a chance to worship together at the Wesley Methodist Church in Singapore. As a church, they had already celebrated their 120th Anniversary and even had published a beautiful book of church history of stories entitled, "His Glory". This incredible publication consisting of testimonials and stories of what God had done there at that particular church was not only moving but inspirational.

Over eighty(80) church members were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book and although it was filled with much graceful and inspiring testimonials, at the end of the day, all pointed to the glory to God for

what He had done and continues to do today .. The first thing that I remembered vividly giving worship service there as a guest, I noticed immediately how just about everyone there at the service were of Asian descent. Yet, everyone, including the pastor, the elders, deacons, ushers and the congregation alike, all spoke fluent English.

I had seen similar settings before, but this was different. History was rich in grace and the church was deeply rooted in faith. I could almost feel the sacrifices and commitments made by the faithful there··· it was somehow mystically moving and inspirational.

And so, as Bethel Church celebrates its 45th Anniversary as a body of Christ, I see how there could be similarities in the distant future. I see how the demographics along with cultural changes may be inevitable; yet, as each year passes, we witness the fruits of the labors and much sacrifices made by the faithful. continuing to flourish and blossom in amazing ways at the right time.. according to God's time and plans··· Indeed, God has and will continue to use Bethel Church as a vessel to do His will here in this land.

It may be true that as times change, so do people's perception and various social cultures, yet God's words and the truth of the Gospel is everlasting. It will always remain solid and firm.

God's word is timeles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And we find ourselves in between this timeline .. and so every generation will do our part in furthering the Gospel of Christ.. and through Bethel Church, may God continue to receive glory.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 is what I believe we should continue to focus on as part of our walk in this journey we call, "life". You

and I, each of u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do our part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rough our church. If God's plan is like a big jigsaw puzzle, each of us are the small pieces that make up the big picture. We may be small but the picture may not be complete without all the pieces. It is the followers of Christ who carry on the torch of Bethel Church in Orange County,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Let us press on in Christ for the days ahead. Amen.

United as one church, as one big body of Christ

Joyce Lim(BYM)

"Two score and five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Irvine a new church, conceived in faith,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by God." It is, at last, Bethel Korean Church's 45th anniversary! Our church has grown so much in so many ways these past decades(most of which I cannot name, considering the fact that I wasn't even alive for most of those decades). While the past holds so many precious memories, we have so much to hope for in the future! I am hoping that we would continue to and maybe be even more truly united as one church, as one big body of Christ. And that even though we are separated into different ministries, we would come together at the end of the day under the one truth.

For our youth ministry, I hope our students would not be led astray by the world that we are so exposed to, but would stay in the faith and strengthen our foundation in Him so that we will be prepared and ready for the trails that will most certainly come our way. I also hope that through our pastors and our teachers we will b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to defend our faith against the attacks of the enemy. In general, I am looking forward to continue to actually be at church like I have been for the past few months and to really enjoy the church experience!

4. 편집부 종합

격동의 20세기를 지나면서 세계는 자연도, 환경도, 인류의 과학기술의 축적과 사고의 변화도 그 전의 역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빨리 가속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신 세계와 영의 세계 그리고 물질의 세계가 서로 뒤섞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선악에 대한 판단에 혼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믿는 자들과 사회에게 베델교회는 지난 45년 동안 진정한 가치와 선악의 판단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변화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와 그 이후의 갈 길을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21세기도 21년이 경과한 지금 지난 45년을 회고해 볼 때 베델교회가 보여준 주님과의 동행, 여호와의 축복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시는 비전에 새삼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미 역대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과 지역사회의 인사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비전이 피력되었으나, 다음의 몇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 광범위한 저변을 가진 leadership: 교회는 어느 소수의 인원이나 특정 직무를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 각 연령과 배경을 망라하여 교회의 운영과 장래 설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되 신앙에 기초한 질서와 원칙에 입각하여 무리 없이 공동체를 운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대에서는 소통수단의 발달로 전체 교인들의 의견과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담임목회자를 비롯한 leadership의 vision과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존중될 것이며 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협조하며 기도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Community church: 베델교회는 한인들이 설립하고 한국어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특정 ethnic group의 교회로 시작했으나, 이민 교회이며 가장 다민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교회이며 이민 1세대가 자라나서 2세, 3세로 계속 구성원들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 언어 민족과의 결혼 등으로 이미 매우 다양화 되어 있고 그 추세는 더욱 강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베델 한인교회"에서 "베델교회"로 교회명을 바꾸었고, 남가주 지역에 있는 수많은 비 한국어 사용 인구를 전도 대상으로 삼고 공용어인 영어를 중심으로 필요한 각종 언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민족이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언어권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길도 빨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3) Technology Oriented church: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데 이 모든 기술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정보, 통신 기술이 실생활의 모든 분야와 융합함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성 높은 사회구조는 이미 국가와 개인의 생활에 깊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하여 전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던 분야나 지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맞는 전 세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는 이러한 기술혁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앞장서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본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 년 전에 vision으로 언급된, 교회가 운영하는 radio와 TV 방송국 그리고 internet을 이용한 podcast 나 YouTube방송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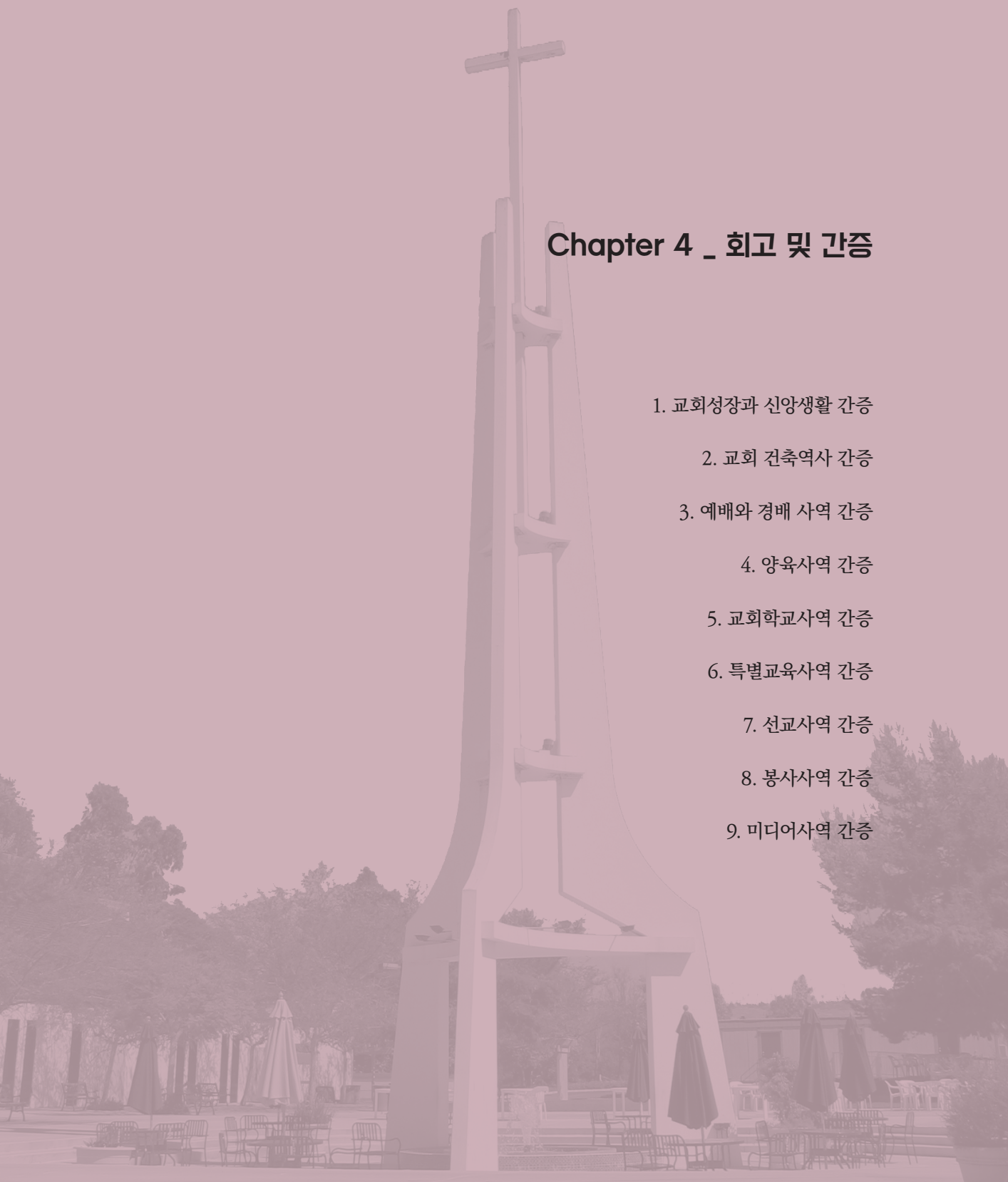
4) 기본 가치에 충실: 사회가 변하고 기술과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주님이 세우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진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삶의 모습이 변하다 보니 복음의 참 진리와 원리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가장 지

혜롭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 복음의 진수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2021년) 개교한 Bethel Classical Academy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는 꿈을 실현화 시킨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와 공의를 순수한 신앙으로 지켜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무너져가는 도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5) 교회 지도자 양성: 새시대에 맞는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기술 전문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자체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베델교회는 자체내에 이 순수한 복음의 기초위에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적합한 지도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1) 신학교의 설립 및 운영
   (2) 주일학교 교사 양성소
   (3) 선교사 훈련 학교
   (4) 복음 전파와 선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소(예로 ICT관련 전문인력)와 목회 및 선교에 사용할 hardware와 software의 개발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로 복음을 더욱 원활히, 효율적으로 전하는 기관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5) 교인들의 구성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으로 달라진 교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쉬우면서도 전통적인 형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배의 형태를 가질수 있도록 1,2,3부의 예배 양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21년도에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6) 사회참여: 교회는 믿는 자들의 은둔처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와 생활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국제사회를 보아도 분쟁과 국가 간의 증오가 도를 넘고 있고 각 나라의 사회 계층 간의 불화도 매우 심하며 많은 경우 폭발 수준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칠고 병

든 관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델교회의 비전은 이러한 고통을 치유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는 환경의 파괴인 것입니다. 과다한 산업화로 기후가 변하고 수질이 오염되며 그나마도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호흡하기 어려운 대기의 오염, 자연 서식처의 파괴 등으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 등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의 뜻있는 정부와 민간인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바 우리의 귀중한 자손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에 베델교회도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Chapter 4 _ 회고 및 간증

1. 교회성장과 신앙생활 간증
2. 교회 건축역사 간증
3. 예배와 경배 사역 간증
4. 양육사역 간증
5. 교회학교사역 간증
6. 특별교육사역 간증
7. 선교사역 간증
8. 봉사사역 간증
9. 미디어사역 간증

1. 교회성장과 신앙생활의 간증

신앙의 주춧돌로 성김의 축복이 있는 곳

베델교회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결정과 결심을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가정이 베델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음을 고백합니다. 구역 예배에서 cell church로 변경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재를 통해 셀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신앙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섬기며 지내온 지난 30년의 세월! 교육 부서장으로 부름을 받고 AWANA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던 일, 소망부를 시작하며 "밀알의 밤"을 위해 성극을 무대에 올린 일, 문서선교부를 섬기며 베델뉴스를 창간(월간 32쪽)해서 원고 부탁을 하며 마감 시간에 쫓기던 일 등을 뒤돌아보면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마지막 사역인 베델한국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며 함께한 동역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감으로 주일반 학급이 차고 넘쳐 토요반도 개설하고 웹사이트를 오픈하여 여러 자료를 나누던 일들입니다. 우리의 2세들이 베델의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중심을 지키며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윤영걸 장로

가족의 history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집

30년 전 처음으로 베델교회에 출석하면서 안고 다녔던 저희 쌍둥이 아들은 이제 장성하여 올해 둘 다 믿음의 딸들과 결혼하여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의 베델은 마치 제 쌍둥이 아들들처럼 새 신을 신고 막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교인이 150여 명 정도였고 모든 분이 한 가족처럼 가깝고 친하게 지냈지요. 저희는 집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다이어몬드바이었지만, 베델을 평생 섬길 교회로 삼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대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어느 날인가 동부에서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님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델의 3대 담임목사님이신 손인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임하시자 마자 대심방을 시작하셨고 그 첫번째 방문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 제일 먼곳에서 사는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장로님과 심방팀이 길을 잃어 리버사이드까지 가시는 바람에 정각에 오신 손인식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기다려야만 했지만, 밤 11시쯤 끝난 은혜의 심방은 저희 가족이 지금껏 베델을 나오고 주님 곁에 붙어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베델에 와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한국 학교를 거쳐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룬 두 아들을 바라보는 똑같은 마음으로 베델교회를 바라봅니다.

돌아보니 굽이굽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네요. 앞으로 4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델을 향하여 준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보라 권사

구석구석 남아있는 하나님 은혜의 발자취

제 인생 처음으로 교인으로 등록하고 출석한 베델교회! '일편단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제 마음 속 깊이 각인시켜준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델을 다니면서 제 신앙의 불모지에 처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새신자 심방을 오셨던 손목사님, 유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베델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4시간 꼬박 Trailer 구석에서 설거지하고 나면 굽어진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서로 굽은 허리로 작별하고 집으로 향했던 '허리 아픈 추억', 뜨거운 여름, 주차장 아스팔트 열기에 신발 밑창이 뜨거워져 작은 물웅덩이에 들어가 신발로 물장난치며 발바닥을 식혔던 '뜨거운 발바닥 사건', 부러진 손목에 쇠못을 박은 후 참석한 베델동산에서의 쉼과 주님과의 만남. 어느새 베델교회와 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델교회의 지난 40년, 베델공동체 안에서의 저의 신앙생활 27년. 쉼표를 찍으며 돌아보니 분명한 것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구석구석 묻어나는 하나님 은혜의 발자취는 베델 캠퍼스 이곳 저곳에 그리고 제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베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교욱 집사

베델, 신앙의 기초를 쌓은 곳

베델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어바인에서 뿐만 아니라 남가주와 온 세계를 다니며 섬겼던 사역들이 머리에 스치며 제 가슴속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저희 영어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해마다 세계를 향하여 떠나는 단기 선교사로서의 섬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그 선교지 현장에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베델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던 지난 4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의 베델이 되었음을 저희 모두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델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을 통해 저는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수 있었던 베델, 그리고 제가 오늘의 모습으로 있기까지 주님께서는 베델을 통하여 저를 훈련시키셨고 믿음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으며 좋은 베델교회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먼저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좋은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Dan Nam 목사

2016.9.11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창립21주년 소감 베델뉴스 1997-18호)

21살의 성년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륜에 맞게 성장하여 성숙된 베델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연단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며 베델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스물한 살을 맞는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주제이자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쉼없는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앙 생활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예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스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서동민 장로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삶을 승화시키는 경건의 훈련

제가 베델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밝고 환한 인상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마치 스페인풍 주택의 하얀 담벽을 붉게 장식하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베겐지아 꽃과 같은 신선함과 참신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베델만의 독특한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낸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지난 21년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델을 사랑해 주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든 역경을 허락하셨고 이로인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신것 감사드릴 뿐입니다. 비 온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지나고 나니 영적으로 한단계 더욱 성장한 것을 깨닫습니다.

21살 생일을 맞으며 바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껏 헌신적으로 실시해온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체험할 때 호흡하는 순간 순간마다 감사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매일 매일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영적 훈련이 꾸준하게 지속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안나 사모

짐을 나누어 지는 교회되기를 -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 절실

우리 가족이 베델 교회에 등록한 첫 해에 창립 14주년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한해 한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 부서들이 각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보면 그동안 베델 교회에서 섬기면서 너무나 즐겁고 보람된 때도 많았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한해가 다르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년부도 매년 늘어나는 유년부 학생들로 인하여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V. B. S로 유년부 캠프로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귀한 사역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2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바라고 싶은 점은 유년부 뿐만 아니라 중.고. 대학부 이 모든 부서를 이끌어 주실 전문 교육 목사님을 전담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욕심이 있다면 유치부, 유년부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부모님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전도사님과 어린(?) 선생님들께만 맡기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과 재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더욱 많은 부모님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니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P.T.A Members., 유년부 선생님으로, Awana 선생님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 드립니다.

오흡 집사

한 가족 같은 교회이어야 - 1.5세와 2세의 의견이 보다 많이 수렴 돼야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청소년 담당 목사님과 교사들이 새로 온 사람에게 까지 신경 써주고 친절하게 잘 대하여 준 점이 좋았습니다. 주일날 배우는 성경 교재가 아주 체계적이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사소한 일에까지 잘 돌보아 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겉으로뿐만이 아닌 깊은 사귐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학생들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때는 2세와 1.5세의 생각을 보다 많이 반영했으면 합니다. 또 2세를 위해 쏟는 관심만큼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조기 유학생 에게도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1.5세나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 가끔씩 한글 대학부나 두란노 선배들과 같이 모임을 갖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기독교 서적이 비치 되어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베델 서점에도 청소년을 위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분반 공부할 때 E Building 과 F Building이 소란스럽고 어수선해서 조용한 방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성가대 연습소리와 아이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성경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계속 커지더라도 더욱 단합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이나(영어 고등부 12학년)

여호와 라파(성도의 편지)

커-억, 크-윽.... 어디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인가? 엎드려 얼굴을 묻고 있는 이는 분명 남편이었다. 살면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의 모습의 어깨 위에는 우리 둘만이 해독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인 이야기책이 한권 얹어 있었다. 웅크린 채 오열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적막 강산에 혼자 남겨져 백년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 같았다. 또한 그 모습은 날 만드신 이가 언제든 날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생의 삶에 대해 담담했던 나의 무심함을 뿌리째 흔들어 놨다. 이 사람은 만 21살에 의과대학원을 포기하고 대신 선택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던가! 결혼 후에 철들어가며 치열하게 살아온 내 삶은 내가 자각하던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음을 피부 깊이 느꼈다.(채바다는 "그래도 그대는 행복하다"중에서 천생연분을(사랑 하는가/사랑 한다면/천번 고백하고/천번 기도하라)로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 사랑하는 것과 아픈 것은 어떤 모양이든 다 소리를 낸다...

어찌 내 남편 뿐인가-- 날 외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딸로 사랑하시는 시어머님은 시아버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실때도 이렇게 하늘이 노랗진 않았다고 하시며 야베스의 기도를 외우셨으며, 눈물로 지켜 보시던 친정 부모님의 애절함, 유진과 태진이는 아들들이라 그런지 놀란 가슴들을 채 내보이지도 못했다. 난 이 사랑 안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았다. 사고같이 들이닥친 병이지만 죽어도 침대에서 죽는다는 것이 감사했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잠잠히 사랑하사 선하신 쪽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으니(습 3:17) 또 감사했다. 그리고 20년전 주님 앞에서 한 우리의 결혼 언약식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었음을 기억하고 더 많이 감사했다. 나는 피조물로서 내 병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와 교만함을 회개했는데 아마 병이 발병한지 몇주 만이었던 것 같다. 그후부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내가 기운이 없어도 주님이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빌어 주시는것을 느끼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롬8:26). 게다가 식물인간이 되고 싶을 정도로 혹독한 치료과

정을 보내며 너무 힘들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시편46:10 은 말씀 속에 날 뉘이고 날 긍휼히 여겨 주십사 하는 외마디만 모기소리로 겨우 낼수 있었을 뿐이었다. 글리백이란 약을 쓸수 있는 만성 백혈병도 아니고 형제들 골수도 맞지 않으니까 촌각을 다투는 병 앞에서 담당 의사팀은 나에게는 물론이고 가족들을 모아 놓고 희망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 입원하자마자 치료 과정에 필요한 수술을 하러 거니에 실렸었는데 수술실 문이 천국 문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다. 그 문까지의 1여 미터의 거리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세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너무나 모진 느낌이었다. 남편과 두 아들 녀석들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을 뒤로 하는 느낌이 형언할수 없이 외롭게 아팠다. 죽기 직전 약 5분은 이렇게 고독한 것이로구나! 정말 잊혀질 것 같지 않은 천국 가기 5분 전 체험이었다.

첫 항암화학요법 후에 루키미아(이상 백혈) 세포들이 없어져 의료진들에게서 축하를 받았다. 골수이식을 할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다. 면역문제로 면회를 사절할 수밖에 없고 병실에 둘 수 없는 고독한 병과 싸우는 6개월 동안 많은 화학요법과 10회 이상의 양팔 벌리고 줄에 매달려 전신방사선 요법을 받았다. 왜냐면(자기 골수이식)은 나의 스템 세포를 냉동했다 수술을 해야 함으로 보통 양보다 강하고 위험부담이 큰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내 생명을 소생시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왕하20:5) 고통의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 조용히 치유의 증거를 달라고 강청 드리기 시작했다. 히스기아 왕에게 주신 여호와의 증거의 징조를 내게도 달라는 기도였다.(사38:8) 나는 그 징조로 속 눈썹은 한 올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했다. 그 후 골수 이식 수술후의 혹독한 후유증 가운데서도 내 속눈썹은 제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여호와 라파! 나의 백혈병을 고쳐 주신 치료자 하나님! 이 치유의 역사는 자신의 몸보다 날 더 아껴주던 남편의 그 신성한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 금식기도 하던 성도들의 사랑, 수백통의 격려카드와 편지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안다. 어찌 그 뿐인가! 토요일 새벽마다 어김없이 느껴지던 중보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겐 사랑이 아니라 사랑모습을 가진 천사들이다. 퇴원해서도 낮은 면역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다시피 했고 앞

으로도 몇년간은 조심조심 살아야 하지만 올해 11월5일이면 골수이식을 받은지 일년, 나의 새로운 한살 생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전개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난 하나님께로부터 병을 치유 받고 생명을 연장 받았다는 것이며,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고 싶은 열정으로 가슴이 벅차다는 것이다. 이 설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누며.....

(위 글은 박미미 집사님이 은혜 가운데 치유의 체험을 가지신 후 E-mail을 통해 담임목사님께 보내신 감사의 서한입니다)

2002.9.22

굿 닥터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투병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나오는 단어는 "오직 감사!"입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기침 감기가 낫지를 않고 4월에 힐링 킹덤 봉사자로 나가기 직전에 제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를 가거나 베델동산 봉사자로 가려하면 전에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었던 터라 이번에도 정밀 검사를 받을것을 권유한 의사 선생님께 한국을 다녀와서 받기로 하고 무사히 힐링킹덤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약 두달간의 정밀검사 결과 폐암 3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기관지 내시경을 한 결과 오직 하나의 lymph node만 전이가 되어서 폐암 2기로 다시 확정되면서 수술을 먼저 받을수 있었지요. 오른쪽 2/3의 폐 절제술을 받고 산소호흡기도 끼지 않은채 하루만에 ICU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빠른 회복을 보이며 그후 네 번의 키모를 잘 마치고 지난 10월 25일 제 암전문의로부터 CT Scan 결과 양쪽 폐에서 암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평생 먹어야 할 거라던 약도 먹을 필요 없고 4개월마다 와서 checkup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암 환자 한 사람을 놓고 그야말로 온 커뮤니티와 교회가 함께 매달린 결과입니다. 우리의 굿 닥터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주시고 직접 메스를 드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기도팀의 놀라운 중보기도와 더 깜짝 놀라고 감동이었던 것은 예향팀에서 격주마다 정성스레 만든

음식들을 따뜻할때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식구들의 격려는 물론 셀식구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저는 너무나 행복한 환자였습니다.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게 해 주셨지요. 이제 제 옆구리 에는 주님의 창에 찔린 흔적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수술 흔적을 볼 때마다 힘들고 아플 때 저를 꼬옥 안고 가 주신 주님이 생각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게 다시 주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며 주님의 눈길 머무시는 곳에 제 마음도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선영 권사

2016.12.4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바쁜 일상속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가끔씩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윤영우 집사님이 깨어나게 된 2주간의 과정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케 한 역사였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만 되뇌며 눈물만 흘렀던 그때가 지금도 손발이 떨리는 기억으로 생생합니다. 몇 주전만 해도 웃으며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이들 교육에 열정을 가진 윤 집사님의 조언을 귀 기울이던 것이 떠올라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심정지가 4번이나 와서 한국의 가족들이 대기해야 했던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그 긴박했던 순간에 목회진과 셀목자님을 비롯해 발빠르게 가족을 돕는 많은 손길이 그곳에 있었음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남편 깨어날 수 있겠죠?"하며 울먹이던 예진 집사님의 그 눈물과, 자지도 쉬지도 않고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에 우리도 가만히 넋놓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4시간 간격으로 조를 짜고 당번을 정해주신 김집사님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가대원들이 돌아가며 가족과 아이들의 식사 및 라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인의 간절한 기도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은 카톡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려도 모두가 정말 간절하기만 했습니다. 간호하면서 체력 떨어지면 안된다며 지치지 않게 시간마다 예진 집사님께 한약을 먹여주던 박 집사님과, 윤 집사님이 깨어나는 순간까지 병원을 지킨 훌륭한 셀목자님, 그리고 어려운 병원 용어를 쉽게 설명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가족들을 안심시켜준 황 집사님, 또

시시각각으로 소식을 업데이트해주며 하나가 된 많은 분이 함께 했습니다.

모든 기능이 정상임에도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는 환자를 병원에 둔채 온 가족이 주일예배에 참석한 모습은 저희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기도했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함 없이 모든 기억과 언어능력도 다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다 완벽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시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모든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 한분께만 돌립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한분이면 됩니다!

김효진 집사

2016.12.11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간 후에(추모의 글)

최근 담임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를 들으며 작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아내 강기숙 권사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간증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9년째인 1999년까지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해 밑바닥을 경험하고 너무도 많은 삶의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수십 번의 생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그래서인지 우리 부부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더욱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아내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아요"하며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 꿋꿋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던 아내를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1년 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에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가 있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는 날, 저와 제 가족들에게는 전에 없이 이상한 일이 생겨 임종의 시간에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딸들 모두 예배후 일이 생겨서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 늦게 도착했고, 오후 두 시경 심장마비가 온 아내의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제 아내가 무덤에 묻히던 날, 김한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아내의 죽음'이었고 그 설교 내용 자체가 제 아내의 죽음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내용과 제목은 목사님께서 일부러 본문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사라의 죽음에 관해 "이것은 deposit입니다"라고 풀이하셨던 설교 말씀은 마치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마치 "Jubilee(희년) 50년의 해. 지난 50년의 삶 동안 아이들도 다 키웠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해방의 기쁨을 누려라"고 말씀하신 듯이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 가셨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있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제게 또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두려워 말고 너는 남은 자로서 사명을 삶으로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제겐 이 세상 그 누구의 위로를 통해서도 걷힐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그리움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내 남은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용광로로 쓰이리라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정훈 집사

2016.12.11

2. 교회 건축 역사 간증(성전 및 교육관 건축 관련 간증 및 설명)

본당 증축(1992)

폭발적인 교인증가에 따른 부족한 본당 수용 능력과 부속시설에 고심해온 본 교회는 이번에 본당의 증축과 제3건물의 구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그간 본 교회는 건축위원회(위원장: 장은석 장로)를 구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교인수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본당과 부속시설의 해결책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는데, 이번 당회의 추인을 거쳐 이 방안을 최종 결정 증축허가 등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우선 본당 증축을 조셉 - 콜롬보 건축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 완성을 보아 현재 어바인 시에 증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다. 이 증축 설계도에 따르면 현재 300석 규모의 본당 4면을 모두 헐어 1,000석 규모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증축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30석 규모의 성가대 자리가 강대상 뒤로 옮겨지고 몇개의 부속실도 갖춘 웅대한 새성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재 교회 건축위원회는 5월말께 시즌부터 증축허가가 나올 것을 기대, 6월 초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매주 모임과 철야기도회를 갖고, 세부계획과 시험받지 않고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한편 공사기간은 6개월, 공사비는 백만불로 잡고 있는데 현재 20만불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착수되면 본당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회에서는 임시로 교회 옆 공터에 1000명 수용 규모의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볼 계획이다. 또한 제 3 건물 구입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나 본당 확충만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실등 부속시설을 메꿀 수 없어 이를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이다.

건축위원회

코이노니아 1992. 3.

비전센터 건축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 9월중순부터 시작된 베델 비전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시끄럽던 공사현장의 중장비 기계 소리가 이제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쉴 새 없이 사무실로 들려온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초석으로 삼고 공사현장의 넓은 공간이 온통 흙더미와 중장비들의 바퀴 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 철골 구조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베델 비전센터 내에는 국제규격의 농구장과 배구장 시설이 들어서며 70여개의 교실과 4개의 대소 예배실, 다목적 홀, 도서실 및 각종 용도의 시설들이 1세 2세들의 감각에 맞도록 아름답게 지어질 예정이다. 한편 베델가족들을 섬기는 목회자실도 함께 자리하게 된다. 예상되는 공사기간은 약 1년 6개월이 되며 현재공정은 토목공사 단계로 건물부지 정지작업이 진행중 이미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한편 공사와 더불어 현장 주변에는 '가로막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그 이유는 기존 건물과 신축되는 비전 센터를 같은 높이로 만들고 분수대 플라자 일부분과 소방도로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차단하게 되어 앞으로 약 3개월가량은 성도님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이웅구 장로)에서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이 공사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가장 큰 어려움이 주차관계라고 고백한다. 따라서 최근에 새 건물 부지 위에 주차하셨던 성도님들께서는 꼭 10분만 일찍 출발하셔서 주차사역팀의 안내를 받아 볼링장에 주차해 주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2세들을 위한 최첨단의 교육환경 시설을 제공하고 사회속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시설물을 개방하려는 목적에 맞게 베델가족 모두는 2천년대에 펼쳐질 힘찬 도약의 날개짓을 기쁨속에 소망해 본다.

공사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동수 집사님은 '공사를 통해서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베델 가족들의 신앙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시편 127:1)

1999.10.10.

비전센터 완공 _ 은혜의 순간, 감동의 순간

1999년 11월 첫삽을 뜬지 20개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의 베델 비전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런 헌당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깊은 감회와 감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 못지않게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청해 놓은 건축 허가를 99년 3월에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늦어져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건축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밤이 늦도록 지혜를 구하기도 하였으나 11월에 가서야 토목공사 허가를 받게되어 알지도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섬세하신 간섭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주시고 준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건물부지 분할문제, 건축공사비, 은행대출 문제 등등…) 유능한 설계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실한 시공회사를 선정하게 하셨습니다. 토목 공사가 시작되고 기초를 닦아 기둥과 벽을 세우며 지붕을 덮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과정속에 많은 어려움과 차질도 있었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비 850만달러 프로젝트를 재정적인 큰 어려움없이 이처럼 아름다운 건축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비전센터가 완공되기까지 하나님께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게 하시고 온 베델의 가족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물질과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할 68개의 교실과 Small Chapel들, 멋진 최신 시설로 꾸며진 Vision Chapel, 마음껏 뛰놀수 있는 체육관, 수백명을 수용할수 있는 다목적 룸, 깨끗하고 멋진 색의 조화를 이룬 Hall 등. 이토록 좋은 시설과 좋은 교우들.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비전센터를 통해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펼칠 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장로

2001.9.16

비전센터를 기다리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델 한글 중고등부(CIM)에 다니는 12학년의 김소라라고 합니다. 베델 중고등부에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난 2년간 아주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2년전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저희들이 사용하던 교육관은 철거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예배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몇달간은 밖에서 좁은 페티오에 천막을 치고 날아오는 공사장 먼지도 마셔가며 설교 말씀을 듣기도 했고, 때론 찬양팀이 바람에 날린 악보를 주워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임시 건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저희의 예배실은 큰 Van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Garage 사이즈였습니다. 비좁고, 복도는 시끄럽고 예배 드릴때는 사람이 많아 더워서 땀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학생들 때문에 의자를 놓기 위해 피아노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40-50명으로 늘어나서 에어콘을 틀어도 숨이 턱턱 막히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저희에게 한달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설교하신 것처럼, 저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새로 온 학생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곳을 보고 다음 주에 다시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전센터를 향한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토요일마다 새벽에 나와 빛 한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예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님께서 "비전센터를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희들 뿐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불평보다는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어느새 비전센터는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후에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비전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한 넓은 장소로 데리고 가셔서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꿈을 키워 나갈 장소라고 하셨을 때, 저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든 것을 견디게 하셨구나 생각하며 모두들 완공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요즘 비전센터를 볼 때 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하면서 마음껏 드릴 첫 예배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저희 자녀들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실들과 교실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배우는 저희들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그 동안 비전센터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시고 힘써 주신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소라

CIM 12학년

헌당시

하나님 아버지! 걱정, 불안, 병과 죽음, 이별과 고통 그리고, 절망만 보이던 이 세상에 지난 2년간 주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갖고 온 교회의 기도 소리가 하나되어 새벽을 깨우게 하시더니, 드디어는 꿈의 Vision Center를 드러내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빚진 자된 우리 모두임을 깨달아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한 강권은 축복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은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전을 받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시기에 소리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울어도 울어도 끊이지 않는 영혼마다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남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소리 없이 나누어지어 승리하는 선과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가운데, 헌신과 연단을 통하여 드리는 심연의 기도로 엎드리어, 우리의 삶을 바로 서게 통치하여 주시고, 간절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있기까지는 지울 수 없는 이름들과 잊혀지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함없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과 그 얼굴들을 길게 꿰어서 강을 건너게 하시어 주께로 나가게 하시더니 이 환희의 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오니, 심령의 배고픔을 채워 주시고 고칠 길 없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인간의 고뇌를 함께 울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되어서,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웅구 장로

-건축위원장-

3. 예배와 경배 사역 간증

돌탕 부흥사경회

지난주 8일부터 10일까지의 집회기간에, '받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술로 충만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난한 소년의 '배는 물로 채웠으나 가슴은 하늘로 채워달라'는 절규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목사님의 눈물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목사님의 별세신앙의 중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으며, 나의 삶에서 나를 먼저 죽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행복한 존재가 되며, 이때 얼굴의 변화 즉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어 창조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은혜를 받자'라는 첫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도전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받자'의 두번째 말씀은 마침 토요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울부짖는 우리 중보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로 인해 능력 있는 생애인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수 없이 체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는 능력은 첫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며,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됨을 의미하며 둘째, 성령의 비둘기 형체와 같이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인격의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상급을 받자'(고후5 : 8-10) 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주저한다. 겉만 보고 사는 사람들끼리도 어려운 세상인데, 나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과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첫째, 별세를 해야만 한다. 즉,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다는 별세의 신앙을 부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죽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함께 사는 것이 참된 부부의 모습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십일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온전한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상급까지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30~ 36)를 통한 '치유를 받자'는 말씀에서, 그 시대의 주막집이 오늘날 천상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교회와,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는 친정집과도 같은 안식하는 곳의 교회를 뜻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식 잃은 강도 맞은 사람에게는 산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사실만 깨달으며,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함, 슬픔, 원망을 누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만족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행복을 받자'(계21:1-2) 의 말씀에서 '사람이 왜 사는가', '천국은 왜 가는가'의 두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을 때 아담이라는 존재는 죽었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깨어났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며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모형이므로, 천국의 신비를 나의 가정에서부터 맛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특정한 (보기만 하면 나오는) 눈물에 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부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의 인간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준비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서 5번에 걸친 말씀의 큰 잔치를 맺었습니다.

이성연 기자

2002.3.3

40일 대각성 기도회

베델뉴스에서는 '40일 대각성 기도회' 동안 매일 뉴스지를 발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 은혜받고 치유받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간증, 그리고 생생한 성령 역사의 현장을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도회의 열기를 다시금 사모하며, 수많았던 40일 대각성 기도회의 뉴스들 가운데 top 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1) 매일 1,800명 이상이 참석

40일 내내 매일밤 1,800명 이상의 인원이, 때로는 2,000명에 가까운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대각성 기도회를 계획하시고 이끄신 손인식 목사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연인원으로 치면 7만 명. 인간의 마음속엔 늘 과연 될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 기도회의 불길이 다른 교회들로 확산

세계 부흥의 역사들이 그러했듯이, 대각성 기도의 불길이 조용하지만 힘있게 남가주를 넘어 미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크라센타의 뉴송교회, LA의 주님의 영광교회, 밸리의 에브리데이 교회 등이 이미 '40일 대각성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결정으로 곧 미 전역으로 기도의 불길이 번져갈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북한과 세계로 뜨겁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3) 기적, 기적, 기적!!!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기도 가운데 수많은 병고침과 기도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선효신 집사님의 몸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 Marcus Cook 형제의 척추수술 뒤 빠르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17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영주권을 기

도회 기간 중에 받게 된 역사... 그 밖에도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상한 심령의 치유 등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기적들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4) 베델교인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 하나'의 은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참석해 본 사람들이 감격하여 매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밤 새로운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너나 할것 없이 앞장서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기적의 역사들을 소문으로 듣고 스스로 찾아오신 타교회의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내 잔의 은혜가 잔 안에서 그대로 머물지 않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5) 연령과 세대를 초월한 기도회

이번 기도회의 특기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1세와 2세, 아이와 어른, 젊은이와 어르신, 한국어와 영어 등 구분하고 가르는 기도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기도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이 연합하여 함께할 수 있는 기도회였다는 점입니다. '40일 대각성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는 연령과 세대를 초월하여 기도로써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6) 더 뜨거웠던 체육관 광야 기도회

기도회 기간 중, 중국교회들 연합 부흥 대성회를 위해 우리는 성전을 내어주고 기꺼이 광야의 예배지로 나갔습니다. 자리를 깔고 쭈그려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도 줄지 않고 더 많이 몰려든 성도님들 중 많은 수가 추위에 떨며 체육관 밖에 의자를 펼치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드려진 기도회는 그 어느 날보다 은혜로웠고 뜨거웠습니다.

7) 짧지만 강렬한 또 하나의 설교, 특별영상

매일밤 설교 전에 상영된 특별영상은 또 하나의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곳곳에서 보여진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의 거룩한 행진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강렬한 부르짖음을 통해, 모인자들 모두가 매일밤 새롭게 도전받고 은혜받았습니다.

8)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이중언어 예배

날마다 조금씩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어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역기 비치, 설교 요약 영어자막, 영어와 한국어 두가지로 기도인도 등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노력들을 통해 2세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앞으로 1세와 2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중언어 예배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9) 온 교회에 넘쳐나는 영적 활기

"누가 베델교회를 점잖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누가 베델교회를 조용한 교회라고 했습니까!". 손목사님의 선언과 같이, 대각성 기도회 이후 온 교회가 영적인 활기로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조용히 찬송하던 성도들이 손바닥에 불이나듯 박수치며 찬양하고,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조용조용 기도하던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사방에서 뜨거운 회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 영적 활기로 온 교회가 뜨겁습니다.

10)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회의 열기

40일 대각성 기도회의 불길은 40일만에 수그러들고 마침내는 꺼져버릴 시시한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의 다른 교회들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베델교회에서도 기도회의 열기를 수요일 밤마다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52

번의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수요 52주 대각성 기도회는 5병 2어의 역사로 교회들에, 성도들 삶의 현장에, 조국과 온 세계 열방에 눈부시게 타오를 것입니다.

40일 밤을 뜨겁게 달군 하나님의 말씀

이민목회세미나 진행 등 불가피했던 며칠을 빼고는 40일간의 말씀을 거의 혼자서 감당하신 손인식 목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 하루의 설교가 마치 세상에서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온 정열을 다 쏟아부어 말씀을 대언하여 주신 그 모습에,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성도들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낮아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목사님의 설교는 때로는 날선 검과도 같이 우리들 심령을 찔러 쪼개 주셨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위로로 우리들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델뉴스 선정

기도회 10대뉴스

2011.9월

숨어서 다니던 교회(엘리야특별새벽기도회)

저는 2006년 3월 직장관계로 Irvine에 이사와 4-5개월후에 베델한인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베델교회와 같이 큰 대형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전에 다니던 밸리에 있는 작은 교회와는 달리 큰 교회에서는 숨어서 신앙 생활하며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밸리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이 부족했지만 많은 봉사직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제게 힘든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제 어머님은 암 선고를 받으시고 11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마비가 오셨고 7개의 관상동맥을 By-pass 수술하셨습니다. 이러한 불행들이 부모님께 동시에 오니 아버님과 누나들은 그 이유를 나의 종교 문제라고 비난하여 동기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몰아쳐 왔습니다.

Irvine으로 이사온 후에도 4-5개월은 밸리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V.B.S.에 출석했다가 베델한인교회의 매력에 푹빠진 큰아이, 멀어도 불평없이 봉사하며 섬기던 교회생활 속에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섭섭함 같은 것으로 어렵게 교회를 옮겼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하다 좋은 셀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두 얼굴의 기독교인들 속에 참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시는 셀장님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저도 닮고 싶어졌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제가 어떻게 엘리야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첫 주에 강영우 박사님을 통하여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항상 'YES'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NO'로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이제껏 왜 제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였습니다. 그후 삼일간의 김정복 목사님 말씀에서는 하나님

의 주권을 무시하고 짜 놓은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던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간의 최홍주 목사님 말씀에서는 불행과 행복은 단지 미천한 우리의 시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부의 슬픔속에서도 순종하여 아끼던 기름 한병을 드림으로 넘치도록 축복받는 말씀은 이제껏 불평만 하며 더 없음에 속상해했던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며 관점을 바꿔 주셨습니다. 더욱이 말기암 투병중에도 주님을 섬기며 행복을 느끼시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의 행복 가치관이 나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성장기를 지금까지 저는 불행으로 생각하며 원망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닌, 섬기며 다니는 교회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동훈 형제

2002.1.20

주여 새생명들을 보내 주옵소서(새생명축제)

2014년 김한요 목사님의 담임목회의 시작과 더불어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베델교회에 주신 비전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1-1-1구령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솔직히 약간은 염려하는 베드로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차와 2차 VIP 작정의 옥합을 열었을 때에,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게 만든 숫자 2,065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온 교회가 영혼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모든 예배시간마다 모세와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버리신다면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제하소서! 주여, 만일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겠나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의 3차 작정은 부활주일에 본교회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VIP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약 400여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여기에 100명을 더한 500 여명의 영혼을 새생명 축제로 인도하여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거널(William Gurnall, 1617-1679)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영혼구원에 집중할수록 이를 막으려는 악한 영의 궤계 또한 극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온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새 생명 축제를 위해, 초청될 VIP를 위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기도회와 주중 릴레이기도와 셀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한 영혼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생명 축제 당일 날 VIP를 교회로 곧장 모시고 오실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VIP들을 먼저 여러분이 속한 셀교회로 인도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준비된 정성스런 음식을 나누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초대하는 경우에는 굳이 설교말씀의 나눔없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적합한 주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끝으로 온 성도들이 협력해야 할 부분은 새생명 축제 당일에 VIP분들과 또 모시고 온 분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비전 파킹랏에 차를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타는 거룩한 불편함을 기분 좋게 감수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

고현권 목사

2014.3.30

신학 강좌

캘리포니아의 제법 후끈한 여름을 느끼게 했던 지난 한 주간, 준비된 집회인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초청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 기대를 하고, 셀 식구를 픽업하여 함께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서자 실내는 시원한 것이 아니라 추워서 겉옷을 여미게 되니 집회 주제와 목사님들의 영상을 밑받침 하는 것 같아 웃음을 짓게 하였습니다.

강사진 구성을 보며 한 분만 오셔서 강의해도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은데, 그런 네 분을 모두 한꺼번에 만나게 되다니, 이것은 한여름에 취득한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드디어 강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시작과 발전, 세계관들의 충돌, 한국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을 놓고 펼쳐 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기쁨도 주었고, 다시 생각하며 고민하게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욱더 깊고 넓게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게 하였습니다.

잔잔했지만, 신선한 한여름의 시원한 강의 가운데 저는 다시 대학생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 젊었던 시절의 추억을 끄집어 보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가졌던 교수님과의 의견과 토론들,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짐했던 대학 시절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며 가슴을 설레게도 하였습니다. 특별 찬양과 기악 연주는 이번 신학강좌의 또 다른 신선함이었습니다. 강의와 특별 순서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지긋하게 눈을 감게 했으며 행복이 느껴지며 잔잔한 떨림의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강좌의 정점이었던 패널 토의, 혹시 질문이 많이 없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던 저의 생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예리하고 재미와 즐거움 가운데 인도하셨던 김한요 목사님, 그리고 네 분 강사님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관점에서 펼쳐졌던 응답들은 저에게 지혜를 가지게 했고, 3일의 강좌가 너무 짧고 아쉬운,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는 소원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번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는 주안에서 한여름의 시원함 가운데 추억을 곱씹으며 가슴 뭉클한 자리를 가졌던 은혜의 기회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재 결단하는 시간이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여름의 특권이었습니다!

김 진 집사

2016.7.31

새벽기도회

베델동산에서 만난 주님! 이 새벽을 열어 주님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예배를 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주님 나의 손을 잡고 특별 새벽기도회로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니 감사해요.

두 아들의 어머니로, 한 남자의 아내로, 마음을 다해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조진환 목사님 입술을 통해 다니엘의 믿음과 신실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셨고 찬양과 통역으로 순종하시는 목자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큰 은혜였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온종일 주를 찬양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마음만 태웠는데 내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니 그 많은 찬양들이 내 입술을 열어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 평강과 위로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이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 지셨을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과 외로움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님 미안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이제 주님 앞에 똑바로 가고 싶어요. 아직은 허물과 연약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주님 손 잡고 이전에 입었던 옷은 하나씩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고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깊고 크신 사랑 닮아가고 싶어요. 새벽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 더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하루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으로 변화되고 고통의 멍에 버리고 참 자유 주셨으니 나 이제 일어나 은혜의 강가에서 주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내길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신실한 삶의 어떤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본받아서 이 죄인의 삶이 변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내 손을 잡고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모든 은혜와 기쁨 주님께 영광드려요.

하나님의 자녀 음태숙

2005.10.16

세례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거듭남을 선포한 4월14일 세례식 날, 그 따뜻한 물에 잠겼다가 나왔을 때 온 몸을 적셨던 그 물기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눈물이 범벅이 되었던 그 날, 주님께 올렸던 기도들이 하나 하나 현실로 되어 가는 것을 보며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조용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 내가 잘 못 걷겠어요 하면 당신은 늘 잡아 주셨습니다. 나 오늘 실수했어요 하면 덮어주시고 내 마음에 품은 죄로 괴로워요 하면 당신은 늘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세례 받게 해 주세요 간구하면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임을 당신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나 아파요 하면 "네가 부를 때에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픈 아이 곁에 '엄마 여기 있어'하는 그 빠른 속도로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당신은 주셨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저 멍한 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어떤 날은 강하게. 어떤 날은 조용하게 당신은 저를 품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저와 저의 남편을 같은 날 세례 받게 해 주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손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는 목사님의 선포와 함께 온몸이 수장되었다가 물밖으로 나오는 과정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인 그 옛 사람이 죽기를 간구했다.

죄의 습성에 30년 넘게 젖어 있던 내가 단번에 이 세례식으로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만 나를 자녀 삼으신 후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이 나를 그 창조

된 목적과 계획대로, 그 원래 궤도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때로는 두렵고 절망할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다.

목숨을 내어 주시는 사랑, 나를 위하여 지옥 끝까지 떨어질 수 있는 사랑,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내 한 영혼과 바꾸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내게는 넘어졌다가도 고개를 들어 위를 보게 하는 소망이다.

오경분 자매

2005.5.1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벅찬 감격(세례)

제가 교회에 나간 첫 주일 밤, 기도하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며 좋아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며 처음 만나서 한 약속을 이제서야 지키게 되어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만 나가면 완벽한 사람인데"라고 격려하며 늘 기다려 준 아내, 아내는 이제 소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물론 예상은 했지만, 모든 것이 치밀한 아내의 계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아내는 자기가 베델동산에 올라가도 되느냐고 물어왔고 제가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등산 모임이야? 내가 또 한 등산 하잖아. 무릎도 안 좋은데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내가 대신 갈게."라고 말하면서도 주저하면서도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며 미소 가득한 얼굴로 기도 내용을 세밀히 적어 주는 아내를 실망하게 할 수 없어서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참석했구나" 하고 깨달았을땐 85차 베델동산 일정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꽃을 준비해 교회로 마중 나온 아내의 눈가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아내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하며 저의 이름을 세례 신청자의 명단에 올렸습니다. 2014년 11월 16일, 우리 가족과 셀가족들 그 외 많은 분의 축하와 축복속에서 저는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례 받은 후, 소천하시는 순간에도 저의 손을 잡고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고모할머니와 16년전, 새벽기도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삼촌, 그리고 어린 자식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처남 부부가 생각나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예배에서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셀모임을 통해 다시 한 번 목사님의 말씀을 되짚어 주시는 셀목자님 부부와 형제 같은 셀가족들

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천국 가는게 아니라고 한 아내의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저만 빠질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하나님의 은혜로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 갖기를 노력하고 오늘도 한발 한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성률 형제

2014.11.23

유아 세례

아무것도 모르는 늦깎이 초보 엄마, 아빠에게로 찾아와준 우빈이. 특별히 남들보다 더 잘해주지 않아도, 극성스러운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감사한 우리 우빈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막연하게 “우리 아이는 키도 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의 바람도 있었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다른 어떤 바람도 필요 없었고, 다만 건강하고 해맑게 자랄수 있기만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매일매일 아프지 않고, 잘 웃고 행복한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이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엄마나 아빠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넘어지고 다치는 순식간의 일들을 엄마 아빠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지키고 양육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를 향해 세상적인 바람보다는 그저 우리 우빈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성장이 엄마 아빠에게도 있음을 느낍니다.

엄마가 준비해준 이유식 한 숟가락에도 너무나 기뻐하고, 천국을 맛본 듯 수줍게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사와 행복이 마음에 넘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왜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하지 못했나 저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하는 부모가 되어, 그 기쁨을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알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우빈 아기(아빠: 김대웅 / 엄마: 전정아)

2016.5.8

성가 사역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 43 : 21) 성가 사역팀은 총무부, 1, 2, 3부성가대. 새벽 성가대, 오케스트라부, 중창 팀 지원부 및 자료관리부의 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감독, 각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약 300여명에 이르는 성가대원과 오케스트라 단원 및 중창 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일날 드리는 특별 찬양을 위해 각 성가대 별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2시간, 주일 예배 시작 전 1시간, 예배 후 1시간 30분 등 평균 4-5시간을 연습하는 만큼 어느 사역보다도 시간적으로 많은 헌신과 열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대부분 성가대원들이 cell 목자나 다른 부서 사역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열정과 우선순위의 섬김으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올려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이 되며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성가대원들의 신앙고백과 간증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있다, 매주 새롭고 은혜가 되는 찬양곡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지휘자들의 인도와 각 부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및 한 분 한 분 성가대원들의 충성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율을 이루어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저녁 60여명에 이르는 부부동반 성가사역팀 임원들의 신년예배와 모임을 가졌는데 담임목사님의 당부 말씀과 함께 새해 성가사역에 대한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 되었다. 각 부흥회와 교회 행사시의 특별찬양, 또한 성탄절 음악예배에는 Handel의 오라토리오 "Messiah 전곡"을 연주할 예정이며 여름에는 각 성가대별 하기 수양회와 세미나, 가을에는 오렌지 카운티 성가합창제 출연등이 예정되어 있다. 매주일 드리는 각 성가대 찬양과 헌금 특송은 교회 website에서 언제라도 다시 들을 수 있으며 은혜 받은 간증도 나눌 수 있다.

세례교인으로서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길 원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환영하며 성가사역팀이나 각 성가대 임원들에게 연락하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가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시편 113 : 1-2)"라는 말씀과 같이 최상의 찬양을 준비하는 베델교회 성가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린다.

김건중 집사

2005.2.27

4. 양육 사역 간증

모퉁이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Beyond the Blue)

한 번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책으로도 많이 공부했고 그동안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은 지식이 꽤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짧은 지식이 무색할 정도로 매시간 귀한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같이 프로그램을 듣는 자매님들과의 만남도 귀한 경험이 되었고 저의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혼이란 프리즘은 세상과 사람을 빗나가게 볼 수 있는 위험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누가 변질시켰나 하는 질문에 늘 제 대답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인 것 같은 생각의 오류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넘어진 모퉁이에는 모두 적만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외롭고 힘들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퉁이만 돌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면 보이는 곳을 찾는 때입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든 아니든 하나님의 딸임이 틀림없다고요. 저의 상처와 마음속의 앙금을 다시 한 번 뒤흔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지지는 역사를 다시 통과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을 안타깝게 보시지만 그렇다고 타협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난 상처는 얼른 치료하고 아문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법칙입니다. 변명과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휩싸이기도 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3주의 B+B 과정을 마치고 다들 소녀들 같이 들떠 산행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강력한 바람 속에 우리안에 있는 걱정과 상처 그리고 과거가 다 날려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치유가 있었고 산 아래에서 느끼지 못했던 전우애 같은 따뜻함과 공동체의 하나 되는 각별한 느낌이 보너스처럼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했습니다. 이별이나 사별이나 다 같이 혹독한 전쟁을 치른 병사들처럼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서로 위로하고 같이 느끼며 아파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티나 정 집사

2016.6.5

새가족에게 Women Alive의 의미(Women Alive)

"럭키 세븐!" 어려서 부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어른들에게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올해 초 Women Alive를 통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매주 화요일 인문학 강의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베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학기 강론 말씀과 소그룹 멤버들을 통해 도전을 받았고 그 후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린 지 두 달밖에 안된 저는 이제 막 새가족 딱지를 뗀 완전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신세계에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엄청난 금광을 캐는 중입니다. 제가 알던 럭키 세븐의 7이라는 숫자는 무의식중에 학습된 미신적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완벽을 뜻하는 숫자라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초신자의 눈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봄 학기에만 해도 저는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었기에 '타이틀 그 자체처럼 Alive를 하기 위해 모이신 걸까? 아는게 많은데 더 알고 싶어서 오시는 걸까? 그래, 공부도 하던 사람이나 하고, 고기도 먹던 사람이나 먹지. 나한테는 먼 나라 얘기네. 난 교양 강좌 듣는다~' 그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생길 때마다 결석도 했었습니다. 가을 학기에 소그룹이 결성되고 강론 후 토론 시간을 통해 교우들과 친분이 생기고 배우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도 더 많아져서 교회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믿음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모를 땐 주일 예배도 안 나왔는데 공부를 통해 조금씩 눈을 뜨니 예배의 필요성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니 주일 예배를 계속 지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알고 싶어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화요일에 Women Alive로 달려오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이번 주 가을학기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열심히 이끌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저 같은 초신자가 짧은 시간만에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도 온 것 같습니다. 지난날 수없이 들어왔던 "럭키 세븐"이 자연스레 좋은 숫자라고 각인된 것처럼 Women Alive와 예배를 통해 배우는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를 양자로서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배우고 알아서 쓰임 받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Jessica Pak

2016.12.11

모임의 샘터에서 생명수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디모데 공동체)

교회에서 처음 만난 분과 인사하고 나면 가끔 "어느 공동체 소속이세요?"라고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디모데 공동체입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디모데 공동체는 젊은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닌지 되묻곤 합니다. 아마도 교육부와 대학부를 제외하고 나면 디모데 공동체가 성인 공동체에선 제일 젊고 활기찬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 공동체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의 배를 가지고 처음 조인한 공동체이고 지금도 많은 젊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모입니다. 예전에는 디모데 공동체만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산부, 신혼부부, 결혼하신지 좀 되신 부부,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아기부터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 공동체는 연초 엘리야 특별새벽 기도부터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발 벗고 나서서 뛰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헌신, 나눔, 돌봄 등을 배우고 실천하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모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각자의 자리에 형편대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정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공동체는 부모의 손길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서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매주 토요 헵시바 새벽 기도회 후에 셀목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지친 심령에서 직장, 일터, 학교 등 분주한 삶 속에서 잊기 쉬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셀목자가 먼저 은혜 받아서 회개하며 구원의 감격과 영적 회복을 통해서 각 셀목자에게 맡겨 주신 셀식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수와 같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대에 제일 열심히 사역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디모데 공동체도 평균 연령이 30대이니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모든 셀목자들과 셀식구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 쉬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필연 집사

2016.9.26

즐겁게 함께 가는 길(루디아 사역)

지금은 3학년이 된 둘째아이가 Kindergarten에 다닐 때, 3시간 반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 중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1학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내 앞에 닥쳐오자, 아주 보람차고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았던 나의 오전시간은 기껏해야 쇼핑이나 낮잠, 인터넷 등 별 것 아닌 것들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그 즈음 교회에서 주중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인 루디아 사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의 실천' 클래스에 등록하면서 저의 오전시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공부하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동안, 제 신앙생활과 태도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쓰러지기 쉬운 믿음생활 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도와 사랑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그룹 모임의 멤버들은 교회에서 가장 진지하게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자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클래스 이후에도 루디아 사역의 일부인 '여성 제자반'과 '어! 성경이 읽어지네' 등에 꾸준히 등록했습니다. 그 끈을 놓는 순간 나의 신앙생활은 곧바로 '고독'과 '나태'로 돌아설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제와 말씀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제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생각이나 생활이 예전에 비해 참 많이 성숙했다는 걸 기쁨으로 자각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의 클래스가 일주일에 두 시간이나 그 이하입니다.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바쁜 일이 있나요? 아이 때문에?.. 여성들의 시간이므로 당연히 babysitting이 가능하지요. 함께 할 친구가 없어서?.. 더 좋은 영적 친구들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저마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도 많지만, 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테니까요. 오늘 예배후 나가셔서 바로 사인업 하시기를 권합니다. 독서와 나눔을 통해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독서클럽', 주님

의 제자도를 배우는 '일대일 제자양육',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재정교실', 'QT 모임' 등 35개의 다양한 클래스로 베델의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어디에든 '속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혼자서 외롭고 힘들게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와 같이 기쁨으로 즐겁게 걸어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델뉴스기자 최희전

2008.2.3

루디아 사역(2)

저는 작년 부활절에 세례받고 올해로 기독교인이 된지 꼭 일년이 된 초신자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로는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윤귀연 집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이인자 권사님이 이끄시는 CCC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모두 그렇듯 갓 부화한 어린 아기새가 처음 보이는 것이 엄마이고 먹는 것처럼 첫 성경공부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 성경공부 교실에는 생활 속에 작은 사건들과 기도들 그리고 그에 응답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간증되었습니다. 이 CCC에 오시면 이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예수님 마음처럼 돌보시는 이인자 권사님과 그 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암기하시는 이승남 권사님, 열심히 전도폭발 훈련자 교육을 받고 계신 유현주 집사님, 다른 모든 분들이 제게 친정 어머니이시고, 큰 언니이십니다.

저는 이런 맘으로 성경공부 교실에 오늘도 갑니다. 일주일간 힘들었던 응석거리 몇 가지 털어 놓으려 친정가는 심정으로, 아주 오래 전 어머님이 자장가로 불러 주시던 찬송가와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숙제검사 시간에 "참 잘했어요"하는 초등학교때 선생님을 뵈러, 아이가 밥 안먹거나 아플때 해결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선배님께 여쭈러 나와 내 아이, 내 남편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가슴 따뜻한 내 어머니 같은 분들을 뵈러....

처음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이 망설였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강권하신 셀목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강권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께 강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고어들이 어려워서 성경책을 자꾸 덮게 되시는 분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와 성경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고 싶으신 분들,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매주 화요일 10시30분 사랑의 방 문을 두드리세요. 함께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힘입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더욱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CCC 클라스를 마친 우은주 -

신임 셀목자 훈련을 마치며(셀목자 훈련)

지난 몇 해 동안 "아름다운 가족" 셀의 한 멤버로서 참 행복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어나는 셀식구들로 인해 셀 분가에 대해서 셀목자님이 계속해서 언급 하셨지만, 반대하는 셀식구들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출장이 잦은 회사 사정상, 오랫동안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셀 분가가 결정되었고, "자의 반 타의 반" 분가할 셀의 신임 셀목자로 헌신하기로 되었으나, 과연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셀의 목표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 베델뉴스의 신임 셀목자 훈련에 대한 공지를 보고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정말 반가웠습니다.

훈련은 주일 3부 예배 후 2시간씩 4주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신임 셀목자로 헌신할 10여분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이 그 어떤 훈련보다도 진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업과 토론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고, 본인들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셀모임에 대한 폭넓은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창호 목사님께서 셀목자의 구체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진리에 서야 하는가를 되새겨 주셨고, 셀의 존재 목적이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즉 미션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단순히 셀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화목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주위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에 대하여 더 많은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분위기 좋은 셀을 굳이 나누는게 옳은 것일까 늘 궁금했는데, 교육 도중 분가가 건강한 셀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명확하게 이해하였고, 또한 셀목자는 셀식구들을 위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자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셀에는 기타 잘 치시는 분도 한 분 있어야겠고, 셀목자는 셀모임을 할 넉넉한 집도 있어야겠고, 또 분위기 깨는 사람은 피해야겠고 등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셀모임이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의지만이 필요한 것임을 이번 훈련을 통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셀모임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모든 셀식구가 셀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춘 집사

2016.8월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아이드림셀(셀교회)

샬롬! 디모데 공동체 아이드림셀의 강희영, 윤나라, 강형규 가족입니다. 처음 아이드림셀에 참석한 이후로 지난 1년간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글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선물로 형규가 태어나고 인디애나에서 공부하던 아내가 캘리포니아로 이사와 처음으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도움없이 타지에서 육아할 수 있을지, 이제 한 달 된 아기와 셀모임을 참석할 수 있을지... 유아실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셀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 부부를 부모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케 하셨습니다. 신생아였던 형규가 어느새 자라, 기고 걷기 시작하듯 저희 부부도 셀모임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넘어질 땐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셀목자님 가정, 형규를 제일 먼저 안아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증인 된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김 집사님 가정, 받은것 보다 주는게 더 많은, 진정한 나눔의 삶을 보여주시는 강 집사님 가정, 그리고 자녀양육의 선배이자 마음의 조언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배 집사님 가정. 귀한 셀가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규에게 이모, 삼촌, 누나, 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특히, 지난달 형규의 돌잔치 때, 비록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셀식구들이 모두 오셔서 돌잔치 준비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일심으로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디모데 담당목사님의 심방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부모됨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처음으로 형규를 영아부에 맡기게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유아실에

서 벗어나 본당에서 목사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감격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아기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고 먼 타지에서 홀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선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해 주셨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강희영, 윤나라, 강형규 가족

2016.5.15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셀교회)

새로운 셀학기가 시작될 무렵, 제 안에 영적인 깊은 목마름과 동시에 '회복'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셀목자로서의 훈련과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 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저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 을 다시 한 번 보게 해주셨고, 메말라 있던 제 안에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 복음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 시켜 주셨습니다.

저 하나만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에만 급급하였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저로 하여금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저를 셀목자로 불러 주시고 저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복음의 감격함을 회복하면서, 셀식구들을 향한 저의 마음과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고받는 재미와 감동적인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영혼에는 소망이 없겠구나'하는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으로 셀식구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셀모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되길 기도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해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셀식구들이 주님 앞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셀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셀목자로 섬기면서 때때로 저의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족한 섬김과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 힘이 아닌 셀식구들을 친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셀목자 자

리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셀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삶 채플 성지윤

청 2공동체, 2016.05.22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양육반)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양육반 첫 시간에 리더께서 나에게 질문하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나에게 종교였고, 성경은 책꽂이에 꽂아 두었던 책에 불과했던 나에게 그 질문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시작한 매주 금요일 성경공부는 너무나 참신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한다'고 말하게 되었고, 연결해 주신 전도폭발팀의 복음제시를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졌습니다. 나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들으며 은혜 속에 있게 하셨고, 나의 든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시험도 찾아왔습니다. 성경암송이 너무 힘들어서 내 믿음을 잠시 흔들리게도 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배운 대로 매일성경을 구입해서 남편과 QT를 하였고, 저보다 남편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리더가 되어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남편을 보면서 초신자 남편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반은 나의 메마른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양육반을 권유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

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만으로도 신앙 생활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16주 양육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양육반이 끝난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일말의 고민도 없이 "네.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김정은 집사

2017.2.12

전도폭발

제가 전도폭발 훈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믿지 않는 친언니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불교적 배경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친정 분위기인지라 한 번도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을 품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한 마디에 언니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순순히 저를 따라 교회에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복음에 대해 한 마디도 나눠보지 못한 채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나는 준비되지 못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전도폭발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훈련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숙제와 외우는 분량이 많고 여러번의 실습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 생각하게 하셨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 실습을 나갈 때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였었지만, 훈련생 과정의 막바지가 되어갈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길 조금씩이나마 꿈꾸게 되었습니다. 훈련생으로서 저 자신은 참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준 훈련자로 다시 돌아올 때는 좀 더 저 자신을 준비시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전도 훈련 과정에 좀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요즘 믿지 않는 저의 친정 가족들과 친지들, 주변 지인들을 떠올리면 세월호의 침몰되어 가는 배에 있는 그들을 제가 바다에 뛰어들 용기가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만 같아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전도폭발 훈련에 참석해서 많은 분이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훈련받고 계심을 보면서, 언젠가 제 주변의 분들도 저를 통

하여서든 아니면 주변의 분들을 통하여서 든 꼭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분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들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권해봅니다.

권혜경 집사

2014.6.8

작은 예수되기(제자반 간증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단단하고 완고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죄 된 모습을 털어버릴 수 없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함에 내 스스로에게 절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한 QT와 성경 읽기를 통해 깊은 말씀 묵상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죄 된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더니, 비교하고 판단하는 세상의 속성이 아닌, 조건없이 사랑하고 격려하며 말씀의 진리가 주는 지혜를 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됨을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이란? 거듭난 사람이란? 믿음이란?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체와 대상을 공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하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을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 놓는다는 것과 삶에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을 품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 숙제와 QT를 삶에 적용해 보면서, 듣고 배우기만 하는 선생된 제자가 아닌 실천하며 순종하는 제자됨에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2주간 '작은 예수되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훈련받으며 함께 했던 제자반 식구들과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나눈 교제의 시간들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제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랑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마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작은 예수가 되려는 저에게 맡겨진 숙제로 받습니다. 늘 많은 사역으로 바쁘셨지만 두서없이 써서 제출한 숙제에 빨강색 답글로 키포인트를 꼼꼼히 짚어 주셨던 오중석 목사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용림 집사〈여성 4반〉

1995년 5월호

5. 교회학교 사역 간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_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순결서약식)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갈수록 다음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은 엄마인 저의 힘과 노력으로 만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교회학교가 진행하는 순결서약식에 두 아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이 시간 아이들에게 부어 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거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큰아들이 사춘기를 겪기전에 표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순결서약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몸에 대해 깊이 배우며 실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여겨야 함을 배우고, 어그러진 이 세대에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자로 예수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초대에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갑자기 큰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며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라며 고백하는 아들과 주님 앞에 작은 죄까지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내 아들은 머리로 알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났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입으로 고백하며 참 자유를 얻은 아이의 눈에는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은 참 귀하고 거룩하며 또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하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선형 집사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순결서약식)

하나님과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는데 지금은 아빠의 말을 들었기에 정말 기쁩니다. 내가 POP 세미나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번 수업을 마친 후에 나는 진실로 주님을 찬양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미나에서 생물학에 대한 나의 지식을 증가시켰고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도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가 내 발을 씻었을 때 나는 정말 감동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순결서약식이 필요한지를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Angela Jeon(6학년)

신기하고 놀라와!!(순결서약식)

저는 이번 순결서약식을 위한 세미나를 통하여 몸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배우며 놀랐고 또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성장하는 것과 우리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몸의 변화들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공부하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엄마와의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나를 향한 엄마의 큰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도 함께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순결서약식에서 배운 중요한 내용을 아주 깊이 간직하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Celine Kim(5학년)

나는 하나님의 형상(순결서약식)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 부위를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번성케 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하나의 세포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나에게 성령이 있기에 그가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순결하게 살며 내 몸을 돌보겠습니다. POP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에게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정보들을 머리가 아닌 마음과 행동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Vincent Kim(6학년)

2017.3.5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일란아, 네가 주일 학교 교사를 한다면서? 하하하' -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 소리씩 듣던 제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해요 하나님! 하며 몇 번씩 외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pick up하면서 다른 엄마들 같이 물었습니다. 오늘 Sunday School에서 무엇을 배웠니? 우리 아들 하는 말, nothing too interesting. 재미있었니? It was so much fun. 너희들도 찬송가 부르니? 찬송가? 아니 praising 많이 했어.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나? 잠언은 영어로 무엇일까? 한국 찬송가는 부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제가 주일 학교 교사를 권유받을 때 마다 제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생각에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사님이 급한 일이 있으시다기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조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구쟁이 3학년 반이었지요. 반짝이는 눈동자, 바라만 보아도 귀엽고 선한 마음 뿐인 아이들에게 빠져 들어 저의 주일 학교 교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한다는 핑계로 멀리 하던 성경책을 교재에서 지시하는 대로 영어와 한글로 병행하며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체계적으로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반복된 교재가 없었습니다. 오늘 교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이 알까. 막막할 때마다 기도하면 라디오의 설교시간을 통해서도 같은 교재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주일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 생활로 이어질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일 학교,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장, 가정에서 제 생활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 자신의 생활을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만들려고 매일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손 높이 들고 춤추며 찬양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믿는 구석이 정말로 매일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제 입술에서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 대할 때 아이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영어 못한다고 흉을 안 봅니다. 아이들은 저의 사랑을 바로 느낍니다. 말썽 부리는 아이에게 조금만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금방 그 아이는 "Teacher Ilan, you don't like me do you? "라고 저에게 되묻습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편견으로 아이들을 대하나?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Q.T(Quiet Time)를 5분씩 하라고 강조합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매일 5분씩 읽었다면 지금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 되었겠죠.!! 이제 열 번 읽어도 못 외우는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매주 금요일 어와나에서 아이들과 성경 구절을 20번씩 반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처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젠 어엿한 십대들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도 저에게는 살며시 미소를 띄워줍니다. High five도 해주고 갑니다. 저는 환갑 넘어서도 Sunday School Teacher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좋다고만 한다면... 마음에 문을 열면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확신합니다.

Hallelujah! Amen.

김일란 집사

2002.12.22

CIM과 나(학생 간증)

저는 여기에 온 지 약 7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C.I.M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도 세우고 교회 생활에 애착까지 느끼게 되었다면 C.I.M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대강 짐작을 하시겠지요?

대부분의 처음 오는 학생들의 고초는 바로 언어 불 소통이므로 자연히 영어부 성경공부반에서는 소외감과 주눅만 들 뿐 아무런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곳에 일찍 와서 의사 소통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서 곧바로 적용시키는 2세 학생들과는 달리 말씀 - 한국말로 해석 - 적용을 거쳐야 하는 저희로서는 그 효과가 반감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터줄 수 있다는 잇점 외에도 저희 C.I.M은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 C.I.M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지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을 가지신 부모님 아래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한국에 친어머니와 식구들을 두고 온 입장이기도 한지라 유학생으로서의 향수병도 가끔 느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사치스런 향수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과는 또 다른 사랑을 제게 느낄 수 있게 해준 곳이 바로 C.I.M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대부와도 같은 권진평 집사님은 하나님이 저희 C.I.M에 보내 주신 가장 큰 선물인지라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 순간 방황했던 유학생들은 부모님을 통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분을 통해 배로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올바로 서게 된 선배님들 역시 C.I.M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C.I.M이 단순한 '한글 학생

부'가 아니라 베델교회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믿음의 교육터라고 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시련을 겪으며 자라온 C.I.M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순탄하기만 하다는 보장도 없구요. 다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있을 때 그 시련도 약으로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기회로 어른들의 C.I.M 유학생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바뀌었다면 이제야말로 선배 유학생들의 기도 응답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를 위해 잠깐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또한 지금 C.I.M 을 위해 뛰고 계신 선생님들과 주성철 목사님, 권진평 집사님의 노력들이 단순히 헛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증거되리라 믿기도 하고요. 저희C.I.M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 중 작은 몫이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저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김이나

Woodbridge High School 10th Grader

(1996년 3, 4월호)

아빠의 추억, 나의 사랑,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베델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한국학교에 다니는 주연입니다. 많은 선생님 앞에 서니 몹시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두 살이 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어 한국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빠와 엄마께서 자라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동화 속 이야기 같기도 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같기도 해서 오빠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재미있게 듣곤 합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맛있는 과자가 많지 않아서 설탕을 국자에 넣고 연탄불에 녹여 먹는 달고나를 간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을 하며 우리 가족은 달고나를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아빠의 추억이 담겨서인지 저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고나 보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학교에 다닐 땐 파티가 있으면 엄마가 김밥을 만들어 오셨는데 예쁘고 맛있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또 얼마 전엔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코리안 바비큐를 드셨는데 너무 맛있었다며 혹시 엄마가 만드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다음날 불고기 반찬 도시락을 선생님께 선물했지요.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치입니다. 엄마는 제가 이도 나기 전부터 김치를 무척 좋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엄마와 함께 김치도 담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빨간 양념을 만들어 배춧잎 사이에 착착 바르면 나만의 김치가 완성됩니다. 아빠는 엄마가 만들어 주신 김치보다 제가 담은 김치가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엔 김치를 담아서 선생님께 선물로 드릴까 하고 혼자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 발전된 과학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아직도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지도에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자세히 봐야 알려줄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꼭 짚으며 알려줄 겁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이고, 작지만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주 연(베델한국학교 학생)

2016.8.28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하나 되기 딱 좋던 날(한국 학교 민속의 날)

지난 주말 베델 한국 학교에서 주최한 민속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에 걱정되었으나 잠시 살짝만 비를 뿌려 주셔서 오히려 쾌적한 날씨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신 센스 넘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날 행사는 모든 한국 학교 교사의 수고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특별히 LA 한국 교육원에서 여러 행사를 함께 진행해 주셔서 학생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 놀이를 배우며 한국 음식을 맛볼 훌륭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통 놀이로는 윷 놀이, 굴렁쇠 굴리기, 투호 던지기, 팽이 치기, 딱지 치기, 고무줄 놀이, 제기 차기 등이 있었고, 그동안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많은 디바이스에 노출된 아이들이 우리 조상들의 놀이를 통해 웃음꽃을 피우며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어보며 사진도 찍고 신나게 장구와 꽹과리를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진열된 장신구와 옛 물건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을까? 그 쓰임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엔, 현재와 다른 점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제기와 딱지를 직접 만들어 제기차기 시합도 하고 딱지치기 놀이와 종이컵으로 팽이를 만들어 돌리기 경연도 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큰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K-Pop도 준비되어서 유행하는 노래를 진짜 가수가 된 것처럼 부르며 신나게 춤도 추었습니다.

점심으로는 김밥, 떡볶이, 김치전, 오뎅국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가짜 한국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으며 경제 개념과 함께 한국돈을 사용해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물로 직접 인절미도 만들며 나누어 먹는

한국 사람들의 미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마음이 싹 가시며 보람을 느꼈고 아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라도 한국 문화에 대해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총괄해 주신 베델 한국학교 모든 선생님들, TA들과 학부모님들, 또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황선옥(베델 한국 학교 교사)

교사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입니다.(교사 세미나)

지난 주일에 있었던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에는 주일 학교와 어와나 등 우리 교회의 각 부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사역에 관심 있는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는 새롭게 바뀐 교사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총 네 번의 교사 훈련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중 세 번째입니다. 진단 질문을 통해 교사로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사로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I spend time in prayer for each of my student."라는 항목에서 우리 반 전체를 대상으로 기도한 적은 있어도 아이들을 하나 하나 떠올리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Teaching with Heart"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일 학교에 대한 열정과 드와이트 무디를 전도한 주일 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에 대한 비디오는 주일 학교 선생님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세미나 강사이신 이진아 전도사님은 우리의 첫번째 직업이 주일 학교 선생님임을 생각하게 하셨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시간이 있어야 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If you stop growing today, you stop teaching tomorrow."라고 하시며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과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큰 위협이 Satisfaction임을 지적하며 자신의 수업 내용을 점검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은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Stimulator, Motivator, Coach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알고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생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는 여러 생각을 떠올리

게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연령별 특징과 이에 따른 가르치는 방법, 말씀을 전달하는 스킬,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은 우리 교사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참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참가할 때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임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늘 선생님들에게 식지 않는 열정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육부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lice Yoo(유년부 교사)

2016.10.30

우는 아이 울음도 그치게 하는 학교(아기 학교)

"지아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오늘 아기 학교 안 가요ㅊ~" 얘기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집 둘째 딸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그럴께요. 엉엉~"하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고집도 자존심도 세서 절대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 아이인데, 오늘 아침 아이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을 비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3기에 이르도록 아플때 빼고는 개근을 한 우리 아이. 프리스쿨과 병행해서 다녀도,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으면 늘 '아기 학교' 다닌다는 아이. 아마 매일 아기 학교 수업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할 아이. 어느 새 우리 아이는 아기 학교의 매력에 푹 빠져 버렸나 봅니다.

아기 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0개월의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하는 마미앤미 클라스입니다. 아이의 눈 높이에 맞는 성경 공부와 크래프트, 집중력이 짧은 아기들을 위해 몸으로 놀며 배우는 게임 시간, 아기 학교 최고 인기 마스코트인 '토토'와 함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체험, 게다가 팀장님, 선생님들이 만드신 건강한 홈 메이드 음식과 영양 간식을 통해, 야채 안 먹는 아기들 식습관까지도 바꿔주는 아기학교. 신체의 일부분인 눈, 코, 입을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눈, 코, 입'을 배우며, 보고, 숨을 쉬며, 예쁜 입으로 찬송하고 율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역시 믿음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학교가 다르구나'를 느끼면서 매주 목요일을 기다립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작은 영혼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아기 학교가 베델에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훌쩍 큰 아이들을 가진 선배이신 교사 분들과 전도사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는 저를 발견하며, 아기 학교는 부모도 진정한 부모됨을 배우는 학교라는 생각을 하며,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되어 어느 날 아기 학교를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간식을 먹기 전에도 "기도 안 했잖아요" 라고 먼저 외쳐 주는 둘째 딸을 보며, 앞으로 아기 학교를 찾게 될 다른 후배 아기들도 우리 지아처럼 아기 학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뿌리내리길 기도합니다.

지아 엄마

2012.4.8

Family night

10월31일, 미국 사람들이 각종 흉칙한 분장을 하고 즐기는 할로윈 데이이다. 할로윈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참 당혹스런 사탄적인 풍습이다. 마녀, 귀신, 드라큐라 등 어둠으로 상징되는 악(惡)의 모양들을 분장하고 파티를 하거나 어두운 밤거리에 어린아이들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모습은 굳이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유쾌한 풍경은 아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주는 캔디에 면도칼이나 독극물을 넣기도 하고 술이 든 쵸콜렛을 주는 짓궂은 사람들도 있다니 내가 몸 담고 살고 있는 나라의 풍습이거니 하고 즐기기에는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날 교회에 마련된 'Family Night'은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 지대였다. 아이들은 어두운 거리를 배회하며 사탄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대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마음껏 먹고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노아의 방주 연극을 마친 후 본격적인 축제에 들어갔다. 음식 부스, 게임 부스, 바운스, 슬라이드 등 놀이 공원 못지않은 시설들이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개임 부스에는 중등부 학생들이 , 음식 부스에는 고등부 학생들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자원 봉사를 하고 있었다. 음식 부스에는 떡볶이, 불고기, 핫도그, 나초 치즈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풍성히 마련되어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멕시코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든 것이었다. 떡볶이는 단연 인기 품목으로 Famiiy Night에 참석한 부모님들의 지갑을 여는데 큰 몫을 했다. 먹는 것보다 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교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게임에 푹 빠졌다. 스모 게임, 볼링, 링 던지기, 탑 쌓기, 퍼즐, 빙고 등 각종 게임 부스마다 차례를 기다리느라 길게 늘어선 줄이 디즈니랜드를 방불케 했다. 게임에 이기면 한아름씩 주는 캔디와 초콜렛의 유혹 때문에 아이나 부모님 모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마냥 비장한 표정으로 게임에 참가했다.

체육관에 설치된 거대한 바운스와 슬라이드는 나이 어린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였다. 어른들은 재킷의 옷깃을 여미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Family Night의 클라이막스는 가족사진 찍기였다. 나뭇가지가 드리워진 근사한 배경으로 온 가족이 사진을 찍으면 즉석에서 플라스틱 프레임에 넣어 주는데 단돈 1불! 너무나 훌륭한 가족 사진이 완성되자 여기저기 만족스러운 탄성이 들렸다. 단란한 모습의 가족 사진이 마치, "우리 가족은 예수만 섬기겠다"고 서약한 증명사진 같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년 주일학교의 Grace Yi 간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의 문화를 익숙하게 하는 할로윈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함께 즐기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 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미국의 달력에서 할로윈 데이를 지울 수 없지만 이런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인 축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의 달력에는 할로윈 데이를 Family Night으로 바꿔 놓아야겠다.

—베델뉴스 기자 이효정—

2005.10.2

순결 서약식

Pretty Hair를 해야 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어야 하고, 하얀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배추 머리 (?) 를 얌전하게 풀고, 이 시간을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자신을 준비한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러나 더 예뻤던 것은 '순결 서약식'을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을 키워 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자녀를 통해 느끼는 특별한 행복감으로 가슴이 벅찼고,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라는 아이들의 고백처럼, "내 딸과 아들이 되어주어서 참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2005년 3월19일 오후 5시, 5회째 맞는 '순결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쌀쌀한 저녁 공기 때문에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떨리는 가슴으로 예쁘게 차려 입은 자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Dinner Banquet으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은 준비된 반지를 끼워 주시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축복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사진 찍는 추억을 갖게 했습니다. 반지를 든 아이들의 엄숙한 선서와 부모들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제3성전에서는 '영적 부모의 지혜와 분별'(잠1:7-8, 15-16)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들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Purity는 가정이 훈련 장소가 되어 훈련되어져야 한다. 사랑과 폭력을 분간하여 양육하라. (스토커와 같은 관심, 권위 의식에서 오는 엄청난 요구 사항들, 가르친다는 사명감으로 폭발되는 감정들, 부모의 논리적인 사고가 이해되지 않고 확신이 없는 받는 쪽에선 사랑이 폭력이 되는 경우가 된다는 말씀) 자녀들에게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게 사랑을 표현해 주어라. 부모의 영적 기준을 견고히 하라.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자녀를 지킬 수 있다.

같은 시간에 비전 채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전도사님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순결 서약이란?

순결은 성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내 삶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좋은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게 나의 삶을 잘 지켜나갈 것을 약속해야 하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며 그 계획이 펼쳐지도록 내 삶을 순결로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는 결정한다.(순결서약식에 참석한 딸의 메모를 참고함)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자랄 때 세상의 유혹, 육체의 욕망에서 오는 유혹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No' 라고 대답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의 소중한 의식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한 기억으로 그들의 Time line에 기록될 것입니다.

-베델 뉴스 기자 왕혜원

2005.3.15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어린이 뮤지컬)

추수 감사절의 터키가 식탁에서 사라져 갈 즈음부터 각 가정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 둘씩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과 산타를 만날 기대로 꿈에 부풀 때, 우리 베델 교회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은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뮤지컬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기 몇 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땀흘리며 연습하고 모든 가사와 안무를 외우며 가슴 깊이 성탄의 의미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뮤지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양로원 방문 사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두 팀으로 나눠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관심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고 또 손을 잡고 포옹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입가에 미소가 퍼지게 만들었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오고 아침 일찍부터 리허설과 분장으로 들떠 있던 아이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마음껏 성탄의 의미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감사하며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믿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초대되어 이 뮤지컬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공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 놀이 공원 중의 하나인 Knott's Berry Farm에서도 공연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쌀쌀한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리허설을 마치고는 바람 부는 야외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을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쓰임 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뮤지컬 팀이 주일 예배 2부와 3부에서도 특송을 하게 됩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연말의 분주함으로 고단할 수도 있는 심신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 성탄절의 참 주인이시며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김수희 집사

2016.12.25

친밀!(CIM 수련회)

저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Sunday Christian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번 겨울 수련회도 CIM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겨울 수련회를 다녀온 것이었는데, 대학 원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CIM에 계속 나오긴 하면서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부담을 무릅쓰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활동들은 거의 하지 않고 겨우 예배와 분반 공부만 참석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친해지고 싶은 오기(?)가 생겨 놓치기 싫었습니다. CIM 다른 친구들이 갖는 그런 가족 같은 느낌을 저도 CIM을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알기 위한 동기로 수련회에 참석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에서 제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헌신적이시고 또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보여주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힘들어 하기만 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것은 온전히 제 잘못임을 회개하고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도, 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며 그 지속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보지 못하고 그저 저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저의 부족한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하고 베풀 수 있어

야 하는데 그마저도 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가 받은 사랑 전하는 것조차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진정한 친밀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기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제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저와 우리 CIM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베델가족 모두들 행복한 2014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은 학생(12학년)

2014.1.5

부흥의 세대 = 순종의 세대(예삶 채플 수련회)

지난 1월 24~26일 저희 예삶채플 청1공동체는 갈릴리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부흥의 세대'라는 주제와 함께,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몇 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베델교회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어느샌가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기도와 말씀으로만 준비해야 함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가하게 된 수련회에, 저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과 간사님들을 통하여 기쁨은 두 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아 믿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알기를 기도했지만, '과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내려 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느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이번 수련회의 주제 '부흥의 세대'의 의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

님이 사용하시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늘 저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으뜸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청년의 젊음과 열정이 하나님 뜻에 부어지도록, 또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화란 자매(예삶채플 청1 공동체)

2014.2.16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깁니다!(초등부 Kids Camp)

2주 전 3일 동안 초등부 여름캠프에 별 기대하지 않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줄 몰랐습니다. 처음 가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덤덤했었고 그곳에서 재미있게 지내다 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만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학교 캠프에서 처럼 재미있는 게임과 노는 시간이 많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의 캠프이기에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캠프 규칙에 엄하시지 않고 잘 해 주시겠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고 보니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엄하게 저희를 대하셨습니다. 물론 수영장에서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연결해주었던 예배 시간, 기도와 찬양 시간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 주님과 만나고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의 기도를 하나씩 올려드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캠프에서 예배 시간, 곧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정말 제일 귀하게 생각됩니다. 캠프 파이어 시간에 친구들과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즐거웠던 시간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과 연극 준비를 하고 찬양 연습을 할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임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셨을 때, 제가 그들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이 났었고 그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찬양 가사 중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었고 그때 주님은 저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의 검을 점검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원

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서슴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혹은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그룹은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캠프에 가기 전에도 주님께 기도하기는 하였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Annabelle Park(6th grade)

베델 유스 오케스트라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 오케스트라의 멤버인 선호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졸업하는 베델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서 제가 4년동안 보고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4년동안 백 선생님 밑에서 오케스트라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연습으로써 실패를 극복해 나갔던 정말 알차고 기쁜 때가 많아 저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하던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베델 오케스트라의 비교적 어린 멤버들은 제가 단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백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는 선생님께서 능력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기도로 지휘를 하심으로써 선생님을 우러러보게 하셨습니다.

베델 오케스트라에서는 연주하는 방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만났는데 이 모든것이 오케스트라와 선생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열정과 오케스트라의 긴 연습시간들은 음악에 집념과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따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 덕분에 저도 보다 강한 의지와 집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 연주회 때마다 조금씩 더 잘해지는 오케스트라 멤버들을 보면서 오케스트라에 등록하여 함께 한 것에 정말 보람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오케스트라를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케스트라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간다고 생각하니 선생님과 다른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울 뿐이고, 오케스트라에서 배운 많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해 봅니다.

여태까지 저에게 훌륭한 선생님과 지휘자가 되어주신 백 선생님, 저희 오케스트라를 항상 후원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

던 교회 목사님들과 다른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12학년 졸업생 선호현-

이번에 있었던 콘서트는 이전의 어떤 베델 오케스트라 콘서트보다 더욱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었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연주한 음악들이 유명한 곡들이었고 또한 각 음악마다 왠지 모를 특별한 묘미가 있어서였던 것 같다, 우리 베델 오케스트라가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더니 어느새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우리들 하나 하나에게 일일이 힘이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백철현 지휘자 선생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 연습하고 공연을 하게 된 베델 비전 오케스트라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영화의 한부분을 연주하였다. 나는 이 곡들을 연주하는 동안 내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 생각들을 통하여 그 영화의 감동이 되살아나 곡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하지만 박자와 분위기를 맞추어가며 연주를 해야 함으로 처음에는 리듬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나와서 연습을 하며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공연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그 동안 선생님께 혼도 많이 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자라고 발전한 시간이었고 내 삶의 추억의 현장이 되었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과 또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며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다음번 콘서트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으로 연주했으면 좋겠다.

-10학년 이수정 학생

2005.6.12

6. 특별 교육 프로그램 사역 간증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소망부 예배)

"싱글싱글~ 벙글벙글~" 찬양을 시작으로 소망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맨 앞에는 Ricky가 즐겁게 율동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건반 옆에 있는 샤론은 율동을 트집이라도 잡으려는 듯 빤히 Ricky를 바라보며 찬양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 항상 일찍 와서 준비된 자세로 앉아 있는 Joshua와 Ashley, 언제부터인지 아이의 모습을 벗고 청소년의 듬직하고 아리따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 때마다 다리와 손으로 장단을 맞추며 찬양하는 사라, 지난 여름 40일 대각성 기도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모범생입니다. 손뼉 치며 웃는 얼굴로 찬양하는 어여쁜 단발머리 소녀 주영이, 항상 같은 자리만 고집해 정해진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줄리, 가끔 소망부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작은 Joshua, "아멘"을 제일 잘하고 선생님 말씀을 따라 하기 좋아하는 왕눈이 크리스틴, 이 아이 저 아이 간섭하며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시언이,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두리번거리며 찬양하는 승훈이, 예배가 끝날 때 너무도 즐겁게 손뼉을 쳐서 예배 시작보다 예배의 끝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재근이, 이렇게 저희 소망부 아이들은 그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소망부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밝고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면 아이들의 표정이 더 밝아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 리듬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심령은 쪼개어지고, 세상 안에서 타

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보다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되 정작 그 내면은 경건하지 못한, 그 어느 것 하나 이 아이들보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깊은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망부를 섬기며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소망부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이제 7월24일부터 4일간 소망부 여름 성경 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VBS는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아이들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 신 집사

2012.6.24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로!(소망부 예배)

주일날 소망부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기에 같이 부를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소망부에는 늘 사랑과 감사가 넘칩니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TA들과 소망부 친구들의 순수한 연합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세상 속에서 할 것도 많고 바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배워가고 실천해 가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sibling들의 형제 자매를 향한 배려와 사랑, 섬김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예쁠지 생각하면 맘이 훈훈해집니다. 만날 때마다 해맑은 미소와 포옹으로 반겨주는 소망부 친구들 덕분에 만남이 늘 즐겁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가족들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더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함께 하는 길이라 덜 외롭고 덜 고단함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잘하고 최고가 되어야 기쁘고 만족이 있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정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배웁니다.

몇 주 전 시작된 Friday Night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깜짝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Uni High School 학생들을 보내 주셔서 그들의 헌신된 섬김으로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두 번 올려드리는 수화 찬양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부 가족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낯선 수화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입술의 소리로만 표현하기에 너무나 벅차 온 몸으로 올려드

리는 감사의 몸짓입니다.

소망부 지체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 나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땅이 아니라 늘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도 늘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베델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소망부에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박 종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경아 집사(소망부 교사)

2016.10.23

아이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랍니다!
(소망부 One Day Healing Camp)

얼마 전 남편이 "당신 이 땐 예뻤네" 하면서 뜬금없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네 줬습니다. 사진을 보니 여행 중에 갓난 아기인 첫째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황당한 폭탄을 맞고 내 자식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를 몰라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세월을 떠올리기 싫어서 책장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의 흘러간 세월이 수많은 잠 못 이룬 밤으로 찬란하지는 않지만,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 시절이 없었다면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주님의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저의 속마음을 다 알아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로마서 설교를 듣고 집에서 읽으면서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사람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과 비교함에서 오는 우울함, 의기소침,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을 훌쩍 뛰어 넘어서 시공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큰 이야기를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뒤돌아보니 아이들의 약함이 우리 가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메말랐던 저희 가족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14년이 지난 지금 더 풍성해졌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위로 받기보다는 이제는 남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박수영 태국 선교사님 부부와 조이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봉사자 분들과 소망부 가족들이 함께한 이번 One Day Healing Camp를 통해 질그릇 같은 우리 아이들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보게 하셨으며,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

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지도 모르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소망부 가족들, 성도님들 화이팅!!

이재원 집사

2016. 11.27

크라운 재정 교실

박종식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11명이 참석하여 12주 동안 진행된 이 class는 저에게는 정신이 번쩍 드는 시간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retire를 할까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며 참석한 이 class에서 retirement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며 계획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Crown Financial Ministries에서 나온 Tape과, 박 장로님께서 전문인에게 부탁하여 번역되어진 교재를 사용하여 cell 모임처럼 매주일 중심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을 찾으며 예습을 해와서 함께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성경에 돈과 소유물을 다루는 성경 구절이 2350개이며 예수님의 비유 중의 2/ 3가 돈에 관한 것으로서 이런 재정 문제들이 영적 및 실제적인 이유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본론에서는 소유권(ownership), 통솔(control), 공급(provision) 의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역대상 29:11)의 고백 하에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9/10를 풍요롭게 사용하며 자족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여러 제목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출(wisely spending)
부채(avoid debt)
자문(seek counsel)
정직(absolute honesty)
자선(generous giving)
일(hard work)

투자(save investing)

자녀(train children)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현재의 재정 Statement를 만들고 기도하며 나의 재정 Goals을 세우며, 이를 위해 Debt list와 Debt payment schedule을 만들고 우리의 Budget을 정하여 Standard of Living을 조절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며 또 남을 많이 도와주는 순서입니다.

진작에 이런 class가 있었으면 얼마나 유익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젊은이를 위한 교재로 저희 아이들에게 이 class를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박 장로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젊게 또 더 앞서 생각하시는 것을 보고 저의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며 나는 아직 멀었구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봄에 이 class가 다시 시작될 때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지혜로운 삶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집사

베델뉴스 2000년 4월호

관점의 변화(재정교실)

저는 이번에 재정 교실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사실 이번 재정 교실에 오기 전까지는 재정, 투자 이런 말들은 저와 거리가 먼 단어들이었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주 동안 진행된 이 수업은 무척이나 새로운 의미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재정 관리"라는 말은 신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 저의 재정 상태와 운영, 현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삼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은혜스러웠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베풀기'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성경구절을 암송하면서 '과연 제 자신은 그동안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을까?'라는 자문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되었으며 베푼 것에 대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탐욕을 버리라는 배움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려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스스로 베푸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찾아보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신기하게만 여겨지는 이날의 제목은 제가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맘이 너무나 상해 있었던 터라 이날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질문과 답변,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명쾌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제게는 일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 은혜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이 주제 중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제게는 전혀 몰랐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중에 "각 세대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포함해서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부모의 무지함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과정에 참여하게 계획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고 재정적인 일들도 기도함과 간구함으로 응답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신앙이 한 발 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교육 중에 가장 제게 다가왔던 성경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리라." (골로새서 3:23-24)

윤승환 집사

2008.5.4

임마누엘 성경 대학

임마누엘 찬양팀과 에이레네 율동팀의 경쾌한 찬양으로 경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우석 집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김봉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이어 임마누엘 성경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세 분과 모범상, 섬김상, 스마일상, 성경 쓰기상을 받으신 33분의 어르신께 드리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입으신 수료자들의 멋진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카고에서 KCC 통곡 기도회를 마치신 손 목사님께서는 1부 순서에 참석하시기 위해 공항에서 직접 교회로 달려오셨습니다.

1부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교회 식당에서는 150여명의 어르신의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식당팀의 준비 완료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르신들께서는 임민영 권사님을 따라 준비 운동을 하며 가볍게 몸을 푸신 후에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성경 대학 선생님들의 난타로 장기 자랑 순서가 시작되면서 이어진 KARIS 남성 중창단의 '그리운 금강산'과 앵콜송 '오! 솔레미오'는 행사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멋진 노래였습니다. 올해는 진혜진 선생님의 지도로 베델 한국학교 국악 동요반 학생 25여명이 나와 재미있는 국악 동요 세곡을 율동과 함께 너무 깜찍하게 불러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손자, 손녀들을 보는 듯한 흐뭇하고 즐거운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어르신들만의 장기자랑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긴 성경 구절들을 열심히 암송하셨고 직접 지으신 시를 낭송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본당 무대에서 꼭 독창을 해보고 싶다는 소원을 성취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고전 무용과 그룹 라인댄스 순서도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 열정을 보여주셨으며, 그 결과 서로간의 스텝과 호흡이

잘 맞는 공연이었습니다. 김남실 권사님의 차분하면서도 재치있는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번 경로 잔치는 8명의 선생님과 많은 봉사자가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섬겨 드린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갈렙 사역팀

2012.12.9

임마누엘 성경대학 효도관광

- 어른 학생들과 함께 한 효도 관광 여행기-

지난 주간, 임마누엘 성경 대학에서 일 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 '효도 관광 수양회'에 봉사자로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무덥던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는 간헐적으로 비까지 내려 버스를 타고 가는 어른 학생들은 수학 여행을 가는 학생들답게 흥분과 행복감에 젖은 아련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중간에 봄비가 살짝 내려 초록으로 깨끗해진 공원에서 맛있는 도시락 점심을 먹는 우리 일행 모두는, 소풍 나온 신나는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광야의 길을 지나듯 사막을 지나 야자수가 멋지게 뻗어 있는 온천장 수양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임마누엘 성경 대학에서 봉사한 지 이제 6개월, 저는 처음 참석하는 효도 관광이어서 모든게 서툴고 부족했지만, 숙련된 선배 교사들과 봉사자들은 하나같이 치밀한 준비와 헌신된 자세, 하나로 단결된 모습 등 정말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유 시간에 온천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천진한 모습들이었는지, 매 순간 안전을 위해 지켜보는 봉사자들의 얼굴엔 흐뭇하고 행복한 모습이 저절로 번지곤 하였습니다. 그 얼굴들에서 저는 우리 모두 영생을 소유한 복된 자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저녁 집회는 예배실을 꽉 메워 찬양의 열기로 가득찼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웃음과 활기가 넘쳤으며, 찬송가 경연 대회,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들을 까마득히 잊게 할 만큼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배의 찬양과 말씀이 조용한 사막 가운데서 또 하루의 눈을 뜬 귀한 생명들의 영혼 속에 번져나갔습니다. 이 또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영과 육의 양식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믿음의 간증은 하나

였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께 다하지 못한 사랑이 못내 아쉬워서 이 사랑을 주고 싶노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곧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 모습이 또한 보일 것임으로 이것이 주님과 나의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더구나 그날은 손인식 목사님 어머님의 추도일이었는데, 마침 그곳에 와 계심으로 살아계신 더 많은 어머님을 대하는 기쁨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모두들 숙연해지셨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니, 한 분 한 분 제겐 더욱 소중하고 그리운 부모님이 되어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발견하고 얻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윤현숙 집사

2008.6.1

MIT 가을 여행

계절의 나눔이 분명치 않은 남가주에도 어김없이 낙엽은 가을 행색을 합니다. 산마다 불타는 고국의 단풍은 아니지만, 파스텔 그림같이 빛 바랜 낙엽이 베델 주차장을 이리저리 굴러 다닙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이 가을에 마침 베델 MIT대학에서 L.A.에 위치한 Getty Museum에 간다는 소식은 시원한 청량제이었습니다. 성심껏 학생들의 뒷바라지 하시는 한 전도사님과 김 집사님,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 모두 감사의 계절에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대의 버스에 탑승한 오렌지 물결을 보고 월드컵 응원단이 연상되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군단입니다. 찬양과 말씀이 있고 기도와 복음이 있는 강력한 군단입니다. 김한요 담임 목사님과 고현권 목사님의 기도가 그날 하루 일정뿐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역군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MIT대학에서 서양화를 지도하시는 김 선생님의 Getty Museum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Getty Museum은 석유 재벌의 아들 폴 게티가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을 물려 받아 은퇴 후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모으기 시작하여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44,000장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현재 전시된 미술품은 1,200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A. 언덕 위에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아름답고 거대한 미술관은 나선형의 정원도 갖추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Rubens”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는데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 화가로서 특별히 성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김 장로님의 아코디언 연주가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비롯하여 가곡 등이 연주되면서 합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Getty Museum, 찬송 부르며 더 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미술관에 도착하여 본관까지 트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김 선생님 뒤를 바짝 따라 루벤스의 작품을 위주로 감상했지만, 그 중에는 고흐, 고갱, 세잔과 모네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한 작품씩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감상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작품 앞에서는 김한요 목사님의 성경적인 설명도 함께 곁

들여져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늘진 테라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하며 간식을 먹었습니다. 오랜 만에 즐겨 본 문화 생활, 흐렸던 아침과는 달리 햇볕도 따스하게 비춰 주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한 전도사님의 마무리 기도로써 즐거웠던 하루 일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쳤습니다.

베델 MIT대학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 가는 베델의 자랑스러운 일류 대학입니다.

어느 회원

다시 쪄지고 있는 찐빵(새 가족 훈련)

저는 2017년 새해부터 베델교회에 출석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섬김을 받으며 "다시 쪄지고 있는 찐빵"입니다. 2년여 전에 어바인으로 이사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몇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의 딱딱해진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안에서 변화 받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바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말씀에 생명을 건 듯 최선을 다해 선포하시는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늘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새벽 예배에서 마치 어머니가 정성껏 따뜻한 아침 밥을 준비하는 것 같이 열성을 다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4주간의 새가족반을 마치고 바로 일대일 양육을 시작하여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새신자 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암송하고 숙제하며 훈련받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시작되는 제자반을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이런 훈련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잘 준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데 교회가 잘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역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역과 선교의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뛰어 들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있었던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만찬에 참석하면서 베델교회에 “참 잘 왔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의 진심 어린 환영,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만찬과 세심하신 배려에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정식 베델 교인이 되어 책임과 의무를 신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새롭게 소속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및 훈련을 소개한 후, 바로 새가족 모두가 헌신할 사역 분야를 결정하게 해서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보면서 베델 교회는 ‘참 문턱이 낮은 교회구나’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참 좋은 베델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아영 권사

2017.4.9

7. 선교 사역 간증

선교사의 편지(장기 파송 선교사 - K국)

손인식 목사님, 여러 목회자님들, 그리고 베델 성도님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가정과 러시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베델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중이염으로 통증과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어 이곳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어 모스크바의 외국인을 위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한이와 요엘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요엘이가 귀앓이와 감기로 고생을 하지만 잘 지내는 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학교에 갈 동안 러시아 아줌마(을냐)가 집으로 와서 도와주고 있어 낮에는 러시아말로, 저녁에는 한국말로, 선교사 자녀들과는 영어로, 때로는 3개의 언어가 짬뽕 되어 애들은 의사를 표현한답니다. 선교지에서의 처음 2년은 언어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는 선교부 방침으로 언어 공부가 곧 선교사의 사역이라 하지만 기대만큼 진전 없는 언어 학습과 언어 문제로 인해 러시아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없음으로,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교 사역이 펼쳐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에 그분의 섬세한 음성을 들으며 인내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 라스타브에 있는 C&MA 소속 선교사 4가정(미국 3가정, 캐나다 1가정)이 9시30분부터 대학 건물의 옆에 모여 가정, 사역, 선교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저희들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러시아 언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니나 표다라브나 교수는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기에(?) 시험도 없고 숙제도 눈치 봐가면서 주시지만 언어를 철저히 알고 배움이 훗날 선교 사역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알기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5분까지 공부한 후 학교에 남아 4시까지 공부하거나 때로는 시장에 가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마켓에서 볼 수 없는 물건 깎는 재미(?)를 볼 수 있고, 이제는 러시아 말로 "파촘(얼마예요?)" 물으며 깎기도 하고 비싸면 다른 곳으로 가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곳 라스토브에만도 몰몬교 파송을 받고 2년 단기 선교사로 온 젊은이들이 35명이나 있습니다. 매일 대학가에서 2명의 팀으로 된 몰몬 선교사들이 그들의 교리를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몰몬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가장 귀한 젊음의 시간을 종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행할 수 있는 격려와 밀어주심이 필요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곳 라스토브 대학에도 Inter-Varsity(IVF) 미국 단기 선교사들이 벌써 3년째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러시아 언어(University Credit 인정)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들께 기도 요청 한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헌신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곳 러시아 선교지로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눈물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진영, 은경, 요한, 요엘 드림

선교사의 편지(장기 파송 선교사 - T국)

사랑하는 베델한인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곳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보내드리고 있는 소식지를 통해 자세한 저희의 소식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이곳 T 국에서 있었던 뷰육아다 섬 사역에 많은 분께서 오셔서 동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4월 23일 (T국의 어린이날) 이 되면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곳 뷰육아다 섬을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설과 미신으로 이곳 산꼭대기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를 방문하여 기도를 받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셀 수 없는 인파가 이 섬에 들어왔고, 그들은 매년 했던 것과 같이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 2시간이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정교회 안에 들어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째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시는 BCC 단체를 중심으로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 이곳의 현지 교회와 사역자 분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 섬을 방문하여 이 땅을 위해 축복하고, 이곳에 방문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가지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팀, 서투른 T국 언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며 전도지와 복음 팔찌 등을 나누어 주었던 팀, 본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 드리고 축복하며 이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했던 팀 등, 각양각색으로 이 민족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겼

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가길 원한다고 연락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실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뷰육아다 섬 사역을 위해 보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분께서 이곳에 방문하셔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민족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삶이 살아나고 있는 T국에서,

장수영 & 주은실 드림

선교사 편지(감비아)

저는 지금 감비아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에스더 홍입니다. 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목사님께서 지난 6월말 만나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곳에서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감비아와 같은 제 3국에서도 아주 건강히,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West Africa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 이끄시는 단체입니다. 저는 지금 그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감사하게도 감비아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한 감비아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비아의 여성들은 어려서 결혼을 하도록 강요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육만이 감비아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한 한 소아과 의사의 지도 아래 UNICEF를 통한 보건 사역의 일도 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삶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참 매력 있는 일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하면 아주 먼 곳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역시 똑같은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생각으론 감비아인들이 오히려 미국인들보단 더 친절하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 같습니다. 저와 아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에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후 미국에 돌아간다 해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꾸준히 다음 세대에게 제가 전수한 학문을 전달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저의 신임 유년부 전담 목회자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 편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올림 2002.2.10

선교사의 편지(네팔)

존경하는 그리고 뵙고 싶은 목사님과 교우들께-

그동안 히말라야 복음화를 위해서 무릎으로 물질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동역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근갈마다에서 생명의 기쁜 소식들이 울려 퍼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자기 왕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초비상이기에 얼마 전에는 동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던 젊은이들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새해와 함께 보낸 2개월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온 것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신학교 사역

7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사역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고된 훈련이 때론 피곤하고 힘들기에 원망하고 불평도 해봅니다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승리해 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번 학기는 2명의 전임과 15명의 시간 강사들이 수고하십니다만 교수들의 부족으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아직도 헬라어 변증학 설교학을 마치지 못하여 안타깝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90%이상이 1-3개월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신학교가 없었기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불가능 했으며 단기 훈련으로 뜨거운 마음에 뛰어들지만 올바른 교육과 기도와 비전이 없었기에 자주 넘어지며 사역에서 떠남을 봅니다. 자신도 서 있기가 힘든데 어떻게 양떼들을 돌보며 이 땅을 복음화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키워 주시는 이들이 우리가 갈 수 없는 해발 3-4000m의 고지 고지마다에 복음을 들고 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십시요. 지난 1월 중순경 신학교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단에 관련되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여 주십시요.

교회 사역들

많은 영적 전쟁들 속에서 이곳 저곳에 시작된 교회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기에 주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지난 12월에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룸비나에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드모레 교회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생명들을 잉태키 위해 진통 중입니다. 2월초에는 한국에서 오신 17명의 의료진들이 비르간즈에서 의료선교를 했습니다. 구름 떼처럼 몰려온 수 천의 굶주린 영혼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 이 땅의 교회와 영혼들을 겸손히 섬겨 주셨던 귀한 분들께, 후원해 주셨던 기아 대책 본부에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복음을 접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며 비르간즈 교회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막막하여 감당할 수 없기에 울부짖어 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며 더 갈아지고 닦아져야 하나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두 사람을 위한 기도와 사역을 위한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춘심 선교사

BETHEL NEWS 1997

눈물로 씨를 뿌리며(단기선교 간증/과테말라)

3월6일 토요일

6시30분 기상. 7시30분 말씀 묵상으로 은혜의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Villa Nueva에서 류 광수, 윤 영숙 선교사 부부가 선교관으로 찾아오셨다.

이 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과테말라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6년 전 아무 연고도, 후원자도 없이 자신들의 온 재산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밟은 분들이다. 그 이후 두 분의 아드님이 목회자가 되어 사역에 동참하고 지금은 딸 가정까지 3대가 함께 이곳에서 학교와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고 계신다.

이 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지역은, 이 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범죄가 심한 Latino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경찰들도 꺼리는 위험한 곳이다.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와 함께 핍박까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겼더니, 지금은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어려움 중에는 서로 보호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웃들로 변해 있다고 간증하신다.

학교를 통한 무상 교육과 전 가족의 삶을 드린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혀 가는 것을 바라보며, 과테말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고난과 희생을 믿음으로 감당해 오신 류 선교사님 가족에 대한 감사함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머지않아 이 무지와 가난의 땅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본다.

미국에서 가지고 온 어린이 옷과 몇 가지 선물을 건네 드렸더니 그렇게 고마워하신다.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이시는 그분들 앞에서 오히려 더 송구한 마음이였다. 저녁 식사 후 오늘의 일을 돌아보고 내일의 사역을 점검하며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이 시간... 선교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맛이 있는 시간이다.

그저 감사... 감사... 또 감사뿐이다.

3월9일

수요일 큐티로 아침을 연다. 말씀 한 구절 구절에 각자의 간증과 적용이 이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덧 인디오 마을을 향해 달린다. 뿌연 먼지를 날리며 가파른 언덕에 올라오니 집이라 할 수 없는 조그만 움막이 나온다. 함석 문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네 딸의 새까만 눈동자가 의심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창문도 없고 방이자 부엌인 그곳에 찌그러지고 그을린 냄비와 3~4개의 밥그릇이 그들의 살림 전부이다. 이런 곳에서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듯 보인다. 네 딸의 어머니라고 소개 받은 여인은 언뜻 보기에는 60이 넘어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24살이라고 하니, 그녀의 모습에서 그 삶의 고통을 보는 듯하여 답답한 가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들의 현지인 동역자 아벨이 차 한잔 하고 가자고 조른다.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하는 이 부부는 타민족인 우리가 자기 민족을 섬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나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론이다. 언제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한다. 어느새 정성 어린 풍성한 점심 식탁을 대하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의 정으로 우리를 섬겨 주는 그들의 사랑 앞에 우린 참 행복해진다. 고맙다는 우리의 인사에 "미까사 뚜까사"한다.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다. 참으로 내 기억에 영원히 간직하고픈 시간이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 개척한 Morazan 교회를 찾았다. 창문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직 성경책도 없단다. 즉시 의논하여 성경책을 사주기로 했다. 이제 막 시작된 작은 이 교회... 미약한 출발이지만 창대케 하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젊은 데이빗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서린다. 대를 잇는 가난과 세상을 사는 지혜가 부족한 이들... 그러기에 더욱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고 교육의 기회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가지고 간 옷가지와 선물을 전하고 돌아오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고... 저마다의 눈가에 눈물이 어린다.

2005.4.17

고아와 같은 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단기선교/기니비사우)

저희 8명의 기니비사우 단기선교팀은 2번에 걸쳐 비행기를 갈아탄 후 유요한 현지 선교사님이 임시로 빌린 목선을 타고 또 다시 8시간 대서양을 항해하여 미국을 떠난 지 약 이틀 반 만에 까라쉬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왠지 쓸쓸해 보이는 해변을 향해 도시 교회에서 온 현지 학생들과 목사님과 같이 물속을 걸어 5일 동안의 식량과 함께 영상 사역, 의료 사역, 어린이 사역을 위한 적지 않은 물건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다시 20분 동안 우거진 숲 속을 지나 사역을 위해 남미에서 일 년 전에 파송된 유 선교사님과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가족이 있는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100도가 넘는 온도와 90%가 넘는 습도에 몸은 완전히 땀으로 젖었고 눈 속으로 땀이 들어가 따가워서 눈 뜨기도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사명감에 불평보다는 의연함에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는 도시에서 파송된 교장 선생님과 또 선생님 한 분과 함께 80명의 섬 학생들이 공부하는 흙 벽으로 지어진 학교를 찾아가서 준비해 간 포스터를 가지고 같이 간 학생들의 도움으로 인형극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형 때문에 무척 놀라는 듯했지만 금방 관심을 보이며 복음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제시가 끝나고 결신자 초청에 80명 모두가 손을 들며 결신자 기도를 기쁘고 진지하게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주교 신자이신 교장 선생님이 개신교로 개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

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막대 사탕을 하나씩 주었더니 너무나 좋아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섬이 날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저희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울창한 숲을 뚫고 들어가 섬의 화전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초가 집과 비슷한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게 아닙니까!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발전기를 돌려 예수님 영화를 상영했는데 온 마을 아프리카 외딴 섬 원주민들이 모두 감명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과 풍선을 가지고 한 AWANA 게임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멜가라는 벌레에 100군데가 넘게 물려 너무나 가렵고 덥고 힘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참 행복했습니다. 친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문화와 성에 대한 무개념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생부가 거의 없는 그들은 저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더구나 이제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 장난감도 없는 아이들이 공작 시간에 만든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의료 사역팀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고, 말라리아에 걸린 한 청년을 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평균 연령이 남자 42세, 여자 45세인 이 나라에 자국민들에게서도 소외당해 외롭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미국에서 온 동양인의 의료 사역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300명 이상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섬에 사역자도 정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 섬 최초의 교회를 세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농업 교육을 시키고, 사랑으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남자들이 정글

로 들어가 몇 년씩 받는 할례 의식을 통해 악령에게 영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았던 그 해변을 떠나오던 날 모든 학생과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꼭 다시 오라며 손을 흔들며 환송해 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속히 돌아 가고픈 마음에 벌써부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John Han 집사

2016.11.27

그들의 창살... 나는 갇혀있지 않은가?(교도소 선교/멕시코)

지난 7월 9일 토요일 멕시코 Hongo에 있는 교도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45분, 좀 이른 시간에 모이기로 하였지만, 단 한 명도 지각하는 사람 없이 약속한 시각에 모여 환한 미소로 서로 격려하며 떠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대한 교도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4,000여 명의 중범 및 경범 죄수를 수용하는 최신 현대 시설을 갖춘 교도소였습니다. 십여개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경범 죄수들이 있는 교도소 안에서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구경하는 수많은 죄수의 얼굴과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으며 눈으로 혹은 "Mucho Gusto", "Dios Bendiga"라고 외치며 인사하면서 문득 저 많은 죄수들이 어떤 이유로 왜 이곳에 갇혀 있는지 단순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만약 저들이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과 같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하는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리 복음을 접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죄수들을 돌봐야만 하므로 도착 즉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곧바로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에 몰두하는 동안, 팀원 모두가 성심성의를 다해 한 사람이라도 더 시력을 찾아 주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Hongo에 있는 죄수들은 쇠창살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교도소 생활을 수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처량한 죄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나만의 아집, 교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갇혀 내 삶을 창살 안에 가두고 죄수처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졌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일 선교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드립니다. 안경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 이대은 장로님, Grace Lee 권사님과 박덕언 팀장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열심히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안경 사역 팀원들과의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집사

2016.7.24

몽골 선교(단기선교 간증)

1998년 12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으면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앉아서 환자를 기다렸지만 내년부터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99년 1월 6일 멕시코 테카테라는 곳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볼 기회가 없는 환자들은 급할때 티화나로 달려가지만 가다가 죽기도 한다는 오지의 장소였습니다. 치과 의사와 두 사람의 한의사,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나흘간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3월 20일에는 또 다시 내과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소아과 의사, 간호사, 통역사, 미용사 등을 비롯하여 40여명의 건축 봉사자들과 함께 바로 그곳 멕시코 데카테에 가서, 우리는 의료 선교를 하고 건축 봉사자들은 그 지역의 멕시코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기초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갔을 때 치료받았던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호전되어 새로운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저를 반기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몽골초원

이러한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몽골리아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1999년 5월 9일, 어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의 손인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35명의 선교인들이 각기 다른 재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UB)와 그곳에서 말을 타고 약 7시간 떨어진 다르항이라는 곳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탄 말은 현지의 임준호 선교사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버스와 밴으로서, 평균 3시간이면 가는 곳이었지만 포장이 벗겨지고 흙으로 막힌 관계로 허허벌판을 달릴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 머리가 천장에 우당탕탕 부딪히는 현대판 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골프장 같은 초원은 갓 나온 새싹들로 뒤덮였고, 지평선 가까이에는 야

트막한 구름과 구름 사이에 아직도 무언가 미련이 남은 눈자락들이 푸르른 나무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현대판 말에서 내렸을 때, 그곳에는 아-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올 만큼 아주 작은 에델바이스, 할미꽃, 붓꽃, 그리고 이름 모를 예쁜 들꽃들이 그 넓고 넓은 초원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의 오묘하심이여! 어찌 우리의 필설로 무엇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과 찬미의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간다는 연락을 받은 몽골에서는 많은 준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임 준호 선교사님 내외는 우리들에게 몽골의 전통적인 집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아서 우리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저는 약사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겔'이라고 하는 둥근 원형의 천막집으로서 그곳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서는 천장이 높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마른 소똥을 난로에 넣어 밥이랑 국이랑 생선튀김, 만두, 야채 수프, 고기 볶음과 뜨거운 물을 끓이고 직접 그 불 속에 넣은 감자 구이까지 지혜롭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환풍을 위해 가운데 구멍을 뚫어 자동 개폐기를 달아서 비가 오면 닫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겔의 주인은 기독교인으로서 70세 정도로 보이는 부부로 그들은 실제 나이가 60세와 55세였습니다. 종일 의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 갔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참 미안했습니다. 특히 '마유'라고 하는 말젖 차가 유명하다는데 우리는 비위가 맞지 않을 것 같아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만인에 통하는 웃음과 손짓, 발짓으로 종일 웃으면서 뭐든지 통했습니다. 밥 먹으라는 그분들의 손짓, 발짓에 우리는 먹고 와서 배가 불러 못 먹겠다는 손짓으로 남산 만하게 배를 둥그리고... 고맙다고 하면서 웃고... 또 웃고, 그래도 예수라는 말은 정말로 통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슬리핑 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끗하고 예쁜 시트를 준비해 주셨고, 물이 너무 귀해서 이 닦은 물로 세수를 하고 발까지 닦아야 하는데 우리는 준비한 1회용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발가락까지 닦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세수하는 것을 보니까 대접에 물을 담아 놓고 손과 얼굴을 다 씻은 다음 비누칠을 열심히 하여 얼굴과 목까지 깨끗이 닦더니

다음에는 그 비누가 묻어 있는 얼굴을 큰 수건으로 싹싹 닦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수를 못한 상태에서 물수건으로 대강 대강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할 때 보니까 여러 개의 그릇을 모두 씻어 구정물이 되었는데 헹구지 않고 바로 걸레같은 행주로 싹싹 닦으니까 그릇들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 사절단

도지사와 다르항 시장께서는 양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우리와 함께 자기네들의 문화, 무용, 음악 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문화 회관에는 수 백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우리들의 아줌마, 아저씨, 동생, 언니, 오빠, 아들, 딸들의 모습을 꼭 빼닮은 한국인의 정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의료 선교를 하고, 어린이 사역팀들은 수 백명의 아이들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비디오 팀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며, 하루의 일이 끝나면 17명의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우리 찬양 대원들은 몽고의 언어와 한국어로 민요와 성가를 부르고 8명의 나비 같은 무용 단원들이 몽고인들의 감동을 자아냈고, 성극단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현대인들의 아픔을 그림으로써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손인식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깊은 산속,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서서 ‘I love you’를 외치면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로 ‘I love you’가 돌아오고, ‘I hate you’를 외치면, 다시 ‘I hate you’가 돌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도 그렇거늘, 감정을 가진 인간들이야 더욱 정확히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엮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몽골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을 봉독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노라 머리를 조아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

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르항에서의 문화와 의료 선교를 끝내고 현대판 말을 타고 숙소에 오는 동안 민박한 집의 아주머니가 정성껏 소똥에 넣어 구워 주신 감자를 먹으면서 '왜 소똥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논쟁(?)을 하고, 어떤 환자가 주었던 소련제 희한한 초코렛과 임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준비하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진짜 말을 타고 사진도 찍고, 에델바이스도 캐서 가방에 넣고, 성가도 부르면서 UB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러시아 문화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찬양 전도 집회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들의 찬양 열기는 너무 뜨거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놀라움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나오라고 할 때는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 선 채로 모두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손 목사님을 통한 하늘의 메시지가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보며 내 자신의 보잘것 없는 작은 믿음을 진정 회개하고 바위처럼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불치병자들

우리들 여섯 명의 의료진-외과, 소아과, 내과, 마취과 의사들과 한의사, 약사들은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의료 사역이 시작되면서 각자 환자를 치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몽골에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환자들은 의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미국에서 의사들이 왔다고 하여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약 15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대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의 특성대로 야채를 거의 먹지 않고(아마 채소가 자랄 때까지 한 곳에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인가 봅니다) 양고기들의 육류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주로 머리와 어깨와 허리와 다리가 아픈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불치의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몽골에 가기 전에 러시아에 간 의료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을 찍은 비디오 테잎을 보았는데 뇌막염, 반신불수, 하

반신 마비, 고질적인 피부병, 기타 여러 가지 불치의 병들이 그 자리에서 낫는 것을 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좀 야속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번에 몽골에서 그러한 환자들 모두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 더러운 환경에서 피부병이 고질이 되어 낫지 않고 가려움과 아픔에 피고름이 나오는 피부병 환자들, 반신 불수, 다리를 다친 적도 없는데 걷지 못하는 아이들, 뇌막염에 걸려 정신과 지체가 부자유한 환자들, 혈압이 260/140mmHg 가 되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두통과 어깨 결림과 요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하체 불구자, 다섯 살 때 귀가 먹은 마흔 일곱살의 아주머니 환자들... 다르항 시에서 13지구라는 그곳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20가구에 변소가 하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밖에 있는 수 백명의 환자들을 보며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렇게 많은 환자들을, 더구나 불치의 환자들까지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던 몽골에는 갑자기 왜 부르셔서 이렇게 저를 놀라게 하십니까?' 주님께 따졌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으리라'

그런데, 그런데 두통과 견비통과 요통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싸악 낫는 것이었습니다. 눈과 머리가 시원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며 허리가 가뿐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 만에 치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가신 MD 선생님께서 260/140mmHg의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재시면서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해 볼까요?'라고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들의 환자를 치료하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선생님께서는 곧 저에게 환자를 보내주셨고 저는 열심히 치료를 한 후에 그 선생님께서 다시 혈압을 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20mmHg 라는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고혈압 환자는 몽골의 종합 병원의 내과 의사의 어머니였는데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수치가 25mmHg 만큼 차이가 났고 두 시간 후에는 무려 40mmHg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섯 살짜리 작은 남자 아이는 작년에 말에서 떨어진 후, 반신 불수로 일 년 이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세살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맑은 눈동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작았고, 착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주님'. 침 치료가 끝난 후 마비된 왼쪽 팔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웃어보라고 하니 양쪽의 입술이 똑같이 웃었습니다. 과자를 주었을 때 습관적으로 오른팔이 나와 그 과자를 받으려고 하여 '아니, 왼쪽 팔로 받아라.' 하니까 정상적으로 왼쪽 손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과자를 받고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아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낙네는 씩씩하게 말장화를 벗었습니다. 장화를 벗은 다음, 3겹의 바지를 벗은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누런 고름이 함께 하는 가려움과 아픔의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무려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질적인 피부병에다 추위 때문에 털옷까지 입고 그 위에 가죽 장화까지 신었으니 도저히 나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녀의 괴로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방법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침과 부항을 사용하여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시커먼 피고름이 엄청나게 나와서 섬찟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개의 창문과 문 안팎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서로 보려고 고개를 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치료를 한 후에 그녀에게 물어보니 그녀의 다리는 가렵거나 아프지 않고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나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리를 열어 놓으십시오. 공기가 통하면 다시는 안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이 당신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오른쪽 다리를 옷으로 덮지 말고 며칠만 견디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아물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낫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섯 살 때 열병을 앓은 후 귀가 안 들리는 마흔 일곱 살의 아주머니는 역시 고혈압에다 머리와 뒷목이 뻗치고 어깨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느 고혈압 환자처럼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치료 후 느닷없이 제 입에서 '들리지요? 당신은 지금 나아서 잘 들릴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통역은 그녀의 뒤에 있었는데 통역의 말에 그녀는 안 들린다는 의미로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습니다. 슬금슬금 들어와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저 자신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어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살린다고 하신 말씀을 꼭 믿고 살면 다시는 병마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앞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1999.10.24

몽골 땅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해외 동산 간증/몽골)

올해로 4번째인 몽골 베델 동산은 일정 모두를 몽골 분들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 앞으로 그 땅에 베델 동산이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도록 베델 교회에서는 6명의 소수 인원이 몽골로 향했습니다. 몽골 행을 기도로 준비하며 느꼈던 것은 몽골을 덮고 있는 영적 어둠과 답답함이었습니다. 몽골을 마음에 품으며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베델 동산은 11교회에서 각각 모인 40명이나 되는 참가자들과 그에 비해 21명밖에 되지 않는 봉사자들로 이뤄졌습니다. 사역이 시작하기 이틀 전까지도 비어 있던 주방장 자리를 현지 호텔 자매 요리사들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세심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손길이었지만 여러 모양의 정성 어린 손길들은 삶의 상처로 인해 닫혀 버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몇몇 몽골인들은 같은 한국인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지 몇몇 아이들이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한국 선교사님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 한국어를 습득하거나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익힌 한국어를 쓰는 몽골분들이라서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몽골 베델 동산을 마친 후, 바람 부는 들판에서 서로에게 잘 가라는 손짓만 한 시간을 넘게 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짧은 2박 3일간의 일정 후에 선교사님의 인도로 몽골인들이 사는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방문했습니다. '게르'안은 춥고 누추했는데, 밤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천막 안으로 흘러 바닥이 질퍽거려 추위를 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또한 열악한 환경의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돌아온 후에도 아이들이 눈에 자꾸 밟혔습니다. 또한, 예전에 베델 한인 교회 후원으로 지어진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노숙자들의 처소로 전락해 버렸었는데, 어느 기독교 단체의 후원으로 새롭게 단장

되었고 노숙자였던 현지인이 목사님이 되어 우리 팀을 반겨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숙자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할 때는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몽골 땅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서도 역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윤주 집사

2016.5.15

| 대담 : 예술을 통하여 예수를 알린다(문화 선교단)

문화선교단에 관하여 알고 싶은데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동참하고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개개인이지만 하나님 은혜에 빚진자로써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감사하며 각각의 은사들을 한데 모아 아름다운 공동체로 헌신하고자 모였습니다. 아직도 세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종족(미전도 종족)들에게 찾아가 낮에는 의료 사역, 구제 사역, 아동 사역 등으로 그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저녁에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그곳의 전통 문화와 우리들이 준비해 간 찬양과 무용과 연극들을 서로 교환하며(즉 Exchange Culture)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축제의 장이 있은 후 손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의 시간으로 사역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문화선교단이 어디어디 다녀오셨으며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4년전 여성 20명으로(김종만 집사님의 지휘와 김은경 집사님의 반주로) 창단되어 매주 훈련과 연습을 통해 첫 사역지로 구 소련 연방에서 독립된 칼믹 공화국(김진영 선교사님)에서 복음을 전혀 접할 길 없었던 그곳에서 많은 결신자를 내었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인정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해에는 몽골 공화국(임준호, 황필남 선교사님)에서 같은 사역으로 그곳에 있는 라마 불교에 젖어 있던 그곳의 많은 영혼과 특히 어린 영혼들 등 1,000여명이 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있었고, 그곳에 참석한 700-800명이 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저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 드리고 왔습니다.

2001년 올해에도 남미 칠레로 떠나시는데 사역 일정은?

손 목사님을 포함한 총 31명(찬양, 의료, 무용, 연극팀)으로 8월 6일 저녁에 떠나 4박5일 원주민들 사역을 마치고 수도 Santiago에 와서 3번의 현지 교민 집회와 현지인 대형 교회인 '호따베체'교회에서 대형 집회를 가진후 15일에 Lax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곳이 지금은 겨울이라 춥고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손 목사님의 8번의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문화 선교단의 자랑은?

베델 가족이라면 누구나 휴가를 반납하셔서 단기 선교사로 가시는 것이 축복된 큰 흐름인데 특히 문화 선교팀은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은사를 충분히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문화 선교 합창단은 비교적 연령층이 높으신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매번 연습 때마다(매주 2번씩)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는 지휘자 김종만 집사님과 반주자 김은경 집사님 또 한 분 한 분의 모든 단원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바쁘신 중에도 열심으로 헌신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며 기뻐하실 귀하신 이 모든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강 철순 장로

2001.8.5

베네주엘라 선교 간증

하나님은 Dream Team을 만드는 분인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모두 알았고 또 그 선교 뒤에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다. 김 선교사님도 이번 팀은 준비 기도가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전했고 그중 빠냐데 종족 중 신학생 지원자가 나온 것과 이번 사역에 동참했던 현지 치과 의사 밀라그라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다. 또 사역의 현장을 뛰면서 순간 순간 깨달은 것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간절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도의 열매가 Silk Road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선교 일정 및 사역을 소개한다.

베네주엘라는 남미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한반도의 약 5배가 되는 나라로 기름과 여러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고르지 못하고 사회, 경제, 정치가 매우 불안한 나라이다. 인종 분포는 여러 인종, 백인, 메스티족(히스페닉), 흑인, 인디아, 기타 아시아인, 유태인 등등이고. 영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다. 천주교가 국교이고 정치와 결탁하여 개신교가 활동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정글 사역을 시작한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먼저 정글 사역에 손을 댔으므로 정글 인디안들은 매우 우호적이다.

우리의 선교지 Puerto Ayadurcoc정글은 7년째 사역하시는 김재한 선교사님의 사역지였다. 이곳은 세계 무당 대회가 열린 곳이며, 세계 마약, 게릴라가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다. 이곳을 포함 5일 동안 9곳의 정글 마을에서 복음 전파. 의료와 이발 사역을 했다. 각 마을마다 무당인 추장이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러니의 연속이었다. 정글은 매우 고립되었고 추장은 굳이 기독교를 배척하지 않았다.

뜨거운 화씨 110도의 날씨에도 불구, 모기가 다 휴가를 떠났는지 예상 외의 기후였다. 때로는 잘못 든 길에서도 하나님은 인디안들을 보내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 베네주엘라, 마이아미 등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다. 의약품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앞서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번 말씀과 기도(지도: 최진호 목사)로 영적 무장을 했다. 모든 대원들은 콩 하나도 나누어 먹듯이 모자란 음식에 금식도 서로 하며 12명의 우리 단원들은 불평 한 마디 없이 서로 섬기며 짐을 나누는 오히려 그 속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고 감사하는 시간임을 체득하고 왔다.

끝으로 선교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고 감사를 체득하고 왔다.

그리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보았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종말을 늦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이강구 집사

베델뉴스 1996-5,6월호

코스타리카 선교간증

본 교회의 선교 전략이 중남미로 집중하게 되어 금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역지 중에 하나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이 나라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때 풍요한 해안의 모습을 보고 Costa Rica 즉 Rich Coast라는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윤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산악 지대에는 아직도 원시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진 딸라망까 지역의 매우 가난한 Bribri 족속들을 위해 사역을 하시는 이성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이번에 베델 교회에서 8명, Fresno에서 온 한 명의 치과 의사를 포함하여 9명의 단기 선교사가 그곳에서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도 San Jose 공항에 내려 8시간을 달려 도착한 선교 센터가 있는 Shroles 지역은 낙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족이 살고 있는 선교관도 문명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Soki라는 마을에서 첫날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걸으면서 진흙밭에 무릎까지 빠지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약품과 치과 장비, 의약품을 배낭에 지고 미끄러지고 빠지면서 3시간 가까이 걸어 도착한 사역지는 뜻밖에도 텅 비고 적막만이 감도는 교실 한개 짜리 학교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반겨줄 것을 기대했던 저희들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날 어머니 날 행사가 있어 모두 술에 곯아 떨어져 학교마저 휴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연락이 되어 얼마간의 원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치과, 내과, 소아과, 안경, 그리고 사진 사역이었는데 주민들은 무표정하고 웃음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13, 14세의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거나 임신 중임을 볼 때 이러한 무지와 가난을 면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의 사역지는 Katsi라는 마을이었는데 이곳을 가기 위하여는 수없이 강을 건

너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은 무릎까지 차는 깊이여서 걸어서 건너고, 몇 곳은 일년에도 몇 명씩 익사자가 나온다는 위험한 강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무사히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는 장화 속에 물이 가득 차서 발이 불어 벗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두 최선과 정성을 다해 그곳 원주님들을 섬겼고 오후가 되자 비가 오기 시작하여 또 한 번 물난리를 겪고서야 귀환했습니다.

셋째 날은 Kachabri 라는 곳이었는데 사역을 하는 장소에서는 무당이 영업을 하는 곳이라 영적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늦어지고, 길은 무너지고, 한참 기다린 후 온 버스와 운전사는 심통을 부리고... 뙤약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착 후 저희는 많은 환자를 돌보고 무당마저 사랑과 의술로 치료하는 이적을 낳았습니다.

넷째 날은 선교 센터의 교회당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날이 가장 뜨겁게 해가 쪼이는 날이었는데 먼 곳을 가지 않고 건물 안에서 사역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날은 최소한 구름이 끼어 고통이 줄었고 둘째 날 저녁은 밤새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려 그 다음날의 사역을 염려했으나 다음 날 아침부터는 맑게 개었으며 해가 내리쬐던 이틀 간은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었고 이번 사역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실망도 많았던 사역이었으나 힘들수록 단원들끼리 서로 단합하고 돌보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씀과 생각으로 격려하신 김가형 목사님, 성실과 겸손으로 단원을 섬기신 팀장 윤여도 집사님, 말없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탁정호 집사님, 사랑과 인자함으로 마음을 놓게 하셨던 김소자 권사님, San Diego 베델 교회에서 오셨으나 언제나 우리 가족이었던 이혜선 권사님, 냉정함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섬겼던 한수희 자매님, 유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섬기신 마성준 형제님,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오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신 Andy Park형제님. 이 모든 분들의 겸손과 열의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뜻 깊은 팀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원주민들의 웃음 잃고 표정 없는 모습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성수 선교사님 가족이 사랑하시는 이

Bribri족속들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체념이 장래에 대한 소망과 의욕으로 바뀔 때에 그들의 삶이 향상될 것이고 그들 자신이 하찮게 여기던 스스로가 주님이 의도하신 매우 소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피조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 사역을 통하여 작은 씨앗이나마 뿌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선교팀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후원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던 여러 교우님들과 특히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9.9.25

KARIBU AFRICA(탄자니아 선교)

'Karibu'는 아프리칸 수하힐리어의 'Welcome(환영)'이라는 단어입니다. 2002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베델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의료 선교가 실행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단 일행이 사역한 탄자니아(Tanzania), 도도마(Dodoma)라는 곳에는 그곳 역사상 우리 선교단 일행이 첫 단체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지의 대륙인 아프리카가 우리 선교 사역지의 하나로 올해 처음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선교가 저와 우리 베델 교인들 모두에게는 올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AIDS/HIV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가장 많은 곳인 아프리카 대륙에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부터 도움이 되고 싶어했던 마음이 저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1월 11일 새벽에 떠나 탄자니아 수도인 다레살람에 1월 12일 밤에 도착해 보니 제 이름으로 부친 큰 짐 하나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공항을 떠나 YMCA 숙소에서 하루 밤을 지냈지만, 우기로 인한 아프리칸 스타일 천둥과 번개를 듣고 보면서, 또 거기에 더하여, 개구리들의 높은 목청 소리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운전하시는 일명 닭장을 타고 10시간 정도의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트럭 뒤 쪽에 앉아 있던 저는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손으로 답해 주면서, 그들의 천진함이 개발되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땅 만큼이나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도도마의 선교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도착하자 마자 우리를 환영하는 형제, 자매들의 찬양과 춤의 열기가 조그마한 마당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는 구절의 찬양을 랩 스타일로 끝없이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모두는 긴 여행의 지침도 잊은 채, 그들과 어우러져 찬양과 춤에 동참하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의 첫 번째 의료 사역이 도도마 인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와 치과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 이상 정도는 모슬람 신자들이었

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 사역도 마치고, 다시 선교사님 댁에 와서 3박 4일의 텐트 생활을 위해 짐을 꾸려 닭장에 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 앞에 조그마한 차가 서서, 잃어버렸던 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일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싣고 다음 날의 사역지를 향해 비가 와서 고인 조그마한 도랑들을 넘나들며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처럼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지나 드디어 사역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어서, 사방이 그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너레이터로 등불을 밝히고 텐트를 쳤고 현지인들은 가스등을 밝히며, 나뭇불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지 형제, 자매들의 찬양과 기도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역을 위해 현지 형제들이 만들어 준 양철 지붕과 나무 기둥은 근사한 사역 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부터는 의료와 치과가 같은 곳에서 진료하게 되었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고 우리 일행들은 맡은 바 임무에 모두 충실했습니다.

도합 네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텐트 생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지는 고산 지역이라, 은근히 별을 보고 갈 수 있다면 하고 바랐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위로 별을 깔아 주시면서, 별 하나 하나의 움직임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셀 수 없는 별 자리 밑에서, 현지인들과의 찬양과 춤은 기억에 남을 만큼 뜻 깊고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칸 형제, 자매들에게 밤 새워 찬송, 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들이 추워 떨며 불 없는 교회의 벽을 등 삼아 잠들어 있을 때도 항상 같이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동할 때에는 비가 오거나, 뜨거운 것 같았으나, 사역 당시에는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날씨와 건강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베델 식구들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Africa, Bwana asifiwe!(Praise the Lord! : 주님을 찬양합시다!)

2002.2.10

하나님의 땅(태국 선교)

6월 18일 밤11시. 드디어 태국 땅을 향해 비행기가 하늘에 떴다. 94년 겨울부터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팀은 태국의 Lisu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태국이었지만 태국 사람이 아닌 Lisu부족들이었다. 이들은 태국 사람들에게 쫓겨 밀려나 산 속에 살고 있는 부족 중의 하나였다. 이들은 방콕에서 차로 15시간, 칭마이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산 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어쩌면 고구려의 후예일지도 모르는 한민족이라는 얘기가 들려왔다. 김치와 된장을 먹고 색동옷을 입고 씨족 사회를 이루며 언어도 생김새도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선교는 우리 팀에게 의미 있는 선교였다. 왜냐하면 5개의 다른 교회와 한 팀이 된 것도 있지만 1세, 1.5세 그리고 2세가 함께 모인 점, 선교사가 없는 땅에 통역자 한 사람 만을 동행하며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쳐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을의 족장 집에 머물렀다. 더운 날씨는 말할 수도 없고 모기와 벼룩, 각종 벌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Q.T를 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8시에 아침 식사, 그리고 자매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러 학교로 가고 형제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태국에는 절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Lisu 땅에만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 교회를 증축하고 2층짜리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형제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낮에는 너무 더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 찬양 연습에 임했다. 저녁 사역은 우리가 연습했던 드라마, 인형극, 찬양, 율동 등으로 이어졌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주로 성경 공부를 했다.

Lisu부족이 하나뿐인 것이 아니어서 차를 타고 한 시간 이상을 가서도 사역을 했다. 처음에는 찬양이나 드라마 등을 해도 웃지도 않은 채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2주의 어린이 성경 학교를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마약, 아편, 술, 담배, 노름 속에 있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눈물 흘리며 그들의 입으로 기도를 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더 많은 사역을 해 달라고 간청하는 어른들을 보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깨달았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셨나를 알 수 있었다

그들과 떨어지기 싫어 울고 있던 나에게 '하늘 나라에서 다시 보면 되잖아. 울지 마.' 라고 말하던 12살난 아이. '너희가 가면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지?'하며 눈물 흘리던 19살짜리 형제의 말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말이 통하지 않았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언어로 깊은 대화를 나눴고 다시 하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 그것에 대해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것에 부끄러워졌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나에게 버려야 할 것, 죽여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다시 깨달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해 주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울고 계시는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게 해 주셨으며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해 주셨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하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하며 재미있고 걱정이 없다. 내가 Lisu부족과 함께 지낸 6주, 곧 Mission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Lisu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이 많기에...

김 선희 학생

베델뉴스 1995-8-9월

능력의 손이 함께하심(세계의료선교대회)

지난달 캔터키 루이빌에서 열린 Global Missions Health Conference 2005세계 의료 선교대회에 서동민 장로님, 이인자 권사님, 탁정호 집사님과 함께 참석해서 Goen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Goen 선교사님 부부는 40대 중반의 가정 주치의, 소아과 의사로 나이지리아의 외진 마을, 에그베이에서 6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똑똑한 무신론자, 철저한 진화론 신봉자였던 그들 부부가 큰 딸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에그베이 마을에는 요마 종족이 사는데 100년전에 복음이 들어와 교인이 약간 있고, 50년된 선교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 폐쇄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접한 곳에는 철저한 모슬렘 추종자들인 필라니 종족 3000만명이 사는데 그들은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으로 꼽힙니다. 너무나 배타적인 이들 종족은 기독교 개종시 즉시 처형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세가지 이야기는 아주 강렬한 감동적 사건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 큰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1. Snake bite : 8살된 필라니 소년 제볼이 뱀에 물려 동네 무당에게 치료받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선교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해독제를 맞은 후 부작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인 부인이 밤을 새워 수혈하고 있는데 4년동안 필라니 지역의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던 바벤기다 목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그 목사님을 병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와 목사님의 희생적 봉사와 사랑으로 소년의 보호자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며칠 후 소년이 완

쾌되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기적은 주님이 그 다음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소년은 필라니 종족 추장의 유일한 손주였고, 그 일로 인해 필라니 종족을 향한 복음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 Seizure : 14세 만삭의 필라니 소녀가 임신 중독증으로 발작을 일으켜 새벽에 뇌사 상태로 병원에 왔습니다. 아기는 벌써 사산이었지만(5째) 보호자가 너희들 신에게 기도하면 고칠 수 있지 않느냐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급히 전세계 기도 후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실에 가보니 죽은 줄로 생각했던 소녀가 놀랍게도 살아 약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진찰 도중 소녀의 손이 선교사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기적의 모습을 그 보호자를 포함한 전 의료진이 목격하게 됩니다. 1주일 후 그 소녀는 완쾌되어 환하게 웃으며 걸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주변 국가 필라니들에게 능력 있는 기독교 병원 소문이 퍼졌습니다.

3. Soro : 그 후 선교사님과 바벤기다 목사님이 필라니 종족의 성년식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16-20세 청소년들을 중앙에 모아놓고 사정없이 때리는 Soro라는 잔인한 게임을 목격합니다. 장이 파열되고 도중에 서로 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 끔찍한 관습이라 정부조차 금했다고 합니다. 그 날도 큰 싸움이 벌어져 선교사님은 차를 타고 도피하는 도중, 칼에 맞아 피 흘리는 중환자 청년이 뛰어들게 되고 병원으로 질주해 응급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며칠 전 필라니 종족의 왕으로 등극한 위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완쾌되었고, 그 왕은 자기 종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 그 왕은 선교사님을 그 지역에 3개뿐인 왕위에 임명하고 대관식을 베풀어 주었고 성경책을 든 선교사님 사진을 전세계에 배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의사인 선교사 부부를 단지 질병치료나 하라고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중재로 몇 백년 이어진 요마와 필라니 종족간의 살상 보복 전쟁이 끝이 나고, 나이지리아 정부 지원으로 유목 생활을 끝낼 낙농 계획을 추진 중이시고, AIDS와 질병으로 날로 늘어나는 고아들과 노인 부양이 심각해 미국 선교 단체 지원으로 선교사님이 왕으로부터 기증 받은 135에이커 땅에 기독 학교와 고아원, 양로원을 설립하는 복음과 구제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미리 예정하시고 치밀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고고학자로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하시고 수의대를 보내 수의 인공 수정과 백신 접종, 낙농 계획 등으로 후에 쓸 것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탄 마귀가 가만히 방관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많은 중보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여도 집사

2002.12.18

파괴된 북한땅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KCC LA 통곡 기도회)

지난 KCC LA 통곡 기도회는 내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KCC 전 미주 목회자 통곡 기도회 모임의 짧은 성극 팬터마임에서 탈북자 가족의 가장으로 고통과 참담한 기아의 현실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을 감행하다 결국 중국 군인들에게 잡혀서 북송되어 처형당하는 역할을 경험한 나로서는 비디오를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탈북자들의 참상과 기아와 처형, 그리고 죽음의 현장들은 전율의 가시로 변하여 순간순간 나의 피부를 찌르고 속 깊이 파고 들었고 탈북하다 총에 맞아 죽은 시신들로부터 흘러나온 선혈들이 나의 온몸의 마디 마디마다 신경 줄기처럼 번지며 동시에 주체하지 못할 고통의 눈물이 하염없이 넘치고 흘렀다.

21세기 한복판, 같은 동족 아니 함께 사는 이 지구촌에 아직도 이렇게 야만적인 일들이 버젓이 자행된단 말인가? 또 그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약없이 벙어리로, 눈 먼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복음은 커녕 숨도 못 쉬고 살아야 하며 형제 나라라고 자칭하는 중국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굶주린 우리의 딸들이 인신매매로 성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팔려가는 꼴을 가만히 앉아서 봐야만 한단 말인가? 이러한 사실에 못 본체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는 것은 분명 아버지를 따르는 사랑의 참 제자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된다.

일만여명이 함께 했던 통곡의 현장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연사들의 순서에 이어 손인식 목사님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는 아버지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통렬하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장한 모습이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저희의 외침을 들어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 하에 금식으로 처절하게 기도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곡을 들어주신 아버지, 깊은 땅 속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지않아 죄악으로 파괴된 북한 땅을 성령으로 뒤집어 엎어 동양의 이스라엘 평양의 고토를 회복하여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바꿔 주시리라 확신한다. 더군다나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이민족들까지도 한 걸음으로 달려

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이란 정말 눈물 어린 감사를 넘어, 비교되는 우리 자신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돌아보게 하였다.

우리들도 이번 통곡 기도회를 정점으로 우리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우상과 나태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북한뿐만이 아닌 이리저리 사상으로 갈리어진 대한민국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위로하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찬란한 비전을 가진 축복받은 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미가 깊은 참회의 거국적인 집회였다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에게 이 KCC 통곡 기도 회개 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겠고 민족적으로는 황폐한 북한 땅과 타락한 대한민국의 잠자는 영들을 깨우고, 죽은 영들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청아한 새벽 종소리가 되었으면 한다.

윤송로 집사

2005.12

중국 영사관 앞 기도회에 참석하고

중국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전혀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탈북자들. 중국 정부가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Let My People Go" 캠페인의 일환으로 KCC 소속 교회들이 지난 4월부터 미국 6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로 중국 영사관 앞 기도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은 베델 교회의 순서. 200여명의 베델 교회 성도들이 LA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 앞에 집결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연기하고 참석하신 집사님,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나오신 권사님, 아이들 라이드 때문에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한 집사님, 수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참석한 청년들...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모두들 마음을 모아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보며 가슴에 진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정유성 목사님의 인도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를 함께 부른 후 우리는 먼저 쓰촨 성에 불어 닥친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중국 땅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중국 정부는 우리의 외침에 미온적이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중국 형제들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섭리가 드러나도록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핏줄인 탈북자들에게 하루 빨리 난민 지위가 부여되어 그들이 자유의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 메마른 땅에서 헐벗음, 굶주림과 싸우며 오늘 하루도 생존하기 위하여 힘겨워하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며, 저희들 가슴에 다시 저들을 위한 눈물을 심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어진 후 손인식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돌듯 중국 영사관 앞을 찬양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비록 따가운 햇살 아래였지만 베델의 식구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마치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지금은 높아만 보이는 현실의 높은 벽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무너져 버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비록 주류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하늘 보좌에서 자녀들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친히 신실하게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Boycott of the Olympics Opening Ceremony' 낭독과 Barack Obama의원, Sam Brownback 의원이 KCC에 보내온 편지, 그리고 탈북자의 연설까지 더해져 두 시간이라는 짧은 일정이 아쉬울 정도로 알차고 규모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베델식구들의 얼굴에서 꿈을 함께 나누고 그 꿈을 위해 힘을 모아 정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자 의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우리 베델 식구들의 동족을 향한 애끓는 기도는 계속될 것이며, 마침내 '평양 통곡 감사 기도회'가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베델 뉴스 기자

2008.5.18

KCC 워싱턴DC 횃불 대회

지난 7월, KCC 워싱턴DC 횃불 대회에서 이번 성극 감독을 맡으신 변용득 집사님께서 제 1차 크리스천 북한 포럼 및 통곡 기도 대회에 5분짜리 팬터마임을 하는데 어머니 역할이 필요하다 하시며 출연 부탁을 하셨습니다. 거절도 승낙도 아닌 웃음만 짓고 돌아왔는데 변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첫 연습 시간에 참석하였습니다.

성극팀의 베테랑 연기자들이 오셨고 현재 CF 등 연기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스와 줄리아가 아역 배역이라서 연습 처음부터 생동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한숨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무슨 자신감으로 성극에 합류했는지 저의 무모한 용기가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연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주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용기를 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어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체험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많은 성도가 은혜 받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하는 마음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동족으로 우리는 호의호식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의 자유는 커녕 가축 만도 못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불쌍한 우리 북한 동족을 위해 하루빨리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며 그들의 탄식과 눈물이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8월 14일(화)공연이 시작되었고 팬터마임을 하면서 성경을 숨긴 것이 발각되어 총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는 북한 정권을 증오하는 심정으로 흐느끼며 북한 공안을 노려보았는데 순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호흡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살아 계심을 다시 한 번 체험한 것입니다.

팬터마임을 통해 북한 동족의 실상과 아픔을 체험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여러 분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위와 피곤함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팬터마임을 준비했던 변 집사님을 비롯하여 성극팀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남희 집사

2012.8.26

8. 봉사 사역 간증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문제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일(가정사역 센터)

베델식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여러가지 가정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약 2년전 생겨난 가정사역센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베델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빌립보서 2:4)"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부부문제에서부터 마약이나 진학등의 자녀문제, 이혼후 재혼한 부부가 겪는 문제, 또 그 사이에서 생기는 자녀와의 갈등등 심각한 문제를 비롯, 단순한 정보제공까지 베델 전화상담실의 상담 내용은 다양하다. 매주 화-금요일 상오 9시부터 정오까지 8명의 상담원이 번갈아 상주하며 전화 상담을 받고 있지만 아직 인식 부족으로 상담 건수는 별로 많지 않다. 평신도로 구성된 상담원들은 교회가 마련한 상담원 양성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오랜 전통이 있는 가든그로브 수정 교회 주최 상담자 훈련에도 참가해 거의 전문 상담원과 다를바 없는 높은 수준의 상담을 하고 있다고 이 일을 책임 맡은 이시우 박사(심리 학자)는 말했다.

가정사역 센터에서는 이 박사를 포함해 가정주치 의사 여명미, 정신과 의사 여천기, 오렌지 카운티 흡연방지 프로그램 담당자인 캐롤라인 엄, 소셜워커인 이경자 씨 등 베델 교인과 함께 주계영 목사를 강사로 초빙,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9주간의 코스로 제2차 상담자 훈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상담자 훈련에는 20명이 넘는 예비 상담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준비한 성폭행과 해결책, 마약남용과 방지책, 기독교 가정을 돕는 방법, 정신질환 증상, 결혼 생활과 가족관계, 아동 청년기 발달, 상담과 인터뷰 방법등 상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상담훈련을 받고 있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단계죠. 실제로 상담원의 역할은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본인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아니겠습니까" 상담이 꼭 필요한데도 상담원의 자질에 의문을 갖거나 상담내용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이를 꺼려 전화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박사는 매주일 2부 예배후 상담원들로부터 상담현황을 보고 받고 모든 상담내용을 함께 토론해 나감으로써 보다 적절한 상담을 위한 기술을 늘려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화상담을 통해 위로를 받는 내담자를 대할 때마다 힘이 난다는 상담원들은 한몸의 지체를 돌보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 보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편 가정사역 센터에서는 올 가을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학부모 대상 자녀 양육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행사가 문제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며 베델식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가정사역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자리 주선과 어린이를 위한 쉘터 마련 등 장기적 안목의 사업도 펴 나갈 계획이다.

베델뉴스 1995년 4월호

Thank you God, Thank you Bethel(베델장학금)

베델장학금에 지원하면서 작성했던 에세이에서 저는 교회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던 북한의 자유를 위한 KCC Summer Intern Leadership Conference가 제 신앙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꿈인 변호사로서의 일과 동시에 크리스천으로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베델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니게 될 New York University로 향하기 전에 그동안 수많은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지금까지 저를 양육해 주신 베델교회에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Benjamin Chai

Bethel Young Christian Leader Scholarship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장학금은 대학 2학년이 되는 지금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Biola University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고 이 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클래스들을 통해 저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저는 KCM ST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으로 한 달 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딸이 되기 위해 밟아야 할 많은 새로운 단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올해 제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 Jenna

2016.8.28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식당사역)

지난 1월 엘새로 2014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추수하는 수확의 계절에 감사의 주일을 보내면서 잠시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김한요 담임목사님 부임의 첫 해를 함께 시작하는 사역 첫 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며 이사야 41장 10절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를 마음 속으로 수없이 외쳐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던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소위 3D 사역팀 중 하나인 식당사역은 베델의 모든 성도님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사역이므로, 처음 맡았을 때는 좀 당황하기도 하였었지만, 임직시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섬김을 보이겠노라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도 안되는 18명의 신임 사역권사님과 함께 사랑과 배려로 '합력과 기쁨'이라는 모토 하에 일당백의 각오로 식당사역팀이 출범하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 첫 맹세를 망각하기도 하였지만, 곧 순종함으로써 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라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매주 다양한 식단을 짜기 위해 애쓰시고 정해진 메뉴를 정성껏 만들기 위해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의 수고와 삼복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콩나물을 삶아 주신 집사님들의 손길과, 땀방울을 흘려가며 불고기를 볶아주신 봉사자들의 헌신적 섬김이 있었기에, 이젠 제법 유명해진 베델표 콩나물 고기덮밥과 담백한 국밥, 그리고 비빔밥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에 가깝게 불러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올해의 식당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써 이루어진 축복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사역하면서 받은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팀

워크로 섬기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에 속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귀한 일부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올해 직분을 감당하신 모든 권사님 및 함께 봉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사의 조건이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 50:23)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여송 장로

2014.11.23

양로원 방문(양로원 사역)

나한테 꼭 맞는 교회야. 말씀좋고 부담없고 가까워서 편안하고.…, 우리교회 처음와서 좋아했던 이유들입니다.

그저 있는듯 없는듯 멀지도 가까이하지도 드러내지도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믿자. 내 성격에 맞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펼쳐나가며 평안한 가정, 건강하고 말썽 안부리고 잘 자라주는 아이들. 하나님의 축복아래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오랜 날들을 소리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런 건강문제로 큰 충격과 아픔을 겪으며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주님께 얻은 그 안위감으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숨막히는 순간들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또 다시 도전하며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살다가 병이 나면 팔자인가 보다. 그 이상 아무 생각도 감각도 없이 살던 나는 형제의 질병으로 인해 아픈 상처를 입었는데 또 다른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웃의 아픔이 보였고 나의 외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늘 작은 내 모습에 움츠리기만 했던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작은 한부분이라도 감당해 보리라 결심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내가 받은 위로와 소망을 힘들고 고통속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전해드려서 같은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있기를 늘 바라며 양로병원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난듯 싶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당시 나의 형편은 잠시도 집을 비우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순간 10분의 시간마저도 무사히 조용히 지나가기를 떨며 기도하던 나는 2년 반이라는 날들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된 은혜를 새삼 돌아보며 감사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고 전혀 방해받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자들과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여주고 합니다. 함께 찬양 할때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행여 다른 방에 갈세라 한곡 더 재빨리 부탁하시는 갈급해 하시는 분. 시간되어 떠나 버릴까봐 자기 방에 들어오라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시는 분. 마음과 뜻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소리없이 눈물흘려 마음을 대신하시는 분. 매주일 아침마다 만나건만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시는 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찬송구절 기억해 따라 부르시는 분, 식사때마다 감사기도 잊어버리고 봉사하시는 권사님 뵙게 될 때 아이구 참 또 잊어버렸네 허겁지겁 감사기도 하시는 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 손을 잡고 축복기도 해 주시는 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모자라 복도에 휠체어를 의지하고 앉아계신 분들에게 함께 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지나쳐 돌아서 나올때 그 죄송함과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혹은 저처럼 누군가의 앞에 서기가 내키지 않아서 또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우리보다 더 약한 분들을 위해 나눔의 시간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고하고 계신 분들을 풍성한 식탁에 불러 주시고 많은 보살핌을 주시는 팀장님. 매주일 아침마다 짧은 Q.T 시간이지만 준비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형희 장로님. 언제든지 변함없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의 이영자 권사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세함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옥현채 권사님(제일 오랜 경력의 고참 violinis), 막내둥이 제이, 한국어와 영어 마음대로 넘나드는 능력있는 유망주 탐,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랑 실천하시는 김윤애 집사님,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나의 부모님인 듯 성심껏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유복임 집사님, 너무도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달려 나오시는 임재송, 말없이 과묵하지만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으로 채워진 앤디. 잠자는 시간을 조절 못하고 선잠을 깨어 연신 하품을 해대며 뽀르퉁한 모습으로 따라나서는 엘리야(막내아들), 살짝 귀띔해서 형의 자리 마련해줘도 허물없이 재미있는 친구가 좋은듯 친구에게 돌아가버리는 의좋은 형제의 형 브라이언(큰 아들- guitarist), 이 여러분들과 매주일 아침 같은 마음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윤진숙 권사 2005.10.2

고난 속에 더 큰 영광 바라는 행복이 여기에(예향 사역)

올해 6월 가족들과 함께 얼바인에 온 이후 한국에 있는 아픈 동생을 멀리서나마 돕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찾던 중 '예향'의 봉사자 모집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베델의 정식 교인도 아닌 새가족 교육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봉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용기를 내어 예향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예향사역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음식을 암 환우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정말 작은 봉사지만 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해 주시고 감사하다며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사실 제 동생은 뇌종양으로 15년째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큰 수술을 여러 번 해왔지만 큰 장애 없이 기적처럼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바인으로 오기 직전 암이 재발하여 재수술 하였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그간의 건강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 병원에서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던 것을 지금껏 15년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동생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처음 중환자실에서부터 아직도 병실에서 동생을 병 간호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식사였습니다. 먹지 못하는 아들을 두고 입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고 주변 집사님들은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반찬을 한가득 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이 건강하게 동생을 병간호 할수 있는 원동력은 아마도 주변 집사님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도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향 바자회를 준비하는 2박 3일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가정에서 자랐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뻤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번 바자회는 저의 개인적인 아픔을 치료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바자회 때 만든 김치를 맛본 아이들은 제게 '엄마는 요리 대장'이라며 칭찬을 해주니 그 감동 또한 얼마나 큰지요.

예향팀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암 환우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고난은 더 큰 영광과 함께한다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류수진 자매

2016.11.20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난생처음 모국의 정취 느껴(입양아 선교대회)

입양아 선교부(부장 김동천 집사)에서는 지난달 9일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한인 입양아들을 초청, 그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문화의 날(Korean Cultural Day) 행사를 은혜 속에 마쳤다.

이날 100여명의 입양아들이 참석(가족포함 200여 명) 잊혀진 조국의 이모저모를 접할 수 있었다.

주명숙과 베델 고전 무용팀의 고전무용과 한글쓰기, 태권도, 한국 소개 Video, 또 한국 음식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특별히 한복을 입어 보고 사진을 찍는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히 이우삼 전도사와 SAM THOMSIC의 "구원은 값없이 거져 받는다"는 꽁트는 많은 꼬마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L.A. Times, O.C. Register,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이곳 주류 사회에서도 상세히 보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본 부서장을 맡고 있는 김동천 집사님은 이 대회를 위해 석 달 전부터 오레곤 주에 있는 국제 홀트 복지회, 벤추라, 리버사이드등 입양아 서비스 기관에 요청하여 입양아들을 찾아 냈고, 또 입양아의 70% 이상이 7살 미만의 어린이들로 3-4세가 4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1살 미만도 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입양아 기관 대표로 나온 Holt Director 밥킹 씨도 8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사랑으로 키우고 있으며, 또 다른 양부모들은 지체 장애자까지 입양하여 사랑으로 키운다는 말에 할 말을 잊을 뿐이었다.

파란눈을 가진 부모들의 손을 잡고 들어선 이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낯설게 보고 그 눈길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어느 기자의 글처럼 전쟁중도 아닌데 고아 수출 제1의 나라라는 오명은 차라리 서글픔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애써 입양해 준 그들에게 정말 고마움이 가득할 뿐이었다.

1998년 5월

은혜의 잔치, 사랑의 잔치, 섬김의 잔치!!(전교인체육대회)

Irvine의 기온마저도 100도가 넘는 그때에, 우리는 메이슨 파크에서 열린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곳곳에서 불어오고, 하늘은 더없이 맑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각각의 셀교회별로, 공동체별로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이날 우리는 은혜의 잔치, 사랑의 잔치, 섬김의 잔치를 열어 놓았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더위도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맛깔스러운 말솜씨로 진행하신 심형래 Oops! 김형래 집사님의 리드는 잔치의 맛과 멋을 더해 주었고, 마치 '오렌지 카운티의 손 큰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모여라~' 대회라도 열린 듯 곳곳에서 풍겨나온 좋은 향기의 음식잔치 또한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베델성도들의 잔치였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셀식구들이 또 다른 색을 가진 다른 셀식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뚜렷하고도 강한 색을 주장하기 보다는 주 안에서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귀한 은혜의 잔치,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내내 서로를 친숙하게 알게 되고, 밤을 새워도 부족할 주 안에서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서로를 세워주는 돕는 배필을 끊임없이 만들고 계심을 확인한 사랑의 잔치,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한 맛난 음식들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함 같은 풍성한 섬김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패기가 넘쳐나는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바탕 호탕한 웃음을 짓게 했던 족구대회,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대항 릴레이 게임들을 하며 초등학교 시절

마냥 즐거웠던 운동회를 떠올리며 어린 마음들이 되어 보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뒷정리는 과연 어떠했는가? 아마도 베델의 전교인 체육대회는 메이슨팍 대청소날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대회가 끝나고 난 후 오히려 더 깨끗하고 산뜻해 보이는 공원을 바라보며 멋진 베델성도들의 성숙함에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잔치, 사랑의 잔치, 섬김의 잔치!! 내년 전교인 체육대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은화 집사

2008.5.25

차량 주차 사역팀에서의 일년

추웠던 겨울의 매서운 새벽바람 속에서 정신없이 2012년을 시작하였던 주차장과의 만남이 이제 어느덧 낙엽이 뒹구는 가을로 10개월이 훅~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는 의욕만을 앞세우며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다짐했던 저에게 차량주차 사역 팀장으로서의 일 년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기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로 직분 받기를 망설이게 했던 저에게 순종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의 일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권면하셨던 손 목사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에 응답해 주고 계심을 알게 하신 일 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교회로 향하는 주일 아침의 시작은 오후 4시나 되어 끝나게 됩니다. 하루를 온종일 교회에서 보낸 오후는 피곤 그 자체로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지만 모자 하나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봉사해 주시는 주차팀원들 앞에서는 제 모습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또한 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이들의 행사, 어르신들의 행사. 각종 선교를 위해 공항 라이드와 픽업 등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마다치 않고 감당해주신 차량팀 봉사자들에게도 감사! 감사!

무엇보다도 비전 파킹랏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주일에 일찍 비전 파킹랏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는 모든 주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음을 체험케 했습니다. 또한 오고 가시는 길에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라는 성도님들의 인사 한마디는 우리 주차팀의 원기 회복의 일등 공신!

이 모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온 힘을 다하여 헌신 봉사해 주신 주차팀원과 차량 팀원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교만하지 않은 자세로 작은 주의 일에도 온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낼 것을 감히 우

리 주님에게 약속드립니다.

질서있게 봉사자들의 지시에 따라주신 성도님들과 주차사역에 헌신하시는 신임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십수년 간 묵묵히 헌신하시는 차량운전 봉사자와 주차 자원 봉사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만걸 장로

2014.11.4

감사, 섬김의 수고에서 얻는 열매(카페사역)

지난 1월 중순에 갑자기 맡게 된 카페사역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카페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좌충우돌, 부족한 봉사자, 한숨만 나오고 갈 길은 보이지 않아 어려웠던 그 시간은 무엇보다도 카페를 찾아 주시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에는 '이거 나만 혼자 어려운팀을 맡아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일에 한 두번 교회를 올 때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목격하면서 나만 혼자 헌신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카페사역팀을 안 맡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귀한 섬김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잠깐이나마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사님, 어떤 사역이든 하세요, 그래야 집사님의 영적 생활에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던 어느 집사님의 진심 어린 충고가 이 깊어가는 가을, 제 가슴에 와 닿네요.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를 교회 사역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부터 1, 2,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4시까지 맡으신 분야에서 말없이 묵묵히 섬겨주신 카페사역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못난 팀장의 Doing에 조금은 힘들어 하시면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이 있기에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베델 카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과 수고로 제가 할 수 없었던 Being까지 그날이 주셔서 그야말로 베델 카페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님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카페로 만들어 주신 모든 봉사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봉

사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곳에 적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 카페야말로 Doing과 Being이 잘 어우러져 베델의 사랑방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델 카페를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신 모든 베델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갖게 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임동억 집사

2016011.20

홈리스 사역

오래전 주일 아침 새벽에 교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식당 앞에 밴과 트럭 2대가 있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궁금해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홈리스 사역 차량이고 봉사자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잠이 유난히 많은 저는 봉사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제가 홈리스사역 팀장이 되어 새벽 일찍 나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홈리스사역은 새벽 3시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메뉴는 파스타, 스파게티, 쌀밥, 치킨 조림, 마늘 빵, 수프, 커피, 케이크, 과일 등 다양합니다. 이 음식을 차에 싣고 장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과 기도 후, 산타아나 시청에 있는 사역지로 떠납니다. 홈리스를 만나면 신체도 건강하고 언어 장벽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의아해하다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소외감과 이탈감을,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좌절감을 보게 되고 이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생각과 생활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 복지 제도가 있으니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라 하지만 이들의 치유는 주님을 만나는데 있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허름한 옷차림으로 추위와 갈증과 허기짐으로 음식을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 이들을 보면 논리와 이론에 앞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주중에 여러 기관에서 홈리스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주일에는 새벽 3시부터 음식을 준비하시는 집사님들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집사님, 학생을 관리하시는 집사님, 많은 설거지를 해결하시는 막강 설거지팀, 교회 버스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 음식을 서브하고 곡을 연주하는 학생들, 식사기도를 해주시는 장로님, 예배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쓰레기를 정리하시는

집사님, 토요일 아침마다 주일에 쓸 재료를 준비하시는 분들, 미용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역지로 직접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조철희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 모든 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봉사자들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병찬 장로

9. 미디어 사역 간증

갓 구운 말씀의 향기가 솔솔(CD 사역팀)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 주차장에서 본당을 향해 걸어 올라갈 때, 광장을 바라보며 모퉁이를 돌면 다채로운 말씀을 진열해 놓은 가판대를 만나게 됩니다. 주제에 맞춘 정성이 들어간 케이스 디자인들도 눈길을 끌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의 향기가 교회에 오고 가는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네! 바로 그 모퉁이에 위치한 곳이 CD 사역실입니다.

CD 사역팀은 카세트 테이프에 말씀을 담아 보급하던 일을 시작으로 현재는 CD, DVD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audio 및 video contents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일, 수요 설교 말씀을 제작하여 세계 어디든지 말씀이 전달돼야 할 곳으로 보내 드릴 뿐 아니라, 교회 여러 사역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contents 제작을 도와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트리밍이 활발히 이용되기 전에는 한해에 2만장 이상의 CD, DVD를 제작 및 배송하였고, 현재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구독하는 분의 수가 많이 줄었으나, 김한요 목사님께서 부임하신이래 시리스 설교 등의 다양화로 여전히 매 해 만여장을 훌쩍 넘게 '굽고' 있습니다. CD 사역실은 소위 목 좋은 머슴방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적 특성상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교회 여러 사역과 관련된 업무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CD를 굽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 교인들과 그분들을 통해 전해지는 믿음의 사연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과 같습니다.

CD 사역팀의 최고의 자랑은 매주 보시는 대로 한결같이 섬기시는 권사님들이십니다. 여러 해 동안(두 자리 햇수, 최소 10년!) 정성과 성실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뵈면, 그

저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 중에도 나와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야 말로 숨은 참 믿음의 일꾼들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CD, DVD를 만들고 판매 배송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사모하는 권사님들께서 보여 주시는 모범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CD 사역팀을 통해 나가는 말씀들이 제대로 구워졌는지, 어떤 맛이 나는가 하고 맛보아야 하는 관계로 원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듣게 되는 것은 말씀 듣기에 게으른 저에게 주어진 정말 감사한 선물입니다. 교회 오고 가는 길에 한 번씩 꼭 들러서 갓 구운 말씀의 향기를 맛보고 가시지요!

이성욱 집사

2016.10.30

뮤지컬(성극사역)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 우리 교회 최초로 시도되는 뮤지컬이 3개월 간의 긴 연습기간 내내 다양한 무대 언어와 춤과 노래로 승화되어 드디어 3월25일, 27일 이틀간 비전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여 각색된 이 뮤지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코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여러 일들과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내용으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감동의 장면들로 꾸며져 살아 숨쉬는 꿈의 공연이 될 것입니다. 연출자와 배우는 말할 것도 없고 미술, 조명, 음향, 의상, 안무, 분장등 무대를 만드는 여러분의 헌신의 역할들이 어느 공연보다 더 열심히 만들어 훌륭한 종합 예술의 뮤지컬이 될 것입니다.

더부룩한 턱수염을 기르면서까지 그 역할에 빠져 지내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금식기도까지 하시는 윤송로 집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아래 인간적인 고뇌로 갈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기로 표출해 내고자 할 때가 가장 어려웠고 연습기간 동안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안나와 고생했다며 배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다는 김건태 장로님, 김무웅 집사님은 처음 서는 무대인데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노익장을 과시하며 모든 배우들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역의 이효정 집사님은 프로다운 기량을 발휘하며 프리마돈나로서 무대를 화려하게 빛내 줄 것입니다.

마리아역을 맡은 최경희 집사님의 관록 있는 연기력, 이보다 적역일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캐스팅한 갸롯 유다역의 오 흡 집사님의 눈물의 회개 장면은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연기의 절정판입니다, 중견 연기자로 중후함과 극의 무게를 잘 잡아준 조만걸 집사님 등 출연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감독님의 간절한 부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여러 집사님들과 여호수와 청년 공동체 젊은 친구들과 성극팀 모든 분들. 내 몸이 피곤할지라도 생업이 지장을 받을지라도 골고다 언덕위에 올라가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 쌓이어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로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이 앞을 가려 연습하며 운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고, 많은 출연 인원으로 인하여 모이기가 힘들었지만 하나 하나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변용득 감독님. 힘들고 어려운 일속에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성극팀 모든 분이야 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멋진 무대 기대해 보며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우리 모두 부활의 성극제에 모두 동참하여 성극을 보며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을 맛보는 감동을 느끼길 기도해 봅니다.

-베델뉴스기자 최경희-

2005.3.15

| 대담(미디어 사역팀)

가. 미디어 사역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미디어 사역팀은 Audio와 Visual 장비를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음향 시스템과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의 최적화를 위해 Audio와 Visual 장비를 다루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매주 보시는 베델뉴스 동영상과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 가사 자막, 성경 구절 자막, 목사님 설교 노트 자막 등이 간단한 예입니다. 1시간 조금 넘는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저희 미디어팀은 1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예배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음향 시스템을 잘 세팅하여 목사님의 메시지가 모든 성도님께 잘 들리도록 하며, 설교에 도움이 되는 Visual 자료들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한마디로 저희 미디어팀은 성도님들이 드리는 주일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Audio와 Visual 장비를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팀입니다.

나. 미디어 사역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미디어 사역팀은 크게 음향, 영상, 조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향팀은 성도님들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에 불편해하지 않도록, 영상팀은 스크린이 언제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명팀은 각 예배순서에 맞추어 조명이 꺼지고 켜질 수 있도록 뒤에서 세밀하게 작업을 합니다.

다. 어떤 분들이 미디어 사역팀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비를 다루어야 하니 전문성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봉사자의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된 성도님들이 봉사자로 섬겨주시면 가장 좋겠지요.

라. 성도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주 부터 LED Screen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약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공사 기간 중 주일 예배와 헵시바 새벽기도회는 계속 본당에서 드리지만, 그 외 다른 예배는 비전채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 중 불편한 점은 공사에 사용되는 Trash Container와 본당의 Projector Screen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치게 되면 아름다운 파노라마와 같은 view의 LED Screen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설교 중 사용되는 visual 자료들이 성도님들께 더욱 선명하고 깨끗하게 전달되어 말씀 이해에 도움을 드리며 생동감 넘치는 영상으로 예배의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8주간의 불편함을 잘 인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공사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용진 집사

2016.6.12

거룩한 순교, 손양원 : 연극에서 성극으로(성극팀)

"동네 여인들!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변 감독님의 우렁찬 외침이 들려옵니다. 예전부터 연극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베델교회 성극팀에 합류하여 '동네여인-2'가 되었습니다. 대본 읽기 할 때나 연습할 때, 감독님의 지적에 얼굴이 빨갛게 되었고, 이름도 성도 없는 역할에 대사도 한 두줄밖에 없는 엑스트라…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했던 성극팀 선배들 앞에 서면 낯설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연습시간을 할애함에 11학년 아들과 남편에게 자격지심으로 눈치가 보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연습에 흥미를 잃고 부담감이 쌓이며 불만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연극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던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공산 치하, 손 목사님의 상황에 저를 치환시켜 놓으면 과연 저의 얄팍한 믿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그곳의 저는 그분의 고난을 얼마나 나눌 수 있으려나? 두 분의 역사적 상황에서 외견상으론 역사의 주인공은 세속 권력이었고 예수님이나 손 목사님은 '정치범 1' 정도의 엑스트라이지 않았을까? 그분들께서는 순종하셨고 저는 불평하는 엑스트라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와 의심하던 도마가 나였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이 느껴졌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연극에서는 엑스트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주인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극에서 성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연습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중요(?) 배역인 '동네여인-2'의 출연 순서를 하염없이 기다릴 때면 또 다른 주인공인 동네 여인들과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였고, 그마저도 순서가 없는 날에는 다른 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고, 코믹한 춤을 추는 역할 일 때에는 춤 연습에 몰두하여 맘껏 즐길 정도로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석 달 남짓, 성극팀과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희로애

락을 함께 하고 나니 이제는 모두가 가족처럼 되었고, 팀원과 관객 전부가 주인공인 성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구로 써 주심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이란 마음을 갖게 하시니 공연이 끝난 후의 허무함이나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미련없이 기쁨만이 오롯이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동네 여인들! 기도하세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김양선 집사

2014.10.5

뮤지컬 성극

지난 9월 20일(토)과 21일(주일) 양일간 베델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여 성극, 거룩한 순교 손양원이 본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출자이신 변용득 집사님의 진두지휘로 손양원 목사님 역을 맡으신 박상범 집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출연진과 20여 명의 스태프진이 지난 6개월간 땀 흘리며 준비한 창작 뮤지컬로 가을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쌍투스의 특별 찬양(토요일은 칸투스)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토요일은 정유성 목사님)에 이어 묵직한 징소리와 함께 시작한 성극은 배경인 애양원 건물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와 함께 통곡 소리 가득한 무대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친딸인 손동희 권사의 여러 간증을 근거로 변용득 집사님이 각색, 연출한 이 성극은 1막(6장)에는 애양원 사역,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 8.15 광복까지의 주요 사건이 펼쳐졌고 2막(5장)에는 두 아들(동인, 동신)의 순교,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 그리고 6·25 전쟁시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 당하시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 주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겼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목사님의 행적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두 아들의 시신 앞에서 고백한 감사의 기도와 공산당의 총칼 앞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살기를 노력 말고 잘 죽기를 원하라."고 순교를 설파하시는 목사님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극이 시작하기 한 시간 전부터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본당 앞 좌석에 진을 치고 마음 졸이는 출연자의 가족들과 셀식구들의 모습 속에서는 비장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CIM 학생들에서부터 장로님들까지 나이와 배경을 초월한 베델성극팀의 순수 아마추어 출연자들이 다양한 춤과 노래로 자신의 역을 멋지게 마치자 주위에서는 감동의 눈물과 함께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맨 앞좌석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시는 담임목사님과 안 선교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은혜받는 성령

님의 천국 잔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격려사처럼 베델교회의 성극이 얼바인 지역의 명물이 되고 무형 문화재가 되어 100불을 내고도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화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성극을 준비하는데 물심 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애나 권사

2014.9.28

프뉴마 워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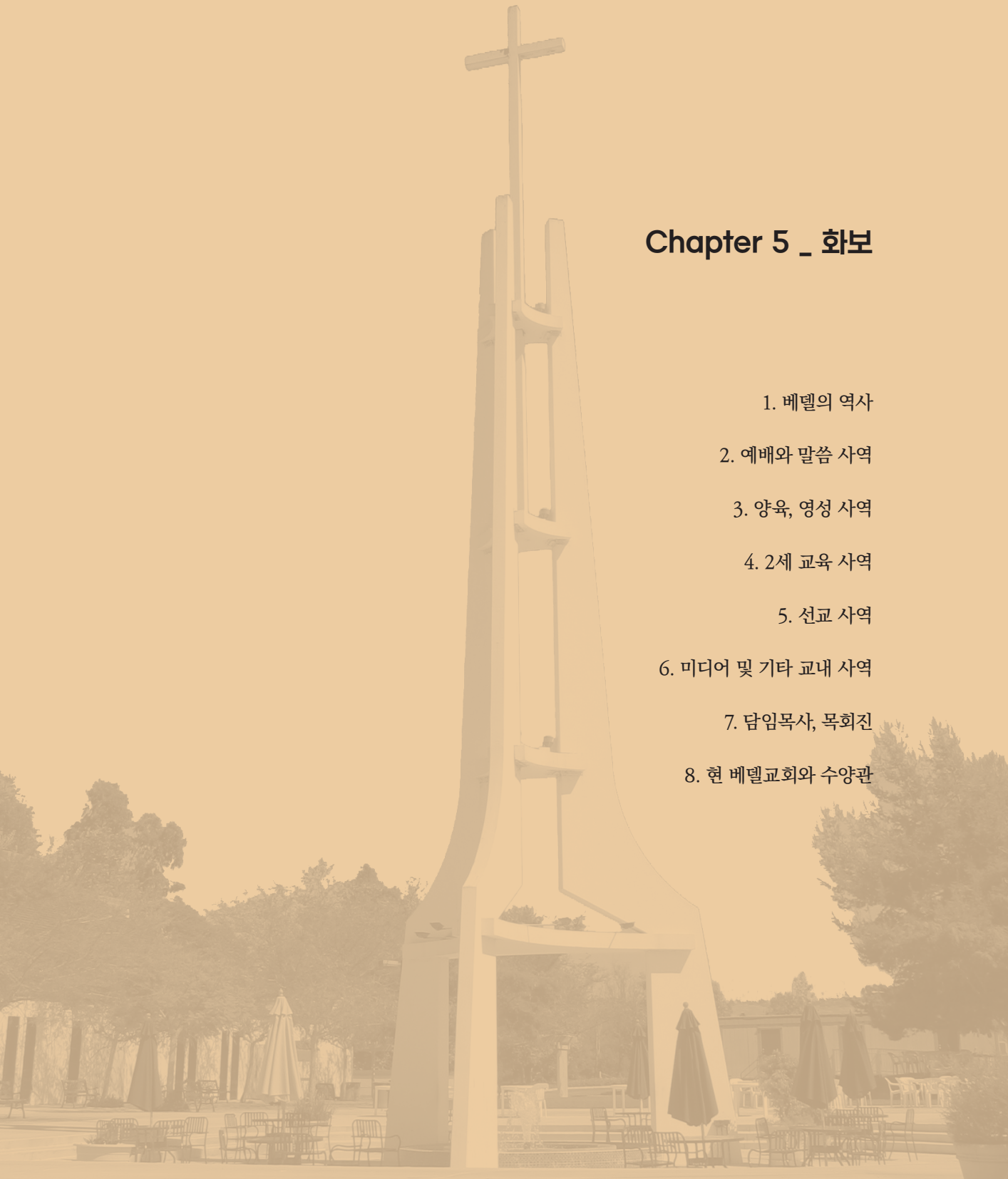
집회 때마다 시작 전에 저는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절대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또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그리고 찬양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도중에도 살짝 회중 분들을 쳐다보다가 눈을 잠깐 감기도 하고, 또 뜬 상태에서도 계속 오시는 모든 회중 분들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앞에 세워진 자의 책임감을 알기에 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을 알기에 더더욱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부끄럽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이 사이에 드려지는 프뉴마 워십은 특히 저희 '얼라이브 워십팀'이 생기와 숨을 얻는 회복의 장이며,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도리어 실감하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프뉴마 워십을 "얼라이브 수양회"라고 언급하곤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식구들과 한국 방문할 준비, 그리고 조금씩 지쳐가는 몸 상태 속에서, 비실비실 대면서도 나름으로 열심히 회사일과 교회일과 집안일을 하면서 오직 프뉴마 워십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프뉴마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프뉴마 워십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 얼라이브 팀을 보면서. 그리고 회중들만의 "찬양 알렐루야"를 들으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기대했고, 또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목 놓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프뉴마 워십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기도로 올려 드렸습니다. 아직도 조용히 눈을 감으면 모두 서서 불렀던 "찬양 알렐루야"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라고 얼라이브 워십팀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천 집사

2012.8.5



Chapter 5 _ 화보

1. 베델의 역사

2. 예배와 말씀 사역

3. 양육, 영성 사역

4. 2세 교육 사역

5. 선교 사역

6. 미디어 및 기타 교내 사역

7. 담임목사, 목회진

8. 현 베델교회와 수양관

1. 베델의 역사

Irvine Worship Center 교회 터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Irvine Worship Center에 완공한 초기 베델한인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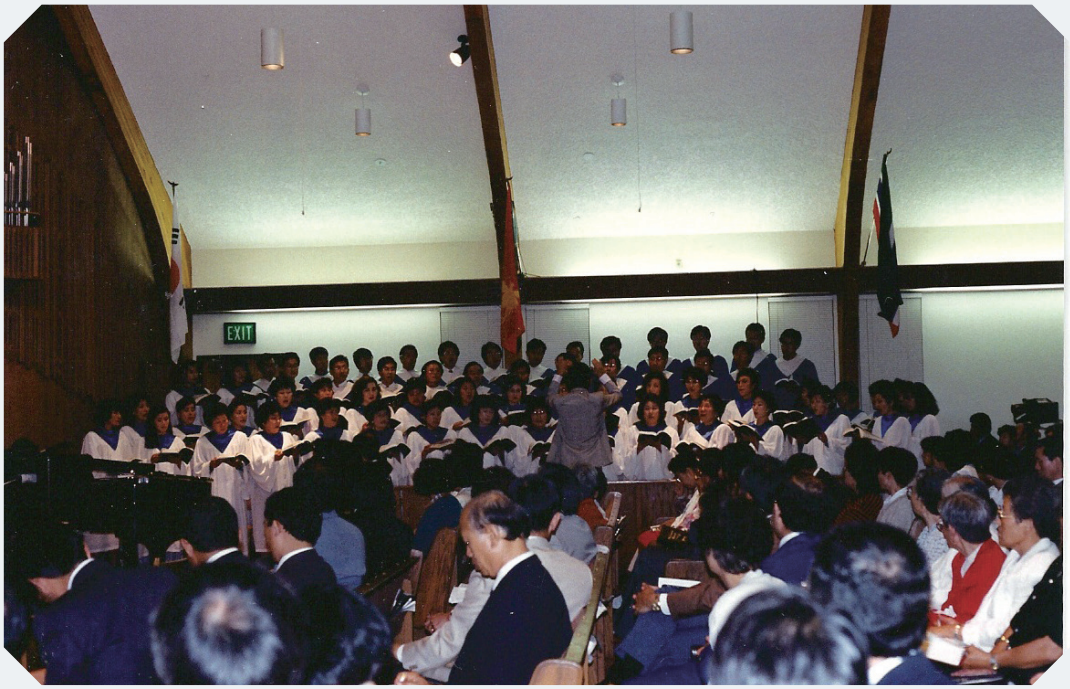
베델한인교회의 근간이 된 성령강림사건 직후(1977년 12월 4일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의 첫 집사 임직식 모습

베델한인교회 초기 교인들 앨범에서(1)

베델한인교회 초기 교인들 앨범에서(2)

베델한인교회 초기 교인들 앨범에서(3)



베델한인교회 초기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

베델한인교회 초기의 교회 풍경

베델한인교회 초기 야외에서 예배하는 모습

비젼 센타 건축의 첫 삽을 뜨며

비젼 센타 헌당 예배

현 성전 건축 과정 동영상
https://bit.ly/3sl01NM

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현 성전 헌당을 위해 모인 성도들

현성전 헌당 예배

2. 예배와 말씀 사역

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1)

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2)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이끄는 찬양 예배(1)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이끄는 찬양 예배(2) Album_23,24

고난 주간 저녁 예배

성찬식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탄 감사 성가대 칸타타

성탄 감사 어린이 공연

2층에서 바라본 성탄 예배 풍경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합동 예배

심령 부흥회에서 찬양

심령 부흥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엘리야 새벽 기도회(엘새)의 예배 모습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서서 한마음으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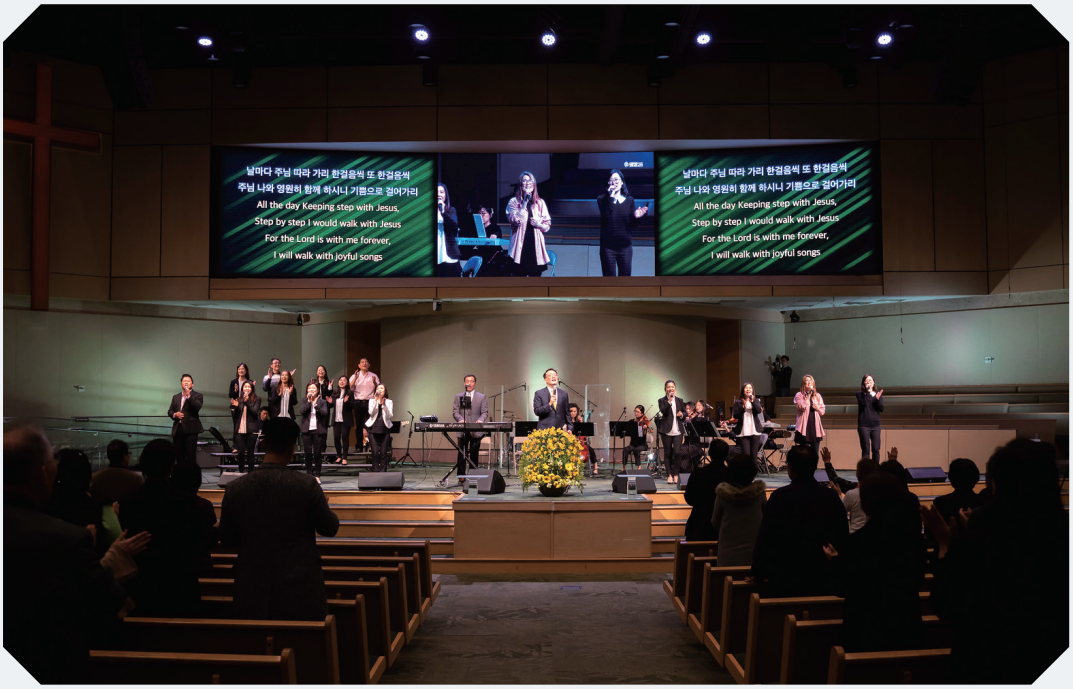
임직 예배 모습

유아 세례를 받으며,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그 날까지!

코비드 19의 제한 속에서도 다시 올려 드린 성탄 예배, 성가대 모습

베델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일예배-찬양의 시간

3. 양육, 영성 사역

자녀들과 함께 모여!

셀목자 수양회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한 새가족 환영 만찬

제자훈련 수료식의 한 장면(1)

제자훈련 수료식의 한 장면(2)

100명 전도단 발족식

베델의 대표적 영성 사역이되어온 베델 동산

베델 수양관에서 나의 옛 자아를 날려 보내며

어디서나 손잡고 기도하는 베델동산의 모습

몽골 베델동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주행

추수 감사절 공동체 발표회(1)

추수 감사절 공동체 발표회((2)

MOD(Ministry Opportunity Day) 사역 소개의 날

MOD 에서 사역팀을 홍보하는 모습

어머니 동산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예향 사역

기도중입니다.
모든 사역은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기도가 사명이요 미래의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6-7)

기도사역(1)

기도사역(2)

MIT 수료 예배 및 발표회

MIT의 한 클라스의 수업 모습

임마누엘 성경 대학

임마누엘 경로사역 수양회

4. 2세 교육 사역

유아부의 한 클라스 모습

BYM 집회 모습

여름 성경학교 VBS 모습(1)

여름 성경학교 VBS 모습(2)

여름 성경학교 VBS 야외 활동(1)

여름 성경학교 VBS 야외 활동(2)

AWANA 올림픽에서(1)

AWANA 올림픽에서(2)

소망부 사역

한국학교 클라스 발표 모습

한국학교 합창단(1)

한국학교 합창단(2)

연례 교사 만찬(1)

연례 교사 만찬(2)

순결 서약식

5. 선교 사역

연말 선교보고대회 -각 선교팀 입장!

미션의 날

선교를 향해 비상하라!

선교지를찾아가는 발걸음

코스타리카 선교
- 밀림에서 현지영혼들과 함께

페루의 고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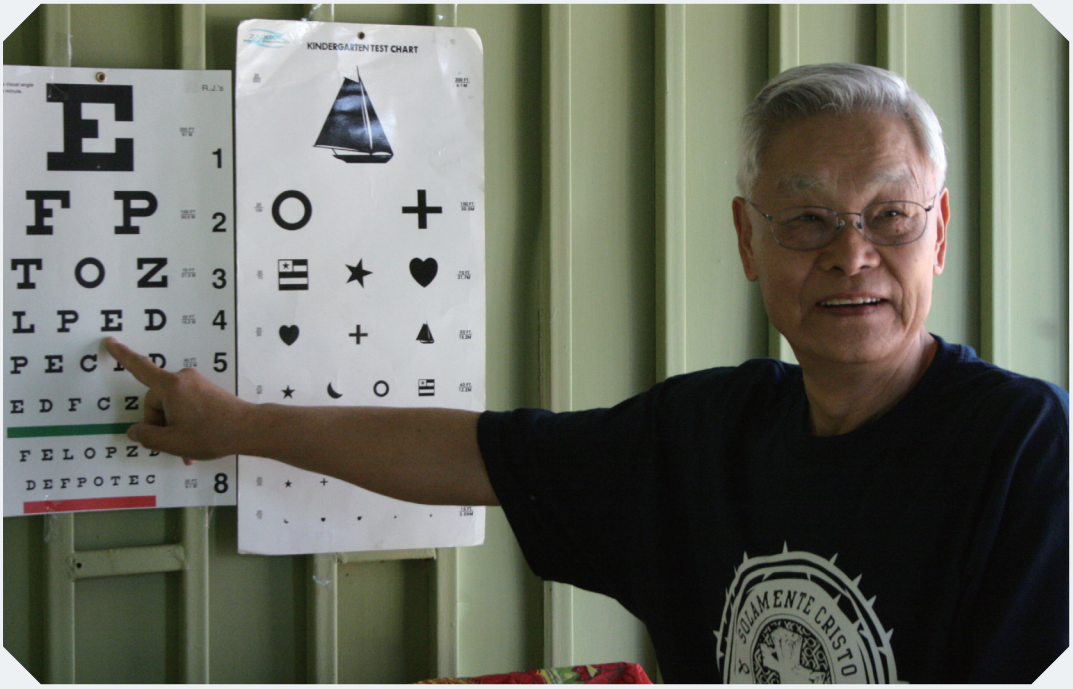
단기 선교 사역의 한 장면

선교팀이 선교사님과 함께

과테말라의 어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

이제 기도를 배웠어요

미용 사역


KINDERGARTEN TEST CHART
E
F P
T O Z
L P E D
P E C
E D F C Z
F E L O P Z
D E F P O T E C
1
2
3
4
5
8
SOLAMENTE CRISTO

안경 사역

Brookstone

의료 사역

기니비사우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KCC 거리 행진

북한 동포들을 위해 연설하는 손인식 목사

KCC: 국회 의사당 앞에서

6. 미디어 및 기타 교내 사역

CD 사역

예전 카페와 서점의 모습

전교인 피크닉

온 교인이 함께 메이슨 팍에서

어버이 주일 꽃 달아 드리기

입양아 사역을 통해 기쁨을 나누며

7. 담임목사 목회진

손인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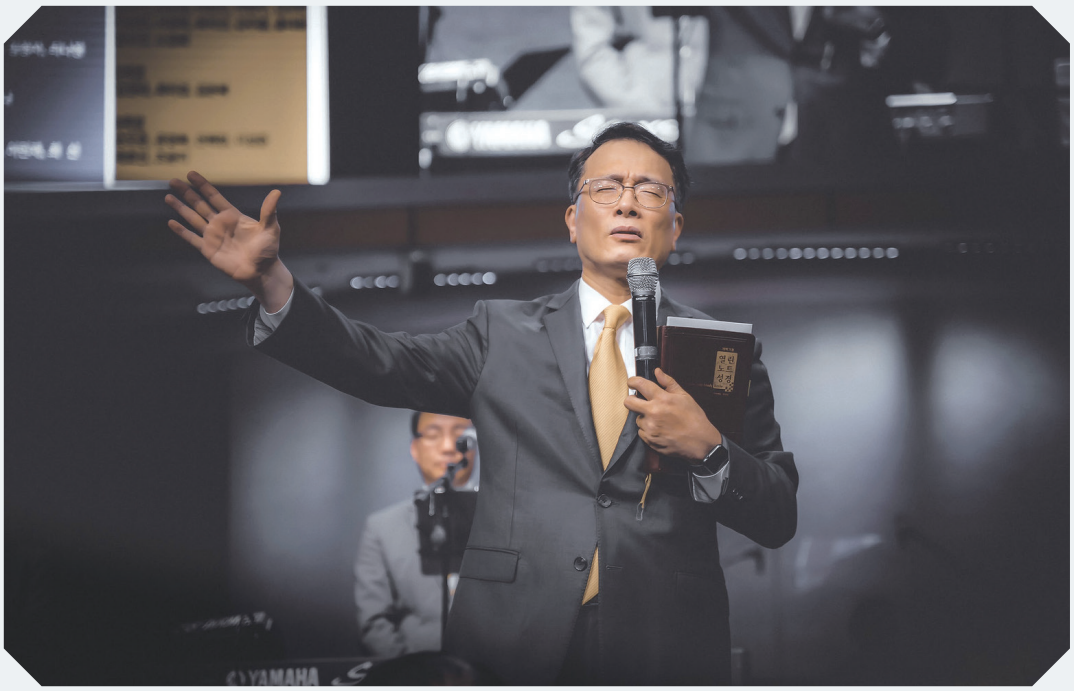
손인식 목사와 목회진이 함께

동사목회 후 이취임식에서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김한요 목사와 사모

설교후 기도하시는 김한요 목사

김한요 목사와 목회진



베델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

8. 현 베델교회와 수양관

베델 수양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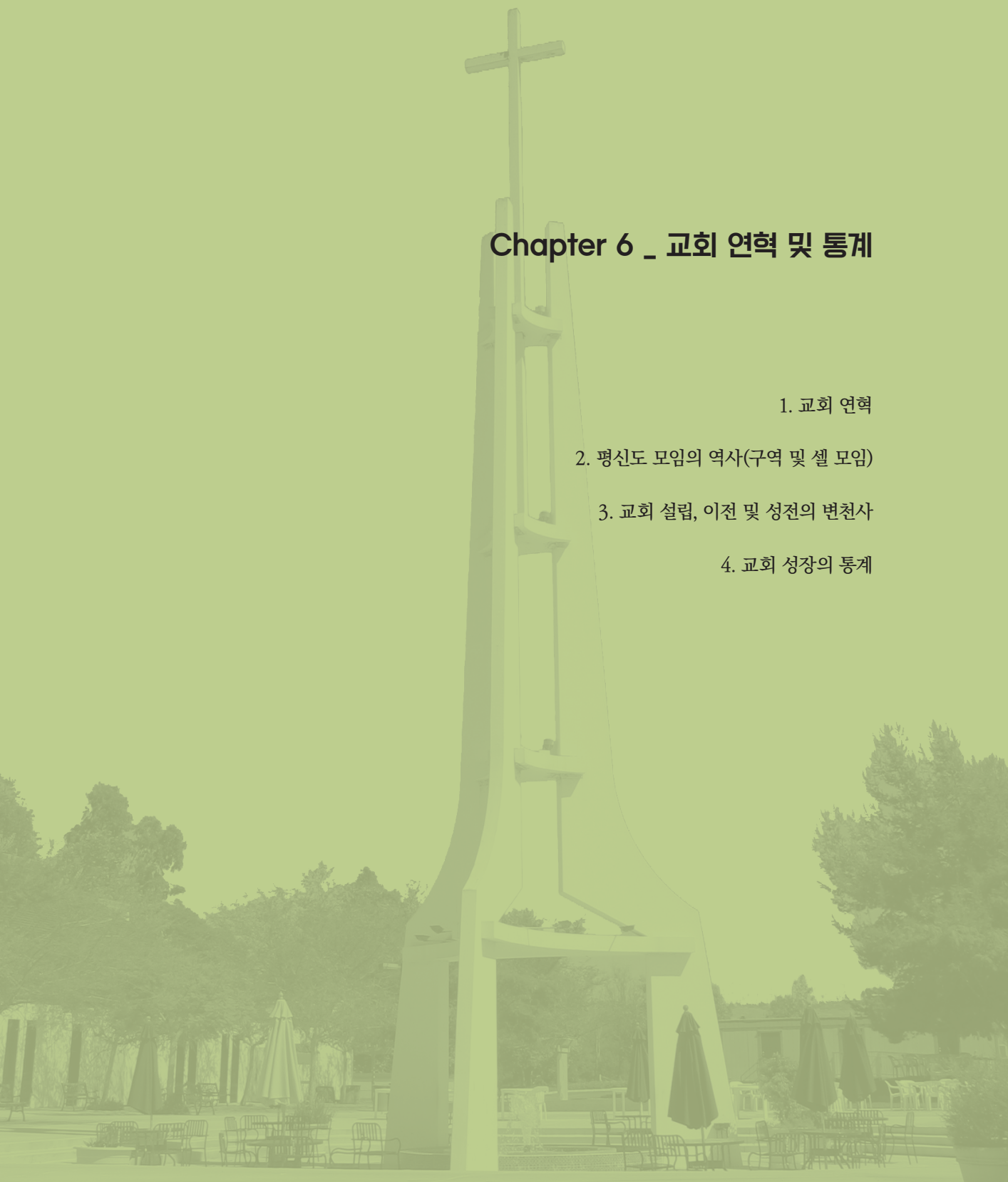
갈릴리 수양관 전경

현재 베델교회 모습(1)

현재 베델교회 모습(2)

2016-현재 온라인 화보

https://bkc.smugmug.com/



Chapter 6 _ 교회 연혁 및 통계

1. 교회 연혁

2. 평신도 모임의 역사(구역 및 셀 모임)

3. 교회 설립, 이전 및 성전의 변천사

4. 교회 성장의 통계

1. 교회 연혁

1976

09. 12 Geneva Presbyterian Church(24301 El Toro Rd., Laguna Hills)에서
윤용오 목사를 중심으로 교포 30명이 베델한인교회 설립

10. 17 예배 장소 이전(두 번째): El Toro High School, Charger Hall
(25255 Toledo Way, Lake Forest)

1977

03. 20 예배 장소 이전(세 번째): Lake Hills Community Church
(23331 Moulton Pkwy, Laguna Hills)
유년주일학교 발족, 여전도회 발족

06. 19 C&MA 교단에 가입할 것을 신도 총회에서 결의

07. 31 교회 헌장 제정
윤용오 목사 1대 담임목사 취임
시무장로 취임: 김동백

1978

05. 14 캘리포니아주 재단법인 등록(842485호)

12. 31 1년간의 모국 선교사업으로 10개 교회 지원

1979

01. 03 예배 장소 이전(네 번째): Abiding Savior Lutheran Church(Lake Forest)

01. 17 예배 장소 이전(다섯 번째): Mission Hill Christian Center(25292 McIntyre, Laguna Hills)

01. 21 임직식
장로 장립: 김광신, 유한성

10. 25 교회당 건축을 위해 Irvine Worship Center(I.W.C.)
법인체를 5개 교회가 구성하고 주정부에 등록

1980

01. 13 시무장로 취임: 김관회

02. 29 예배 장소 이전(여섯 번째): Irvine Community Church
(14804 Sand Canyon Ave., Irvine)

1981

05. 18 I.W.C.가 18700 Harvard Ave., Irvine에 있는
건축 대지를 Irvine Co.로부터 매입

1982

01. 10 시무장로 취임: 이시우

01. 17 교회 헌장 개정

05. 23 장로 장립: 장은석

09. 01 윤용오 목사 사임
김익환 목사 임시 당회장 취임

10. 24 김충모 전도사 목사 안수(C&MA 한인총회)

11. 28 백태현 목사 2대 담임목사 취임

1983

01. 18 김충모 목사 C&MA 교단 선교부 파송선교사(일본)

01. 19 임직식
시무권사: 유귀순, 허 정, 길의준

03. 04 I.W.C.에서 대지 4.5 에이커 추가 매입

1984

01. 22 교회대지에서 I.W.C.의 4개 교회 연합 기공예배

02. 26 김광수 목사 부임(음악)

1985

03. 31 임직식

시무장로: 길낙수
장로장립: 김영철, 이석재
시무권사: 백정임, 박희정

04. 14 유한민 목사 부임(협동)

08. 18 임시교육관 설치

11. 16 베델한인교회 헌당예배(18700 Harvard Ave., Irvine)

1986

03. 24 유한민 목사 사임

05. 04 주일 저녁예배를 구역 예배로 전환

09. 14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

1987

01. 18 최영구 목사 부임(전도)

05. 20 이석재 전도사 목사 안수(C&MA 한인총회)

05. 30 임직식
장로장립: 이윤호, 조병섭
권사취임: 이영신, 강을규, 방용선, 이일금, 손숙자, 김숙기, 박옥련, 김숙자

10. 01 김광수 목사 사임, 이석재 목사 부임(교육)

10. 03 노찬호 목사 부임(심방), 송민영 목사 부임(음악)

1988

01. 03 설립 12주년 기념 지교회 설립
가든그로브 벧엘선교교회(담임: 최영구 목사)
롱비치 벧엘교회(담임: 이석재 목사)

04. 24 임직식
장로장립: 김동수, 박노영, 최원욱
권사취임: 김승희, 김옥분, 정숙자
명예권사: 김성래, 이진현, 김엘렌, 한봉란, 임준학

06. 05 본관 부속실 준공예배

1989

08. 13	백태현 목사 사임
08. 27	김익환 목사 임시 당회장 취임
11. 25	명성훈 목사 임시 설교목사 취임

1990

03. 11	교회 헌장 개정
07. 08	명성훈 목사 사임
12. 16	손인식 목사 3대 담임목사 취임
12. 31	송민영 목사 사임

1991

04. 21	임직식
	장로장립: 심홍섭
	집사안수: 박노철, 윤건상, 홍순훈
	명예권사: 박순이, 엄선옥, 장두순, 황인희
06. 02	정갑용 전도사 목사 안수(South Pacific District)
06. 27	Assembly of God에서 사용하던 18700-B 건물 매입
07. 14	제2성전 입당예배
09. 12	제1회 베델선교대회
11. 24	김문주, 김진영 전도사 목사 안수(South Pacific District)

1992

01. 12	임직식
	장로취임: 임종식
	집사안수: 김문교, 김경식, 유근영, 이원영, 이일수, 최영식
02. 09	박대균 목사 부임(교구)
05. 04	Irvine Community Church에서 사용하던 18700-C 건물 매입
07. 26	제3성전 입당예배

1993

01. 10 임직식
장로취임: 김영철, 장은석
집사안수: 강철순, 이경승, 이대은, 윤영걸, 백준기, 서동민, 박준필
02. 23 제1차 성지순례
07. 6-9 한인교회 2세 봉사자 대회(김상복 목사)
09. 12 추영욱 목사 부임(교구)
송창홍 & 송하나 선교사 구소련 타슈켄트 파송

1994

01. 09 임직식
장로장립: 홍순훈
집사안수: 김성복, 황희진, 송세헌, 이춘선
01. 13 유한성 전도사 목사 안수(South Pacific District)
07. 08 제22차 전국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본교회에서 개최
08. 14 주성철 목사 부임(행정)

1995

01. 08 4부 예배 발족
01. 29 임직식
사역장로: 김관회
장로장립: 윤건상, 이원영, 이일수
장로취임: 박노영, 최원욱
집사안수: 강현석, 김 정, 김동수, 김동천, 김동진, 김명순, 박호성, 이수완, 조영원, 조용백, 최홍범, 하수만, 한 일
02. 12 임태경 전도사 목사 안수(South Pacific District)
05. 30 임태경 목사 사임
07. 25 제1회 중국 베델동산 개최(29명)
10. 22 심홍섭 장로 목사 안수(C&MA 한인총회)
12. 09 제1차 입양아 선교대회

1996

01. 21 임직식
장로장립: 백준기
사역장로: 장은석, 김영철
시무권사: 김선히, 문영애, 박봉순, 박희수, 이선자, 이영자, 이혜영, 장혜자, 전정순, 정혜경, 최동숙, 현창주
협동권사: 권문순, 김낸시, 김수잔, 박노순, 박영해, 박효경, 배경수, 유정숙, 이영신, 이 정, 최옥자, 전정순
집사안수: 권태주, 김귀성, 김선웅, 김수열, 송대섭, 양덕승, 여천기, 원치중, 이주형, 조희원, 최문혁, 최정일, 탁영찬, Williams

03. 03 최진호 목사 부임(선교)

06. 01 김희수 목사 부임(행정)

06. 23 박종기 전도사 목사 안수(South Pacific District)

09. 21 제1회 전교인 체육대회

10. 21-23 설립 20주년 기념 - 한인교회 미래를 위한 심포지움

1997

01. 12 임직식
장로장립: 서동민

01. 8-30 증축기념 대각성 부흥성회(정인찬 목사)

02. 8-9 제1회 순결훈련 및 순결서약식(9-12학년)

04. 06 교회 헌법 개정

05. 11 추영욱 목사 사임, 최진호 목사 사임

05. 25 주성철 목사 사임

06. 15 원영호 목사 부임(행정)

07. 13 열린예배 발족

07. 28 Cell Church 사역 발족

10. 02 South Pacific District 총회 본 교회에서 개최

10. 26 손경일 전도사 부임(찬양)

11. 16 조중석 전도사 부임(영어 성인예배)

1998

02. 17 교회 홈페이지 개설(www.bkc.org)

03. 29 이주형 선교사 파송예배

07. 14 이주형 선교사 목사 안수(세계선교연합교회)

08. 30 김희수 목사 샌디에고 지교회 파송예배

09. 01 송치우 전도사 부임(중고등부)

12. 06 다목적교육센터 건축헌금작정

12. 20 교회 헌법 개정

12. 27 임직식

장로장립 및 취임: 강철순, 김동진, 김인갑, 박호성, 유근영,
윤영걸, 이수완, 이웅구, 한 일

사역권사: 김경옥, 김경자, 김봉순, 김송희, 박민경, 박정자, 박희자, 반수옥, 성홍숙, 손진자, 송경아, 송광봉, 유군자, 이옥선, 이청자, 정옥희, 조경자, 지능자, 탁경자, 홍상분

협동권사: 김미령, 김은순, 김옥진, 김지옥, 김충렬, 넬 슨, 마연식, 백인화, 서갑석, 석혜명, 양어자, 유매한, 이순예, 이정순, 이후남, 이흥남, 지금선, 지순복, 최보석, 한창지

집사안수: 길태승, 김 박, 김강혁, 김권태, 김근오, 김우영, 김정태, 김풍원, 박상곤, 박제인, 윤남구, 윤상보, 이 청, 이광희, 이범석, 이성준, 이승국, 이영웅, 이우연, 이혁재, 조광열, 하창남, 홍락기

1999

03. 17-22 제1차 교회성장실험교실(목회자 118명 참석)

04. 04 지교회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창립예배(담임: 김희수 목사)

04. 20 박영배 전도사 목사 안수(South Pacific District)

05. 01 박용준 목사 부임(교구)

06. 30 칼믹 종족 입양 예배(김진영 선교사 부부 재파송)

08. 01 베델 수양관 구입 및 입주예배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08. 08 비전센터 기공예배

09. 05 서철원 목사 부임, 최재홍 목사 부임(목회 인턴)

10. 1-2 제1차 임마누엘 베델동산 개최

10. 8-10 제1차 싱글동산

10. 10 제1차 베델결혼교실(10주간)

12. 26 임직식

장로장립: 김동수, 양덕승, 이대은

사역권사: 김동심, 조혜정, 유정혜, 윤화자

협동권사: 권양진, 김금순, 김기수, 김덕실, 김여운, 박봉도, 원형숙, 임봉재, 한동희, 호테마지니

집사안수: 김세진, 김양환, 서광선, 이강훈, 정순구, 한근배, 홍원희

2000

02. 13 결산교인총회

03. 16-20 제2차 교회성장실험교실(목회자 137명 참석)

05. 01 조진환 전도사 부임(영어권)

05. 30 박영배 목사 사임

09. 16 고구마 전도단 출정 예배

09. 17 박대균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10. 5-8 베델동산/부부동산 멤버십 창립총회

10. 21 비전센터기금마련 Concert

12. 02 제1회 베델경로잔치

12. 10 정기교인총회

12. 17 제2차 셀교회 찬양제, 박용준 목사 사임

12. 31 임직식

장로취임: 서동민, 이광옥

사역권사: 김수자, 김인흠, 김지현, 박명유, 안처례, 이성창

협동권사: 권칠남, 김귀례, 김명복, 김인호, 김화행, 민춘원, 박종숙, 성준완, 이희주, 정옥자, 최순정, 옥현재

집사안수: 곽태일, 권기혁, 김 철, 김인권, 김종만, 김종성, 김찬수, 김태형, 박선화, 박종혁, 백영만, 연규호, 오 담, 유광연, 유성인, 윤여도, 이연택, 이재남, 이중교, 최석호, 탁정호, 황순현

12. 31 송구영신예배

2001

02. 11 결산교인총회

안성환 목사 부임, 조상래 목사 부임

서철원 목사 사임, 최재홍 목사 사임

02. 18 김경섭 목사 부임

03. 15-19 제3차 교회성장실험교실

06. 24 전인수 전도사 목사 안수

07. 08 최장열 목사 부임

09. 09 베델 비전센터 헌당예배/주일 예배시간 4부로 확장

09. 30 손경일 전도사 목사 안수

10. 21 이종환 전도사 목사 안수

10. 28 장영락 전도사 부임(청년공동체 인턴)

12. 30 임직식

사역장로: 길태승, 김귀성, 이 청, 이혁재, 최정일

사역권사: 김숙자, 김청강, 김춘경, 박병순, 서정애, 연영숙, 윤성복, 이순실, 임정혜, 최수자, 최 영

집사안수: 강영재, 권조원, 김광경, 김건성, 김진성, 김진호, 김현규, 김홍열, 박양권, 박영기, 오 흡, 이도엽, 이사무엘, 이세풍, 이시훈, 이철진, 정영화, 정주호, 현홍섭

12. 31 송구영신예배

2002

01. 01 신년예배(정오 12시) 발족

01. 23 수요 오전예배(오전 10시) 발족

02. 10 임시 결산교인총회

03. 8-9 순결서약식
03. 14-18 제4차 교회성장실험교실
03. 24 유한성 목사 은퇴 및 선교사 파송예배
05. 20-28 폴란드, 체코 문화선교
09. 11 추모 특별예배
09.30-10.3 C&MA South Pacific District 총회
10. 14-17 C&MA 한인총회
11. 03 송치우 전도사 목사 안수 및 파송예배
12. 07 제7차 입양아 선교대회
12. 29 임직식
사역장로: 김동진, 이강훈, 이수완, 최문혁
협동장로: 전중석
사역권사: 김경애, 김명선, 김은자, 박송자, 성승희, 이명숙, 이인자, 이정자, 이태옥, 최 기
협동권사: 권금녀, 김규자, 김문자, 김병희, 김순전, 김옥순, 김용인, 김용자, 김정희, 나홍자, 문순옥, 문화숙, 백창선, 손도준, 원황예, 유옥열, 윤정희, 이국홍, 이영자, 임정자, 임춘화, 정복순, 정화남, 한복덕
집사안수: 김 률, 김도겸, 김상모, 김석기, 김석열, 김종대, 김종철, 김태윤, 박선암, 박종민, 변영택, 선상균, 양수남, 이국선, 이상열, 이여송, 이용준, 전상규, 조만걸, 최주상
12. 29 원영호 목사 사임, 안성환 목사 사임
12. 31 송구영신예배

2003

01. 05 신년주일예배(정오 12시)
김영하 목사 부임, 김배훈 전도사 부임(영어 대학부)
01. 12 고성일 전도사 부임(영어 중고등부)
01. 26 최장열 목사 사임
02. 09 결산교인총회
02. 22 남가주 주교 교사 대회(KASSCON)

03. 13-17 제5차 교회성장실험교실
03. 16 김가형 목사 부임
임상빈 목사 부임(환자심방)
03. 21-22 순결서약식
03. 30 조진환 전도사 목사 안수
이혜원 전도사 부임(중고등부 인턴), 이진 전도사 부임(유치부 인턴),
이진호 전도사 부임(한어 중고등부 인턴),
남정우 교사(영어 중고등부 인턴)
07. 06 서철원 목사 부임
07. 11 2003 Praise Korea 찬양사역자 찬양모임
09. 14 BCC와 영어대학부 연합예배 발족
10. 12 이 철 전도사 목사 안수
10. 26 2003년 단기선교보고 예배
12. 14 교인총회
12. 28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권태, 김양환, 박제인, 정순구
안수집사: 권우기, 김건중, 김정윤, 김희창, 박덕언, 백철현, 윤용섭, 이범희, 이상태, 이석희, 이용수, 이은원, 조원태, 최원진
사역권사: 길복자, 김소자, 김영수, 박봉희, 이승남, 이정일, 주수명
협동권사: 강정원, 고정인, 권순옥, 김계인, 김금녀, 김노임, 김 연, 김영락, 김옥희, 김정연, 김정희, 박군준, 박금옥, 박영선, 박영실, 박현례, 배남심, 신영자, 위부자, 이옥엽, 이은숙, 이영순, 이청자, 조양숙, 조정은, 지수애, 최미나, 최복동, 함순교
12. 31 송구영신예배

2004

01. 18 김봉래 목사 부임(장년 교육)
이종환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동북아시아)
02. 08 결산교인총회
02. 17 베델 성경대학 봄학기 개강

02. 28-29 제1차 친구 동산
03. 12-15 제6차 교회성장실험교실
03. 19-20 순결서약식
04. 6-10 수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04. 17 Prayer Medal Club
04. 28 탈북자 초청 공연
05. 1-2 성극제 '하늘가는 밝은 길이' 공연
05. 14-16 춘계부흥회(김인중 목사)
06. 10-12 제1차 전국 크라운 재정교실 크리닉
06. 13 지영봉 전도사 부임(소망부-장애우)
08. 01 셀교회 종강예배(문봉주 외교부 본부대사)
09. 05 양덕승 전도사 부임(목회 인턴)
09. 27-28 KCC 전국 Conference
10. 1-2 레노바레 영성세미나
10. 02 Fresh 2004(Anaheim Convention Center)
12. 05 정유성 목사 부임(찬양)
12. 12 고현권 목사 부임(공동체)
12. 26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동수B, 김수열, 김종만, 홍락기
안수집사: 김명수, 김인홍, 노풍식, 민병천, 민창식, 박상욱, 박재홍, 변용득, 서우석, 윤성식, 정성동, 지종필, 최규덕, 최규송
사역권사: 김미아, 김선희, 심인희, 김정해, 김화자, 박영숙, 박용숙, 박정옥, 이현숙A, 이현숙B
협동권사: 김기숙, 김무림, 김 민, 김신정, 김옥임, 김원자, 김진애, 백정자, 선정자, 이명자, 이순열, 이영희, 이정숙, 전기선, 정명률, 조미정, 조용자, 지연화, 최정숙, 최혜자, 한문자, 홍간난, 홍영자
12. 31 송구영신예배

2005

01. 02 류태우 목사 부임(CIM-한어 중고등부)

01. 4-15 제1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2. 27 사무엘 방 목사 부임(BCC-성인영어)
03. 13 손경일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일본)
03. 18-19 순결서약식
03. 25, 27 뮤지컬 '부활' 공연
03. 27 서철원 목사 사임
04. 24 탈북 국군포로 간증집회
05. 13-15 춘계부흥회(천기원 선교사)
05. 14 어린이 부흥회(Steve Pennington 목사)
07. 04 셀교회 종강예배(윤형주 장로)
08. 17 '갈대상자' 간증집회(김영애 권사)
09. 10 Korean Harvest(북한선교 바자회)
10. 01 Fresh 2005
11. 11-13 추계부흥회(지용수 목사)
11. 25-27 빛과 소금 세미나(김진홍 목사)
11. 27 KCC 로스앤젤레스 통곡기도대회
12. 11 오중석 전도사 부임(디모데 공동체), 교인총회
12. 25 임직예배
사역장로: 한 일, 김세진, 윤여도, 이국선, 홍원희
안수집사: 김문경, 김성환, 김영남, 김홍우, 김 훈, 문형진, 박지경, 신현기, 왕동원, 윤송로, 이강오, 이용원, 한용주, 홍경표, 홍승평
사역권사: 김명자, 김수경, 김옥선, 김은경, 박경자, 유봉옥, 이영옥, 정순자
협동권사: 강재윤, 구선분, 권규병, 김순옥, 김진송, 노옥설, 박양순, 박종순, 안상녀
12. 31 고성일 목사 사임, 송구영신예배

2006

01. 3-14 제2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2. 28-3.1 KCC 서울 통곡기도회
03. 17-20 제7차 교회성장실험교실

03. 31-4.1 순결서약식
04. 21-23 춘계부흥사경회(조건회 목사)
06. 03 Fresh 2006
06. 03-4 빛과 소금 대각성 성회(이수영 목사)
08. 20 조철희 목사 부임(선교, 성인영어)
09. 08 북한 선교 바자회
10. 01 KCC 통곡 구국기도회(주님의 영광교회)
10. 19-22 '요덕스토리' 뮤지컬 공연
10. 21-22 Fresh 2006(Anaheim Convention Center)
10. 31 Family Fall Fest
11. 3-4 제1차 한미의료선교대회
12. 02 제8차 입양아 선교대회
12. 30 김경섭 목사 사임
12. 31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풍원, 연규호, 조원태, 최문혁

안수집사: 김근수, 김백열, 길석훈, 변준호, 송석원, 오관선, 오상복, 오성남, 오양환, 오흥민, 윤석우, 이종호, 이진순, 이해철, 조만호

사역권사: 김윤숙, 김삼순, 신금숙, 오성애, 윤명옥, 이두련, 이옥례, 이은수, 이혜훈, 조은식, 최인애, 최장희, 하희자, 한윤희, 홍명숙, 홍미란, 홍영희

협동권사: 김성열, 김수옥, 김영은, 김은숙, 김인숙, 김필례, 김행자, 김현준, 노수연, 문유재, 박남수, 박미정, 박복희, 박영자, 박준희, 변기순, 손정자, 연봉성, 유옥자, 육봉화, 윤복순, 이광자, 이순자, 이승진, 이애숙, 이용순, 정상남, 정애순, 조경자, 조귀자, 조화자, 최금복, 한부한, 홍덕규, 홍연순, 황애순

12. 31 송구영신예배

2007

01. 2-13 제3차 엘리야 새벽기도회
02. 17-18 성령부흥회(이용남 선교사)

03. 16-19 제8차 교회성장실험교실, MOD
03. 18 양성필 목사 부임(새가족)
05. 11-13 춘계부흥회(이강헌 목사)
05. 20 2세 KCC 통곡기도회
06. 26-29 VBS 여름성경학교
07. 29 가정회복 성령부흥회(송길원 목사)
09. 08 북한선교 바자회
10. 28 오중석 전도사 목사 안수
10. 31 Family Fall Fest
12. 09 교인총회
12. 23 성탄 축하 셀 합창제
12. 24 성탄 어린이 뮤지컬
12. 30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명수, 박선화, 이범석, 이중교
안수집사: 김인규, 탁정환, 한종석, 한석균, 송상근, 김혁동, 김동균, 최영식B, 이길수, 이길재, 김종현, 김토성, 김태현, 고석민, 최용석
사역권사: 라성란, 한윤자, 김혜숙, 유현숙, 김혜영, 오경이, 조영숙, 민미라
협동권사: 강경주, 김경선, 김규일, 김승희, 김재영, 구숙경, 권옥자, 노숙영, 박숙향, 변동미, 석윤희, 이종균, 이진영, 이화영, 윤인숙, 전숙자, 정순자, 정혜숙, 채은영, 한영복
12. 31 송구영신예배

2008

01. 2-12 제4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1. 12 성전 건축 기공예배
03. 30 손경일 목사 부임(청년교회)
04. 06 장영락 목사 부임(청년교회)
05. 04 청년교회 창립 예배
고대영 전도사 부임(청년교회)
06. 24-27 VBS 여름성경학교

07. 20 셀교회 종강, 가정회복 성령 부흥회
07. 29-30 미래목회 세미나
10. 3-4 제2차 한미의료선교대회
10. 05 최미정 전도사 부임(청년교회)
10. 31 Family Fall Fest
12. 14 교인총회
12. 21 김진우 전도사 부임(성인영어, 2세 KCC)
12. 28 임직예배
사역장로: 권조원, 김정윤, 이석희, 이성준
협동장로: 한상섭
안수집사: 김병찬, 김상욱, 남희섭, 문성범, 박성남, 석충학, 이준희, 정민철, 조 현, 최길석, 허용진
사역권사: 권미경, 권옥선, 김경란, 김승숙, 김영옥, 나광희, 박경재, 박영실, 박온유, 송정옥, 안명오, 안혜숙, 유경숙, 윤미경, 이숙희, 이영옥, 장영애, 장영주, 조진영, 최영숙, 최옥경, 최하자, 한정애
협동권사: 김명림, 김영옥, 김영희, 김정순, 김정욱, 김지철, 김창분, 김화자, 민임주, 박상조, 배명숙, 백옥실, 손영숙, 송상희, 오복례, 이열의, 장명희, 전경태, 주순옥, 진혜주, 최찬옥
12. 31 송구영신예배

2009

01. 6-17 제5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3. 29 고현권 목사 사임
04. 05 김혁동 전도사 부임(청년교회), 이란혜 전도사 부임(찬양)
05. 03 3차 성전건축 작정헌금, 양준호 전도사 부임(청년교회)
우상문 전도사 부임(방송실장), 장윤정 전도사 부임(청년교회)
05. 24 새성전(본당) 입당
05. 29-30 춘계부흥회(이찬수 목사)
06. 5-7 헌당감사 큰축제, 손인식 목사 저서 '돌탕복음' 출간
06. 23 40일 신약통독 새벽기도회

06. 28 이 철 목사 사임
06. 26 남정우 전도사 목사 안수
06. 29-7.2 VBS 여름성경학교
08. 02 정상준 목사 부임(공동체)
08. 15 KCC 북한 선교의 밤(최수종 간증)
08. 18-19 제2차 미래목회세미나
08. 25 Fresh 2009
08. 30 미디어 중독 세미나
11. 3-14 아둘람 특별새벽기도회
11. 14-15 Come & See 총동원 이웃초청 주일
11. 29 양덕승 목사 사임
12. 13 교인총회
12. 27 김영빈 목사 부임(공동체)
임직예배
사역장로: 곽태일, 김정태, 박상곤, 윤송노
안수집사: 김교식, 김명석, 김재옥, 고조다무라, 오유진, 이상노, 이성호, 조봉완, 조상익, 차승호, 채영희, 홍성우
사역권사: 권형신, 김상훈, 민옥진, 박동실, 박정희, 변남춘, 변영희, 서정숙, 이혜경, 임정심, 전영순, 정점옥, 조경옥, 최연화, 하복순, 홍정이
협동권사: 강영심, 강현옥, 김목자, 김상업, 김성수, 김수경B, 명순복, 박옥희, 백은실, 신옥조, 오영옥, 이명자, 임인숙, 장기춘, 정하은, 조경숙, 조화자, 최순덕
12. 31 송구영신예배

2010

01. 5-16 제6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1. 13-3.3 수요 아멘 수양회
02. 07 결산교인총회, 셀교회 개강
02. 12-13 순결서약식
03. 06 백철현 전도사 부임(청년교회)

03. 10-14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세미나(이애실 사모)
03. 19-22 제9차 교회성장실험교실, MOD
03. 26-27 제3차 한미의료선교대회
05. 01 셀목자/소그룹인도자 축제(백은실 대표)
선교 세미나(박기호 교수)
05. 08 사메아 기도운동 발족예배
05. 11-13 C&MA 교단 노회 총회
05. 20-24 2010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
06. 11-13 부흥회(김문훈 목사)
06. 15-8.7 아둘람 특별새벽기도회
06. 29-7.2 VBS 여름성경학교
07. 13-14 KCC 워싱턴 D.C. 횃불대회
07. 25 셀교회 종강예배(석은옥 권사)
08. 04 100명 전도단 발족예배
09. 5-6 셀목자 수양회(이진수 목사)
09. 14 화요여성축제 신설 개강
09. 17-19 추계부흥회(강준민 목사)
10. 10 밀알의 밤(송정미 사모)
11. 12 CXLIVE 청소년 찬양집회
11. 13 북한선교 및 방송선교를 위한 바자회
11. 14 Come & See 총동원 이웃초청 주일
12. 05 연례교사만찬 발족
12. 9-10 특별 신앙간증집회(윤형주, 김세환)
12. 12 교인총회
12. 19 성탄축하 음악예배 - 메시야 공연
12. 25 성탄절 Family Worship
12. 26 임직예배
사역장로: 민병천, 백영만, 탁정호, 한상섭, 황순현
안수집사: 권판철, 배상훈, 손우영, 우성무, 윤대호, 이도용, 이지훈, 이창우, 전형국, 조경록, 천화일, 황기원

사역권사: 김동자, 김숙영, 김연숙, 김영덕, 김인순, 김헬렌, 노윤숙, 박광혜, 박기순, 박승원, 박혜정, 손수자, 송종숙, 양영란, 오정미, 윤귀례, 윤수경, 윤현숙, 이동우, 이송미, 이순애, 이언경, 이영재, 이원경, 이인선, 이혜경, 이혜숙, 이혜원, 이희진, 임민영, 장 선, 전정례, 전현숙, 정일미, 조영임, 조정열, 조현숙, 한명기, 홍연환, 황은숙

협동권사: 권수영, 금화자, 김경자, 김명자, 김해선, 민봉환, 서명심, 양종선, 양행자, 윤인숙, 이규영, 이소리, 이순희, 이태자, 장영옥, 정승자, 조명희, 조영애, 차형숙, 한인숙, 한해자

12. 31 송구영신예배

2011

01. 4-15 제7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1. 09 이상엽 전도사 부임
01. 18-20 샌디에고 그날까지 컨퍼런스
02. 06 박병기 목사 부임('그날까지' 선교), 장창호 목사 부임(청년교회)
02. 13 결산교인총회
03. 24 KAMHC 2세 의료선교의 밤
04. 03 이지선 자매 특별간증집회
04. 19-23 수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05. 04 제1기 베델 아기학교
05. 08 손경일 목사 사임
05. 21 CXLIVE 청소년 부흥집회
06. 28-7.1 VBS 여름성경학교
07. 03 박은성 목사 부임(청년교회 인턴)
07. 26-30 KCC 워싱턴 D.C. 횃불대회
08. 01 40일 대각성 기도회 시작
08. 07 이 청 장로, 이인자 권사 선교사 파송(몽골)
09. 14 수요 52주 대각성 기도회 시작
09. 20-21 대각성 기도회 확산 컨퍼런스
11. 13 총동원 전도 주일

11. 19-20 부부축제
11. 21 40일 대각성 경건운동 시작
12. 03 연례 임마누엘 경로잔치
12. 04 연례교사만찬
12. 06 백철현 전도사 목사 안수
12. 11 교인총회
12. 18 임직예배
사역장로: 이해철, 조만걸, 홍승평
안수집사: 김병주, 김정우A, 김호경, 나성욱, 박재문, 박종천, 손석환, 오승렬, 윤주원, 이상원, 이선갑, 이승호, 이양수, 최한표
사역권사: 강순영, 곽은희, 권윤희, 길성자, 김금숙, 김남실, 김은주A, 김은화, 김일란, 김현주B, 박금옥B, 박선희A, 박종은, 배혜숙, 백설희, 백신자, 선효신, 설귀애, 송순임, 양은희, 오선희, 우미희A, 이경희A, 이명선, 이영주, 이유경A, 이은실, 이임숙, 이현복, 조옥자, 하귀숙, 하용금
협동권사: 김니나, 김선희E, 김성희C, 김영화, 김정균, 김종자, 남궁경, 박은숙, 서석님, 심윤신, 안동자, 유덕순, 윤동성, 이귀희, 이정숙B, 차재순, 천덕선, 최화순, 한환복
12. 23 셀종강 연합 뮤지컬
12. 31 송구영신예배

2012

01. 3-14 제8차 엘리야 특별 새벽부흥회
01. 29 남기대 전도사 목사 안수
02. 2-5 독일 라이프찌히 UTD 컨퍼런스대회
02. 12 결산총회
02. 14-8.15 릴레이 기도
02. 19 이상엽 전도사 사임
탈북민 목회자 미국연수 간증의 밤
02. 25-26 셀목자 수양회(성기상 목사)

04. 1-7 7 대각성 기도회
(고현종 목사, 김기동 목사, 남성수 목사, 민경업 목사, 이 철 목사)
04. 22 류태우 목사 사임
05. 03 제4회 선교기금마련 골프대회(Talega Golf Club)
05. 20 양성필 목사 사임
06. 03 고현권 목사 부임(1세), 이은우 목사 부임(1세)
임재영 목사 부임(예삶청년)
06. 17 김영빈 목사 사임
06. 22-24 춘계부흥회(김창근 목사)
06.26-29 VBS 여름성경학교(유년부)
07. 08 지영봉 전도사 사임, 박종희 전도사 부임(소망부)
박철홍 목사 부임(예삶청년)
07. 9-12 KCC 워싱턴 D.C. 횃불대회
07. 10-13 VBS 여름성경학교(유아, 유치부)
07. 22 신영훈 목사 사임
08. 14-15 제1차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대회
10. 13 북한 선교 기금마련 바자회
10. 17 김진우 전도사(EM) 목사 안수
10. 31 Family Fall Fest
11. 02-5 추계 대각성 부흥회(송태근 목사)
12. 02 연례교사만찬
12. 08 토요 아침 오이코스 워십(매달 둘째 토요일 오전 7시)
12. 09 교인총회
12. 23 성탄 음악축제
12. 25 크리스마스 예배
12. 30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정윤, 김태현, 고조다무라, 이은원, 이중교
안수집사: 김광영, 김기주, 김태원, 김현수, 김현욱, 박기홍, 박상범, 선우영, 손성모, 우요셉, 유형석A, 윤의식, 이경택, 임동억, 정광묵, 정기섭, 최병웅, 한우광, 한제균, 한태욱, 황수목

사역권사: 강수지, 고봉주, 곽은영, 기애나, 김경자C, 김명숙B, 김보라, 김선홍, 김성희A, 김영진B, 김은숙D, 김정화A, 김종회, 김진희A, 김현숙A, 노성애, 박은혜B, 박정원B, 박혜경A, 서중화, 오선영, 왕혜원, 윤계옥, 윤광미, 윤귀연, 윤영재, 이경옥, 이인숙A, 이현영, 이혜숙B, 장진숙, 전정희, 정옥란, 정은자, 조 숙, 최경희A, 최경희B, 최미경A, 최진미, 최혜경, 현일란, 황영미B, 황현주

협동권사: 김영숙, 김은정B, 김정선B, 김정자, 문수복, 박희순, 유봉환, 이경복, 이경아, 이경춘, 이승애, 이혜자, 임선자B, 임송강, 임정자, 장양희, 정영자, 조옥순, 최원희

12. 31 송구영신예배

2013

01. 8-12 제9차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
01. 26-27 셀목자 부부 수양회
02. 01-3 심령대부흥회(최 혁 목사)
02. 24 조철희(John Cho) 목사 부임(EM-성인영어)
03. 26-30 수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04. 03 수요성경강좌 개강(10주간)
04. 5-6 심령대부흥회(유진소 목사)
04. 07 일본어 주일예배 발족
05. 19 청년교회 예삶채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05. 21-8. 31 100일 특별 새벽기도회
06. 07-9 심령대부흥회(김한요 목사)
06. 23 장수영, 주은실 선교사 파송예배(5부 예배 시)
06. 25-28 100일 특새 특별 부흥회(정수일 목사)
06. 25-28 VBS 여름성경학교(유년, 초등부)
07. 09-12 VBS 여름성경학교(유아, 유치부)
07. 14 남기대 목사 사임
07. 16-17 워싱턴 D.C. 통곡기도대회
08. 21 힐링콘서트(노형건 찬양선교사)

08. 31-9.1 셀목자 부부 수양회(김한요 목사)
09. 01 김한요 목사 동사목회 시작
09. 21 베델 선교기금 바자회
10. 20 제 33회 OC 교회연합 성가합창제
10. 23 김신현 전도사 목사 안수
10. 27 우상문 전도사 사임, 밀알의 밤(소향, 한희준)
11. 08-10 추계부흥회(박종열 목사)
11. 30-12.1이스라엘 특파원의 성경이야기(남향우 전도사)
12. 01 연례교사만찬
12. 14 김의신 장로 초청 특강(믿음의 건강)
12. 15 손인식 담임목사 선교사 파송 및 송별예배
12. 22 셀교회 종강 및 성탄 축제
12. 24 사랑의 신발 보내기 운동
12. 25 크리스마스 가족예배
12. 29 백철현 목사 사임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병찬, 박종민, 윤송로, 이석희, 이여송
안수집사: 김재훈, 김창남, 유형석B, 조태현, 홍대원
사역권사: 고미혜, 김경숙A, 김상희B, 김승희B, 김오옥, 김유인, 박순임, 백미영, 우희연, 이선민A, 이승연, 이지인, 정미령, 진혜진, 최종희, 최향미, 한현미, 홍정임A
협동권사: 강영렬, 강정엽, 김복희, 김부옥, 김성숙B, 김화섭, 양규숙, 유희분, 윤수자, 이금선, 이태희, 전영순, 정순복, 조성희, 최혜자B, 하윤제, 현성일
12. 31 송구영신예배

2014

01 .05 김한요 목사 4대 담임목사 부임
01. 05 박준식 목사 부임(1세), 한순고 전도사 부임(환우)
James Suh 전도사(초등부) 부임

01. 2-11 제10차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
01. 25 셀목자 부부 수양회(담임목사)
01. 26 양준호 전도사 사임
02. 02 조혜성 전도사 부임(영아부)
02. 12 결산총회
02. 15 조찬모임 발족(연 4회)
02. 22 제1기 베델 중보기도자 훈련학교
03. 23 의료인의 밤
03. 28-29 소망 힐링동산
04. 02-4 남가주 열린 말씀 컨퍼런스
04. 14-18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04. 19 새생명축제 음악회
04. 20 부활주일/새생명축제
05. 01 목요 정기 중보기도회 발족
05. 15-16 임마누엘 수양회
05. 17 순결서약식
06. 06 마약중독 예방 및 치유 세미나
06. 20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KAMHC)
06. 29 박철홍 목사 사임
06. 30-7.3 VBS 여름성경학교(1학년-6학년)
07. 8-11 VBS 여름성경학교(유아, 유치부)
07. 14-17 워싱턴 D.C.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07. 27 김진우 목사 사임
08. 05-8 VBS 여름성경학교(소망부)
08. 13 김수열 장로 선교사 파송예배
09. 01 제1회 전교인 명랑운동회
09. 05 베델 MIT 대학(시니어) 발족
09. 05-7 부흥회(허 영 목사)
09. 10 윤재웅 집사 선교사 파송예배
09. 14 전도사 임명 - 박주남 간사, 임재광 간사, 김영진 간사

10. 05 박정영 전도사 부임(2부 성가대 지휘자)
11. 05 김종만 장로 선교사 파송예배
11. 09 시리아 난민 가정 돕기 300 프로젝트
11. 19 최문혁 장로 선교사 파송예배
12. 07 연례교사만찬
12. 10 교인총회
12. 17 정유경 자매 선교사 파송예배
12. 20-21 성탄 음악 축제(성가대, 오케스트라), 성찬식
12. 24 주일학교 성탄행사, 어린이 뮤지컬
12. 25 성탄절 Family Worship
12. 28 임직예배
사역장로: 백영만, 황순현, 선상균, 김인권, 강현석
안수집사: 정우영, 백권기, 서형렬, 석승진, 이동훈, 이해원, 황세헌, 기대도, 김범진, 김종학, 박관규, 오세영, 이 광, 이동오, 정신균, 박원규, 손상현, 오 철
사역권사: 강기숙, 강영순, 김경란B, 김선미A, 김선희B, 이낙주, 임선미, 최미화, 한영자, 한자영, 황영미A
협동권사: 권명숙, 권명희, 김수미, 김영순, 김인화, 박혜경B, 서숙자, 안영순, 안이선, 연이구, 이종남, 장계순, 장광숙
12.31 송구영신예배 / 성찬식

2015

01. 2-10 11차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
01. 04 임시총회
01. 15 강명식 찬양 콘서트
01. 18 미션의 날 발족
01. 25 MOD(사역박람회)
01. 30-2.1 심령부흥회(박은조 목사)
01. 31 셀목자 부부 수양회
02. 01 김한요 담임목사 위임예배

02. 01 정 산 전도사 부임(예삶채플 청1)
02. 08 베델 의료인의 밤
02. 11 결산총회
02. 26-28 동아시아 선교회 국제이사회
03. 01 이은희(Grace Yi) 전도사 사임
03. 6-4.3 킹덤스쿨 훈련세미나
03. 07 은퇴장로 조찬모임 시작(년 4회)
03. 30-4.3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및 새생명 음악회
04. 05 새생명축제
05. 26-27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06. 20 CTS 희망 나눔 콘서트
06. 28 셀목자 부부 뱅퀫
06. 28 박병기 목사 사임
07. 13-16 워싱턴 D.C. Summer Internship and Mission Conference
07. 26-9.30 Recycle for Missions, 아프리카 재활용품 수집
08. 09 김정섭(Justin Kim) 목사 부임(EM-성인영어)
08. 23 오중석 목사 사임
09. 06 조철희 목사 사임
09. 07 전교인 가을 명랑운동회
09. 20 밀알의 밤
10. 01 1차 주행(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개최
10. 04 LA 통곡기도대회
10. 04 김혜원 전도사 사임, 김혁동 전도사 사임
양윤선 전도사 부임(가정사역 및 심방 담당)
이진아 전도사 부임(교회학교 디렉터)
김영성 전도사 부임(유년부)
10. 18 정상준 목사 사임
10. 31 Family Fall Fest
11. 01 정승락 목사 부임(1세)
11. 11 김토성 집사 가정 선교사 파송예배(남아공)

11. 22 양혜선 전도사 사임
11. 29 다민족 연합기도회
12. 06 연례교사만찬
12. 17 2차 주행(2017년 임직자)
12. 20 정유성 목사 사임
12. 20 Children's Christmas Musical
12. 25 성탄절 Family Worship
12. 27 임직예배
사역장로: 곽태일, 이상태, 최규덕, 최주상, 탁정호
안수집사: 김도석, 김병수, 김병희, 김양래, 김유호, 김재평, 박기준, 박선재, 배진용, 성주영, 유봉현, 이광수, 이봉윤, 이삼열, 이원배, 이윤수, 이 헌, 임낙현, 전승윤, 정필주, 한종국, 함경일, 허 연, 황정환, 코바야시 다카시
사역권사: 강경신, 강문정, 김정희E, 심철경, 이명화, 이인선B, 이현덕, 이효숙, 임명신, 임정빈, 최미옥, 하선희, 홍혜정, 황은아, 황준옥
협동권사: 김명선, 김인자, 김정열, 노은영, 박건자, 박명원, 박신애, 박혜정B, 서제인, 석기숙, 손매희, 윤건희, 윤문숙, 윤영희, 이 숙, 이영숙B, 이행자, 이형옥, 장은희, 정명진, 최순옥, 하경옥
12. 27 고현권 목사 사임
12. 29-1.9 12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12. 31 송구영신예배 및 성찬식

2016

01. 03 3차 주행(2017년 실행위원회)
01. 10 주성필 목사 부임(1세), 김형균 목사 부임(예삶채플)
01. 10 유한성(영옥) 목사 과테말라 협력선교사 시작
01. 17 미션의 날
01. 24 MOD(사역박람회)
02. 06 3기 중보기도학교(4주)
02. 7-28 On Time Campaign

02. 11 4차 주행(2016 모든 사역팀장)
02. 11,12 1기 Beyond the Blue 가정회복 및 위로 세미나 발족
03. 10 5차 주행(은퇴장로 부부)
03. 21-25 고난주간 특별저녁집회 및 새생명 음악회
03. 27 서동민(James Suh) 전도사 사임
03. 27 새생명축제
04. 2-3 뮤지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공연
04. 11-14 64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04. 14 6차 주행(요한, 바울공동체)
04. 16 VBS 교사 컨퍼런스
04. 17 7차 주행(디모데공동체)
04. 25-5.2 몽골해외동산
05. 01 8차 주행(누가공동체), 예삶채플 8주년 기념 올림픽
홈페이지(www.bkc.org) 개편
05. 05 9차 주행(마태, 마가공동체)
05. 9-19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05. 12-22 터키 아웃리치 및 연중회
05. 21 교회학교 순결서약식
05. 22 자녀교육 세미나(신애라 집사)
06. 04 홀트패밀리 피크닉
06. 11 순결서약식(BYM-영어 중고등부, CIM-한어 중고등부)
06. 12 전교인 피크닉(Mason Park)
06. 19 셀목자 부부 뱅킷
06. 24-25 제6차 한미의료선교대회(GMMA)
06. 26 임재영 목사 사임
06. 29 황현주 선교사 파송예배(캄보디아)
07. 11-14 워싱턴 D.C. Summer Internship and Mission Conference
07. 20 3차 베델장학생 후원
07. 22-24 제1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김희석 목사, 박응규 목사,
정승원 목사, 채규현 목사)

08. 27 셀목자 부부 수양회
08. 28 조철희(John Cho) 목사 사임
09. 04 김섭리 목사 부임(찬양)
09. 11 설립 40주년 감사예배, 본당 LED 스크린 완공(5.31-9.10)
09. 17-24 선교기금모금- 한국화 전시회
09. 20 중,장기 선교훈련(7회)
09. 26-27 교회연합 및 실크웨이브 이사회
10. 14-16 추계부흥성회(박수영 선교사)
10. 22 소망 소사이어티 세미나
10. 22-30 LA 93기 아버지학교(4회)
10. 23 다민족연합 기도대회
10. 30 장영락 목사 사임
10. 31 Family Fall Fest
11. 06 정의찬(Tim Chung) 전도사 부임(초등부)
11. 19 소망힐링캠프
11. 20 설립 40주년 기념축제, 셀종강(셀별터키만찬)
양윤선 전도사 사임
12. 03 임마누엘 경로대잔치
12. 04 연례교사만찬
12. 07 연말제직회
12. 14 교인총회
12. 15 10차 주행(신임 임직자)
12. 17 어린이 뮤지컬
12. 18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진성, 다무라고조, 송석원, 윤주원
안수집사: 강영범, 강정훈, 김동건, 김응진, 김진원, 김학남, 김효선, 노승남, 박세환, 박재영, 서태석, 장문석, 장재혁, 조성용, 조에녹, 주용중, 최진호
사역권사: 김지혜, 김한나, 박윤영, 서정희, 안정선, 오경숙, 오미숙, 유선애, 이태연, 정정애, 채수정, 최옥환, 탁영주, 허혜영, 황광희

12. 23 유아, 유치부 성탄 발표회
12. 25 성탄감사주일
12. 31 송구영신예배(1부, 2부로 드리기 시작)

2017

01. 01 신년감사주일, 성찬식
01. 02 13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1. 08 11차 주행(실행위원회)
01. 15 미션의 날, 선교헌금 작정
01. 22 교회학교 Drug 세미나(CIM-한어 중고등부와 FBI 주관)
01. 28 셀목자 부부 수양회
01. 29 MOD(사역박람회), 최미정 전도사 사임
02. 01 결산총회
02. 04 조찬모임(은퇴목사부부, 싱글사모), 4기 중보기도학교
02. 05 강문구 목사 부임(1세), 이은상 전도사 부임(예삶채플)
02. 11 시니어 경로사역
02. 24-26 해외 여성 선교사(GP) 베델동산
02. 25 교회학교 POP(Promise of Purity, 순결서약식)
03. 3-5 춘계부흥성회(김용훈 목사)
03. 05 Kid's DT(어린이제자훈련) 발족
03. 12 수박헌금, 학부모세미나(성경 Test-송지혜 교수)
03. 19 12차 주행(2017년 실행위원, 프로젝트 사역팀장)
03. 22 정기제직회
04. 01 얼바인지역 찬양연합집회
04. 09 세례/입교식(2부)
04. 10 고난주간 특별저녁집회(김은일 교수, 정승룡 목사, 김한요 목사)
04. 14 성금요일, 성찬식
04. 15 교회학교 어린이 전도협회 세미나(CEF)
04. 16 새생명축제, 2017 교회요람 발간
04. 29 시니어 효도관광

05. 07 예삶채플 9주년 기념 올림픽
05. 14 비전케어 '길 위의 빛-아프리카' 사진전
05. 20, 27 미디어 강좌
05. 21 일본어 4주년 감사 예배, 베델선교관 매입
05. 28 EM 전체 수련회
05. 30 교회학교 제자훈련 졸업식
06. 03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음악회
06. 17 컴패션 간증 및 찬양집회(가수 션)
06. 18 컴패션 선데이(차인표 집사 간증)
06. 20-23 VBS 여름성경학교(유년, 초등부)
06. 25 셀목자 부부 뱅퀫
06. 27-30 VBS 여름성경학교(유아, 유치부)
06. 28 정기제직회
07. 01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7.1~29 매주 토요일)
07. 10-13 워싱턴 D.C. Internship Mission Conference
07. 23 CCM 가수 박종호 장로 찬양간증집회
07. 28-30 제2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박응규 목사, 오태균 목사, 온세상 목사, 정승원 목사)
08. 20 교회학교 졸업식
08. 27 이기원 전도사 부임(유년부), 정은성 전도사 부임(유아부)
09. 1-3 추계부흥성회(홍기영 목사)
09. 02 셀목자 부부 수양회
09. 07 캄보디아 선교기금마련 골프대회
09. 10 41주년 교회설립기념예배, 김한요 목사 저서 '러브레터' 출간
09. 16 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
09. 17 밀알의 밤
09. 23 베델한국학교 학부모세미나(켄 안 선교사)
09. 30 베델 한가위 축제(선교바자회)
10. 04 정기제직회
10. 19 C성전 CUP Irvine시로부터 만장일치 통과

10. 23-11.2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순례
10. 31 Family Fall Fest
11. 20 13차 주행(풀타임/하프타임 목회자)
12. 01 김충만(Daniel Kim) 전도사 부임(교육디렉터, BYM-영어 중고등부)
12. 03 연례교사만찬
12. 06 정기제직회
12. 13 교인총회
12. 14 14차 주행(2018년 신임 임직자)
12. 16 사회봉사(양로병원 방문)
12. 17 장창호 목사 사임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건성, 김근수, 김병찬, 김 샘, 정우영
안수집사: 강재형, 김병인, 김정욱, 박제균, 박지학, 안지호, 여홍평, 이영복, 정현근, 황사균
사역권사: 강온자, 김수진, 김순영, 김영옥, 김운주, 김 진, 김혜미, 박지연, 서수경, 서영희, 오경희, 오은옥, 유미경, 이계현, 이선주, 임주연, 정연희, 조진희, 지지영, 차은하, 최현희, 허미상
12. 24 성탄감사예배, 어린이 뮤지컬 발표회
Stanley Ng 전도사 사임
12. 31 송구영신예배(1, 2부)

2018

01. 2-7 14차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김진영 선교사, 허드슨 선교사, 안순자 선교사, 장야곱 선교사)
01. 07 신년감사주일, 성찬식, VIP 1차 작정, 15차 주행(실행위원)
서찬석 전도사 부임(예삶채플-청3)
01. 7-28 신임 셀목자 훈련(4주간, 매 주일)
01. 17 부서장 상견례
01. 21 미션의 날, 정성은 목사 부임(1세), 김신현 목사 사임

01. 24 2017년 가을학기 양육반 수료식
01. 27 셀목자 부부 수양회
01. 28 MOD(사역박람회), 박은성 목사 사임, 박종희 전도사 사임,
김홍식 목사 부임(1세), 정은성 전도사 CIM 담당
02. 04 봄학기 셀모임 개강, 교회학교 POP, 어린이 전도폭발 개강,
손용주 전도사 부임(일본어 예배)
02. 06 양육반, 청지기 재정교실 개강
02. 10 조찬모임(은퇴목사와 사모), 단기선교팀장 모임
02. 11 유스오케스트라 공연, 정기 실행위원회
02. 14 제1회 Reignite Worship 발족
02. 15-3.29 Mission Exposure 선교훈련
02. 16-18 예삶채플 청2 공동체 수양회
02. 18 2차 VIP 작정, 오픈셀
02. 23-24 부부동산
03. 01 Beyond the Blue 개강
03. 2-12 멕시코 1일 단기선교, 교회학교 순결서약식
03. 04 정가영 전도사 부임
03. 06 Women Alive 개강, 베델생활강좌 개강
03. 6-16 이스라엘 성지순례
03. 11 수박헌금
03. 16-18 예삶채플 청3 공동체 수양회
03. 18 3차 VIP 작정, Drill Sunday(점심무료쿠폰)
03. 20-21 49차 전도폭발훈련 개강
03. 21 정기제직회
03. 22 새가족만찬
03. 23 YWCA 여성 유방암 검사
03. 25 종려주일
03. 26-30 고난주간 특별저녁집회
03. 30 성금요일, 성찬식
03. 31 CEF Conference(교회학교)

04. 01 부활주일, 새생명축제, On Time Campaign(4월 한달)
04. 2-12 베트남 비전트립(수행: 정승락 목사)
04. 5-8 멕시코 과달라하라 단기선교(수행: 주성필 목사)
04. 08 교회학교 학부모 세미나
04. 13-15 제3차 베델신학강좌
04. 15 일본예배 5주년 기념예배
04. 15-25 이집트 난민 사역(수행: 정승락 목사)
04. 16-18 국제 동아시아 이사회
04. 18 임시교인총회
04. 29 통곡기도대회
05. 13 세례/입교식(주일 2부 예배 시)
05. 19 베델한국학교 종강, 유스오케스트라 연주회
05. 26 BAM 컨퍼런스(서명구 교수, 이민동 목사, 김진수 선교사, 장과장 선교사, Joshua Park 목사)
05. 27 유아세례식
05. 29-6.1 BAM 집중훈련(Jeffrey Lee 선교사, 김성수 선교사, 손원민 교수)
06. 1-3 베델부흥집회(백동조 목사)
06. 4-8 BAM 집중훈련 계속(Jeffrey Lee 선교사, 김성수 선교사, 손원민 교수)
06. 10 마틴루터킹 목사 서거 50주년 기념 음악회, 딸기헌금,
봄학기 셀모임 종강, 정기 실행위원회
06. 11 페루단기 선교(수행: 김홍식 목사),
과테말라 단기선교(수행: 한순고 전도사),
유스 오케스트라 단기선교(수행: 박정영 전도사)
06. 13 베델제자훈련, 양육반 수료식
06. 18-21 VBS 여름성경학교(유년, 초등부)
06. 19 전도폭발훈련 종강
06. 19-30 예삶 몽골 단기선교(수행: 김형균 목사)
06. 22-23 GMMA 글로벌의료선교대회
06. 26-29 셀목자 부부 뱅퀏
07. 3-7 교회학교 창조과학 캠프

07. 3-12 BYM 아리조나 단기 선교, 워싱턴 D.C. Internship Mission Conference(수행: Daniel Kim 전도사)
07. 5-14 예삶 터키 단기 선교(수행: 김형균 목사, 정승락 목사)
07. 9-12 1세 워싱턴 D.C. 인턴십 컨퍼런스(수행: 김홍식 목사)
07. 9-8.3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
07. 12 16차 주행(은퇴장로)
07. 13-15 초등부 여름캠프
07. 14-20 CIM 클리브랜드 단기 선교(수행: 정은성 전도사)
07. 16-20 베델워십팀, 예삶 달라스 단기 선교(수행: 김섭리 목사, 정승락 목사)
07. 21-31 BYM 일본 단기 선교(수행: Gene Kim 전도사)
07. 23-8.3 EM 인디아 단기 선교(수행: Timmy Chung 전도사)
07. 25 김희아 집사 간증 집회
07. 26 새가족 만찬
07. 30-8.6 교회학교 온두라스 단기 선교(수행: 이진아 전도사)
08. 2-5 멕시코 과달라하라 단기 선교(수행: 정승락 목사)
08. 7-10 VBS 여름성경학교(소망부)
BYM-영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08. 9-11 CIM-한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08. 11 새가족 1일 교육
08. 12 박호성 간사 부임(AWANA)
08. 13-15 KM 풀타임 목회자 컨퍼런스
08. 19 교회학교 졸업식, 바이블 클럽 개강
08. 23 B+B 이혼가정(자녀) 회복 세미나 개강
08. 25 셀목자 부부 수양회, 베델한국학교 개강
08. 26 교회학교 Open House
08. 28-29 KM 공동체 목사를 위한 청지기재정교실
09. 02 가을학기 셀모임 개강
09. 03 전교인 베델 명랑운동회
09. 3-11 J국 단기선교(수행: 강문구 목사)
09. 04 50차 전도폭발훈련 개강, 제자훈련 개강,

Women Alive 개강
09. 04-8 온두라스 단기선교(수행: 정승락 목사, 한순고 전도사)
09. 09 42주년 설립기념주일, 성찬식, 미션의 날(2차 선교작정),
이승진 전도사 부임(유치부)
09. 09-16 캄보디아 단기선교(수행: Grace Yi 전도사)
09. 12 정기 제직회, 제4회 Reignite Worship
09. 15 은퇴장로(부부) 조찬모임
09. 26 교회학교 See you at the Pole Campaign
09. 27-10.6 남아프리카공화국 단기 선교(수행: 박준식 목사)
10. 10 제1회 베델인의 밤(한국)
김한요 목사 저서 '로마서 강해' 출판 기념회
10. 14 밀알의 밤
10. 25 새가족만찬
10. 26-28 94차 베델동산, 예삶 연합수련회
10. 31 자녀들과 함께하는 연합 수요예배, Family Fall Fest
11. 03 멕시코 1일 단기선교
11. 04 세례, 입교식
11. 4-5 2019년 목회자 정책회의
11. 6-14 터키 BAM 전문인 선교(수행: 정승락 목사)
11. 9-10 EM Staffs Retreat
11. 11 유아세례식
11. 17 베델한국학교 민속축제
11. 18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공동체 발표회
11. 22 추수감사절, 유학생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만찬(예삶 채플)
11. 25 정성은 목사 사임
11. 26-27 실크웨이브 이사회
11. 28-12.4 루마니아 비전트립(김한요 목사, 정승락 목사)
12. 01 시니어 경로잔치, EM 요르단 단기선교,
유스오케스트라 연주회
12. 02 교회학교 학부모 세미나

12. 05 연말 정기제직회, 전도폭발훈련 수료식
12. 08 사회봉사(양로원 방문-Hug를 나눕시다)
12. 09 가을학기 셀모임 종강, 연례교사만찬
12. 12 교인총회, 황순현 장로 선교사 파송 예배
12. 13 17차 신임임직자 주행
12. 16 임직예배
사역장로: 김백열, 김병주, 박종민, 왕동원, 허용진
안수집사: 강현민, 김성균, 김종곤, 박기승, 박성규, 박용만, 오충근, 윤영우, 이명환, 이봉재, 이완희, 이제석, 이희정, 임용석, 정재홍, 천승현, 최용덕, 최호석, 하관수
EM 안수집사: Charles Baik, Tim Sohn, Hong Yang, Cara Kim, Harold Lee
사역권사: 강혜란, 김유미, 김회영, 류설희, 문현숙, 박승란, 박향숙, 서은조, 손소원, 신현진, 이영옥, 정기숙, 정윤숙, 최경애, 최희수, 최희윤, 함수영
12. 19 신앙 간증 집회(로봇다리 세진이의 엄마 양정숙 집사)
12. 20 새가족 만찬
12. 23 성탄 감사 주일
12. 25 성탄절 Family Worship
12. 26-29 BYM 겨울 수련회
12. 27-29 CIM 겨울 수련회
12. 30 실행위원회 연말모임
12. 31 송구영신예배(1, 2부)

2019

01. 2-5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1. 06 신년감사 주일, 성찬식, 18차 주행(실행위원회)
상반기 신임 셀목자 훈련(4주간)
01. 13 미션의 날, 바이블클럽, 양육반, 청지기 재정교실 수료식
01. 16 사역팀 부서장 상견례

01. 25-27 예삶 청년 1목장 수양회
01. 27 MOD(Ministry Opportunity Day: 사역박람회)
영, 유아부 졸업식
01. 20 전도세미나(국제전도폭발 미주본부 이표 이희문 목사)
02. 09 셀목자, 초원지기 부부 수양회
02. 10 봄학기 셀모임 개강
02. 13 결산총회(2018년 결산)
02. 17 이충경 목사 부임, 어바인 성교육에 관한 학부모 긴급 세미나
02. 23 영유아 언어발달과 언어장애 평가 세미나
02. 24 이정훈 교수 특별강의
03. 02 The Zero by 2020 Vision 위탁입양세미나
03. 07 제 19차 주행(제자반)
03. 08-10 남가주 성경적 세계관 학부모 컨퍼런스
03. 15-17 심령부흥성회(이종식 목사,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03. 23 멕시코 1일 선교
03. 27 정기제직회
03. 28 새가족만찬
03. 29-30 제 20차 주행(1목장)
03. 31 Gene Kim 전도사 사임
04. 07-28 On Time 캠페인, 주차 Drill Sunday
04. 14 어린이 제자훈련 졸업식
04. 15-19 고난주간 특별저녁집회(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04. 19 성금요일 예배, 성찬식
04. 21 부활주일 감사예배
05. 03-5 예삶 청2,3 목장 수양회
05. 12 세례/입교식, 일본어 6주년 감사예배
05. 17-19 제 95차 베델동산
05. 24-25 제 21차 주행(2목장)
06. 01 제 22차 주행(3목장)
06. 09 셀모임 종강

06. 12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06. 13 새가족만찬
06. 14-15 예삶 청년목장 리더수양회
06. 15 멕시코 1일 선교
06. 16 셀목자(부부) 만찬
06. 18-21 유년/초등부VBS
06. 25-28 유아/유치부VBS
07. 17 정기제직회
07. 16-19 BYM영어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07. 23-26 어린이 창조과학캠프
07. 24 제 6회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 특별예배
07. 28 정산 목사 사임
07. 30-8.2 소망부 VBS
08. 2-4 제 4차 한여름의 신학강좌
08. 4-25 신임셀목자 훈련(4주간)
08. 5-10 온두라스 시니어 단기선교
08. 7-10 CIM한어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08. 18 교회학교 졸업식
08. 24 땅끝 선교! 2019선교바자회
08. 25 서 진 전도사 사임
08. 31 베델기도사역 연합수련회
09. 01-8 캄보디아 단기선교
09. 07 셀목자, 초원지기(부부) 수양회
09. 08 셀모임 개강
09. 09 본당 무대 업그레이드 공사 시작
09. 13-14 44차 부부동산
09. 15 성찬식, 영아부실 이전 기념예배
09. 18 선교사 파송예배(서형렬/서정희)
09. 19 새가족만찬
09. 20-22 제 2회BAM 컨퍼런스

09. 22 Daniel Kim, 김영성 전도사 사임
09. 29 이은우 목사 사임
10. 02 정기제직회, 선교사 파송예배(김현수/고봉주)
10. 06 전교인 피크닉
10. 06-14 T국 단기선교
10. 13-11.3 신임셀목자 교육(4 주간)
10. 26 Tom Kraeuter 초청 예배 찬양 세미나
10. 31 Family Fall Festival
11. 02 멕시코 1일 선교
11. 15-17 제96차 베델동산
11. 17 세례/입교식, John Yeo 목사 부임
11. 24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12. 01 셀모임 종강, 선교 만찬
12. 04 정기제직회, 전도폭발훈련 수료식
12. 4-14 기니비사우 단기선교
12. 08 교사만찬
12. 11 교인총회
12. 12 신임임직자 주행
12. 15 임직예배
12. 19 새가족만찬
12. 21, 28 2020신임임직자 사관학교
12. 25 성탄감사 가족예배 및 어린이 뮤지컬
12. 26-28 CIM겨울수련회/BYM 겨울수련회
12. 31 송구영신예배

2020

01. 05 신년감사 주일, 성찬식, 24차 주행(실행위원)
상반기 신임 셀목자 훈련(4주간)
01. 06-11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01. 15 양육반, 청지기 재정교실, 바이블 클럽, BAM훈련 수료식

01. 17-19 킹덤스쿨
01. 19 미션의 날, 교사 세미나, 유아부 졸업식
01. 22 결산총회
01. 26 학부모 세미나(최성은 목사/지구촌 교회)
박준식 목사 사임, Eliot Kim 전도사 사임
01. 29 사역팀 부서장 상견례
01. 31-2.2 심령대부흥회(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02. 01 셀목자, 초원지기 부부 수양회
02. 09 MOD(Ministry Opportunity Day)
셀모임 개강
02. 15 김지연 약사 특별세미나
02. 18 이희문 목사 전도세미나
02. 28-29 25차 주행(4목장)
03. 03 생활강좌 봄학기 개강, 제자반 주행
03. 05 새가족환영회
03. 07 우간다 이순영 선교사 선교 보고
04. 01 고 손인식 목사님 온라인 천국환송예배(오후3시)
04. 02 고 손인식 목사님 부활대망예배(오후1시)
04. 06 고난주간 특별 아침영상 메시지 방영 시작
04. 10 성금요일 온라인 특별예배(저녁7시)
04. 11 격려 메시지 나누기 캠페인
04. 12 부활주일 온라인 감사예배
04. 21 베델 사랑나눔 프로젝트 #1: 사랑의 박스 전달
04. 26 베델 사랑나눔 프로젝트 #2: 선교지 긴급구호헌금
05. 01 Zoom 온라인 기도회 공식 시작(목요 Do Dream, 금요 faceGod)
05. 03 베델 사랑나눔프로젝트 #3 장학특별헌금
히브리서 강해-새로운 주일말씀 시리즈 시작
교회학교 웹사이트 오픈(http://churchschool.bkc.org)
06. 1-5 잔잔한 아침영상 부흥회(김태권 목사, 이찬수 목사, 이종식 목사, 백동조 목사, 김용훈 목사)

06. 01 영어권 사역- Bethel Grace Church 이름변경
베델 미디어 사역 - BTV로 이름 변경
셀목자 격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캠페인
06. 05 1차 자녀들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온라인 세미나(6월 매주 금요일)
06. 07 '셀모임은 계속됩니다' 캠페인
현장예배 사전점검 예배(실행위원회)
06. 13 베델교회 현장예배 안내 영상, 카톡, 홈페이지 공지
06. 14 현장예배 사전점검 예배(프로젝트 팀장)
06. 18 온라인 VBS 설명회
06. 21 현장예배 오픈 예정일(각 예배당 100명 선착순)
06. 28 정은성 전도사 사임
07. 03 2차 자녀들을 위한 영어 성경적 성교육 온라인 세미나
07. 05 온라인 VBS(4주간)
07. 19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07. 25 교회 코트야드 0부예배 시작(매주 토)
07. 26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금 수여식
총54명(베델교회22명, 지역사회 16명, 선교사 자녀 13명, 목회자 자녀3명)
07. 28 아침영상 메시지 100회 특집
08. 02 BYM 영어 중고등부 제자훈련 시작(9월 20일까지)
이현우 목사 사임, 강문구 목사 예삶 총괄 부임
목장(셀) 재편성:
동(믿음목장: 김형균 목사)
서(소망목장: 주성필 목사)
남(사랑목장: 이충경 목사)
북(은혜목장: 김홍식목사)
08. 06 목장개강예배
08. 09 하반기 신임 셀목자 훈련(4주간)
08. 29 Drive Thru. 졸업식
09. 02 제5차 베델신학강좌 1강
09. 08 베델제자훈련 8기 개강 / 양육반 개강

09. 09 제5차 베델신학강좌 2강
09. 12 셀목자, 초원지기 부부 수양회
09. 16 제5차 베델 신학강좌 3강
09. 20 실내 현장예배(1,2,4부) 시작
09. 23 제5차 베델신학강좌 4강
09. 25 M미팅 “선교사를 만나다”(루마니아 편)
09. 30 제5차 베델신학강좌(패널토의)
09. 30 정기제직회
10. 04 Cafe Mission 1.8 @ Harvard soft open
10. 08 비전채플 레노베이션 시작
10. 21 제자반 공개 강의
10. 22 독감예방접종(무료)
10. 23 M미팅 “선교사를 만나다”(T국)
10. 24 유아세례식(0부 예배)
10. 25 포도헌금(교회학교 교사 감사선물)
11. 08 세례 및 입교 교육 오후 1시
11. 08 CIM 이형석 전도사 부임
11. 09 2020 베델 감사 챌린지 1주차(9일, 12일)
11. 15 Cafe J Bene 실외 카페 soft open
세례 및 입교식(2부 예배)
11. 16 2020 베델 감사 챌린지 2주차(16일, 19일)
11. 20 Family Fall Fest - “Warriors of Faith”
11. 21 0부 예배 성찬식
11. 22 추수감사주일
11. 28 0부예배, 추수감사절 감사콘서트(야외)
12. 05 토요 헵시바 예배(강사: 이승훈 선교사)
12. 06 BYM Jr. High 현호승 전도사 부임
12. 09 연말 제직회(온라인)
12. 12 토요 헵시바 예배(강사: Julius Kim, TGC대표)
12. 15 아침영상 메시지 200회 특집

12. 16 교인총회(온라인)
12. 24 크리스마스 이브 감사 가족예배(야외 4시)
12. 25 크리스마스 감사예배(오전 10시30분)
목장별 성탄찬송 UCC 페스티발
12. 27 강수민 전도사 사임
12. 31 온라인 송구영신예배

2021

01. 03 신년 감사 주일예배(온라인)
01. 3-24 신임 셀목자 훈련(4주간)
01. 4-9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온라인)
01. 16 엘리야 특별새벽기도 개근상 전달
(1,200여명의 성도, 240여 명의 교회학교)
01. 24 제자훈련 수료식(온라인)
01. 27 결산총회(2020년 결산)
01. 31 온라인 선교박람회
02. 15 아침영상 특별이벤트('봄' 사진 또는 영상)
02. 20 셀목자 수양회
02. 21 박경철 목사님 부임
03. 7-28 신임 셀목자 훈련(4주간)
03. 19 제 27차 주행(제자반)
03. 28 고 손인식 목사님 1주기 추모예배
03. 29-4.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및 성금요일 예배
04. 02 성금요일 예배, 성찬식
04. 04 부활주일 예배, 세례, 입교
김섭리 목사 사임
04. 8-18 교회학교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04. 09 제 28차 주행
(예배팀, 베델워십팀, 오케스트라팀, 예배 FD팀, 미디어팀, 헵시바워십팀)
04. 10 M미팅 "선교사를 만나다"(멕시코 과달라하라 편)

04. 16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베트남 편)
04. 17 새가족환영회
04. 24 남가주 일본인 교회 연합 찬양예배
04. 30 베델서점 폐점
05. 02 M미팅 “선교사를 만나다”(니카라과 편)
05. 18 아침영상 메시지 300회 특집 “산상큐티”
05. 21 M미팅 “선교사를 만나다”(태국 편)
05. 23 교사 컨퍼런스, 장학특별헌금(3주간)
Bethel Classical Academy 설명회, 장지은 전도사 부임
05. 28 CIM 졸업만찬
06. 04 BYM 졸업만찬
06. 06 Bethel Classical Academy 설명회, 예삶 새가족환영회
06. 10 M미팅 “선교사를 만나다”(코스타리카 편)
06. 11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온두라스 편)
06. 13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06. 13 BYM 고등부 제자훈련 “Road to Emmaus”(8주간)
06. 30 온라인 VBS 설명회
07. 04 셀모임 방학
07. 4-18 아침영상메시지 여름이벤트
07. 11 임시총회(BCA 추가경정예산)
07. 25 몽골 예삶 온라인 단기선교(10주간)
07. 29-29 일본 리모트 단기선교
08. 1-21 베델 공모전 “칭찬합시다”
08. 5-7 CIM 여름수련회
08. 11-13 BYM 고등부 여름수련회
08. 22 예삶 홈커밍데이 집회
08. 23 Bethel Classical Academy 개교
08. 27-30 BYM 중등부 여름수련회
08. 29 교회학교 졸업식
09. 04 교회학교 새학기 시작

09. 10-12 베델전교인 심령부흥성회
09. 10 베델교회 설립기념일
09. 11 2021가을 셀목자 수양회
09. 26-10.24 미디어 리셋 캠프

※ 참고:
01. 교회요람 원칙에 따라 전년도 사역만 상세히 기록해 드립니다.
02. 기타 연도의 모든 교회연혁은 교회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평신도 모임의 역사(구역 및 셀 모임)

1976년 9월 교포 30명이 함께 윤용오 목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가진 이후 1977년 등록 교인의 수가 140명에 이르면서 7월 베델 교회로 이름을 등록을 하고 교회 헌장을 만들고 당회를 구성하며 제직을 임명함에 따라 교회의 조직을 갖추다. 기록 문헌에 보면 당해 4월일에 유영옥집사를 회장으로 여전도회를 창립하면서 구역 집회에 25명이 모이다.

1978년 후반에는 등록 교인이 180명으로 늘면서 구역 집회 원수가 32명이 모였다고 기록 되어있다. 이해에 여전도회 외에 학생회가 창립되고 성경공부반과 기도회 친목회 그리고 야유회등으로 모이다.

1978년 1월7일 베델 교회 회원 명단

베델한인교회 11. 회원명단 1978년1월7일

0.	김광신	김영진	김동백	김정실	김원규
	김은숙	김성복	김동심	김순미	김대호
1.	김수백	김관희	김영철	김숙기	김정환
	김순덕	김영식	김용순	김충모	김영숙
2.	김백원	김창주	김정자	박순이	박경숙
	박선화	배덕찬	배영자	배병준	배규희
3.	박규화	변승욱	문학선	문형숙	서정우
	서송원	서 진	신 영	신복생	유워길
4.	유귀순	유한성	유영옥	유 호	유인숙
	윤용오	윤현락	윤혜현	이경성	이순건
5.	이상열	이금자	이문자	이지연	이영희
	이천구	이성희	안종식	안영옥	성 리
6.	장은석	장혜자	정대용	정형숙	정상원
	정도숙	정승일	정숙자	정수송	정명진
7.	정원만	정정음	정정덕	정명자	조 영
	조경희	최금화	최미희	최순철	최정학
8.	은종삼	은영두	탁성룡	탁수정	홍창신
	홍광자	홍박신	홍덕주	한쇼향	황운립
9.	황명훈	황인종	황창하	황윤희	김숙자 (95명)

1979년에는 장년회, 노인회, 청년회, 베다니 형제회가 생겨나고 12월에는 남전도회가 창립되다.

구역 편성및 지역장 구역장을 세우며 구역예배 시작

1980년에 등록 교인이 230명이 되면서5개지역(Mission Viejo, Laguna Hills, El Toro, Irvine, Tustin)에 14개 구역을 편성하여 지역장및 구역장을 임명하고 구역회를 하였다고 되어있다. 당해 4월19일에는 연합 구역예배를 드리다.

년도	여러 모양의 집회
1976	교포 30명이 윤용오 목사 인도로 함께 첫예배를 드리다.
1977	구역 집회원수(25명) 4월3일 여전도회 창립(여전도회 회장: 유영옥집사) 금요 기도회 시작
1978	구역 집회원수(32명) 여전도회/학생회 성경공부/기도회/친목회/야유회
1979	여전도회/장년회/노인회/학생회/청년회/베다니 형제회 12월2일 남전도회 발족 성경공부/기도회/친교부/친목회/야유회/ 매달 셋째주 노인회
1980	구역회 시작 - 구역집회 원수(71명) 5개지역 14개 구역(Mission Viejo, Laguna Hills, El Toro, Irvine, Tustin) 으로 편성하여 지역장및 구역장 임명 4월19일 연합구역예배 실시 10월25일 토요성경 연구반 신설(김광신 장로) 노인회/남전도회/여 전도회/스데반회/학생회 성인성경반 -(주일장년반: 유한성 장로), 노인반(장은석 집사), 성가대반(조영집사), 금요성경반(김충모 전도사)

1981년에 들어 등록 교인이 283명을 늘면서 구역예배 참석인원수도 87명으로 늘어나면서 성인 성경반도 활성화되어 당시 주일장년반을 김충모 집사가, 노인반을 장은석 집사가, 토요성경반은 김광신장로가 인도하다. 1981년5월에는 IWC와 함께 현베델교회 위치인 건축대지를 Irvine Company로 부터 구입을 하다.

1981	구역집회 원수(87명) 5개구역(Mission Viejo, Laguna Hills, El Toro, Irvine, Tustin) 간사 :장은석 노인회/남전도회/여 전도회/학생회 성인성경반 - (주일장년반: 김충모), 노인반(장은석), 성가대반(조영), 금요학생반(김충모) 토요성경반(김광신)

1982년 9월 윤용오 목사가 사임하고11월28일 백태현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다.

1982	구역집회 원수(82명) 노인회(손영봉)/남전도회(김영식)/여 전도회(장혜자)/청년회(김영경)/학생회(태유)
1983	13개 구역으로 재편

1985년 8월 임시 교육관을 설치하고 1984년 기공을 시작한 본당이 22개월만에 준공되어 11월6일 헌당 예배를 드리다.

1988	9개 교구 구역예배 (Laguna Hills, MV, ET, SA, Irvine East, Irvine West, GG, FV, Beach) 남전도회/여전도회/임마누엘회/청년회/기드온회

1989년 8월13일 백태현 목사가 사임하다.

1990년 12월16일 손인식 목사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다.

3대 목사 취임 당시 교인의 수는 약 200명으로 기록되다.

1990	9개 교구 라구나, 쌔들백, 노스우드, 디어휠드, 우드브리지, 터틀락, 터스틴, 가든그로부, 비치
1992	노스우드, 디어휠드, 우드브리지,웨스트팍, 터틀락, 터스틴, 가든그로부, 비치, 아나하임, 휼러튼, 뉴포트, 라구나, 쌔들백
1993- 1994	교인 증가에 따른 교구 증설(1977년 140명)에서 1994년(2,100명) 1/24 - 16개 교구를 6개 증설하여 22개 교구로 편성 5/2 - 22개 교구를 5개 증설하여 27개 교구로 편성

12. 교구/구역 임원일람

1991년도

교구 및 구역명			교구장	구역장	전화번호	강사	전화번호
1	라구나	1구	김영철 (458-8979)	김혜숙	(831-5076)	기영주	(643-3301)
		2구		김인숙	(364-3033)	신진식	(643-5250)
2	쌔들백	1구	이윤호 (544-3218)	이영애	(582-0498)	이대은	(770-7966)
		2구		윤명옥	(458-6628)	고승선	(830-2882)
3	노스운	1구	김관희 (759-3300)	하희자	(522-5421)	하수만	(522-5421)
		2구		홍지원	(559-8581)	유근영	(855-1495)
4	디어휠드	1구	박종길 (522-7702)	김선희	(857-9029)	최홍범	(551-9364)
		2구		김화자	(551-5977)	김대환	(551-5977)
5	우드부리지	1구	김동수 (474-7770)	차미자	(757-0715)	송세헌	(786-6323)
		2구		홍미란	(559-9513)	김 정	(559-6528)
6	터드락	1구	임종식 (552-7162)	김선희	(854-2928)	황희진	(854-6475)
		2구		김동심	(854-7518)	배계자	(854-3164)
7	터스틴	1구	박노영 (964-6785)	정혜경	(838-7035)	안경한	(547-7417)
		2구		이선자	(832-9514)	서동민	(731-7432)
8	가든그로브	1구	최원욱 (857-0387)	박영기	(776-3579)	이규영	(530-7117)
		2구	권장성 (530-8018)	박경혜	(638-1760)	박광웅	(638-1760)
9	비치	1구	장은석 (854-9393)	이혜영	(966-8457)	이원영	(966-8457)
		2구		김경자	(646-7279)	문광치	(892-0175)

(*91총회록/교구구역) 교구/구역임원일람

1995년 등록 교인수가 2000명이 넘으면서 3개의 대교구와 42개의 교구에 140개의 구역으로 구역 예배를 이루다.

대 교구	교구	구역	담당 목사
남부 대교구	12	41	유한성 목사
중부 대교구	14	48	추영옥 목사
북부 대 교구	16	51	빅대균 목사
3 대교구	42 교구	140 구역	

1997년 쎌교회 시작

1990년 12월 손인식 목사가 부임한지 7년이 되던해 구역 예배로 부터 쎌교회의 전환을 위해 쎌 목자를 세우고 쎌 목자 쎄미나를 통해 훈련 시킬것을 기획하다.

8월9-10일 김진홍 목사 초청 특별 집회를 갖고 집회 마지막날인 8월10일 Cell Church 부부 목자 모임을 갖고 쎌 목자들을 세우다.

9월17일-18일에 걸쳐 최영기 목사를 초청해 Cell Church Seminar를 통해 쎌목자를 훈련시키다.

9월28일 Cell Church를 처음으로 시작하다.

1997	8/10 - Cell Church 부부 목자 모임 9/17-18: cell Church Seminar(최영기 목사) 9/28 - Cell Church 시작

교구	목장	쎌
동부 교구	12목장	27 쎌
서부 교구	12 목장	25 쎌
남부 교구	11 목장	28쎌
북부 교구	11 목장	24쎌

1997년 쎌교회 시행 첫해 쎌 목자들

당시에 유한성 목사와 유영옥 사모는 성도들을 잘 파악해서 매주일 오후에 만찬을 준비해서 집으로 초청하여 새로운 쎌원들을 모아 모아서 쎌목자와 결연시켜주곤 하면

서 새로운 쎌을 탄생 시켰던것으로 알려지다. 1997년에 시작된 쎌교회는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델 교회에 잘 정착되어 교회를 이끌어 가는 두개의 큰 수레 바퀴중 하나의 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베델 교회에 구역예배로 부터 쎌교회로의 전환 정착을 시킨 손인식 목사는 2013년 저서 “이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Cell Church 조직표

동부교구

박용준 목사(949-653-

	목장			LEADER(H/W)	
109	노스 우드 (S)	1	막자	손철호	손진자
		2	웰마오	이성식	이성경
110	노스 우드	1	시온	홍락기	홍명숙
		2	사랑	김용서	김인희
111	노스 우드 (E)	1	이웃사랑	하수만	하희자
		2	호렙	이세풍	이순실
113	디어 휠드	1	다니엘	김동진	김수경
		2	주 사랑	김종철	김혜숙
114	그린 추리	1	포도나무	이범석	이혜원
		2	EVERGREEN TREE	박선화	박동실
202	칼리지 팍	1	예기샘	이우연	이현숙
		2	한마음	김동수	김선희
203	우드부리지(E)	1	포도원	김풍원	김지현
		2	한우리	윤건상	윤영순
216	우드부리지(W)	1	Wood Bridge, Bridge to Jesus	최석호	최옥경
		2	밀알	김수열	김승숙
204	우드부리지(N)	1	예달	유이종	유혜숙
		2	한지붕	강현석	강순영
206	웨스트팍(E)	1	브니엘	김귀성	김인흠
		2	포델니무가 있는	김도겸	김승현
		3	포고스	이철진	이현주
205	웨스트팍	1	사랑	문태성	문영선
		2	OK	김찬수	김미숙
411	두란노 청년	1		윤재웅	
		2		김제덕	
		3		김 신	
		4		안지호	

서부교구

김희수 목사(949-551-

	목장			LEADER(H/W)	
207	터 드 락	1	비둘기	김성복	김동심
		2	한가족	김홍렬	김인순
		3	이탈		김선희
209	뉴포트메사	1	에바다	손무현	손영숙
		2	선한 사마리아	조남서	조영임
210	비 치	1	비지	강근배	강명숙
		2	쉐마	이수완	이정자
211	화운틴벨리(E)	1	생수	김세훈	김미경
212	화운틴벨리(W)	1	은총	송대섭	송경아
		2	샘솟는	김종헌	김청강
217	터 스 틴(S)	1	무지개	김우영	김수자
		2	스마일	윤남구	윤화자
218	터 스 틴(N)	1	진실로	이태량	이미원
		2	새로나	박준열	박희자
305	터 스 틴	1	랜지	김경식	김인숙
303	가든그로브(E)	1	한마음	조재근	조영화
		2	물탠뚱산	권기혁	권희자
304	가든그로브(W)	1	베드로	이광옥	이옥선
		2	살렘	김영일	김미령
		3	만날	이종환	이중녀
306	가든그로브(N)	1	바옴	서동민	서정애
		2	늘 동보심	이승국	이영임
		3	만나	김동수	김송희
208	1.5세 CELL	1	SPARKS	김성환	김수진
		2	VISION	조세형	조경미

Cell Church 조직표

남부교구

청기붕 목사(949-653

	목장			LEADER(H/W)	
101	쎈크라멘티	1	해변	이강훈	이승남
		2	부를받아 나선	황순현	황현주
		3	실로암	류복석	류연자
102	니 겔	1	JOY	박호성	박영실
		2	GOGO	이성준	이혜경
		3	늘 푸른	박상곤	박경재
103	라 구 나	1	갈릴리	황병휘	황영순
		2	감기도	전동한	전희선
104	알리소비호	1	JOYFUL	박종식	박영해
		2	오메가	김성태	김정옥
105	산타마가릿	1	다락방	김 철	김경숙
		2	무시로	김광경	김상희
		3	도부	조광열	조종순
106	미숀비에호(S)	1	사랑	이재남	이부련
		2	칼릭	오 흠	오선영
112	미숀비에호(N)	1	갈보리 구속의 사랑	김세진	김삼순
		2	가고문	양덕승	양영혜
		3	미숀	김문경	김오옥
107	엘 토 로	1	5병2어	정영호	정선주
		2	살롬	유근영	유정혜
		3	기드온	윤영걸	윤명옥
108	렉호레스트	1	에덴	이대은	이옥례
		2	코너스톤	이중교	이임숙
215	유 니 팍(S)	1	성결	김인권	김경자
		2	포도원	김정태	김영덕
		3	은혜	조희원	조혜정
213	유 니 팍(N)	1	푸른 초원	김양환	김영수
		2		김진호	김동자
		3	전하자	최주상	최미경

북부교구

유한성 목사(949-770-

	목장			LEADER(H/W)	
307	쎄리 토스 (S)	1	정실	최정일	최수자
		2	종실	박제인	박병순
308	쎄리 토스 (N)	1	비올라	김문수	김두선
		2	길갈	최문혁	최영숙
309	아나하임 힐	1	질빛	이 청	이인자
		2	호산나	윤상보	윤성복
		3	낮은문	김근수	김미진
		4	주사랑	박정호	박영주
315	코 로 나	1	코로나 구원	박영환	박경자
310	오 렌 지(S)	1	갈렘	이용구	이청자
		2	낙원	강철순	강예빈
316	오 렌 지(N)	1	오렌지	이광희	이종실
311	홀 러 톤	2	베델	김인갑	김봉순
		3	벧물레겔	정주호	정혜경
312	부에나 팍	1	정포도	이경승	이혜선
		2	조대교회	백영만	백신자
		3	갈릴리	하창남	하복순
313	써니 힐스	1	가나안	오 담	오혜숙
		2	포도	서종민	서성희
314	동 부	1	웰빙	김태승	김복자
		2	연약	전광호	전정자
		3	전지	박 웅	박경숙
219	챗 풀	1	챗풀	양수남	양정란
		2	오손도손		김경자

| 셀 교회 평신도 목사님들!

"셀 식구들이 없었으면 너무 외로울 뻔했지요!" 어제도 병중에 계신 어느 교인 한 가정을 심방했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셀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보살펴 주었고, 퇴원한 후에도 셀 교인들이 돌아가며 온갖 죽이란 죽은 다 쑤어 집으로 갖다 주었답니다. 그러니 셀교회가 없었다면! 하는 감탄이 나올 법합니다. 그 전날에 역시 병원에 입원 중인 한 분을 찾아갔는데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Mrs. Kim' 의 병실 번호를 물었더니 봉사하는 백인 여성이 즉각, "Oh, Hwa Kim!" 하고 반응을 보이며 병실 번호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만큼 교인들이, 그 중에도 동료 셀 가족들이 너무 찾아와서 그 방 번호를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증명입니다.

담임목사로서 이런 광경 앞에 가슴이 벅찬 행복감을 못 느낀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목사일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청년공동체의 셀 교회 숫자까지 합치면 200개에 달하는 베델 셀 교회들이 마치 작은 하나의 개척교회들처럼 이번 봄학기에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각 셀 교회에서 다시 한 번 생생히 간증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모습들이 정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싶어집니다.

셀 목자가 되어 한 작은 '교회' 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도하고, 연락하고, 돌보고, 먹이며 상담하고

위로해야 하는 그 수고들을 오늘 저녁 셀 교회 종강예배에서 셀 교인들이 꽃다발 하나로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이요,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얻는 것 또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우선 셀 목자 자신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인도하는 셀 목자로서 먼저 주일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고, 제자훈련 교재를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셀 교인들 앞에 설 수 없는 심정들이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살다보니 셀 목자들의 영적 성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셀 목자들로부터 실제로 그 같은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는 가운데 셀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고민이 셀 목자에게 생깁니다. 도저히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셀을 나누어야 하겠는데 누구를 보내며,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겠냐는 고민입니다. 헤어질 수가 없는 심정이 부모 마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때로 그 고민들을 공동체 담당 목사님들과 나누는 장면들을 보면 또 한 번 행복한 웃음이 저절로 스며 나옵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셀 교회는 너무 많이 모여서 힘든 형편인데도, 교회에는 알리지 않고, 벌써 몇 년째 나누지 않은 채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 목사님이 모르시나요? 벌써 다 알고 계시고, 담임목사인 저도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심정들을 알기에 조용히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2004. 08. 01.

2013년 손인식 목사는 65세로 베델 교회 담임 목회 은퇴를 하고 그날까지 선교 연합(UTD Mission)을 설립하여 북한의 통일과 북한 동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정진하다.

미국과 한국 교회뿐 전 세계에 퍼진 한인 교회들과 함께 통곡기도회를 주관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끌면서 탈북자들을 위해 힐링 킹덤을 열어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제2의 선교사로써의 삶을 살아가다.

손인식 목사의 베델 교회 목회 마지막해인 2013년 당시 교인은 1990년 부임 당시 200명 성도에서 2013년 5천명 등록 교인으로 성장 하면서 쎌 교회도 크게 성장하여 편성 되다.

1997년 시작되어 2013년 손인식 목사가 퇴임시까지 성도들이 쎌 교회를 통해 나눈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일대일 제자 양육 교육
2. 하나님을 경험 하는 삶
3. 크라운 재정 교실
4. 어- 성경이 읽어지네
5. ….
6. …
7. …
8. ….

다음은 2013년 손인식 목사가 퇴임할 당시의 쎌 교회 조직표이다.

셀교회 조직표

마태공동체 <이은우 목사>

초장	지역		셀교회	셀목자		집전화	셀폰
초장 1 김옥선 권사	플러튼	1	소망	조상익	조경옥	714-452-7668	714-452-7664
		2	포도나무-3	유상렬	유진경		714-404-1383
		3	시편 18편	이은원	이정희	714-356-6969	714-397-9210
		4	추수-1	우성무	우희연	714-680-6561	714-713-5888
		5	추수-2	조만걸	조 숙	562-697-7869	714-936-6390
	세리토스	6	포도나무-1	이사무엘	이혜경	562-860-6806	562-756-6807
		7	길갈	백영만	백신자		714-864-0077
	터스틴	8	무지개	주수영	주수명	714-669-8184	714-742-8184
		9	새이름-1	최용석	최희전	949-502-8706	949-241-1928
		10	수정	서만순	서명심	714-750-5540	
		11	스마일	권조원	권옥선	714-573-7597	714-514-4620
		12	시온	박성송	박은숙		714-331-7536
		13	흰돌	김병수	김영아	949-724-9688	714-308-8574
초장 2 송광봉 권사		14	온누리	이용준	이소영	714-731-0800	714-615-4001
		15	한지붕-4	조원태	조은식	714-486-3935	949-929-4505
		16	처음마음-1	최규송	최정희	949-922-3498	949-870-8584
		17	아름다운가족-2	김토성	김호성		562-360-0008
	가든그로브	18	아름다운	김성택	김덕실	714-835-8171	949-285-4774
		19	아카시아	김정자			714-534-2570
		20	베드로	김세진	김삼순	949-233-2064	949-892-7437
	요바린다	21	참빛	전상규	전정희	714-779-2334	714-319-3148
		22	양의 문	윤용섭	윤화숙	714-524-0276	213-435-8987
		23	낙원	연규호	연영숙	714-637-2894	714-636-0133(W)
		24	베델	민창식	민경숙A	714-524-9201	714-924-2135
	코로나다이몬드바	25	구원-2	오홍민	오정미	951-214-0901	951-214-0900
		26	아름다운가족-1	김재옥	김현정	951-738-1644	714-719-7857
		27	아름다운가족-3	나성옥	나유선	951-272-8620	714-260-5394

초장	목장지기	셀교회	비고
1목장	주수영	서만순(수정), 권조원(스마일), 김성택(아름다운), 김정자(아카시아), 백영만(길갈)	6 셀
2목장	조원태	오홍민(구원2), 연규호(낙원), 이은원(시편18편), 박성송(시온), 유상렬(포도나무-3)	6 셀
3목장	김세진	윤용섭(양의문), 이사무엘(포도나무-1), 이용준(온누리), 김병수(흰돌),	5 셀
4목장	조만걸	우성무(추수-1), 나성옥(아름다운가족-3), 김토성(아름다운가족-2), 김재옥(아름다운가족-1)	5 셀
5목장	전상규	최용석(새이름-1), 최규송(처음마음-1), 조상익(소망), 민창식(베델)	5 셀

셀교회 조직표

마가공동체 〈정유성 목사〉

초장	지역		셀교회	셀목자		집전화	셀폰
초장1 이영자 권사	노스우드	1	글로리아-1	이승배	이경원	949-857-1789	949-355-3211
		2	글로리아-2	한종국	황유리		213-999-5397
		3	글로리아-3	이양수	김선경	714-573-4590	323-793-1479
		4	다윗	이해철	이영주	714-734-6514	714-323-6397
		5	반석	이국선	이혜훈	949-857-8374	949-677-3840
		6	새로나	오성남	오경이		949-677-8611
		7	샘물	최원진	최연화	714-730-5416	714-296-7022
		8	청지기	민병천	민미라	949-244-7308	949-525-5119
		9	포도송이-2	이상열	이동우	949-857-5886	714-345-7356
		10	포동송이-3	조인호	조정열		949-648-1007
		11	하나님의 은혜-1	김은주			714-742-7883
		12	임마누엘	김정태	김영덕	714-544-4353	714-673-3439
		13	예수사랑2	이준희	백은숙	714-656-2917	714-326-9566
초장2 문화숙 권사		14	주님동산	하선희		714-389-1009	240-604-8087
		15	사과나무	황세헌	황준옥	714-665-8864	949-648-1907
		16	좋은-1	윤주원	윤영재	949-387-5077	949-892-9516
		17	좋은-2	임동억	임주연	714-368-0135	323-356-0521
		18	좋은-3	김호경	이경란	949-509-7103	949-910-0993
		19	좋은-5	배진용	배혜숙	714-832-7736	951-858-6330
		20	좋은-6	윤송로	윤수경	949-654-9999	949-285-6356
		21	주날개밑	조현주		949-336-7697	949-330-0488
		22	새순-2	고조다무라	곽윤영	714-389-3984	213-926-8556
		23	엠마오-1	박경재		714-389-4201	714-757-3340
		24	엠마오-2	최진미		714-735-8917	949-798-9937
		25	오라오라	손우영	손소영	949-551-3068	949-378-1514
		26	하나님의은혜-2	김백열	김광희	714-731-2703	714-331-9475
	디어필드	27	부흥	김태윤	김연숙	949-653-8428	714-337-8428

초장	목장지기	셀교회	비고
1목장	이상열	민병천(돌로스), 조인호(포도송이3), 김태윤(부흥)	4 셀
2목장	이국선	한종국(글로리아2), 오성남(새로나), 박경재(엠마오1), 최원진(샘물)	5 셀
3목장	이해철	황세헌(사과나무), 고조다무라 (새순2), 손우영(오라오라), 하선희(주님동산)	5 셀
4목장	김정태	윤주원(좋은1), 조현주(주날개밑), 김백열(하나님의 은혜2)	4 셀
5목장	김호경	김은주(하나님의은혜1), 최진미(엠마오-2), 이승배(글로리아1)	4 셀
6목장	윤송로	이준희(예수사랑2), 배진용(좋은5), 이양수(글로리아-3), 임동억(좋은2)	5 셀

셀교회 조직표

누가공동체 <고현권 목사>							
초장	지역	셀교회		셀목자		집전화	셀폰
초장1 김경옥 권사	라구나우드	1	갈릴리-1	최정일	최수자	949-916-0025	213-422-1700
		2	갈릴리-2	김경옥		949-757-0123	949-683-8782
		3	은빛샘-1	손정수	손도준	949-462-3756	949-923-1228
		4	은빛샘-2	유근영	유정혜	949-207-7957	714-251-1886
		5	아브라함-1	김용일	김수미	949-951-3468	
		6	아브라함-2	이한철	진혜주	949-340-7454	
		7	호산나-1	김병문	김정균	949-8551761	
		8	호산나-2	김윤영	김화자	949-939-4957	949-394-5947
초장2 윤화자 권사	알리소비에호	9	마하나임	민형근	민현숙	949-830-2189	949-697-1035
		10	요셉-2	정광묵	박성혜	949-461-9002	949-232-3963
		11	축복의 씨앗-1	이성호	이계현	949-598-9455	949-616-6115
		12	축복의 씨앗-2	김창남	인현미	949-643-3199	949-939-8239
		13	축복의 씨앗-3	김정훈	김기옥	949-273-8908	714-734-6006
		14	축복의 씨앗-4	이상원	최신	949-707-5766	949-331-6999
		15	스데반	김태현	김상희	949-831-2030	949-939-1862
	라구나니겔	16	삼뻐	이성준	이혜경	949-831-1430	949-413-6341
		17	오메가-1	윤정헌	윤경자	949-552-1545	714-904-1919
		18	오메가-2	홍승평	홍정이	949-472-8873	949-378-5657
		19	GoGo	권순렬	권미경	949-389-0346	949-246-7868
		20	Joyful	박종식	박영해	949-493-7288	
초장3 권옥선 권사	레이크 포레스트	21	오병이어-3	황사균	김연주	949-588-6036	714-350-3524
	산타 마가릿	22	새로운	조만호	조찬주	949-766-7821	949-735-8935
	미션비에호	23	갈보리 구속의사랑	박기승	박승란	949-305-2356	949-331-8696
		24	칼믹	오 흡	오선영	949-458-9416	949-310-6203
		25	한나	채은영		949-586-9059	949-468-6702
	샌클라멘티	26	해변-1	이강훈	이승남	949-492-1572	949-351-3007
	샌디에고 샌드캐년	27	부름받아 나선-1	황순현	황현주	760-455-0831	760-455-0832
		28	디아스포라	이석희	이은실	949-387-3125	949-697-7606
		29	포도원-1	박원식	박숙향	949-725-1093	949-701-8857
		30	한지붕-1	전응석	전정아	949-333-3712	949-933-8585

초장	목장지기	셀교회	비고
1목장	황순현	박종식(Joyful) 채은영(한나), 민형근 (마하나임), 이강훈(해변-1)	5 셀
2목장	이중교	오 흡(칼믹), 박기승(갈보리구속의사랑), 황사균(오병이어3)	4 셀
3목장	권순렬	윤정헌(오메가1), 홍승평(오메가2), 이성준(삼뻐)	4 셀
4목장	박원식	조만호(새로운), 전응석(한지붕-1) 김태현(스데반)	4 셀
5목장	이석희	정광묵(요셉2),이성호(축복의씨앗1), ,김창남(축복의씨앗2), 김정훈(축복의씨앗3), 이상원(축복의씨앗4)	6 셀
6목장	유근영	최정일(갈릴리1), 김경옥(갈릴리-2), 손정수(은빛샘2), 김용일(아브라함1), 이한철(아브라함2), 김병문(호산나1), 김윤영(호산나2)	7 셀

셀교회 조직표

요한공동체 <조철희 목사>

초장	지역		셀교회	셀목자		집전화	셀폰
초장 1 김소자 권사	웨스트팍	1	모리아-1	문성범	문현숙	949-769-4501	213-880-3455
		2	모리아-2	서현열	김선우	949-387-1271	949-232-2401
		3	모리아-3	송재복	김수민	949-748-6724	949-246-9201
		4	모리아-4	이삼열	박은혜	949-387-1838	949-910-2943
		5	오손도손	김경자		949-975-8478	714-815-8899
		6	Sonshine	최규덕	최경희	949-838-4445	949-838-4445
		7	작은 자	김소자			949-667-3350
		8	로마-10	박용만	박지영	949-854-4674	949-351-5311
	칼리지팍	9	예삶	김양환	김영수	949-551-2149	714-721-1211
		10	푸른초장	신현기	신금숙	714-602-6748	714-785-3259
		11	Discover-1	최주상	최미경	949-857-6905	949-290-0717
		12	Discover-2	이란혜			949-422-8828
초장 2 윤미경 권사	터틀락	13	미스바-1	김희창	김진희	949-509-9320	714-458-1564
		14	바나바-1	정우영	박순임	949-823-0054	213-703-7316
		15	비둘기	김수명	김은정	714-258-0428	714-552-6921
		16	이팔목장	김선희	김홍규	949-854-2928	949-307-5531
		17	하모니-1	김상욱	김주현	949-725-1722	310-218-7553
	터틀리지	18	로마-1	김명석	김영혜	949-725-7980	949-633-2580
		19	샛별-1	서우석	서유선	949-823-1947	213-435-3690
		20	동그라미	손석환	손소원	949-502-8818	949-241-9359
		21	은혜의샘	이상태	이원경	949-720-9821	949-246-3371
	뉴포트비치	22	새생명-1	박제인	박병순	949-717-6677	949-278-2920
		23	새생명-2	최용완	강정애	949-721-1356	949-554-4721
		24	에바다	김명수	김혜영	949-706-6970	714-651-4905

초장	목장지기	셀교회	비고
1목장	박제인	김경자(오손도손), 김선히(이팔목장), 김수명(비둘기), 최용완(새생명-2)	5 셀
2목장	김명수	김양환(예삶), 신현기(푸른초장), 김희창(미스바-1)	4 셀
3목장	이상태	정우영(바나바-1), 최규덕(Sonshine), 김소자(작은 자), 김경자(오손도손)	5 셀
4목장	최주상	김명석(로마-1), 문성범(모리아-1), 이삼열(모리아-4), 서현열(모리아-2)	5 셀
5목장	서우석	김상욱(하모니-1), 이란혜 (Discovery-2), 손석환(샛별-2), 송재복(모리아-3)	5 셀

셀교회 조직표

바울공동체 <장영락 목사>							
초장	지역	셀교회		셀목자		집전화	셀폰
초장1 박은숙 권사	우드브리지	1	다니엘	김영수	김윤숙	949-262-9418	949-838-5623
		2	로마-4	오관선	오소영	949-653-2114	213-276-7577
		3	옹달샘	정순구	정옥희	949-552-2117	949-735-7423
		4	참사랑-1	박재문	박규희	949-551-4259	949-241-4987
		5	참사랑-2	박원호	노명희	949-679-7949	949-241-3123
		6	새순	박기홍	장윤정	949-559-3680	213-999-4110
		7	한가족-1	김동균	김지혜	949-679-8815	714-904-3690
		8	한가족-2	박상범	박경자	949-768-8766	949-302-8500
		9	희망	김양래	이재원	714-389-4176	
	디어필드	10	감사	노경희		714-356-5988	
		11	충만한	이윤수	이경옥	949-857-1208	714-953-2622
		12	빌립보	윤의식	윤미경		949-310-7880
		13	시냇가에심은	한태욱	이선정	949-653-1279	949-701-2909
		14	신기하고 놀라운	박재호	박현진	949-233-8597	949-379-0753
		15	주사랑	김종철	김혜숙	949-551-5767	714-277-0111
초장2 김숙영 권사	오크크릭	16	한마음	이형희	이영자	949-786-4318	949-293-5750
		17	빌레몬	김귀성	김인흠	949-525-1628	714-309-7112
		18	베델방주-2	김정윤	김숙영	949-552-7057	949-861-0601
		19	베델방주-3	홍성우	홍영란	949-509-7153	949-533-3318
		20	리바이벌	이시훈	이혜숙	949-654-1006	949-232-5855
		21	단비	조정현	조용자	714-669-2717	
	노스팍	22	베델방주-1	이해원	곽영지	714-788-3830	714-788-3833
		23	베델방주-4	박지경	조진희	714-389-5478	714-392-5489
		24	WWJD	김동건	김명숙		714-389-1645
		25	한지붕-2	김병주	이찬영		949-554-5581
	유니팍	26	할렐루야	임명우	임정자	949-653-2513	562-319-3693
		27	주님사랑	한상섭	한현미	949-387-4259	949-735-8472
		28	축복의통로-2	한우광	김영자	949-679-9210	714-552-6879
		29	축복의통로-3	김재평	오수희	310-542-9239	310-848-7774
		30	축복의 통로-1	곽태일	곽은희	949-760-1379	949-295-2696

초장	목장지기	셀교회	비고
1목장	김귀성	조정현(단비), 정순구(옹달샘), 김영수(다니엘), 박재문(참사랑1), 박원호(참사랑2)	6 셀
2목장	곽태일	김병주(한지붕-2), 박기홍(새순), 한상섭(주님사랑), 한태욱(시냇가에심은나무), 한우광(축복의통로-2)	6 셀
3목장	윤의식	이형희(한마음), 김종철(주사랑), 이윤수(충만한), 노경희(감사), 임명우(할렐루야)	6 셀
4목장	김정윤	홍성우(베델방주-3), 이시훈(리바이벌), 이해원(베델방주-1), 박지경(베델방주-4), 김동건(WWJD)	6 셀
5목장	오관선	김재평(축복의통로-3), 김동균(한가족1), 박상범(한가족-2), 김양래(희망), 박재호(신기하고놀라운)	6 셀

셀교회 조직표

디모데 공동체 <박병기 목사>

초장	지역		셀교회	셀목자		집전화	셀폰
초장 1 조진영 권사	젊은부부/기혼젊은여성	1	도란도란	이현우	김현정	323-331-5555	213-241-9948
		2	무럭무럭	성주영	한이은	949-606-4574	949-606-4597
		3	생명의 길	박영선	이혜림	714-515-0209	714-794-7030
		4	세발자전거	손상현	박선	213-219-9714	213-700-5071
		5	아름다운가족4	김상우	스테파니		949-382-9971
		6	콩깍지-1	선우영	선우실나	714-673-8912	714-244-5230
		7	콩깍지-2	최병웅	최란영	714-586-6703	714-724-6729
		8	Blessing	조에녹	조재연	949-226-1157	949-310-4445
		9	Good People	김준철	박미	714-422-8130	323-899-6705
		10	Happy Day-1	강은규	이관혜	949-683-8807	323-875-9796
		11	Happy Day-2	임병규	임영전	949-838-7311	949-910-9764
		12	IDream	김정우	김혜란	949-878-6370	949-878-6325
		13	Mission Possible-1	정상화	정성은		949-307-6598
		14	Mission Possible-2	김재홍A	노주미	949-748-9385	949-278-2407
		15	Vision	배상훈	민영아	562-208-1211	949-502-5792
		16	Happy Family	구자용	구영희	714-745-2044	714-296-4112
		17	Shalom	이정수		714-352-5928	949-701-1043

목장지기	셀교회	비고
배상훈	디모데 공동체 1-15번 셀	

요셉공동체 <장창호 목사>

초장	지역		셀교회	셀목자		집전화	셀폰
이정숙 권사	영어 공동체	1	Rohthem Tree-2	이지훈	이지인	949-249-5562	949-231-2284
		2	Call of Duty	우요셉	우유빈		714-604-8367
		3	Ginosko	송석원	송가현	949-858-1613	949-500-6831
		4	Grace	박정수	박향숙	949-285-4371	949-285-4371

목장지기	셀교회	비고
송석원	Rohthem Tree 2, Call of Duty, Ginosko, Grace	4 셀

2014년 김한요 목사가 베델 교회 제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다.

2014년 김한요 목사가 부임하면서 베델 교회는 또 다시 한 번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다. 강해 말씀 중심의 목회로 교인들의 영적 지적 충만을 채워주면서 출석 성도가 더욱 증가하데되다.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한 말씀 공부와 더불어 교재 중심의 쎌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쎌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 지다.

다음은 김한요 목사 7년차인 2020년 당시의 쎌 교회 조직표이다.

1목장 담당 목회자: 김홍식 목사 심방 도우미: 김혜영 권사

지역	초원	셀이름	셀목자	셀목자	연락처
East Irvine / Oak	1초원 이우연	예기샘	이우연	이현숙	949-330-9036
		베델방주3	홍성우	홍영란	949-533-3318
		샤론	정연희		949-812-0909
		베델방주2	김정윤	김숙영	949-861-0601
Woodbury / San Diego	2초원 이창열	초원지기	이창열	이영희	206-755-7135
		베델방주7	김효선	박선희	714-438-9381
		Klesis	이현숙		949-241-2437
		부름받아나선	김태원	김선희	760-707-7070
		축복의통로3	성재승	손정아	949-501-9425
Great Park / Murrieta	3초원 박호성	구원2	박호성	박영실	951-698-5690
		에바다2	이근웅	이가인	760-668-2262
		물댄동산	최지원	신수정	562-584-3043
		무럭무럭	성주영	한이은	949-606-4597
		WWJD1	진정훈	진효진	714-318-2183
		주님생각2	박재영	김선민	714-980-1653
Beacon Park	4초원 김범진	단비	조정현	조영자	714-337-1751
		빛과소금1	김범진	박진아	213-663-6359
		마라나타 토요	김성희		949-502-1552
		구원1	정병철	정만혜	714-944-4755
		영광의 비상	장대석	장한나	949-701-1418
		Reality	박규상	김주현	805-252-6648
Foothill Ranch / Lake Forest	5초원 김건성	마중물	김건성	김유인	949-690-7697
		오병이어3	황사균	황연주	714-350-3524
		한가족1	김동균	김지혜	714-904-3690
		은혜의강가	정현근	정광실	949-310-1098
		왕의군대	박관수	박미정	949-701-9011
		콩깍지5	박준경	유지혜	818-606-4959
Rancho Santa Margarita/ East Mission Viejo / San Clemente	6초원 송석원	Ginosko1	송석원	송가현	949-500-6831
		헤세드	김광경	김상희	949-370-0584
		Mission1	김문경	김오옥	949-923-1325
		새로운	이선갑	이태연	949-514-5999
		해변	이강훈	이승남	949-351-9007
		다락방	김 철	김경숙	714-602-0025

2목장 담당 목회자: 주성필 목사 심방 도우미: 조진영 권사

지역	초원	셀이름	셀목자	셀목자	연락처
North Park	1초원 김병찬	온누리	김병찬	김영진	949-554-5875
		Heart to Heart	이영복	이은희	949-535-6929
		좋은9	현홍섭	현일란	714-260-3930
		Ginosko2	나정환	나유연	909-520-0611
		믿음	박제균	김흥예	714-904-4385
		믿음2	박형욱	하정민	949-392-3057
		Synergy	김정범	김재신	714-623-0919
Great Park	2초원 한상섭	주님사랑	한상섭	한현미	949-735-8472
		글로리아5	박원규	신동녀	949-433-0557
		하나님의은혜	김백열	김광희	714-944-7662
		헵시바2	박기준	박정연	949-349-0732
		세발자전거2	박정훈	박필연	949-275-5027
Orchard Hill	3초원 윤주원	좋은1	윤주원	윤영재	949-892-9516
		샘물	최원진	최연화	714-296-7022
		좋은2	임동억	임주연	323-356-0521
		좋은5	배진용	배혜숙	714-858-6330
		Dear God	송용훈	여지현	310-749-7928
		코이노니아	장세인	이정은	949-910-1670
Northwood	4초원 왕동원	주의 은혜라	왕동원	왕혜원	949-910-1584
		할렐루야	안용일	안시내	714-975-1903
		God Bless	이우용	조수진	626-808-2725
		K	이국선	이혜훈	949-677-3840
Stonegate	5초원 이국선	다윗2	김재석	유현정	909-217-6314
		새벽별	손우영	손소영	949-378-1514
		복덩이	김학남	전미경	408-806-4133
		Vision	최호석	임하나	949-236-0042
		K	이국선	이혜훈	949-677-3840
Beacon Park	6초원 윤화자	주님동산1	하선희		240-604-8087
		정다운2	윤화자		949-838-7353
		생명의다리1	조선영		949-572-4414
		에스더	석연경		714-321-7803
		예수님의은혜	유윤주		562-477-8695
		한마음2	서은숙		14-878-6364
		브리스가	오은옥		714-615-7096
		한걸음	박혜경		949-606-6647

3목장 담당 목회자: 강문구 목사 심방 도우미: 이임숙 권사

지역	초원	셀이름	셀목자	셀목자	연락처
West Irvine	1초원 박성송	늘찬송	박성규	박근희	714-423-8607
		시온	박성송	박은숙	714-331-7536
		좋은6	서태석	서은조	310-892-3354
		청지기	노재윤	노은영	714-595-1572
		WWJD2	황정환	박성화	714-856-8127
North Tustin	2초원 주수영	흰돌	김병수	김영아	714-308-8574
		주사랑	김종철	김혜숙	949-551-5767
		충만한	이윤수	이경옥	949-300-9464
		무지개	주수영	주수명	714-742-8184
		예루살렘	백수진	백미경	562-857-1779
		께게까	조준석	조하혜	760-803-1674
North Park	3초원 다무라고조	새순	이현복	유미정	949-303-8425
		예마본	김현일	김선형	561-252-3981
		일본어	다무라고조	곽윤영	213-926-8556
		행복한2	강재형	김진희	949-533-4147
		Together	김일란		949-294-6720
Tustin (Huntley)	4초원 최규덕	그루터기3	이기웅	서은연	714-470-4091
		글로리아	이양수	김선경	323-793-1479
		베델방주4	박지경	조진희	714-392-5489
		베델방주8	원현정		949-554-8964
		베델방주9	이승연		949-290-8820
		SonShine	최규덕	최경희	949-838-4445
Yorba Linda	5초원 오충근	새로나	오성남	오경이	949-677-8611
		린다	김재훈	김혜미	714-390-4967
		아름다운가족2	천승현	오혜진	512-947-7291
		아름다운가족4	염승용	염성미	714-310-6281
		함께변한	오충근	오경숙	714-493-4650
Cowan Heights (Tustin)	6초원 이중교	사랑이야기	최호경	지효정	714-398-3914
		세발자전거	손상현	박 선	213-700-5071
		십자가그사랑	이성혁	최영주	714-552-5538
		콩깍지1	김정욱	오지은	949-244-4208
		힐링캠프	최종형	김혜진	213-922-0404
		믿음의비밀	강 근	현수정	626-755-1298

4목장

담당 목회자: 이은우 목사　심방 도우미: 심윤신 권사

지역	초원	셀이름	셀목자	셀목자	연락처
Newport Coast	1초원 김명수	에바다	김명수	김혜영	714-651-4905
		53787	윤성준	윤여진	310-601-0450
		새생명	박제인	박병순	949-278-2920
		소망	이동준	김인서	949-933-4296
Corona Del Mar	2초원 곽태일	축복의통로	곽태일	곽은희	949-295-2696
		은혜의강물	조성룡	조희정	310-464-7106
		샛별2	케빈마	마현진	213-344-7682
		샛별3	김경표	김수연	714-287-0407
		하나되는	박병주	이희은	818-613-7153
Huntington Beach	3초원 백영만	초대교회	백영만	백신자	714-864-0077
		다솜2	김건수	김인자	949-241-5136
		예수안에서	김종곤	박영미	714-450-0015
		포도나무	이사무엘	이혜경	562-756-6807
		추수3	김요한	박정민	714-707-0292
Seal Beach	4초원 박영덕	다솜	박영덕	이길영	562-977-7551
		다윗	이봉윤	이선민	714-788-1235
		열린	고석민	고미혜	714-501-7456
		시편18편	유봉현	서영희	714-955-1414
Fullerton	5초원 김 샘	카리스	김 샘	김수진	714-928-8582
		생명의길	김도훈	윤승희	213-700-5707
		은혜아니면	김주홍	정승희	213-880-1022
		화평한	현승원	김희영	701-212-5512
La Mirada	6초원 최종철	추수1	차규양	윤성자	562-355-1268
		추수2	홍대원	홍정임	714-335-3300
		Happy Family	정용동	이민용	213-284-4215
Garden Grove	7초원 안명오	온유	장수잔		949-295-3571
		아름다운목장	심윤신		949-533-7526
		아카시아	김정자		714-393-0032
		감사	노경희		714-356-5988
		우리	정티나		213-407-5239
		치가아	진명숙	최지수	949-244-3831

5목장 담당 목회자: 박준식 목사 심방 도우미: 박금옥 권사

지역	초원	셀이름	셀목자	셀목자	연락처
El Camino Real (Irvine)	1초원 김귀성	빌레몬	김귀성	김인흠	714-309-7112
		푸른초장	조관휘	조화자	949-299-7891
		다니엘	김영수	김윤숙	949-262-9418
		비둘기	김성복	김동심	949-577-2691
		이팔목장	김선히		949-553-7918
Walnut (Irvine)	2초원 김양환	예삶	김양환	김영수	714-669-0433
		옹달샘	양승문	김종선	408-892-0646
		카라	김지원	김은혜	949-466-6673
		은혜의샘	김태수	김미향	949-331-7311
		수정	황형숙		949-246-2756
Rancho San Joaquin (Irvine)	3초원 김권태	한마음	김권태	김은자	949-922-3489
		처음마음	최경희		949-870-8584
		오직예수	임낙현	유미경	949-383-7177
		Grace	박정수	박그레이스	949-400-9917
Turtle Rock (Irvine)	4초원 박종민	에벤에셀	박종민	박혜경	949-742-1285
		축복의통로2	정필주	정정애	949-697-1044
		그루터기	황병석	황은아	949-419-7771
		콩깍지4	선우영	선우실나	714-244-5230
		쉼터	박복희		949-798-9264
Main (Irvine)	5초원 김인권	일이삼사	김인권	김경자	949-439-9557
		한지붕3	윤대호	윤유선	714-702-6888
		모리아2	서현열	김선우	949-232-2401
		사랑과소명	김언조	김수희	714-333-6724
		오손도손	김경자		949-910-1202
Woodbridge (Irvine)	6초원 최주상	Discover	최주상	최미경	949-290-0717
		사과나무	이범석	이혜원	949-285-5861
		여호와이레	이원용	이원경	949-929-4474
		복의 근원	이태성	이윤아	818-679-3732
		행복한 기다림	강영심		949-735-3053
University Town Center (Irvine)	7초원 김병주	한지붕2	김병주	이찬영	949-554-5581
		콩깍지2	최병웅	최란영	714-586-6703
		Happy Day 2	임병규	임영전	949-441-0761
		메이저리그	김광식	장현숙	213-605-1770
		주님동산2	김소영		949-501-2471

6목장 담당 목회자: 이충경 목사 심방 도우미: 김명선 권사

지역	초원	셀이름	셀목자	셀목자	연락처
Laguna Woods1	1초원 유근영 이수완	갈릴리2	김경옥		949-855-0775
		은빛샘1	손정수	손도준	949-315-5704
		은빛샘2	이형희	이영자	949-293-5750
		은빛샘3	유근영	유정혜	714-251-1886
		아브라함	고승일	고계희	661-992-5036
		호산나2	김윤영	김화자	949-394-5947
		호산나3	양창수	양경옥	949-431-3557
		가나안	이수완	이정자	949-939-8112
		달리다굼	김수경		949-892-0593
		갈릴리1	최정일	최수자	213-422-1700
Laguna Woods2	2초원 김용일	HolySeed	김용순	유태윤	714-803-5407
		갈렙1	김용일	김수미	650-740-2462
		낙원1	박우공	박혜정	949-357-3497
		낙원2	김은식	김정순	972-849-5455
		한빛	유재홍	유영옥	832-971-4355
		여호수아1	정치일	김대봉	914-456-6656
		여호수아2	윤태남	윤건희	949-540-9767
		바울	박청	안정순	949-371-4186
		늘푸른1	임명우	임정자	562-319-3693
		늘푸른2	송기평	송명희	310-502-4884
Quail Hill	3초원 이석희	디아스포라	이석희	이은실	949-697-7606
		옥합	백설희		949-910-6772
		축복의씨앗2	최진호	민해정	949-525-5881
		아름다운가족5	이윤주	이정미	949-309-7729
		Joyful	김능수	김송자	714-390-9666
Acacia Knolls (Laguna Hills)	4초원 홍승평	오메가	홍승평	홍정이	949-378-5657
		오직믿음	변영택	변남춘	714-724-8147
		오직은혜	김종학	최희수	949-285-9408
		은목	정대인	정신애	714-471-2959
		샬롬1	함경일	함수영	949-910-8720
		에스라	권순렬	권미경	949-246-7868
		요셉2	정광묵	박성혜	949-232-3963
Aliso Viejo	5초원 김태현	스데반	김태현	김상희	949-939-1862
		코람데오	안성희	임정연	857-654-6954
		삼뻐	이성준	이혜경	949-413-6341
		칼믹	오흡	오선영	949-310-6203
		축복의씨앗3	이민재	김정희	714-273-9094
		축복의씨앗4	이상원	최 신	949-677-5540
Turtle Rock (South)	6초원 정우영	바나바	정우영	박순임	949-943-7320
		캠퍼스비젼	허윤호	이혜림	310-560-1417
		Goodpeople3	남대식	백호진	949-533-2768
		회개	김응진	조윤미	213-215-4977
		둘로스	오형익	하은송	949-929-4109

3. 설립, 이전 및 성전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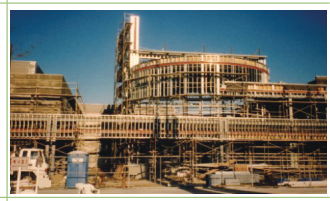
http://bkc.org/im-new/aboutus/history/

목사	년도	월/일	교회설립/이전/건축/장소	
윤용오 목사	1976년	9월12일	한인 30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 Geneva Presbyterian Church (2430 El Toro Rd, Laguna Hills)	
		10월17일	두번째 장소 El Toro High School Charger Hall (25255 Toledo Way, Lake Forest) 교회 이름을 베델 한인교회로 정하고 CM&A에 등록하다	
	1977년	3월20일	세번째 장소 Lake Hills Community Church 23331 Moulton Parkway, Laguna Hills	
	1979년	1월3일	네번째 장소 Abiding Savior Lutheran Church(Lake Forest)	
		1월17일	다섯번째 장소 Mission Hills Christian Center(25292 McIntyre, Laguna Hills)	
		10월25일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IWC(Irvine Worship Center) 법인체를 5개 교회가 구성하고 주정부에 등록하다	
	1980년	2월29일	여섯번째 이전 Irvine Community Church(14804 Sand Canyon Ave, Irvine)	
	1981년	5월18일	IWC가 18700 Harvard Ave, Irvine 에 있는 건축 대지를 Irvine Co.로 부터 무상 분배 받다.	

목사	년도	월/일	교회설립/이전/건축/장소	
	1982년	9월1일	윤영오 목사 사임하다	
백태현 목사		11월28일	백태현 목사가 2대 목사로 부임하다	
	1983년	3월4일	IWC에서 대지 4.5에이커를 추가 구입하다	
	1984년	1월22일	교회대대지에서 IWC의 4개 교회가 연합으로 기공예배를 드리다	
	1985년	8월18일	임시교육관을 설치하다	
		11월16일	베델한인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다	
	1989년	8월13일	백태현목사가 사임하다	
손인식 목사	1990년	12월16일	손인식목사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다	
	1992년		22. Irvine Worship Center	

Name of Church	Pastor's Name	Phone Number and Address
Bethel Korean Church	Edward Ik H. Kim	854-4010, 4011, 4012, 4014 18700-A Harvard Ave. Irvine
Irvine First Assembly of God Church	Tom Benton	854-4016 18700-B Harvard Ave. Irvine
University Community Church	Kevin W. Trevithick	854-4020 18700-C Harvard Ave. Irvine
Chinese First Baptist Church	James Lam	854-4005, 4015 18700-D Harvard Ave. Irvine

	1991년	6월27일	Assembly of God에서 사용하던 B건물이 매물로 나와 구입하다
		7월14일	제2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다
		9월12일	제1회 베델 선교 대회를 가지다
	1992년	5월4일	Irvine Community Church에서 사용하던 C 건물이 매물로 나와 구입하다
		7월26일	제3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다

목사	년도	월/일	교회설립/이전/건축/장소	
손인식 목사	1997년	1월8-30일	증축기념 대각성 부흥성회	
		4월6일	교회헌법을 개정하다	
		7얼28일	Cell Church 사역을 시작하다	
		10월26일	손경일 전도사 부임(찬양사역 목회자)	
	1998년	2월17일	Web site 개설(www.bkc.org)	
		12월6일	다목적 교육쎈터 건축 작정헌금	
		12월20일	교회헌법을 개정하다	
	1999년	3월17-22일	1차 교회 성장 실험교실 시작하다	
		8월1일	베델 수양관을 구입하고 입주 예배를 드리다	
		8월8일	비젼쎈터 기공예배를 드리다	
		10월1-2일	1차 베델동산을 시작하다	
		10월8-10일	1차 싱글 동산을 시작하다	
		10월10일	1차 베델 결혼교실(10주간)을 시작하다	
	2000년	10월21일	비젼쎈터 기금마련 Concert	
	2001년	9월9일	베델 비젼쎈터 헌당예배	
	2004년	6월10-12일	제1차 전국 크라운 재정교실 클리닉	
	2005년	1월4-15일	제1차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2008년	1월12일	새성전 건축 기공예배	

목사	년도	월/일	교회설립/이전/건축/장소	
손인식 목사	2008년	11월14일	갈릴리 수양관 오픈 갈릴리 수양관은 Cleveland National Forest 가 시작되는 산중턱에 위치하여, 푸르른 Lake Elsinore 가 바라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50명 까지 수용할 수 있는 모든시설(예배실, 크고 작은 미팅룸들, conference hall, kitchen & dining hall, bunker beds등) 이 완비되어있어 각종 수양회, 세미나, 영성사역등을 할수있는 아름답고 청결하며 조용한 Retreat center 입니다.	
	2009년	5월24일	새성전 입당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나이다!(대하 6:20)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다! 베델 성도들은 그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2008년 새 성전 건축 허가를 받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험난한 준비 과정과 건축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2009년 새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의 입당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 성전은 신령한 건축, 기적의 건축, 기도의 건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헌신적인 기도와 헌금으로, 노인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공사 기간을 참고 인내하는 연단으로 잡음 하나 없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건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6월5-7일	헌당 감사 큰축제	
	2009년	6월23일	40일 신양 통독 새벽 기도회	
	2011년	8월1일	40일 대각성 경건 운동 시작	
	2012년	12월31일	손인식 목사 딤임목회 은퇴	
	2013년	1월1일	김한요 목사 담임목사 시작	
	2016년	11월20일	설립40주년 감사 축제 40년의 축복 .. 내일의 사명으로(기독일보 2016-11-23 이인규 기자)	

목사	년도	월/일	교회설립/이전/건축/장소	
	2017년	5월10일	베델 선교관 구입 Lake Forest, CA	
			본당 LED및 앞면 리모델링 공사	
			유아실 새공사	
			라이저 설치및 무대 공사	

1976년 라구나 엘토로 일대에 사는 30명의 한인들이 라구나 힐스에 있는 제네바 장로 미국 교회 채플을 빌려 초대 윤영오 목사와 함께 9월12일 첫 예배를 드린 것이 베델 한인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제네바 교회 채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던중 한달여 만인 10월17일 미국 교회측 사정으로 인하여 두번째 예배장소인 엘토로 하이스쿨의 Charger Hall 강당으로 장소를 빌려 이사를 갑니다. 이 기간 교회 이름을 베델 교회로 정하여 CM&A(Christian Missionary & Alliance)교단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던중 다섯달째 되던 1977년 3월20일Lake Hills Community Church에 새 예배장소를 찾고 다시 두번째 이사를 갑니다.

이후 약 2년간 Lake Hills Community Church에서 예배를 드리던중 1979년 1월3일 네번째 장소인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Abiding Savior Church 교회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2주일만인 1월17일 다시 다섯번째 장소인 Mission Hills Christian Center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1976년9월부터 1979년 1월까지 2년여 사이에 다섯번을 옮긴 성도들은 자체 소유의 예배 장소의 필요를 느끼고 교회건물을 세우기로 뜻을 모으고 장소를 찾고 Irvine Company와 상의 하던중 Irvine에 땅을 지정하여 Worship Center로 팔테니 같은 뜻을 가진 여러교회를 묶어서 IWC(Irvine Worship Center)라는 법인체를 구성하라는 제안을 받고 다섯 교회가 뜻을 합쳐 IWC 법인체를 구성하고 1979년 10월25일

주정부에 등록합니다. 이 와중에 베델 한인교회는 1980년 2월 또다시 여섯번째로 장소를 찾아 Sand Canyon에 있는 Irvine Community Church 로 이사를 갑니다.

1981년 5월8일 IWC가 현 베델 교회 위치인 18700 Harvard Ave, Irvine 에 있는 건축 대지를 Irvine Company로 부터 구입을 합니다. Sand Canyon에 있는 Irvine Community Church에서 예배를 드리던중 1982년 9월1일 윤영오 목사가 사임을 하고 11월28일 백태현 목사가 2대 목사로 취임하여 베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인수가 많이 부흥하여 한때 800명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1983년 3월4일 IWC에서 대지 4.5 에이커를 추가로 구입하고 이듬해인 1984년 1월22일 IWC의 4개 교회가 연합으로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이듬해인 1985년 8월 트레일러로 만들어진 임시 교육관을 설치하고 건물이 완공되어 11월16일 베델한인교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1988년 교회의 분란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약 200명 정도의 교인이 베델 교회를 이어가던중 1989년 8월13일 2대 목사 백태현 목사가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1990년 12월16일 손인식 목사가 3대 목사로 취임합니다. 당시 교인이 약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손인식 목사가 취임한 이후 교회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아 성도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주에도 수십가정씩 새로오면서 본당은 물론 2세들의 예배를 위한 부속건물들이 부족하게 되는데 때마침1991년 6월 Assembly of God에서 사용하던 B 건물이 매물로 나와 IWC로부터 구입하고 7월14일 제2성전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해 9월12일에는 제1차 베델 선교대회가 역사적으로 열리는 등 베델 교회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합니다.

1992년 5월4일 Irvine Community Church에서 사용하던 C 건물이 다시 매물로 나와 구입하게 되고 7월 26일에 제 3성전 입당예배를 드립니다. 2성전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넘쳐나는 교인들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부흥이 엄청난 속도로 지속됨에 따라 예배당 밖으로까지 간이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할수없이 1996년 본당 증축을 결정하게 되는데 옆과 앞을 늘려 예배 공간을 확

보합니다. 이듬해인 1997년 본당 증축이 완공되어 1월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대각성 부흥 성회를 갖고 영적 부흥을 공고히 다집니다. 같은 해 2월8일과 9일 양일에 걸쳐서 제1차 순결훈련 및 서약식(9-12학년)을 가집니다. 같은 해 4월6일 교회 헌법을 개정하여 실행위원회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7월13일부터 열린 예배를 그리고 7월28일 Cell Church 사역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6년을 돌아보면 2개의 성전 구입 헌당과 본당 증축과 아울러 부흥 대각성 성회, 셀교회 등의 다양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건물구입과 증축 등은 늘어나는 성도들의 예배공간 확보와 2세 아이들의 교육과 예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뿐 모든 초점은 성도들의 영적 부흥과 및 신앙훈련에 있었음을 회고합니다.

1998년 3월17일-22일 사이에는 제1차 교회 성장 실험교실을 열고 미전역과 세계로부터 50여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베델의 성장과정에서 도입했던 여러 사역을 소개하고 나누며 그 실행과정에서 있었던 성공과 실패를 나누어 이민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 과정속에서 있었던 아픔을 나눌때는 함께 울고 기쁨을 나눌때는 함께 웃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민목회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 사역은 손인식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약 15년간 매년 지속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베델은 1990년부터 8년간 제2 제3성전을 헌당하고 본당을 증축하여 약 200명이었던 교인이 2,500여명으로 늘어난 것을 수용했을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각성의 성령의 바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돌탕(돌아온 탕자)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교인의 증가와 함께 엄청나게 늘어난 아이들의 교육 교실이 없어 교회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교회 인근 건물들의 소공간들을 빌리며 아이들의 신앙훈련을 이어가던 중 2세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우리 1세가 지어주고 2세 3세가 사용하며 예수의 신앙을 이어 나가자고 결단합니다. 드디어 1998년 12월6일 주일 “1세는 지어주고 2세는 사용한다”는 표어를 걸고 온교우가 참여하여 1998년 다목적교

육쎈터 건축을 위한 작정헌금을 합니다. 당시 건축 예상 비용이 850만불이었는데 온 교우가 작정헌금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 누구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무기명으로 건축헌금에 작정하여 동참하는 성령의 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축을 결단하고 건축 헌금도 작정하였으나 다목적 교육쎈터를 건축하는 계획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다목적 교육쎈터 건물을 짓는데는 얼바인시의 건축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1,000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온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난공불락해 보였던 여리고성을 돌듯이 온교인이 함께 건물이 세워질 터를 함께 7바퀴 반을 돌며 기도하며 행진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절대 불가한듯 보였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Michelson 에 있는 현 주차장 위치에 회사로 부터 20년간 주차장 Lease를 얻어 건축허가를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때부터 건축 설계를 거쳐 나온 1200만불 건축 비용과 퍼밋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999년 8월8일 비젼쎈터 기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성도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동산 사역을 위한 수양관을 필요로 하던중 레이크 엘시노에 있는 수양관을 구입하고 1999년 8월1일 베델 수양관 입주 예배를 드리고 10월1-2일에 걸쳐서 제1차 베델 동산을 시작으로 10월8-10일에는 제1차 싱글 동산도 시작함과 동시에 10주간에 걸친 제1차 베델 결혼 교실이 10월10일부터 열립니다.

약 2년에 걸친 비젼쎈터 건축이 완공되어 드디어 2001년 9월9일 역사적인 헌당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로부터 아이들이 지난 수년간의 광야와 같던 간이 텐트 생활을 마치고 새 건물로 입주하여 유년, 유치부로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및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소그룹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한 나눔과 일대일 제자 양육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후로 좋은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와 교인이 더욱 급증합니다. 이때가 2001년입니다.

2001년 그동안 찬양사역자로 섬기던 손경일 전도사의 목사 안수후에 청년 목회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쓰심으로 말미암아 청년 목회가 급격히 부흥합니다. 교회에서는 청년공동체를 예삶(예수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로 따로 분리하여 주고 4부 예배를 맡겼는데 이 예삶 예배가 크게 부흥하여 500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예수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2년에는 유한성 목사의 은퇴와 함께 과테말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있었으며 2004년에는 제1차 전국 크라운 재정 교실 클리닉을 열게 됩니다. 2005년 1월 4-15일에는 제1차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어 2020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다목적 교육 시설인 베델 비젼쎈터 이후에도 부흥은 계속 이어져 늘어나는 성도들의 예배를 감당하기 위해 4부 예배까지 이어갑니다. 이미 제 2성전, 제 3성전, 본당증축, 수양관구입, 비젼쎈터 건축등의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음에도 늘 선교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 지출을 해오면서 본당 건축은 최후로 미뤄왔던 교회지만 교인의 수가 늘어 이미 3천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감당하기에는 공간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여서 본당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온교인이 함께 기도해 나가던 중 2007년 드디어 새성전 건축에 뜻이 모아지고 교회 예산과 건축헌금으로 1,400만불의 새성전 건축 재정을 마련합니다. 새성전을 건축하는데에는 재정뿐이 아니라 200석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얼바인시로 부터 CUP(Conditional Use Permit)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차장도 확보되고 퍼밋도 나와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008년 1월 12일 엘리야 새벽기도가 끝나는 마지막날인 토요일 드디어 새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여에 걸쳐서 지어진 새성전은 3만6천 스퀘어피트 부지에 1,700석 규모의 1층예배실과 300석 규모의 발코니로 예배채플을 갖추고 성도들을 예배로 맞이합니다. 2009년 6월 5일~7일 3일에 걸친 헌당감사 큰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린후 베델은 6월 23일부터 40일간 전교인 신앙통독 새벽기도회를 열면서 큰 성전을 가진 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아닌 단지 성도들을 수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적합한 공

간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새 큰 성전을 갖추게 된 베델은 온 교인이 참여하여 더욱 예배와 말씀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데 특히 2011년 8월11일부터 시작된 40일 대각성 경건운동에는 온교인이 40일 내내 매일 아래 위층 새성전을 가득 메우며 대각성의 시간을 가졌는데 매일 받는 감동 가운데 온 성도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으며 생애에 한번 받을만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예배 공간을 맞은 예삶 목회의 부흥도 이 시기에 함께 이루어져 5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본당을 채우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갑니다.

2012년 말 부임한지 23년에 이르는 손인식 목사는 65세로 정년 퇴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 선교사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는데 특히 북한선교의 꿈을 꾸며 민족 해방과 북한에 예수의 복음이 자유로이 전파되는 그날까지를 위해 Until The Day 사역을 이어갑니다. 베델의 23년간 손인식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것을 이루셨는데 특히 돌탕목회로 말씀을 통해 수많은 탕자들이 예수께 돌아왔으며 베델동산, 부부동산, 싱글동산을 비롯한 영성 사역으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며, 한국어 학교, 홈리스사역, 병원사역, 입양아, 양로사역등을 통해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00여개의 팀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설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으며 활발한 국내외 선교활동과 선교쎈터 건립 및 선교사 지원도 또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열거한 수많은 영성, 선교, 커뮤니티 봉사 사역과 함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신것이 베델의 건축입니다. 2,3성전 구입과 본당 증축, 비젼쎈터 건축, 새 큰 본당 건축 그리고 베델, 갈릴리의 두 수양관 구입등을 이루어 모든 영성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고 청 장년, 그리고 초등부 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4천명 교인이 예배할 수 있고 주일학교와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해 주셨습니다.

2013년 4대 김한요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 이후에 강해설교의 새로운 장르와 함께 베델은 또 다시 한 번 2층 발코니까지 가득 채우며 5천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부흥을 맞이합니다. 김한요 목사의 부임 이후로 베델은 인근 Lake Forest

에 집을 구입하여 선교관을 운영하며 방문하는 선교사들의 임시 안식처를 마련해줍니다. 본당에는 스크린을 LED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무대도 파노라마식으로 리모델링하여 보다 나은 시청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중앙 무대에 라이저를 설치하면서 산뜻하게 스테이지를 업그레이드 하여 온 성도와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가 어우러져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것으로는 교회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새가족방을 새로이 꾸미고, 또 유아방을 아름답게 깨끗하고 산뜻하게 만들어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예배할수 있게 하였으며 소망부 방도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 해주는 등, 이 일은 늘 계속해서 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캠퍼스 매스터 플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목적 예배실 확보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건축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왔고 3,000만불이 넘는 재정을 감당하는 동안 그 어느 사역도 특히 선교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초점을 성도를 수용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데에 맞추는 동안에 건축은 자연스레 온 교우가 기쁨가운데 참여하며 너무나도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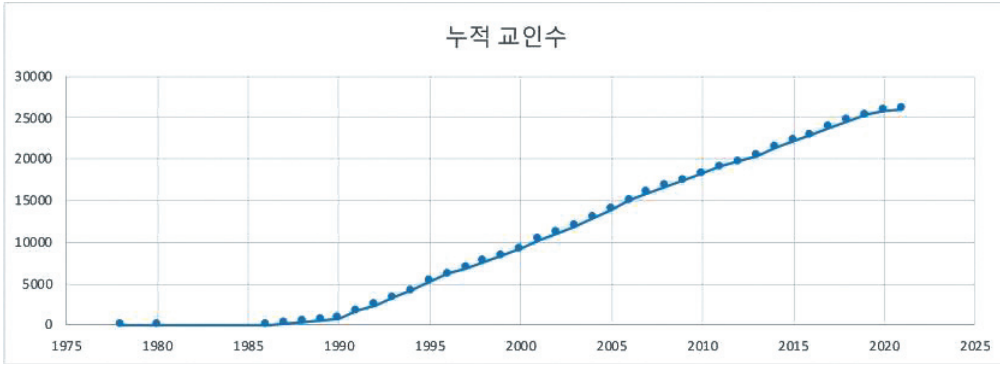
4. 교회 성장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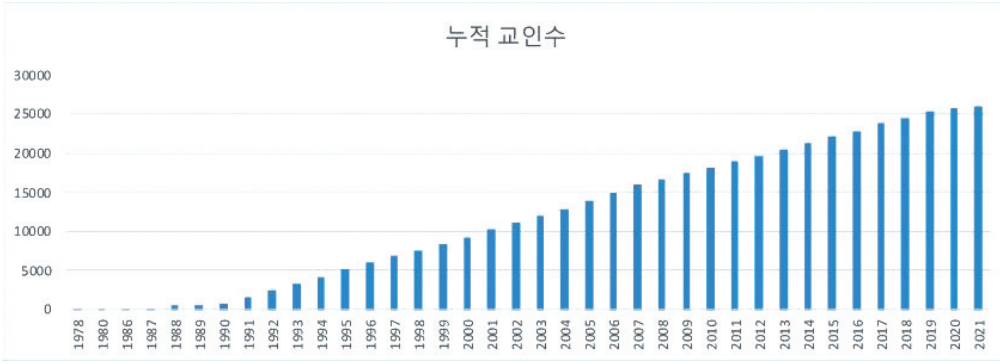
1. 교적상 성도수 데이터

(2021년 교적상 현재 출석교인(추정): 8,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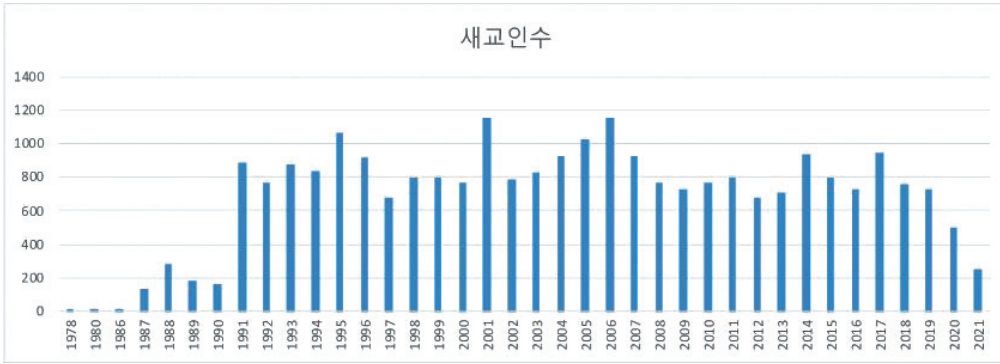
연도	새 교인수	누적 교인수
1978	15	15
1980	13	28
1986	12	40
1987	137	177
1988	284	461
1989	183	644
1990	162	806
1991	891	1,697
1992	770	2,467
1993	878	3,345
1994	835	4,180
1995	1,062	5,242
1996	918	6,160
1997	679	6,839
1998	796	7,635
1999	796	8,431
2000	767	9,198
2001	1,150	10,348
2002	784	11,132
2003	825	11,957
2004	924	12,881
2005	1,027	13,908
2006	1,156	15,064
2007	922	15,986
2008	765	16,751
2009	732	17,483
2010	764	18,427
2011	802	19,049
2012	676	19,725
2013	712	20,437
2014	938	21,375
2015	796	22,171
2016	731	22,902
2017	948	23,850
2018	755	24,605
2019	731	25,336
2020	503	25,839
2021	257	26,096

1976-2021년 교적상 총 출석교인(추정, 누적): 26,0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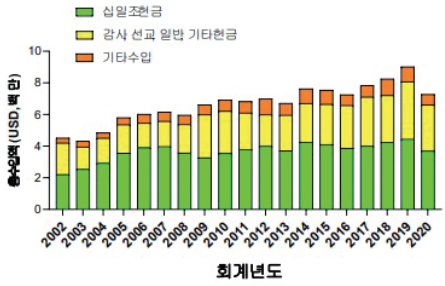


1976-2021년 교적상 연도별 새신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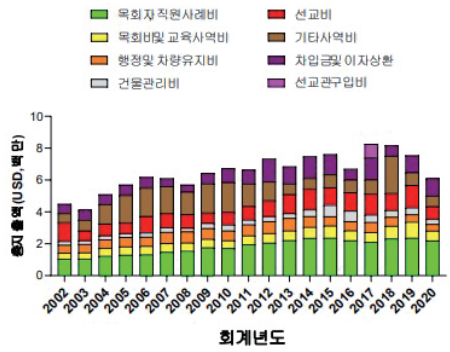


2. 재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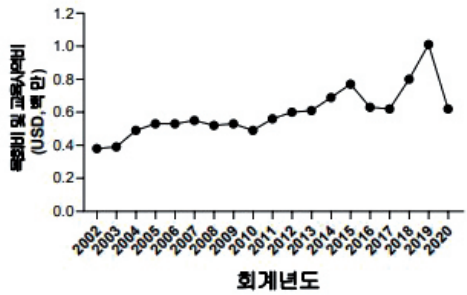
년도별수입 부문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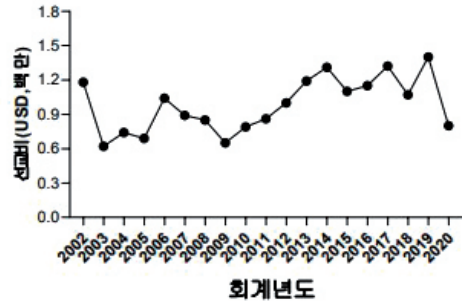
년도별지출 부문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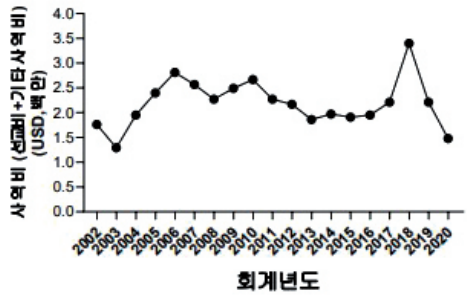
년도별목회 및 교육비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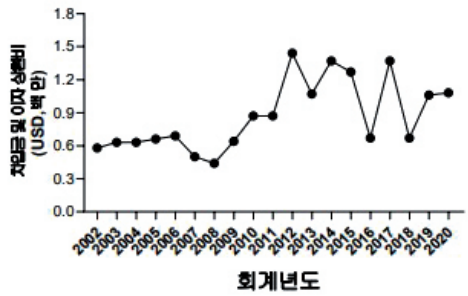
년도별선교비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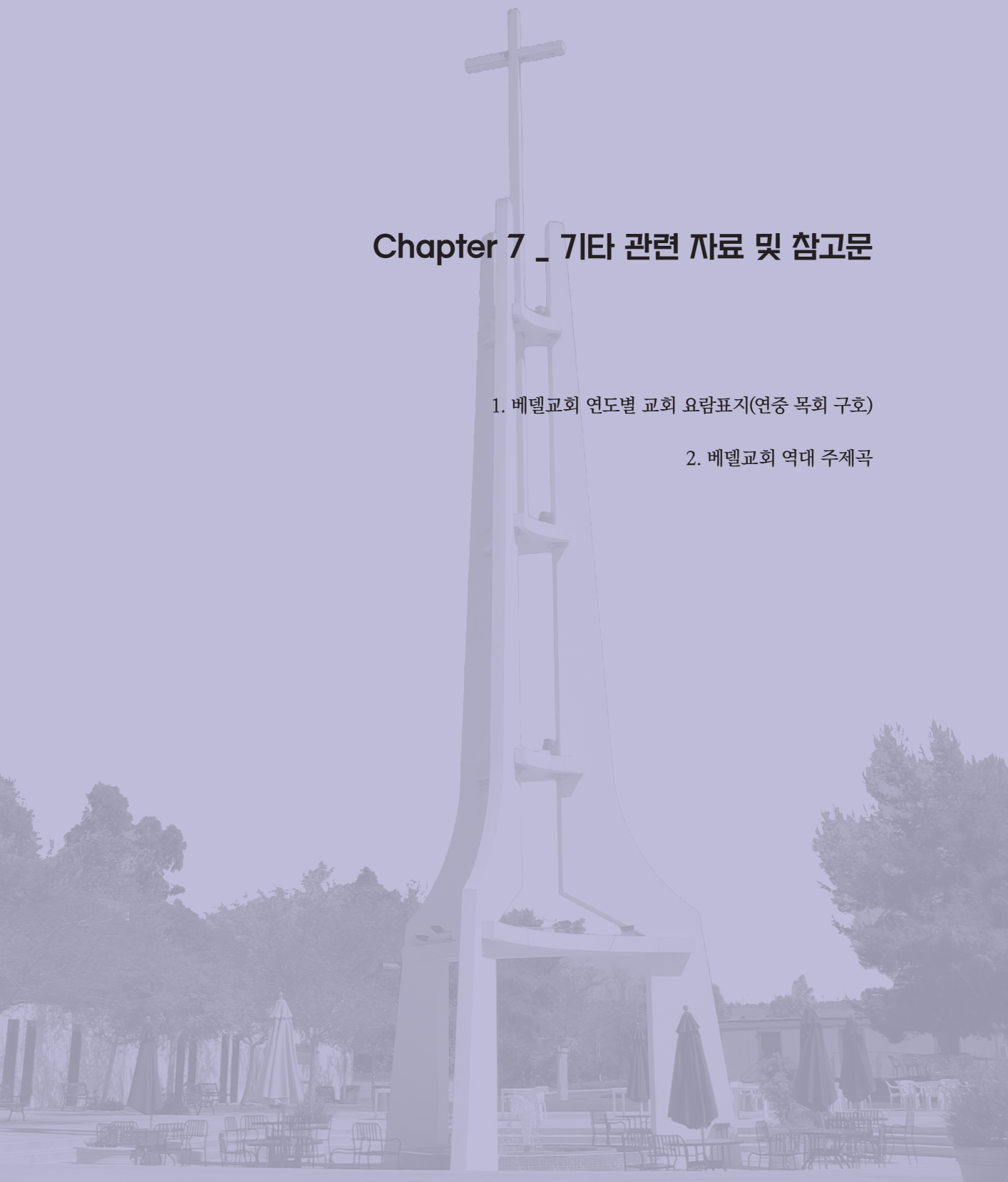


년도별사역비지출현황



년도별차입금및 이자상환현황





Chapter 7 _ 기타 관련 자료 및 참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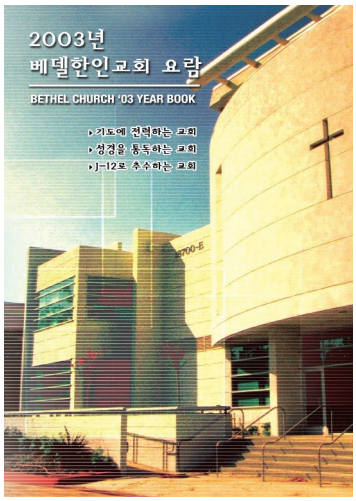
1. 베델교회 연도별 교회 요람표지(연중 목회 구호)

2. 베델교회 역대 주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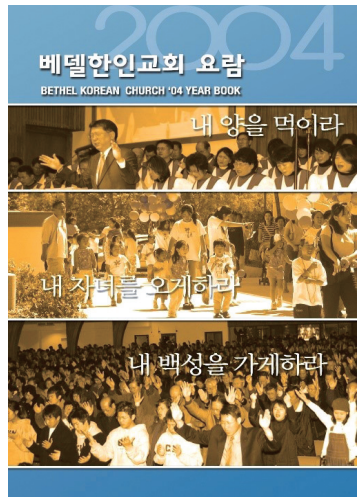
1. 베델교회 연도별 교회 요람표지(연중 목회 구호)

교회 사진모음
https://bkc.smugmu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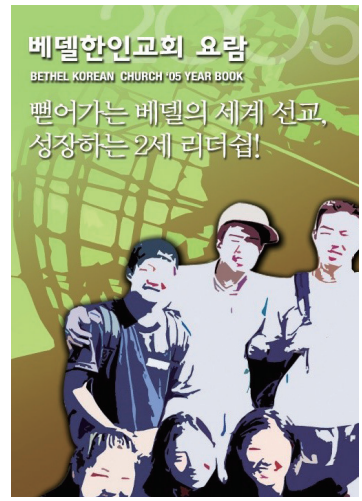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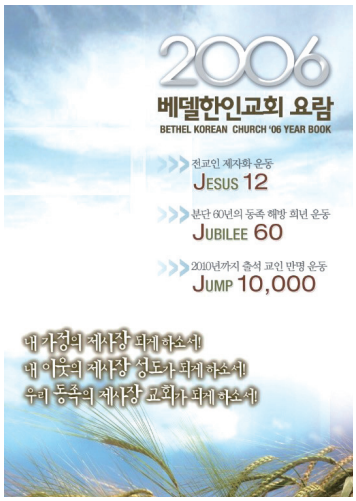
2004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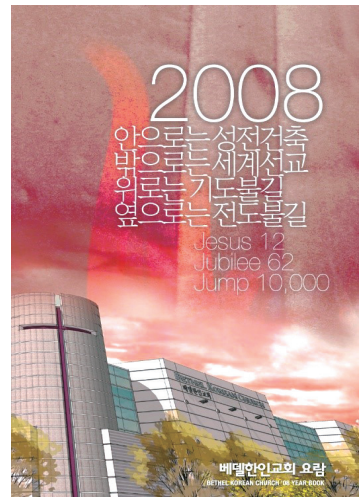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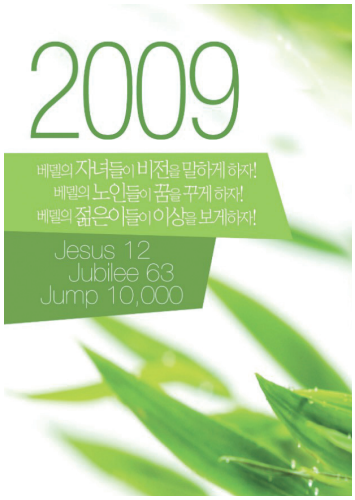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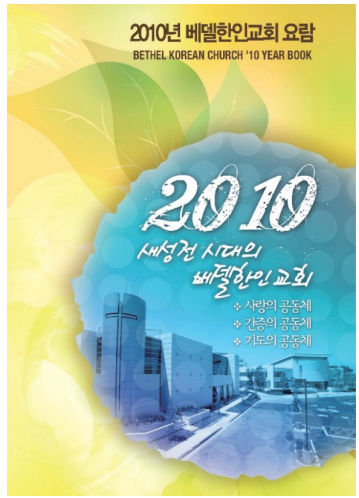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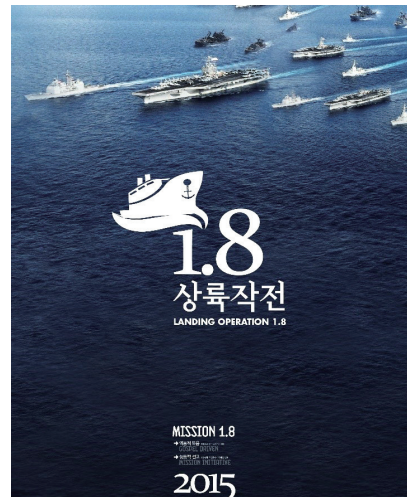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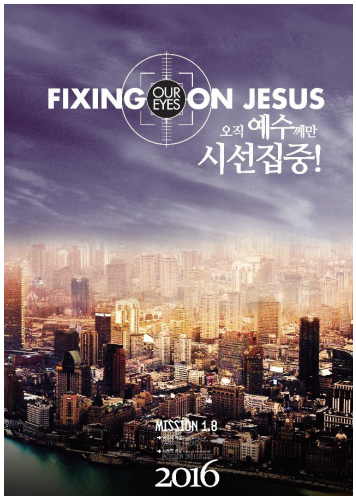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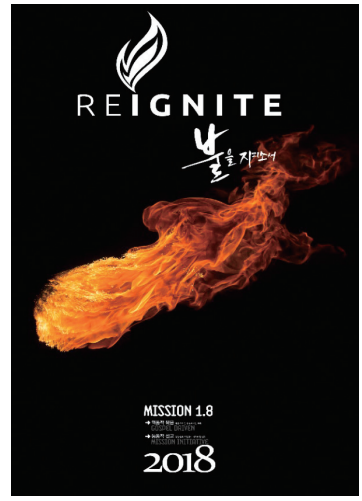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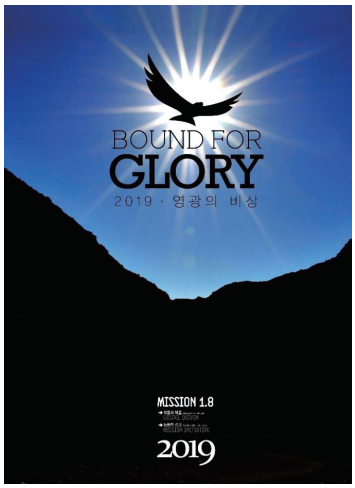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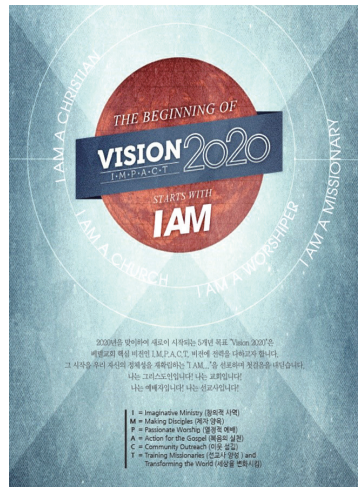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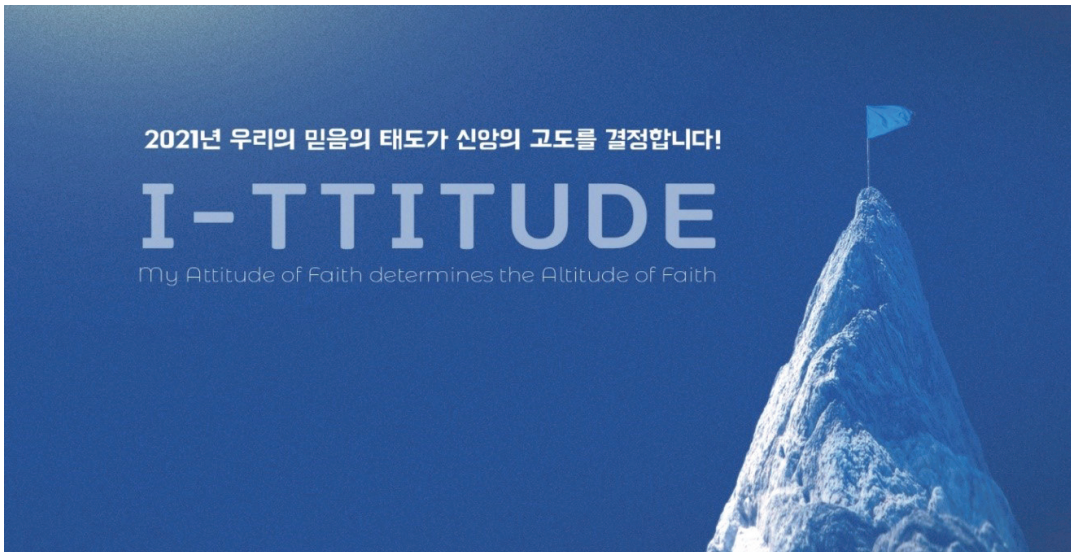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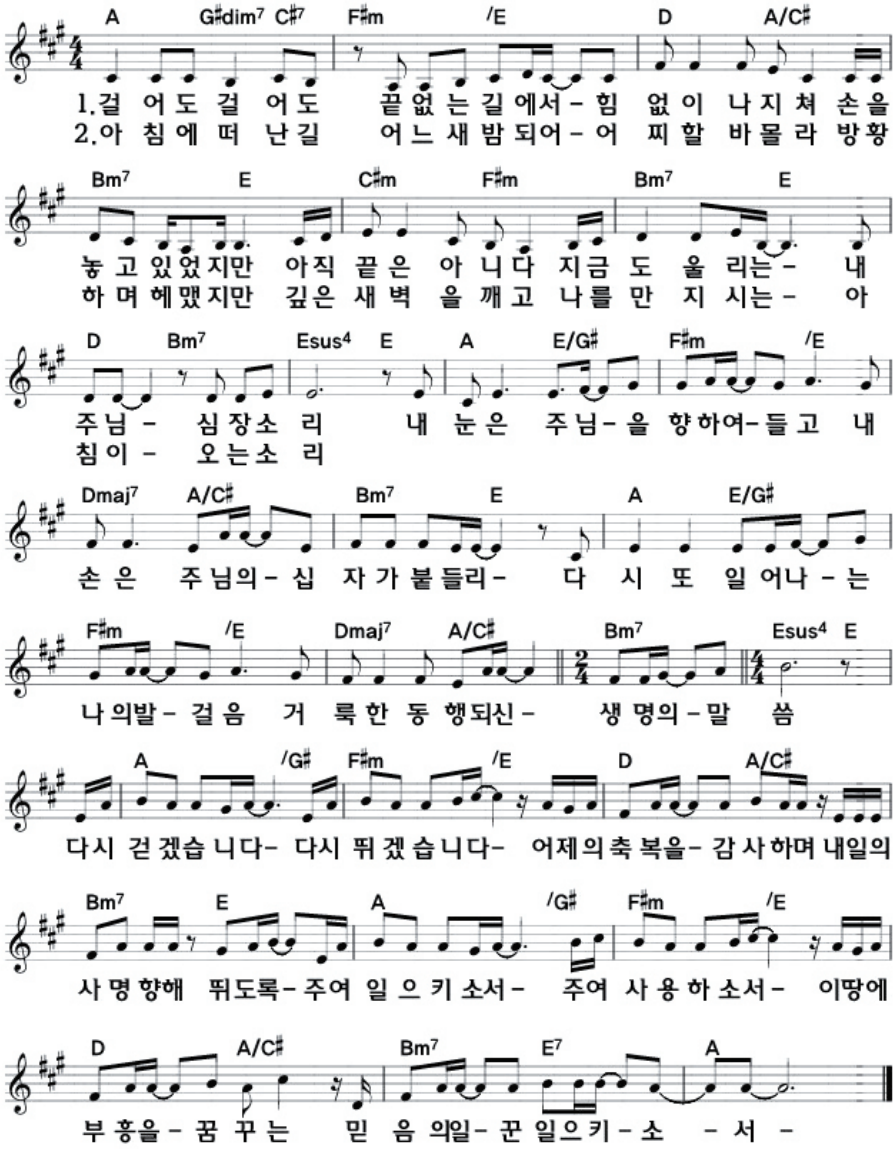
2. 베델교회 역대 주제곡

http://bkc.org/media/news/bkc-theme-song/

2014년도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김한요 작사
정유성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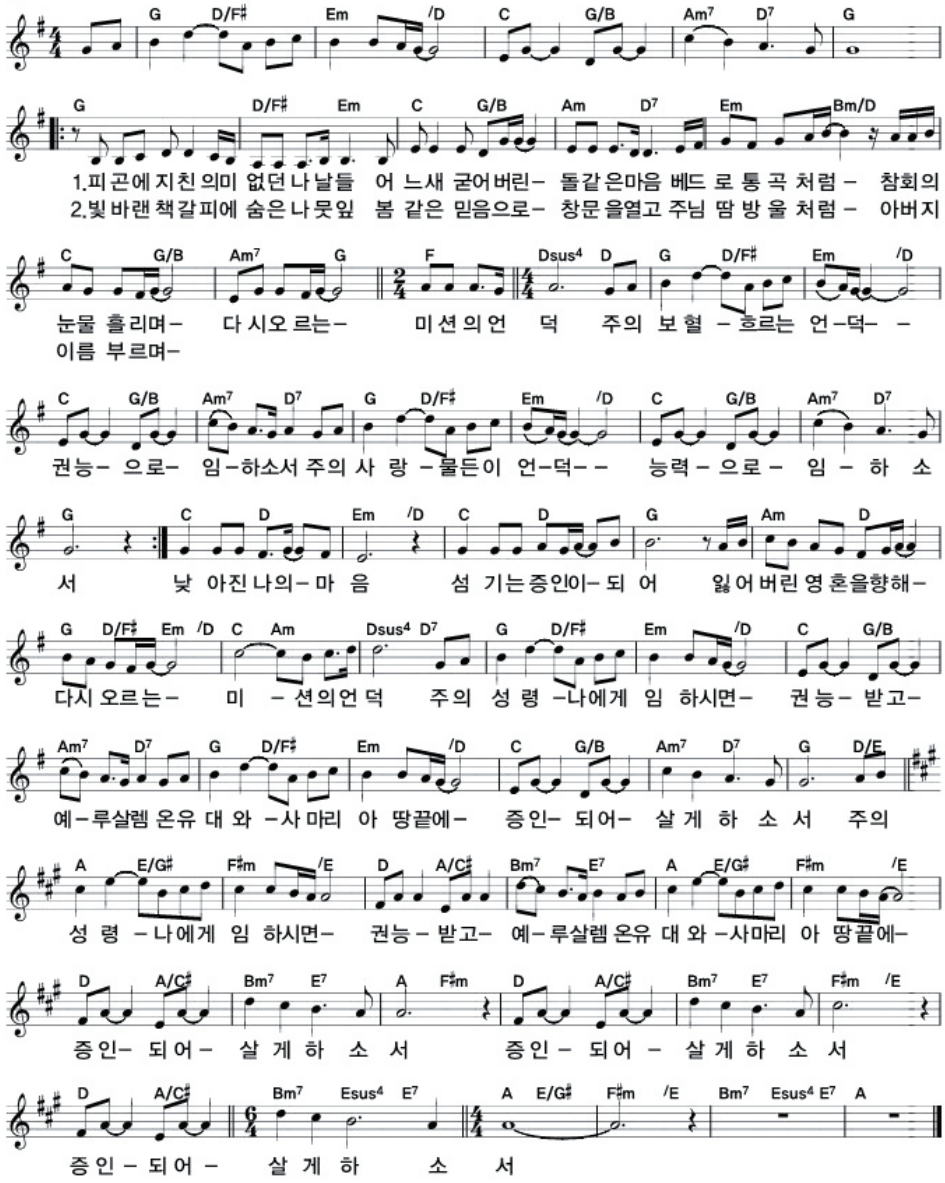


2015년도

미션의 언덕

김한요 작사
정유성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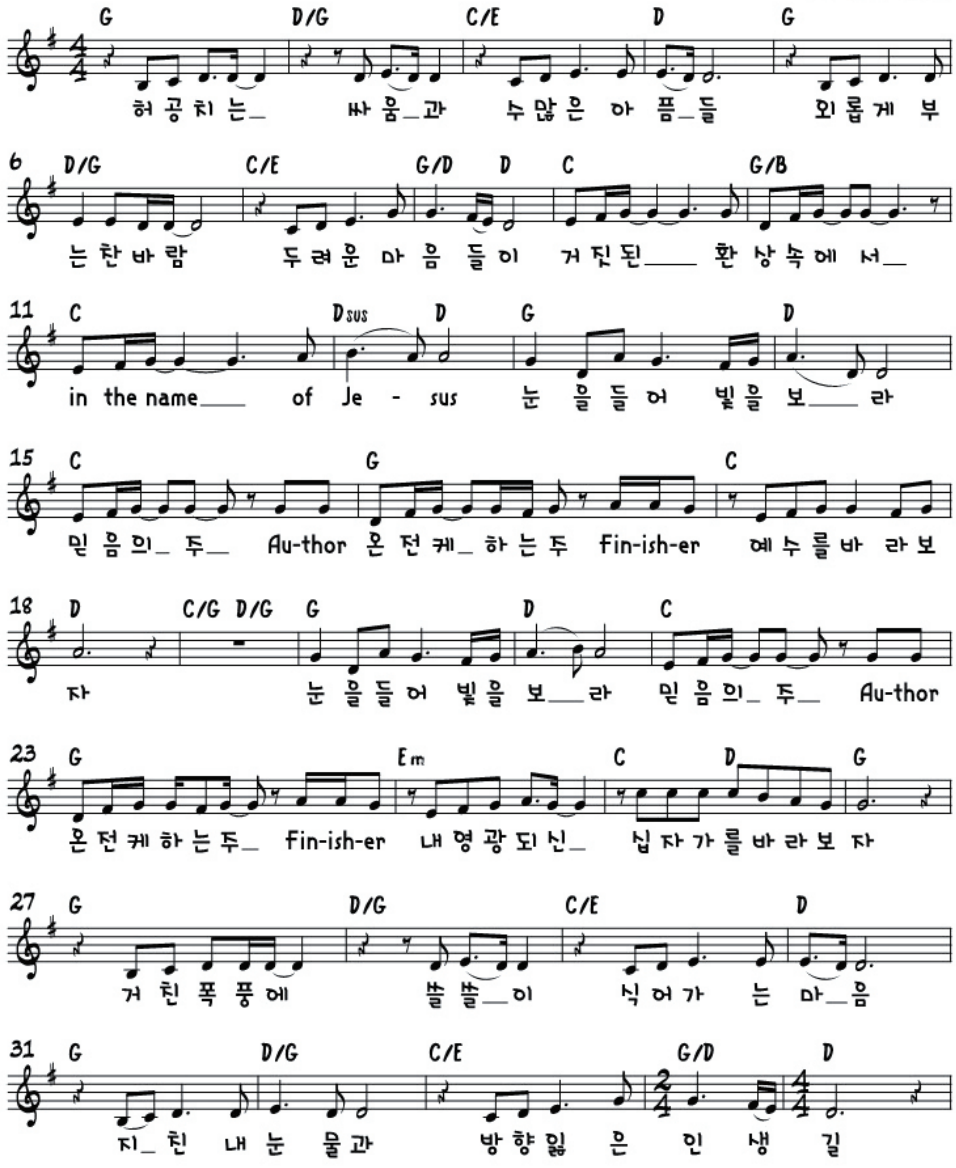
행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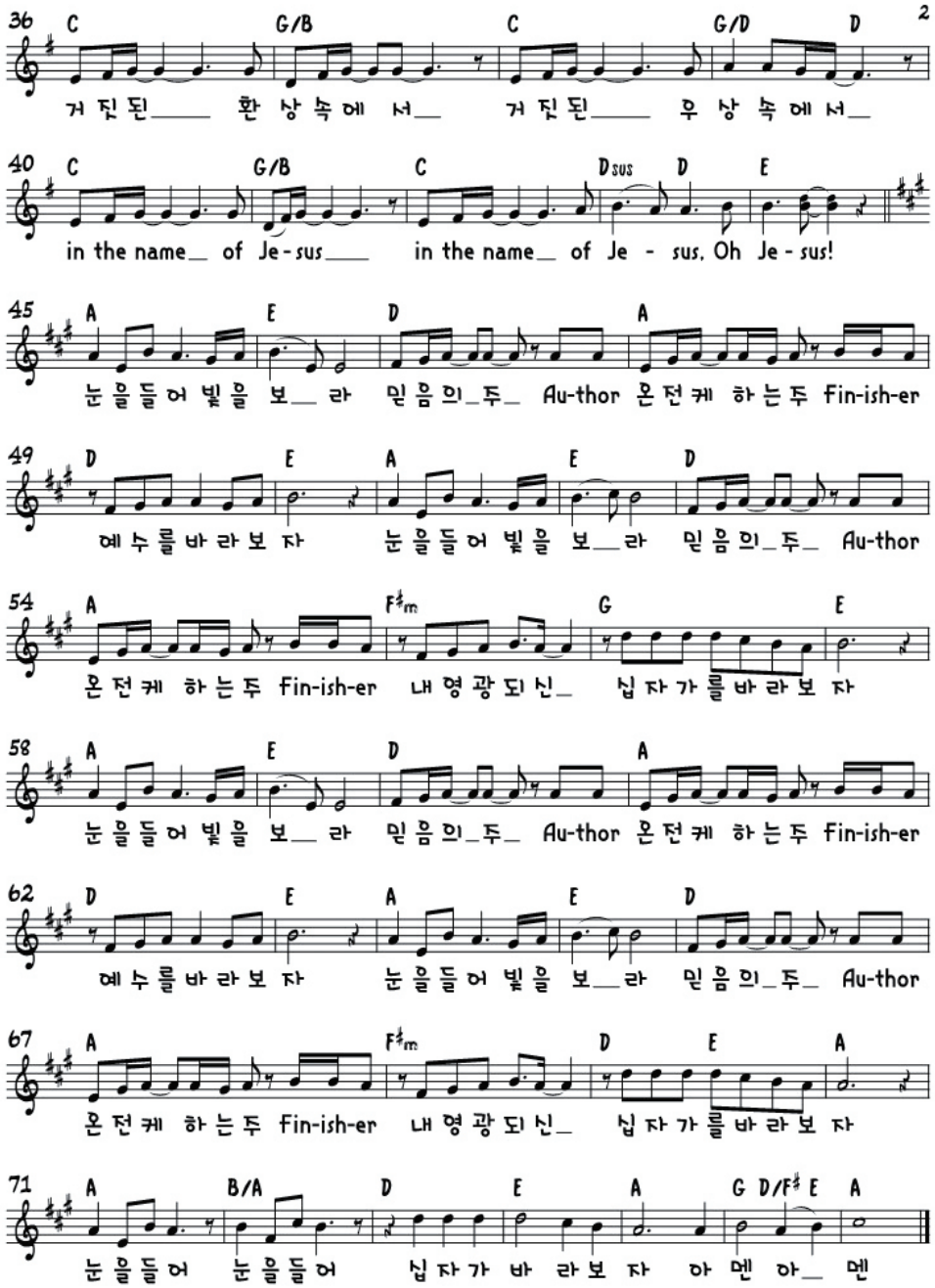
2016년도

눈을 들어 빛을 보라

Text by Bryan hanyoh Kim
Music by Elliott Bark



© 2015 by Bryan Hanyoh Kim and Elliott Bark
All rights reserved.


36 C G/B C G/D D 2
거 짐 된 환 상 속 에 서 거 짐 된 우 상 속 에 서
40 C G/B C Dsus D E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 - sus, Oh Je - sus!
45 A E D A
눈 을 들 어 빛 을 보 라 믿 음 의 주 Au-thor 온 전 케 하 는 주 Fin-ish-er
49 D E A E D
예 수 를 바 라 보 자 눈 을 들 어 빛 을 보 라 믿 음 의 주 Au-thor
54 A F♯m G E
온 전 케 하 는 주 Fin-ish-er 내 영 광 되 신 십 자 가 를 바 라 보 자
58 A E D A
눈 을 들 어 빛 을 보 라 믿 음 의 주 Au-thor 온 전 케 하 는 주 Fin-ish-er
62 D E A E D
예 수 를 바 라 보 자 눈 을 들 어 빛 을 보 라 믿 음 의 주 Au-thor
67 A F♯m D E A
온 전 케 하 는 주 Fin-ish-er 내 영 광 되 신 십 자 가 를 바 라 보 자
71 A B/A D E A G D/F♯ E A
눈 을 들 어 눈 을 들 어 십 자 가 바 라 보 자 아 멘 아 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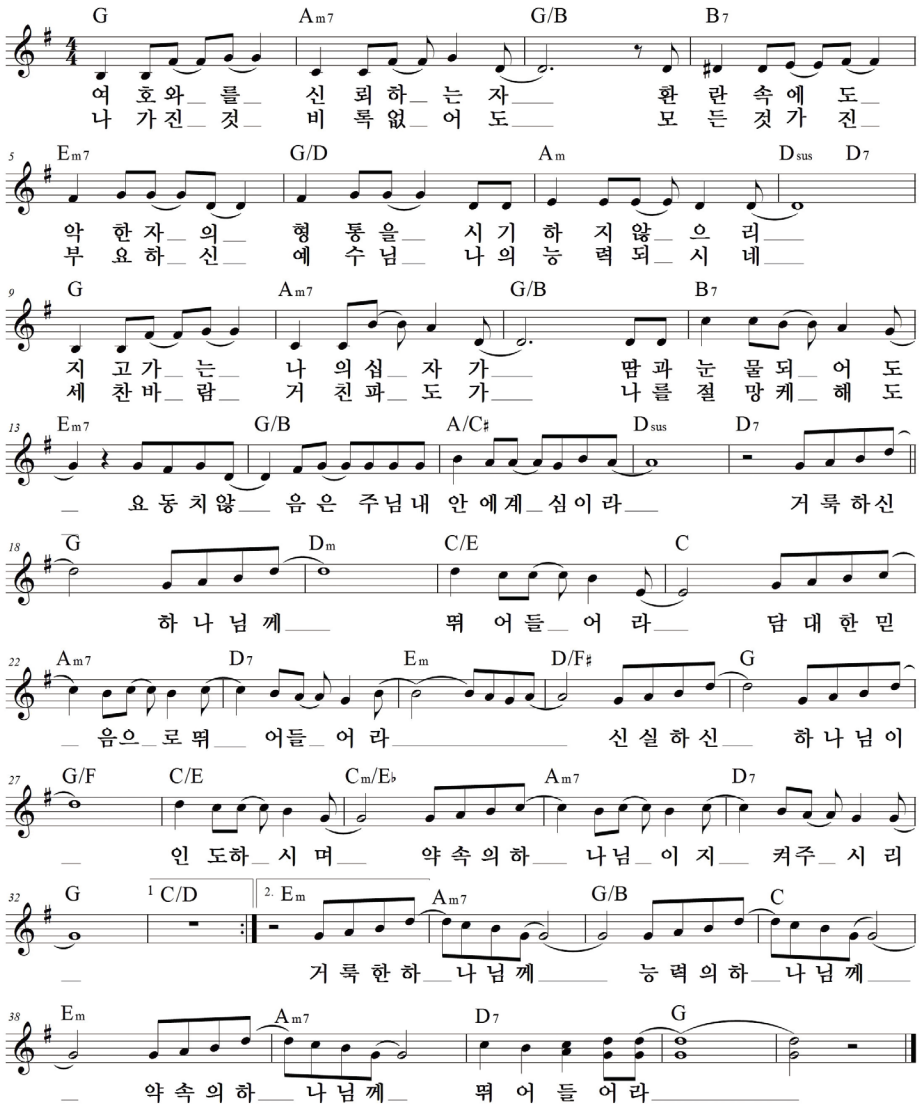
2017년도

하나님께 뛰어들어라

Dive into God, Palm 37

MM=130

Words by Bryan Hanyoh Kim
Music by Seoplee Stephen Kim



Copyright@2016 Bethel Worship

201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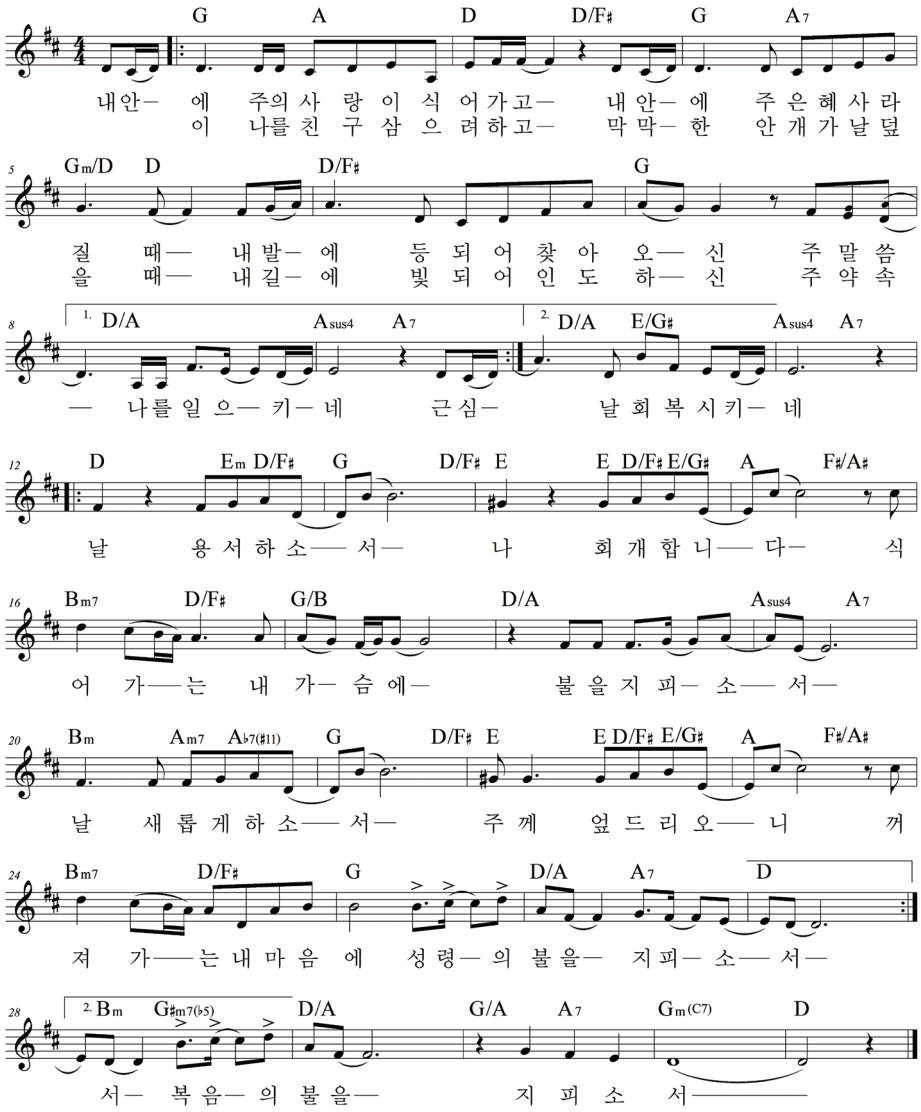
불을 지피소서

Reignite

베델한인교회 2018년 주제가

Words by 김한요
Music by 김섭리

Ballade ♩= 70



Copyright@2018 Bethel Worship

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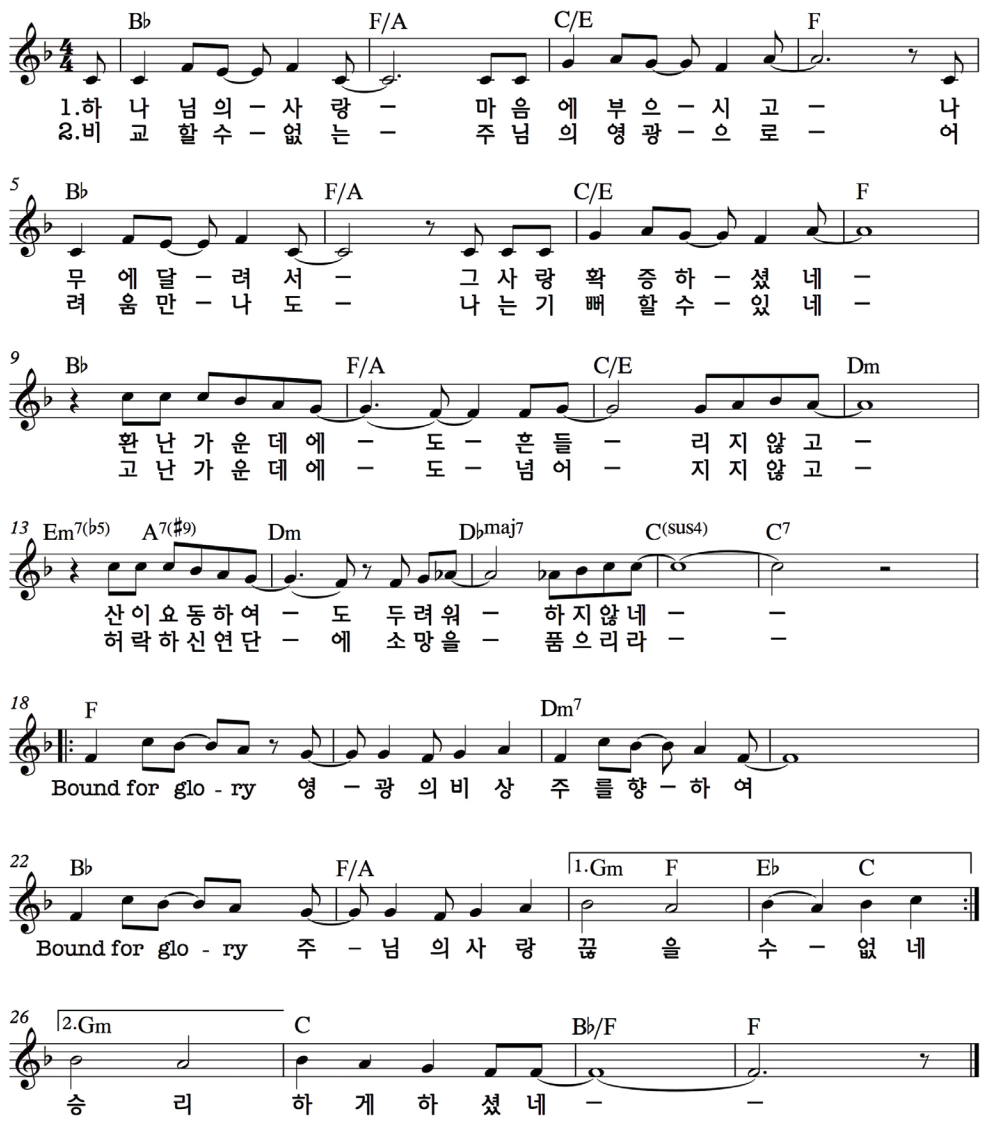
베델교회 2019년도 주제가

Bound for Glory

영광의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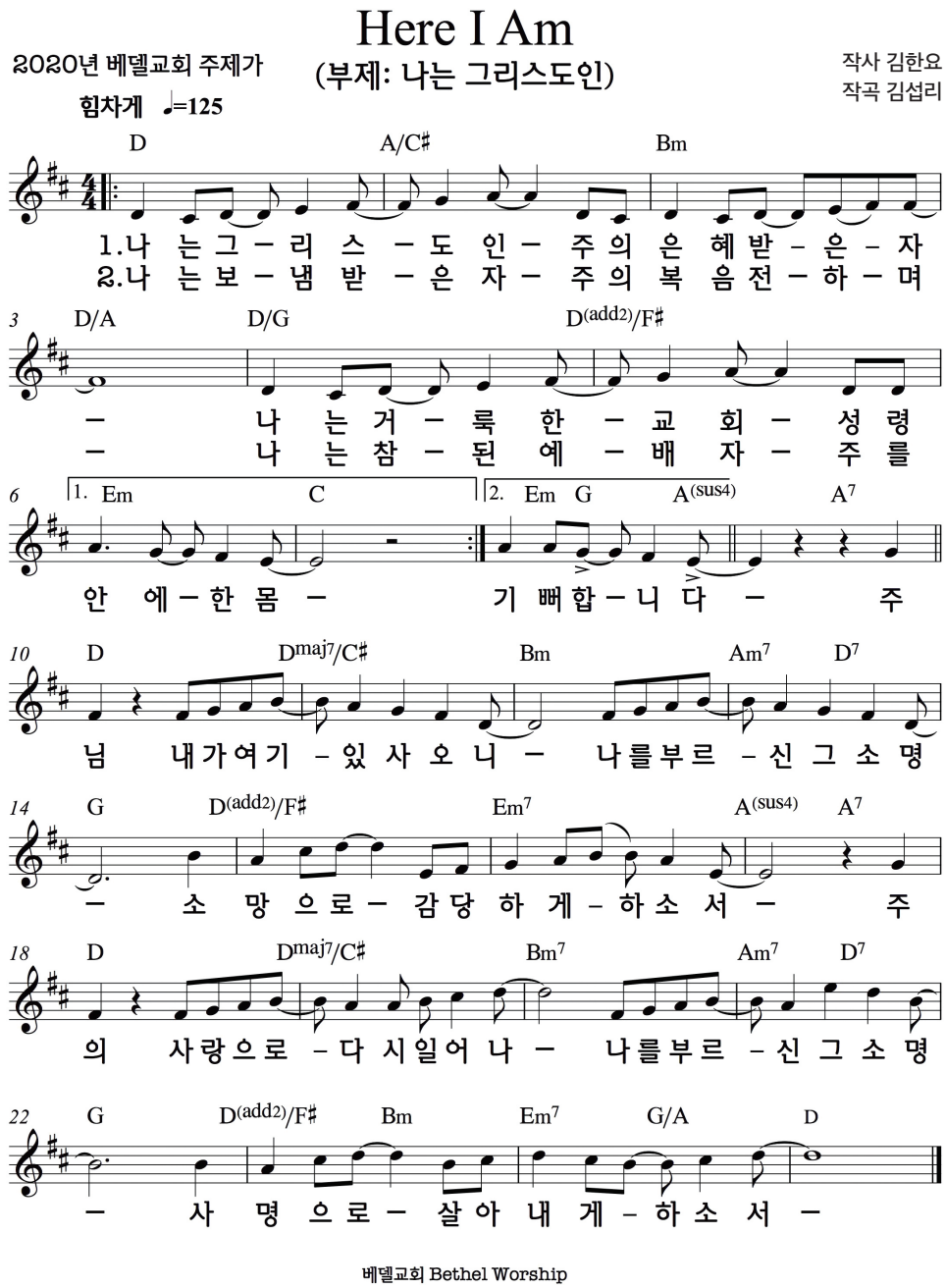
김한요 작사 / 김섭리 작곡

♩ = 130



베델교회 BETHEL WORSHIP

2020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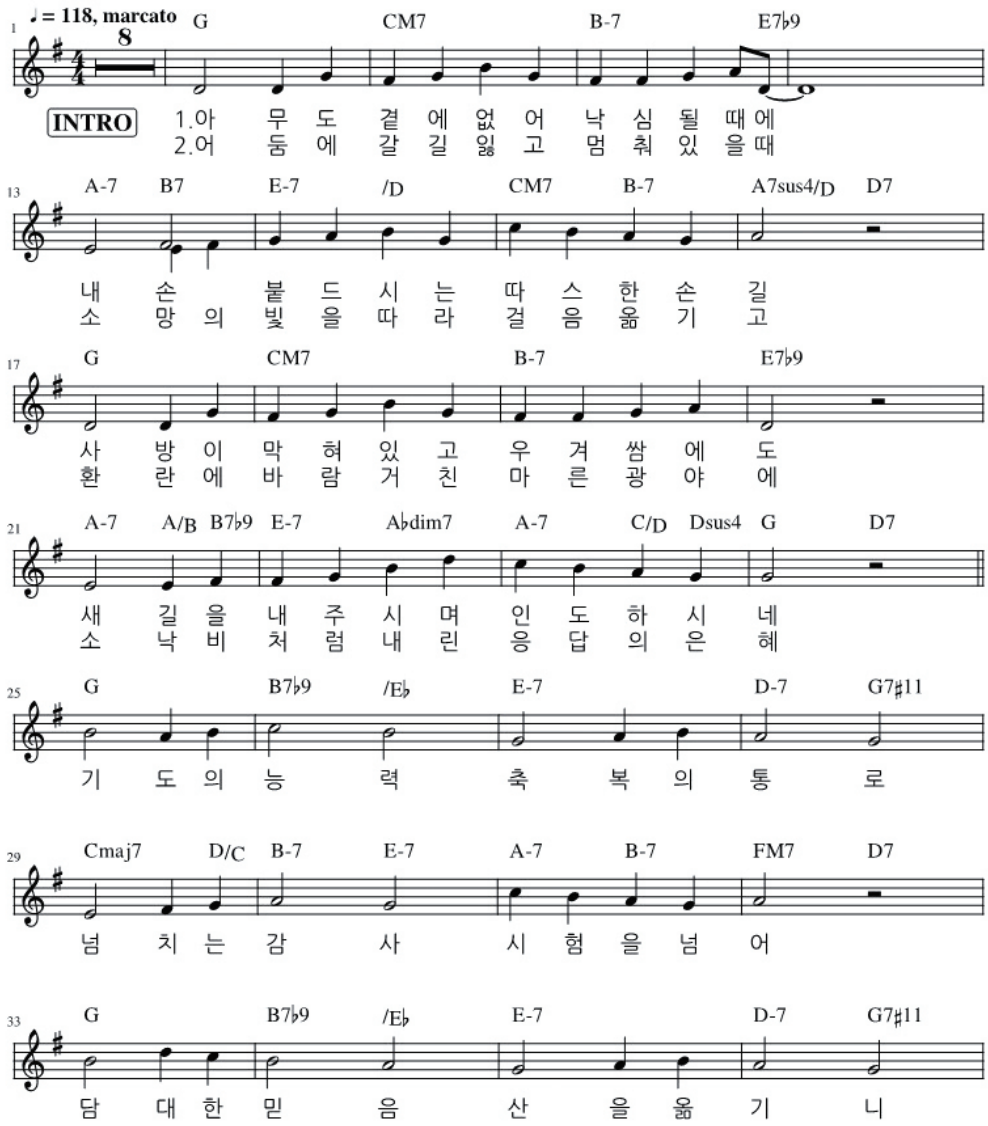
베델교회 Bethel Wo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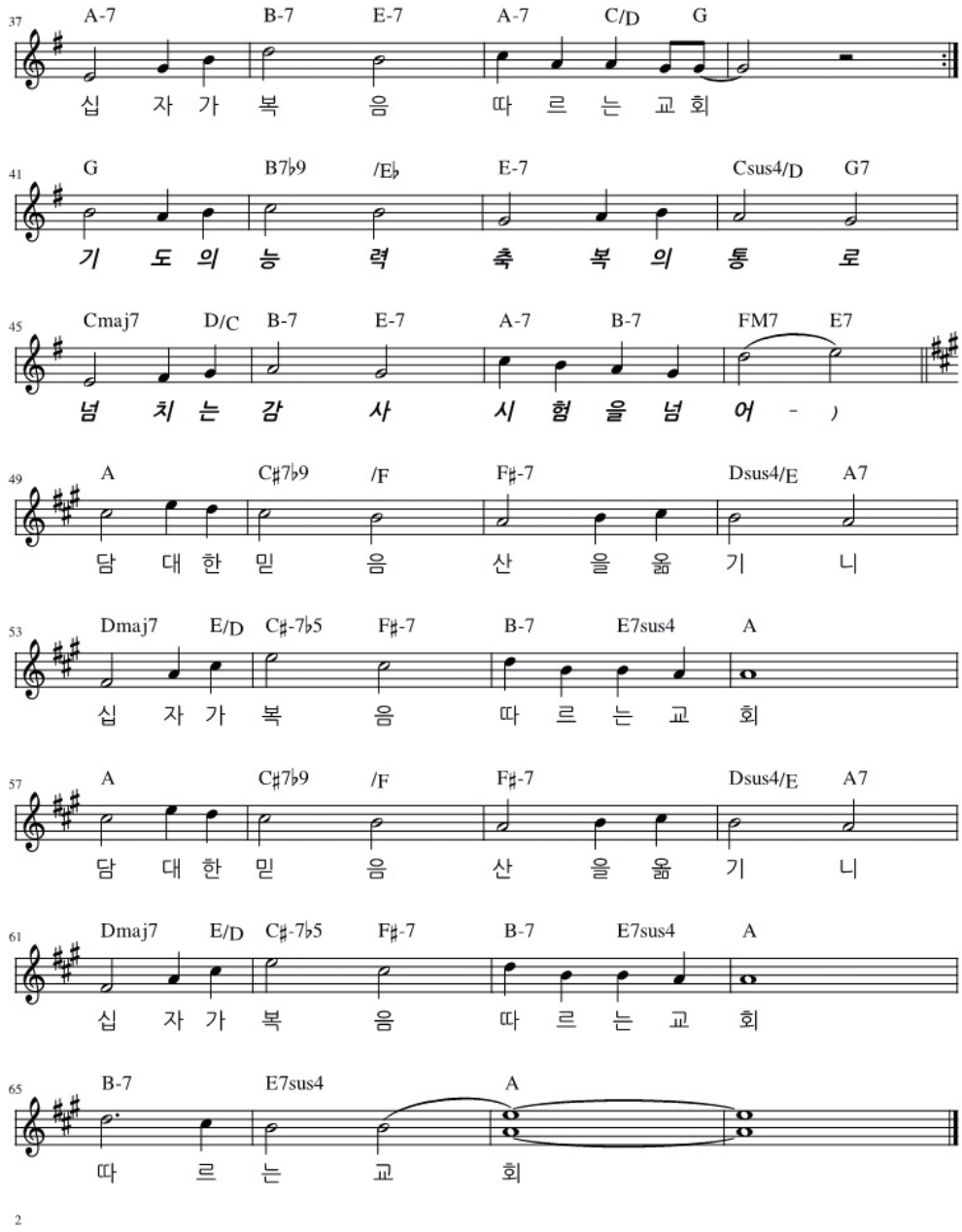
2021년도

믿음 in '21

작사 김한요
작곡 최철기

Bethel Church @ Irvine, CA.




37
A-7 B-7 E-7 A-7 C/D G
십 자 가 복 음 따 르 는 교 회
41
G B7♭9 /E♭ E-7 Csus4/D G7
기 도 의 능 력 축 복 의 통 로
45
Cmaj7 D/C B-7 E-7 A-7 B-7 FM7 E7
넘 치 는 감 사 시 험 을 넘 어 -)
49
A C♯7♭9 /F F♯-7 Dsus4/E A7
담 대 한 믿 음 산 을 옮 기 니
53
Dmaj7 E/D C♯-7♭5 F♯-7 B-7 E7sus4 A
십 자 가 복 음 따 르 는 교 회
57
A C♯7♭9 /F F♯-7 Dsus4/E A7
담 대 한 믿 음 산 을 옮 기 니
61
Dmaj7 E/D C♯-7♭5 F♯-7 B-7 E7sus4 A
십 자 가 복 음 따 르 는 교 회
65
B-7 E7sus4 A
따 르 는 교 회
2